

이의 제기 자료 2

2009년 9월

인촌기념회

차 례

1. 녹화, 녹음 증언

- 1) 이해복 전 대한언론인회 고문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9년 8월 26일 녹화)
- 2) 송방용 전 헌정회장
(연전 졸업, 2009년 1월 29일 녹화)
- 3) 이무연 전 효명중 교장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9년 8월 31일 녹화)
- 4) 권중혁 전 대구여상 교장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8년 12월 24일 녹화)
- 5) 윤석현 전 외무부 차관
(보전 졸업, 폐결핵으로 징집 면제, 2009년 7월 9일 녹화)
- 6) 최재동 1·20 학병동지회 사무총장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6년 3월 24일 녹화)
- 7) 문병윤 전 부통령 비서관
(보전 졸업, 징용 출신, 2004년 10월 28일 녹음)
- 8) 서태원 전 국회의원, 고일회 회장
(보전 졸업, 징병 출신, 2004년 11월 23일 녹화)
- 9) 김진웅 전 고려대 총장 서리
(보전 졸업, 2004년 12월 3일 녹화)

10) 김진섭 대한언론인회 자문위원(전 매일신문 기자)
(2009년 3월 19일 녹화)

11) 高一會(고려대 1회 졸업생 모임) 회원들
김진웅, 최재동, 이종재, 서정석, 김수명, 이종우
(2006년 9월 18일 녹화)

12) 장택상 전 국무총리
(동아방송 '정계야화' 1965년 2월 19일 방송)

13) 우승규 언론인
(1982년 9월 30일 녹음)

14) 에커트 美 하버드대 교수, '제국의 후예' 저자
(2005년 5월 30일 인터뷰)

15)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2009년 9월 7일 녹화)

16) 김성식 전 고려대 교수
(1982년 10월 22일 녹음)

17)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2008년 11월 18일 녹화)

2. 면담 증언

- 18) 이종찬 전 국정원장(2004년 9월 1일)
- 19) 김재순 전 국회의장(2008년 7월 15일 면담)
- 20) 이철승 전 국회의원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4년 7월 8일 면담)
- 21) 이종재 전 국회의원
(보전 졸업, 근로 동원, 2004년 10월 14일 면담)
- 22)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2006년 9월 22일 면담)
- 23) 박영호, 다석 유영모 선생 제자
(2006년 9월 12일 면담)
- 24) 김진섭 대한언론인회 자문위원(전 매일신보 기자)
(2005년 6월 17일, 2007년 9월 7일, 11월 19일,
2008년 7월 21일, 4차례 면담)
- 25) 최서면 선생
(2004년 9월 19일, 10월 18일, 11월 30일, 3차례 면담)
- 26) 한운사
(극작가, 학병 출신, 2007년 2월 6일 면담)

3. 참고 자료

- 27) 김수환 추기경
- 28) 김대중 전 대통령
- 29) 이승만 전 대통령
- 30) 신익희 전 민의원 의장
- 31) 조병옥 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 32) 김병로 전 대법원장
- 33) 허 정 전 국무총리
- 34) 이범석 전 국무총리
- 35)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 36) 서상일 전 국회의원
- 37) 이강훈 전 광복회장
- 38) 이희승 선생
- 39) 이은상 선생
- 40) 서정주 시인
- 41) 손기정 선생
- 42) 서윤복 선생
- 43)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 44)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
- 45)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 46)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 47) 이정식 美 펜실베니아대 명예교수
- 48) 김중순 박사
- 49) 표정훈 출판평론가
- 50) 이근진 선생
- 51) ‘민족지로 키워온 사람들-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좌담회’
 - 최승만
 - 서항석
 - 유광렬
- 52) 방규식 김택균 이용훈
- 53) 김을한 전 언론인

- 54) 한만년 일조각 설립자
- 55) 김장수 선생
- 56) 이상돈 전 국회의원
- 57) 양환철 선생
- 58) 유달영 박사
- 59) 양회영 선생
- 60) 오상직 선생
- 61) 김소희 선생
- 62) 김소희 선생
- 63) 장덕희(장덕수 선생 여동생)
- 64) 현영원 선생
- 65) 민족정경문화연구소
- 66) 임종국 선생
- 67) 김남식 선생
- 68) 이만규 선생
- 69) 김준연 전 국회의원
- 70) 김두한 전 국회의원

4. 인촌 김성수 선생이 한 일

(1) 독립운동지원

- 71) 이강훈 전 광복회장
- 72) 구익균 선생
- 73) 김기진 전 경향신문 주필
- 74) 서병조 전 연합신문 편집부국장
- 75) 不逞團 關係 雜件-朝鮮人の 部-在西比利亞 8
- 76) 우남 이승만 문서
- 77) 김을한 언론인
- 78) 윤치호의 생애와 사상
- 79) 이정희 - 도산여록
- 80) 이만열 - 백범일지
- 81) 신용하 - 백범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
- 82) 동맹휴교사건재판기록 II
- 83) 중국지역독립운동재판기록 II
- 84) 김호일 - 한국근대학생운동사
- 85) 경고특비(京高特秘) - 연희전문 동지회 흥업구락부 관계보고
- 86) 경성고보교원양성소 내 비밀결사 검거

(2) 3·1운동 거사 계획 참여

- 87) 현상윤 '3·1운동 발발의 개략'
- 88)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 89) 이병헌 전 천도교 중앙본부 직원
- 90) 독립운동사 제8권 : 문화투쟁사
- 91) 독립운동사 제3권 : 3·1운동사
- 92) '1999년 2월의 독립운동가 - 송계백'
- 93) 독립운동사자료집 5 : 3·1운동 재판기록
- 94) 대한민국독립유공자 공훈록

- 95) 47인 예심결정서
- 96) 딸깍발이 선비, 일석 이희승 선생 추모문집
- 97) 고하 송진우 선생전
- 98) 최형련 전 중앙고등학교 교장
- 99) 이현희 - 일제시대사의 연구
- 100) 6·10만세 운동 격문

(3) 민족문화사업지원

- 101) 김선기 선생 - 한글 맞춤법과 인촌
- 102) 한글학회 50년사
- 103)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 한글학회
- 104) 이희승 선생
- 105) 허 응 선생
- 106) 이병도 선생
- 107) 독립운동사 - 진단학회
- 108) 독립유공자공훈록
- 109) 독립운동사 - 조선기념도서 출판관
- 110) 학생독립운동사 - 조선물산장려계
- 111) 여자 야학과 독지가
- 112) 오산고보의 찬연한 부흥

(4) 중앙학교, 보성전문 통한 인재 육성

- 1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 한일관계자료집
- 114) 독립운동사 제9권 : 학생독립운동사
- 115) 유 흥 전 유관순 기념사업회장
- 116) 신도성 전 국토통일위원장
- 117) 김승문 선생

(5) 동아일보 발행 통한 언론 투쟁

- 118) 최두선 선생
- 119) 이강훈 전 광복회장
- 120) 김성수 선생 - 난관은 두 가지
- 121) 윤치호 일기
- 122) 김일성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 123) 이희승 선생

(6) 경성방직 설립

- 124) 조기준 - 한국자본주의 발전사
- 125) 주익중 - 대군의 척후 - 일제하 경성방직과 김성수, 김연수
- 126) 경방 80년, 1919~1999년

5. 추모의 글

- 127) 한국일보 1955년 2월 20일자 사설,
‘인촌 선생 서거의 비보를 듣고’
- 128) 경향신문 1955년 2월 20일자 사설, ‘弔 인촌 김성수 선생’
- 129) 평화신문 1955년 2월 20일자 사설,
‘故 인촌 김성수 선생을 뜻함’
- 130) 자유신문 1955년 2월 20일자 사설,
‘김성수 선생의 長逝를 애도’
- 131) 중앙일보 1955년 2월 20일자, 天地片片
- 132) 중앙일보 1955년 2월 21일자 사설,
‘김성수 선생의 서거’
- 133) 연합신문 1955년 2월 21일자 사설,
‘인촌 선생의 長逝를 뜻함’
- 134) 국도신문 1955년 2월 21일자 사설, ‘哀哭 인촌 선생’
- 135) 충북신보 1955년 2월 21일자 사설,
‘인촌 선생 長逝를 弔함’
- 136) 서울신문 1955년 2월 22일자 사설,
‘인촌 김성수 선생의 서거를 애도함’
- 137) 전남일보 1955년 2월 22일자 사설,
‘인촌 선생의 영면을 弔함’
- 138) 민주신보 1955년 2월 23일자 사설, ‘弔 김성수 선생’

- 139) 조선일보 1955년 2월 24일자 사설,
‘인촌 김성수 선생의 국민장’
- 140) 대구매일 1955년 2월 24일자 사설,
‘故 인촌 선생을 애도함’
- 141) 대전일보 1955년 2월 24일자 사설,
‘인촌 선생의 국민장에 際하여’
- 142) 자유민보 1955년 2월 24일자 사설,
‘弔, 故 김성수 선생의 靈’
- 143) 경제일보 1955년 2월 25일자 사설,
‘故 인촌 선생의 경영정신을 模範하자’
- 144) 조선일보 1955년 2월 26일자, ‘인촌 선생을 추모’ (洪曉民)
- 145) 김창숙(金昌淑)
- 146) 이범석(李範奭)
- 147) 지청천(池青天)
- 148) 곽상훈(郭尙勳)
- 149) 흥사단(興士團)
- 150) 최남선(崔南善)
- 151) 최현배
- 152) 이희승(李熙昇)
- 153) 조지훈(趙芝薰)
- 154) 박두진(朴斗鎭)

1. 녹화, 녹음 증언

1) 이해복 전 대한언론인회 고문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9년 8월 26일)

- 보성전문 들어가서 인촌 선생을 뵈었어요. 그땐 고려대 전신이니까 교장 선생님이시죠. 그때는 아침에 조례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강단에 올라가서 연설하시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진행을 누가 하나면 아침 조례하는데 배석 장교가 있는데 한국인 출신으로 예비역 중좌도 있었고 예비역 대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재미나는 것은 가마모토라고 중좌인데 예비역으로 일본말 잘 못해요. 그 사람이 중좌인데도. 그래가지고 폭탄을 ‘바꾸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말로. 한발이 터지면 배석 장교가 “입방”이라고 하고 그렇게 서둘러요. 교장 선생님은 한번도 교단에 올라와서 연설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아침 조례할 때 보면 여름철에는 교정에 풀이 많잖아요. 천천히 돌아다니시며 잡초를 뽑으시더라고. 아무 말도 없이. 그 분이 무슨 학병 강제로 끌려 나갈 때 학생들한테 학병을 권유했던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만부당한 일이에요. 도대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하시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학병 지원한 사람들을 학교에서 송별회죠. 일본사람들은 장행회라고 하죠. 보전에서 하는데 그때 지금의 중앙대학, 중앙보육학원이라고 여학생들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노래하고 나서는 교수들이 몇 분이 나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촌 선생이 말씀하거나 한 것은 없고. 제 기억에는 두 분이 기억에 남는데 안호상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너희들이 큰 장작더미를 태우는데 관솔불이 되라, 무슨 철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희생이 돼서 무엇을 해라 그런 말씀인데 뚜렷한 의미는 그땐 해석할 수 없었고, 또 한 분은 김동석 선생, 그 분은 영어 교수죠, 중앙고보 출신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한 말, 뭐라고 하셨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짐을 잔뜩 진 당나귀나 마찬가지다. 내가 또 한마디 하면 거기다 지푸라기 하나 더 얹어주는 격인데 주저앉을 것 같다. 얘기 안하겠다, 그만두겠다고 하셨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날 학생들이 끝나고 나도 선동을 했죠. 야! 학병 나가라는데 개성서는 학병 지원하는 사람들이 가두에 나가 행진했다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도 나가자 보전 마당에 장작불을 펴놓고 짐을 치고 기세를 올리면서 나가려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흥분하니까. 그러는데 인촌 선생이 그때 오셨어요. 단상에 올라서며 너희 맘을 잘 안다. 지금 나가면 희생만 크다. 자제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만 안 했어요. 그때 나가면 흥분하니까 데모가 되죠. 문제가 생기는데.

- 학교에서 장행회 한 것 하고 또 한번 부민관이라고 서울시의회 의사당 거기서 제 네들이 환송회를 했어요. 전체 학병 나가는 사람 장행회죠. 나와서 떠드는 것 뭐 들려요. 그때 조병상이란 사람 있어요. 창씨명이 하산무, 나쓰야마 시게루예요. 그 사람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서울경방단장도 하고 그 아드님이 우리 친구예요. 친구인데 법전 다니다 서울법대 전신이죠, 거기 땡기다가 지원병을 갔어요. 갔다 와서 장학회 하는 날 연설해요. 내가 군대 갔더니 이렇게 좋다고 체중이 늘었다고. 그리고 김생려(金生麗) 씨라고 바이올린 하는 연세대 교수가 있어요. 명곡을 말하자면 클래식을, 바이올린 하잖아요. 죽으려고 끌려가는데 명곡이 뭐가 필요 있어 막 소리 질렀지. 집어 쳐, 양산도 양산도 그러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기억이 나죠. 그날 밤에 환송회하는 날 부인관 화장실에서 폭탄이 터지고 그랬다고 해요.

- 나는 학교에서 그런 걸 전달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로 해서 압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족한테 압력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나가면 우리 집안이 전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진도 가지고 있지만. 지원했다는 것을 동회장이 와서, 동회장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와서 하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하면 가족을 못살게 구니까. 학교서는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것을 의논할 수가 없고, 누구도 애길 터놓고 못하죠. 잘못하면 저거하니까. 학교의 교수님들도 말을 못하죠. 당장 학교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럴지 알아도 노리고 있는데 못하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더군다나 학병 나가라 이런 권고 받은 적이 없어요.

- 이걸 전연 모를 일이고요. 그때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민특위 때 박흥식 화신상회 사장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한국 실업인으로서 유일하게 일본 소화 천황이 접견했습니다. 한국의 실업가로는 단 한사람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만나고 나와서 기자가 물었어요.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신문에 나기는 이렇게 낯단 말이에요. ‘폐하의 적자’, 붉을 적(赤)자 아들자(子), 적자라는 것은 신하가 말할 때 아들이라 그거죠. 친근하게. ‘폐하의 적자 운운’ 얘기했다고 매일신보에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민재판특위 때 박흥식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일본 천황이 접견한다고 해서 만나고 나오는데 기자가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서 알아서 쓰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맘대로 쓴 것이지,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기자들이 알아서 쓴 거다.” 그거예요.

- 그 당시 매일신보가 총독부 기관지 아니예요. 한글로 나오는. 거기 있는 기자들이 가서 제대로 말도 안 듣고 막 써 제키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만일 이런 게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 안했더라도 가서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봐요.

- 정치적 입장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 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바꿀 수는 없거든. 나는 있는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그냥 어떤 상상이라든가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막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진실을 얘기해야죠. 진실을 얘기해야지 이걸 역사적 상황이 변화했다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안 되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나는 느낀 대로 내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 나는 그거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려면 아니, 인촌 선생이 하려면 학교에서 조례시간이구 얼마든지 학생들 모여 있는데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 일체 교장 선생으로 계실 때 내가 조례할 때 한번도 연단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학병을 권유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학병 대상자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하지 왜 딴 데서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딴 데 나가 말씀할 정도면 거기서 하지, 한번도 없어요. 도대체 교장 선생님은, 인촌 선생님은 연단에 올라가서 말씀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부의 대상자가 거기 있는데 권유할 의사가 많으면 거기서 하지 왜 딴 데 가서 합니까. 말이 안 돼요.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2) 송방용 전 헌정회장

(연희전문 졸업, 2009년 1월 29일)

- 인촌 선생 동상이, 조금 감정을 누르고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고려대학에서, 밧줄에 걸려서 학생들에 의해서 내려질려는 걸 보면서 이게 이게 무슨 일이나 하면서 통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젠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손기정의 그 일장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 걸 내가 알기로는 이길용 기자가... 이길용 기자죠? 맞습니까? 이길용 기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그 삭제한 걸로 되어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왜 이 얘기를 하나하면 인촌 선생을 그 뒤에 사람들 중에 친일파로 몰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동아일보에서, 이길용이 혼자 어떻게 일장기를 굶어내립니까? 뻔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야. 이 걸 훗사람들이 전 사람들의 공을 너무나 몰라주는 것,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가령 백관수 씨, 송진우 씨... 송진우 선생, 또는 장덕수 선생, 김병로 선생 그 사람들의 사랑채가 인촌 아닙니까. 계동에... 인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정신을 일으킨 산실이 바로 김성수 선생의 사랑방입니다. 또 그 양반이 음으로, 양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외국에, 일본이라든지 유학시킨 분도 그분이고요.

- ‘민족 반역자다, 친일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를 보지 않고, 산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를 가리키고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일본 사람이, 나가서 연설하라 그러면 연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강제지, 그 사람의 본 뜻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던져서 나라를 사랑했던 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다소 비판적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기도 어렵구요. 하여간 훌륭한 분입니다.

- 한민당을 내가 싫어합니다. 김성수 선생은 한민당을 초월해서, 민족의 공로자로서 내가 존경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성수 선생의 뜻도 아닐 거구요. 밑에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런 거죠. 대한민국은 역시 김성수 선생 같은 분들의 열의... 그 축적시킨 힘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죠.

3) 이무연 전 효명중 교장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9년 8월 31일)

- 징병령이 내리니까 학도 지원병이 내리니까, 학교가 엉망진창이고 학교 못 다니는 판이야. 군대 가라는 판이니 뭐 별집 쑤셔 놓은 거 마냥 제멋대로 떠드는 거지 뭐여. 그러다가 가느니 안 가느니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압력을 넣었을 것 아니야? 가도록 권유하라. 그러니까 교수들이 죽을 판이지, 뭐여. 권유할 수도 없고, 권유해도 갈 놈들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나오는 김성수 씨가 권유했다 안했다 하는데, 그때 학교를 누가 했냐 하면, 장덕수 씨가 학교의 흐름을 좌우하다시피 했어, 원래 달변이시고, 또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거기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이고 뭐고 학생들이고 뭐고 전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 김성수 씨는 언변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조회고 뭐고 나와 본 일도 없고, 전부 그 당시에 장덕수 씨가 거진 좌우하다시피 했지. 김성수 씨는 저기도 안했어, 도대체 그 양반은 학교 나와, 나는 본 일이 없어. 나오신 날은 그라운드 밖에 향나무가 쪽 심은데, 거기에 잔디를 뽑고 그랬어.

- 기고했다고 아마 난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얼음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기사야. 그러니까 아전인수라 해서 자기네가 유리하게끔 보도를 하는 거지. 학병을 이제 누가 권유했는데 어쨌느냐 이러는데, 그 판국에 권유할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저 아까 말했던 총독부에서 보낸 가와모토라는 교관, 이 사람이 학병을 가고 안 가고를 자기가, 지도하다시피 그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교수회 가서 한 놈도 있고, 그 교련 교관 가서 한 놈도 있고, 고향 가서 한 놈도 있고, 그렇게 3파로 내가 나뉘진 걸로 알아. 권유한 것은, 교련 교사 가와모토, 이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한 사람이야. 깍소리 못하고들 있는 거야, 소위 배운 사람이, 그 군국주의에 나가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건 상식이라도 얘기 안 되지. 자기들이 소위, 뭐라 그럴까,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가 반대되는 기사 거리만 가져왔다면 누가 좋다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전인수 격으로 뭘 해서 보냈겠지. 뭐.

- 징병검사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징병검사란 게 없어, 도대체가. 징병검사란 건 지원을 하잖아. 지원을 하면, 거기 부대에 가서 정식 조사를 했지. 가기 전에 우린 징병검사 받은 일 없어.

- 장학회. 강당에서 한 일 있어. 교수들도 바보고, 듣는 우리들도 바보여? 그때 교수들이 장학회라고 하니까 한마디씩 와서 특기 자랑할 것 아니야. 근데 이제 저기, 김, 누구야? 그 사람이 산타루치아 그거 한거 밖에 기억이 안나. 박극채 그 사람들이 바보야... 이제 얘기를 얼음하게 한 건데.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 했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박극채 같은 사람은. 아주 극좌사람이야. 그때도 이렇게 교수실에 보면 박극채, 함병업이, 김해균이, 박희선, 이

렇게 교수실에도 도서관에 보면 앉아서 차들 마시는 거 보면 그때 벌써 그룹이 돼있는데, 지금 생각해보기만.

4) 권중혁 전 대구여상 교장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8년 12월 24일)

- 제법 공부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하이스쿨 시험 친다고. 경성제대도 쳐 떨어졌고, 일본에 가서 하이스쿨도 쳐 떨어지고. 뭐 이래 됐는데. 재수하고 그다음에 서울 고려대학 보성전문 학교죠. 우리 들어갈 때는 보성전문학교도 10몇 대 11대 1인가 이리 됐어요. 상과 백 명, 법과 백 명, 두개 밖에 없었어요. 상과가 더 섰지. 그래 상과에 들어갔는데. 그거 밖에 없었으니까.

- 43년도인가? 41년도 졸업해 가지고. 내가 두 해 재수했나, 어떻게 됐나? 입학은 했는데. 그게 지금 고일회입니다. 서울에 고일회 요새 모이는 게, 우리 동기입니다. 하다가 43년도 12월 달에 학병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 지금도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로. 내가 10월말에 고향에 묘사 갔다가 올라오는데 대구 역에서 차표 사놓고 기다리는데, 사각모자 쓰고 대학생인데 담배를 그때 피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담배를 물고 피고 있으니까 한국사람 경찰인데, 키도 별로 안 큰 놈이 옆에 와서 내 신분증 보자 하는 거야. 그래 내 학생증을 보이니까 학병에 해당 되거든. 그 때는 학병 모집 신문에 나도 이름이 지원병인데 지원병 하는 거는 지가 스스로 가는 게 지원 아닙니까? 그렇지. 강제로 가는 건 없잖아요. 그때 그 당시 처음엔 그랬는데 내가 정세를 몰랐던 거지. 그때 하여튼 일본 놈들이, 총독이, 공과, 인문 계통만 해서 전문대학생을 한 4천 몇 명이 지원을 했는데 경찰서 끌려가고 결국 나중엔 강제로. 영일군 거기 해당자가 5명뿐인데 한날 한사람도 안 빠지고 다 결국 지원 시켰는데. 경찰이 '파출소 가자' 이래. 좀 가자. 왜 가느냐 내가. 차표 끊고 차 기다리는데 그놈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내가 볼 때 그 순경이 좀 신체 건장한 놈이었으면 내가 끌려갔을 거야. 신체가 조그만 놈이 자꾸 가자 그래, 내가 왜 가냐? 서울 차표 끊어 놔는데. 지금 지원 했냐? 서울 가 가지고. 학교가야 지원하지. 그래 이 자식이 자꾸 끌어. 강제로 끌지는 안하고. 지보다 내가 좀 더 세니까. 차표 시간이 되니까 개찰구까지 들어와 플랫폼까지 따라왔어요. 그래 뿌리치고 차에 올라왔거든요, 차안에 올라와서는 모자도 가방에 넣고, 배지도 다 떼고 학생 아닌 척 할라고. 식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하숙집에 갔는데 돈암동에 하숙집이 있었다. 그 친구도 해당이 되는데 그 친구하고 둘이 종로 3가에 서재균이라고 고일회 초대 회장한 친구인데, 한 3년 전에 죽었어요. 그 친구 하숙방에 떡 가니까 그 친구 자기 아버지가 대구에서 올라와 앉았는데, 뭐라 하나면, '재균아 네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러더라고. 저거 아버지가 자기 아들보고 군대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데 말이야.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말이야. 근데 그

어른 하는 얘기가 ‘가내 공업을 하는데 네가 가져야 우리가 밥 먹고 산다.’는 것이다. 내가 옆에서 들으니깐 기가 차가지고. 자식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친구 두 말도 안하고 ‘네, 지원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참나 기가 차서. 11월 20일까지 지원마감인가 그랬는데.

-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나하고 같이 있는 친구 둘. 그 친구도 지원 안하고 대구고보 나와 가지고 온 친구인데 돌이켜 버티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교수들한테 그걸 묻죠. 내 담임 교수한테 가서 물으니깐 연구실에 찾아가서. 요새 생각하니까 담임선생님한테 물으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니 지원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내가 물은 것도 우스운 얘기이지만. 그러나 나는 답답하니까. 나는, 내 선생님이니까. 그러나 아무 말도 못 듣고. 마지막에 초대 문교부 장관 하신 안호상 선생, 그 양반이 그때 철학 교수입니다. 고향이 경남 의령이라서 우리가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 가고 이랬거든요. 좀 친근했지. 모운숙 씨하고 살 때 인데 제기동, 학교 앞에 제기동, 거기 살고 있었어. 마지막에 서재균이 지원한 농하고. 내가 끌고 온 농하고. 세 명이 선생님 찾아갔다고. 참, 기가 차지. 가니깐 선생님이 제자가 찾아왔으니깐. 11월 달 안 출습니까? 그 선생님한테 다짜고짜, “선생님. 우리가 가서 총을 메고 어느 농을 싸야합니까? 말이야. 중국 농을 합니까? 미국 농을 씹니까?” 나는 일본 농을 싸야 되는데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내 댄에는 불만이 터져가지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더니만, 안호상 씨가. ‘니 말이 맞다’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니. 지금 그 선생, 내가 뭐 믿을 만 하고. 고향 사람이고 하니까.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믿으니 말했지만은. ‘니 말이 맞다’하기도 어려운 시기야. 그때 그 양반이. 니 말이 맞다. 너 네가 만약 형무소 들어가게 되면. 왜 항거 못하느냐 말이야. 그만한 문제를. 요새 젊은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그냥 있겠나? 어디. 데모라도 할 거고. 난리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 하면 부끄럽지. 그 뭐. ‘한번 항거도 못 하고 데모도 못하고. 왜 그냥 갑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될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 꿈쩍도 못하는, 그래 가지고. 안호상 선생한테 그 말을 듣고. ‘됐다. 뭐 그럼 넌 피해라. 난 안 간다’. 짐 챙겨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내려왔죠, 대구. 나하고 같이 있는 친구 둘이 또 내려와서 대구에서 2~3일 기다려가지고 마감 날이 됐거든요. 11월 20일 마감일 됐는데 그날 석간신문에 고이소총독이라는 놈이 해당자가 지원 안하는 놈은 1월 20일 입대 전에 전부 남방으로 징용 보내겠다. 자, 이걸 피하려면 어딜 피해 다녀야 하는데. 피해 다닐 방법이. 그래서 그 친구하고 속의를 했다. 자 일단 마지막에 지원을 해보자. 1월 20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깐. 그래가지고 해 놓으면, 중국 같은 대륙으로 보내주면 내뺄기도 쉽지 않겠나 말이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할 수 없이 피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지원하자. 그러니까 지원 할 때 뭐 여러 가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 그건 다 넘기고. 그래 지원했어요. 고향 가니 어른이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는구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집이 그 모양이 됐는데. 부산 도착해서 해 빠져가지고 캉캉한데. 부산에 돌아오고. 그래도 반갑다고 꽃도 주고. 기차를 타고 대구 오는데, 시트가 찢어져 없고 창도 깨지고. ‘참 우리 민족이 어째 이러냐?’ 싶어 탄식이 나오네. 질서를 이래 못 잡나 말이야. 서울은 없어. 아까 말하다시피. 대구에서 지원해서 그냥 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서울 못 올라갔지.

- 인촌도 그런 말 한 일 없습니다. 난 알기에 인촌 선생이 너희들 지원하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확신하는 것은 나는 들은 바 없고. 어느 뭣이고 그 기억이 나는데. 너희들을 내가 말아가지고 교육시키려고 맡은 것이지, 내가 너희를 군대 보내느냐. 내가 너희 교육시키려고 맡은 사람이다 정도의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고대 옛날 보전강당인가. 어디 그런 기억이 나는데.

- 인촌 선생은 말을 별로 안했고. 인촌 선생은 내가 알기로. 나 학 교장인 줄도 몰랐다고. 왜 그러나 하면 내가 입학할 열흘 늦게 갔거든. 삼촌이 만주 가 있다가 돌아가셔서가지고, 가시체 찾으러 가고 화장 하고 온다고. 한 내가 열흘 늦었어요. 내가 3월말, 3월 25일쯤 가가지고 한 보름 만에 왔는데 그래 와 가지고 집에 고향 가 가지고 먹고 다하고 해서 올라가니까 입학식 때 못 봤으니깐. 교장을 볼 수가 없잖아.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2층이지 교실이. 여름, 봄 돼 가지고 따듯할 때 한 4월 쯤 됐지. 5월쯤, 4월쯤 됐겠다. 여하튼 쉬는 시간에 내다보니까 보리 짚 모자 쓰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 용인인가 했지. 뭐, 화단에 호미 쥐고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거보라니까 옆의 친구가 교장이다 교장. 내가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인촌 선생을 봤고, 교장인줄 알았다. 맨 날 천 날 보면 화단에 앉아 뭐 이래 쥐고 있고. 입을 잘 떼고 이런 일도 없고. 조회할 때도 말도 별로 안했고, 실천가고 그랬지. 그분은 참말로. 보전은 학교집도 그렇게 지어놓은 곳 없었고 도서관 참 잘 지었잖아요. 아, 돌아가신 뒤에. 내가 몇 해인가 모르겠다만 올라갔거든. 올라가서. 인촌 선생. 학교 뒤에 저기 정구장하고 농구장 있을 때 거기다 묘를 썼더라고요. 가니까 사모님하고 딸하고 왔더라고 돌아가신지 얼마 후인데 비석하고 묘를 잘 쌓아 놔더라고. 내가 처음에 절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날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내가 경북이라고, 선생님 조금 더 살았어야 될 건데 이런 얘기 했어요. 사모님 자기 차로 같이 나가자고 하는 것을 내가 볼일 있다고, 안된다고, 인사를 내가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 안호상 선생하고 친했으니 그랬겠지만. 내가 그렇게 묻다 보니까 요새 생각해보면 그거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역지사지 돼가지고, 나도 학교 있어 봤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지? 과연 그때 내가 학생의 마음으로 내 기분만 가지고 말했구나. 안호상 선생한테. 어느 농 소란 말입니까? 내가 그걸 말할 때 안호상 선생 자신은 '니 말이 맞다'고 말해줄 때 나는 격려가 됐지만 말이야. 과연 그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해요. 그렇게 그런 시기였으니까. 꿈쩍 않고 말 한마디 항거도 못하고 요새 젊은 애들 생각에는 바보들이라 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대에 가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까 뭐, 좋은 것 남기지도 못하고.

5) 윤석현 전 외무부 차관

(보전 졸업, 폐결핵으로 징집 면제, 2009년 7월 9일)

- 조희가 아니라, 김성수 교장 선생님인데, 총독부에서 전문학교 이상 대학이라는 것은 경성제대라고 그것 밖에 없었고. 보성전문 연희전문 혜화전문 이화전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다 불러다가 학병 보내라 그런 명령을 내렸지, 명령인지 권유인지는 몰라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오서 가지고 강당에서 학생들 나이에 따라 가는 거니까 1학년이라도 나이가 차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학생들 다 모아 놓고 교

장 선생님이 먼저 총독부에 불러가서 학병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시라고 했는지, 학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그런 아마 종립적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 늘 그런 말을 그렇게 똑 끊어지게 한다 그럴까 하는 그런 타이프가 아니야 그분이. 그리고 자세한 것은 장덕수 생도감, 생도감이라는 것은 학생 문제 담당하는 선생님이에요. 장덕수 선생님이 더 자세한 얘기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 우리가 여러분을 부모님에게서 학생으로 받을 때 공부 가르치겠다고 했지 그 이외의 약속을 하고서 받은 게 아니다. 지금 학병 문제는 여러분의 미래 진로에도 관계가 있는 일이고 전쟁터에 가서 생사에도 관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다 판단할 능력이 있으니까 자유로 결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부 박수를 치면서 다 눈물을 흘렸다고 “와”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란 소리가 아니고 당신들이 당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으니까 자유로 결정하시오 그랬어요.

- 장행회는 내 친구들이 가니까 갔지. 송별회니까. 그때 김천애라고 소프라노가 있어. 그때 일제시대라 못하게 했는데 장행회 때라 일본 놈들이 군대갈 사람들이니까 허락했어.

- 장행회에서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얘기하신 것 같지 않아. 그런 말은 전혀 없어. 그럼 못 들었지. 그 학도병에 관해서는 일체 그런 얘기 하신일 없어. 그때는 일제시대고 일본 총독부가 신문이고 교육계고 언론이고 그게 자유롭지 못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비틀어서 쓰게 했는지는 난 몰라. 보성전문은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이 다 민족주의자고 애국자고 반일정신이 투철한 분이야. 그런 분한테서 내가 교육을 받은 거야. 절대 한 일 없어.

6) 최재동 1·20 학병동지회 사무총장

(보전 졸업, 학병 출신, 2006년 3월 24일)

- 믿을 수가 있느냐. 인촌이 미쳤다고 그런 글을 써요. 그 참 기가 차네. 인촌이 미쳤다고 그런 글을 써요. 누가 써가지고 갖다 주면, 발표하라 하면 그냥 한 거지. 최남선 선생이 동

경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말은 실제로 맞아들어 갔어요. 좋은 경험도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 요새 친일파 쪽으로 모는 사람들 보면 '시일야방성대곡' 쓴 장지연 선생까지도 친일파로 몰고 있던데... 그러니 3·1 독립선언문을 지은 분도, 시일야방성대곡 지은 분도, 그럼 오래 왜놈 치하에 살다보면 그 참 부득이하게, 인촌 선생 얘기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걸 전부 그 래 버리면 우리나라에 일제 때 소위 사람으로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나.

- 솔직한 얘기로 인촌 글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인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은 없습니 다. 그 사람들은 정략적으로 인촌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그런 얘길 해요. 일제 때 그 서슬 퍼럴 때 창씨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느냐. 전 국민이 창씨를 다 했는데 인촌 선생만은 창씨를 안 하고 견디지 않나. 그 근본정신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 냐.

- 대필해서 쓰는 것은 맨 그게 그 겁니다. 맨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 려 하면 그렇다고 '안 썼소' 할 수 없잖아. 가령 다 만들어서 내놓으면, 이거 내 글이 아니 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문을 보면 속을 봐야 될 것 아닌가. 말의 뜻 이 뭐라는 거. 사실이고 논설이고 속에 깊은 뜻이 있지 않나. 무거운 글들이 있지 않나. 이 런 글들은 보면 일본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 흰히 들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논하면 되겠다. 실제로 다 그래. 전부 대필해서 보고, 아 뭐 그만하면 되겠다 해서 놔둬 버리고 하지.

- 조선인 학도특별지원병령. 조회 단에 올라가서 가지고 총독부에서 이런 말 하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말한다, 구체적인 건 말 안하고. 그래 전한다 이 말만 하고 내려 가신거야. 평생 시 조회 때 말씀 많이 하는 분 아니다. 늘변이야. 말 잘하시는 분 아니다.

- 지원 한거는 내가 지원한 거고, 동기가 그랬다 뿐이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 가라 하 는데 끝내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동기는 아버지... 학병 지 원해놓고 대구 내려가서 파출소 때려 부수고 했다. 술 한 잔 먹고.

- 그때는 격려 말씀이 잘 갔다가 건강히 잘 돌아오라고. 충성을 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 아 니고 잘 갔다가 몸성히 잘 돌아오라고 이 말을 했어.

- 그리고 나서 내가 들은 건 아닌데 사석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아닌데, 내가 학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 교육시키려고 학교 만들었지, 일본군인 내보내려고 이런 게 아닌데...’하면서 탄식을 하셨어. 보전 다니던 사람은 다 알아. 그런 말을, 왜놈 순사도 있고 형사도 있는데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터 내놓고야 말할 수 있는가.

- 일본이 학병 보낼라고, 자기들 대학 다니는 놈들 전부 다 보내면서, 한국 놈들 사각모 쓰고 대학 다니면서 그냥 안 가게 놔두겠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대학 다니는 놈들 전부 다 전쟁터로 내몰았는데. 국책적으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왜 쓸데없이 우리 훌륭한 어른들을 욕을 보이느냐.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방 60년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뭐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가.

- 인촌 선생은 우리 교장 선생님. 옛날에 다 그랬지만 부모님 마찬가지로. 인촌 선생은 교장 선생으로서 하자 있는 분이 아니다. 그 어른은 교육자로서 훌륭한 분이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조선 사람들 그때 헐벗어, 옷이 없을 때 조선방직 만들어서 광복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 옷 입도록 만들어주고 언론 동아일보 해가지고 그래 했고 중앙학교, 보성전문학교 만들어서 교육사업 했고... 그 어른 뭘 가지고 흠을 잡아. 돈 벌라고, 딴 목적이 있어서 그랬나? 교육가로, 그 당시에 교육을 해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장사는 무슨? 자기 집 재산 몽땅 다 가지고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단식투쟁 해가지고 돈 얻어가지고 와서... 다시 더 말할 거 뭐 있나. 나 인촌 고택에도 가봤어. 기둥이 내 장딴지만 해. 경상도 부잣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야. 그 돈 뺏어 와가지고 만들어 내놓은 것 봐요. 실체가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사람이 그런 일 할 수 있나.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인촌 같은 사람 건드려선 안 된다. 이 나라 남을 사람 어디 있나. 국내에서 당해가면서 견뎌가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 옷 입히려고 한 거 다 훌륭한 거 아닌가.

- 이걸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국내에 살다가 외국에 가서 밥 굶아 가면서 떨어가면서 독립운동 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 방직공장, 동아일보 만들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1936년 손기정 선수 사건 등 모든 역사에는 과정이 있는데. 가령 총독부 끌려 가가지고 친일도 안하면 학교가 당장 박살이 나고 절단이 나는데 안할 도리가 어디 있소. 그러니 유지하려면 어떤 비굴한 그런 경우도 생겼겠지. 학교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단 말이요.

7) 문병윤 전 부통령 비서관

(보전 졸업, 징용 출신, 2004년 10월 28일)

- 학병 문제가 나온 것은 43년도 10월경일 거야. 학병 특별지원병이야. 징병은 따로 있고. 우리는 징병에 해당이 안돼. 낫살이 많으니까. 징병 해당 안 된 낫살 많은 사람 중에서 전문대학생이 지원병으로 강제지 뭐. 명색이 지원 뭐니까.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날짜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헌병과 경찰에서 자꾸 온 모양이야. 아들이 빨리 지원해서 나가라

고. 광주에 사시던 아버지가 올라오셨다. 너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경찰하고 헌병이 자꾸 와서 못살게 구는데 너 지원해라 하고 내려 가셨다. 그 이튿날 아침 사모님이 날 불렀다. “병윤아, 어저께 선생님이 너,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아주 여사가 나한테. 얼마나 좋아. 군대 안 간다고. 듣기로는 그때 남방으로 전부 다 가서 죽는다고 할 때였다. 가지 않아도 된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애국반이라는 게 있어 어디 외지에서 오면 다 신고하게 돼 있었다. 집집마다. 친척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전부 통장한테 다... 그러니까 그때는 재워주질 않아. 무서워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재워달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 무서운 때였다. 나는 그 양반이 군대 안가도 좋다고,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머물 수가 있었다. 숨어서 안갈 수가 있었다. 학병 마감 날도 안가고 피해버렸지. 피하고 한 달 동안을 그 집에서 눈치보고 있었어. 한달쯤 있었는데 지나간 거라.

- 학병 안 가게 되면 징용을 가는 게 있었다. 징용 가는 사람은 지원병 훈련소에서 한 40일 동안 ‘황국신민재교육’을 받았다. 너 황국신민이 아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거지. 우리가 훈련소 2진인데 1진은 훈련소 마친 뒤 원산에 배치됐고, 2진에 간 거라. 한 200명 정도 되었다. 재교육을 마친 뒤 원산, 사리원, 해주로 분산 배치됐다. 1월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추운데 밥도 잘 안주고... 한 40명이 이북에 해주 시멘트 회사에 배치돼서 순전히 노동이지 뭐. 크링카, 도록꾸, 석탄, 이런 거... 1년 반 동안 거기서 강제노역을 했다. 시멘트 회사서 생활하면서 고생 무지하게 했다. 징용은 안갈 수가 없는 거였다. 감옥에 안 가면. 전문학교,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 중에 징병 대상도 아니고 학병도 아닌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그건 안가면 어디 가서 밥도 먹을 수가 없으니 방법이 없었다. 감옥소냐, 징용이냐의 선택밖에 없었다. 44년 1월말부터... 아마 그쯤 될 꺼야. 가서 얼마나 노동했다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 거기서 몸이 좀 아파서 휴가 나와서 아버님한테 가 있을 적에 해방이 된 거라. 8월 15일 해방이 돼서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 인촌이 학병 관련해서 연설한 일은 내가 아는 한 한번도 없었다. 매일신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 기관지라 이놈들이 자기 멋대로 한거야. 그 양반이 그럴 양반이 아니다. 행사 있어도 그 양반은 안 나갔다. 참석도 별로 안했다. 그 양반은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으셨다. 장덕수 씨가 연설하는 거는 한번인가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다. 난 학교에서 인촌을 뵈 적이 없다. 그 양반을 무슨 행사 같은 데서 뵈 적이 없어. 그때 안호상 씨, 장덕수 씨 이런 분은 연단에 서서, 스피치를 잘하시니까, 전부 다 연설은 대가시니까 맡아 놓고 다했다. 그러나 인촌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 그때 누가 매일신보를 보는 사람이 있었나. 내가 볼 때 다 꾸며낸 거다. 사실이라면 날보고 나가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군대 나가서 나중에 잘 돼서 국가에 이바지 하라.”든지 무슨 말씀이 있었을 것 아닌가.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그 양반의 본심이야.

8) 서태원 전 국회의원, 고일회 회장

(보전 졸업, 징병 출신, 2004년 11월 23일)

- 중앙고보 졸업 후 1943년 보전에 입학했지. 그 해 보전은 신설하다시피 운동장도 새로 닦고 건물도 새로 짓곤 했다. 그때 인촌은 교장이지만 운동장에 가면 만날 수 있었다. 시간만 나면 잔디밭에서 풀을 뽑았다. 촌로와 같았다.

- 1943년 여름 일본 농들의 정책으로 수원 서호라는 저수지 증설공사에 1주일간 근로동원했다.

- 그해 가을 10월 달인가 쌀쌀할 때 일본 농들이 전교생을 남한산성의 일본군 병영에 넣어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 마지막 날 학도지원병령이 내렸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날 밤에 분대장이니 소대장이니 하는 일본 농 장교들이 복도에 우리들을 쭉 세워놓고 학도지원병이 내렸으니까 지원하라는 거야. 그러나 한 사람도 안 나서자 일본 농 장교가 칼을 빼면서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어. 그러다가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 이틀 날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인촌 선생이 얘기했어. 인촌 선생이 뭐라고 말씀 했는고 하니 절대로 나가라,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교 당국의 운영자 교장으로서 이런 제도가 나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어. 왜 그런고 하니 인촌 선생이 말씀을 못하셔, 연설 잘은 못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과묵으로 일관하고 사셨어. 그러나 학교 당국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달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때는 완전히 지원병이니까 가고 안 가고는 제군들 뜻에 달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야. 학교 교장으로서 이 사실을 알린다는 말씀을 하셨어.

- 학병 독려를 위한 가정 방문이나 전보를 한 적이 있다는데.

“처음에 지원이라 했으니 지원자가 나올 리 없지. 그러니까 차차 당국에서 강압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말이야.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독촉했을 거 아냐. 지원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선생들이 학병 해당 안 되는 학생들과 조를 편성해 가정 방문하도록 당국에서 지시했지. 난 법과대학 서재원 교수와 한 조가 되어 나간 적이 있는데 서 교수 집에 가서 밥만 먹고 시간 때우다 온 적 있다. 셋인가 넷이 한 조가 됐을 거야. 가정방문은 안 갔다. 전보를 쳤다는 것은 듣지 못했어.”

- 인촌 선생도 방문했나?

“교장 선생님이니까 안 끼었을 거야. 안 끼었을 거야. 교장 선생님이 방문조에 끼나.”

- 인촌이 조회나 행사 때 연설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

“뭐 꾸물꾸물 몇 마디하고 그만이지 길게도 안 했어. 말씀을 안 하시고 못하셔 강연을 못하셔.”

- 매일신보에 학병을 권유하는 글 나오는데 대해 아시는지?

“그건 못 봤으니깐 전혀 몰라. 인촌이 글을 쓰거나 그럴 양반이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는. 인촌이 글을 쓴 것을 별로 못 봤어. 그걸 들은 기억이 없어.”

- 인촌이 학생들에게 학병가지 말라고 하기도 했나?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나를 포함해, 그러나 누구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인촌 뿐 아니라 당시 보전 선생님 거의가 그런 생각이었어. 개별적으로 만나 학병가라고 할 선생이 있을 수가 없어.”

- 보전 장행회에 인촌이나 설산이 참석은 했나?

“학생들끼리 운동장에서 술 먹고 울분을 토하는 자리였다. 장행회에 설산인지 인촌인지 누구인지, 이왕에 가면 잘 갔다 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한 것도 같다. 인촌이 아닐 거야.”

- 무슨 연맹이니 하는데 인촌의 이름이 올랐는데?

“저명인사니까 들어갔겠지만 지휘를 한 것도, 책임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인촌 선생이 하면 위원장이나 뭐, 그런 거 하지, 이사나 고문이나 하는 것은 아무나 막 집어넣는 거 아냐. 본인 승낙이나 받았겠나, 안 받았겠지?”

- 일제시대 인촌은 어떤 분이었다고 생각하나?

“당시 일본 사람에 저항하는 세력은 여러 갈래가 있었어. 상해나 미국에서 독립 운동하는 사람, 만주 가서 항일 투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일본에 투쟁했다고 봐야지. 그런데 국내에서 앉아서 칼 들고 싸울 수 있나. 당시 세계 조류는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와 간디즘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 나는 인촌이 간디식 무저항주의를 신봉하지 않았나 생각해. 그 양반은 선대의 유산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재산을 털어 가지고 교육사업을 시작했어, 또 언론을 시작했어. 그 양반이 편히 잘 살려고 했으면 왜 시작했겠어. 언론을 만들어서 우매한 백성을 계몽하고 실상을 알려줘 또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에게 장래를 재촉해줘. 이것이 무장봉기를 한다거나 이념서클을 만들어 하늘 보고 소리 지르는 것 보다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사업이 아니냐.”

- 나는 징병 영장을 받으면 원산으로 가서 시베리아로 도망치려 했어. 그런데 설산이 나를 여운형 선생에게 데려가더니 이 두 분 얘기가 “일본군에 들어가라. 그러면 국내에서 서울에 있게 만들어주겠다.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진짜 독립운동이지 외국에 가서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하는 것이다. 좌익 선생 윤행중 교수를 우리 집에 보내 같이 잤어.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징병 1기로 들어갔는데 훈련소가 동대문 낙산이었다.

9) 김진웅 전 고려대 총장 서리(2004년 12월 3일)

- 1943년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했다.

- 인촌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똑바로 알고 친일 여부를 가린 건지, 혹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친일파라는 범위라든지 정한 것이 아닌가. 우선 기본적으로 석연치 않게 생각된다.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촌 같은 분을 친일파로 몬다면 국내에 있는 사람은 다 친일파로 몰아야한다. 좌우간 일본 치하에서 살아왔고, 또 생을 영위하고, 기관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이런 사람을 다 친일로 몬다면야 인촌도 거기서 빠질 수 없겠죠.

- 친일 이야기를 할 적마다 의분이나 탄식이 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상황이다. 우리가 전차를 타고 남대문 앞을 지날 때 차장이 뭐라고 이야기 한 줄 아세요? “방금 조선신궁 앞 통과합니다.”하면 전원이 다 일어나서 남산을 향해서 절을 해야 한다. 가다가 만나서 “박 형, 요즘 재미 어떨소.”라고 조선말 쓰면 붙잡혀가는 시절이었다. 학교 명찰에 이름 다 걸고 다녔다. 창씨개명 다 하고 이런 시기라는 것을 알고서 친일 여부를 이야기해야한다. 당시의 학생들이 인촌을 어떻게 봤나, 어떻게들 평가했느냐. 민족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젊은이들에게 인촌은 거의 이상적 존재였다.

- 해방 직후에 내가 인민공화국 건물 밖에서 총 들고 문지기 노릇도 했지만 여운형 씨가 주석, 허헌 씨가 국무총리를 맡았던 그 인민공화국에서도 인촌을 문교부 장관으로 뵈다. 좌익도, 최소한 이 사람은 포섭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일반 국민의 신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토착 부르주아지, 반동이라는 사람을 왜 좌익정권이 문교부 장관에 명단을 올려놨겠는가. 참 딱한 일이다. 그만큼 신망이 두텁고, 우리 조선 백성들이 그 분을 존경하니까 이런 분을 앞세워야 되겠다, 좌익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을 어떻게 친일 운운 합니까?

- 학병 권유 연설을 한 적 없다. 최소한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일반 공중집회에서 학병 나가라고 권유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단지 부민관 장학회장에서 말씀하신 거 그거 하나.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책 꺼내서 ‘오늘 아침에 총독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읽으라고 하기에 이제부터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은 조금 피피 거렸다고. ‘워, 보전 교장쯤 되는 사람이 말이 되느냐.’하면서. 조금 치치거리는 소리 들렸다. 보통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 보전과 가장 친한 학교지만 연희전문은 인촌 같은 재단이나 교주가 없는 학교다. 기독교계통 학교인 연희전문은 일찌감치 교장을 일본사람으로 갈아 치웠다. 보전이고, 인촌이니까

그걸 견뎌낸 것이다. 그걸 견뎌내고 존립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백이속제처럼 수양산으로 들어간다면 별 문제야. 집안 식구 내버리고 독립운동 한다고 해외로 나가면 가족은 고생되더라도 본인이야 지조 지킬 수 있다. 여기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깨우치고, 민족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조선민족과 청년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친일이야 친일이. 그때 상황을 알고 이야기해야할 것 아닌가. 친일문제 글 쓰고 책 쓰고 했던 사람, 그때를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상황을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

- 대부분이 학병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촌은 “보성전문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 학부형으로부터 교육시켜 달라고 말았지, 생명 맡은 적 없어. 보전이 문 닫아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경찰에 끌려가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큰 인물, 우뚝 솟은 분이 보성전문을 그런 체제하에서 운영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문 닫는 건 간단하다. 솔직한 이야기가 순국하는 것이 더 쉽다. 약 먹고 이런 세상 안 살겠다 죽어버리고 목메는 게 더 쉬워. 살아나가면서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친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살아봤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한 일이야.**

- 나는 친구들 중에 어린 축이어서 징병 대상이다. 징병도 2기다. 그러나 같은 클래스 중에 상당수가 학병 대상자다. 경찰서 불러가고, 학부형 불러다 얘기하고, 가정 방문하고, 갖은 협박 다해서 가게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강제로 도장 찍게 하던 시기다. 보전 학생 해당자의 대부분이 응하지 않았다. 그때 매일신보에 “보전도 3명”이란 뉴스가 나왔다. 그게 굉장한 뉴스다. 뜻을 잘 새겨야한다. 보전조차도 3명이 지원했다는 거다. 보전조차도 3명이 나왔는데, 왜 안 갈 거냐. 그만하면 가야할 것 아니냐는 뜻이다.

- 일본이 망해갈 무렵, 중일전쟁 수행하고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전문대학도 1주일에 1번 조회를 하는데, 아마 1월 십일 전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배속장교 한국 사람인데 친일파였던 ‘가와모토’(본명 이강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일본군 중좌다. 이 사람이 별안간 교단에 올라가더니, “너희들 왜 학병 지원 안하느냐. 지원이라고 하지만, 형식만 지원이지 강제야. 그 뿐 아니라 만일 너희들이 지원 안하면 보성전문학교 없어져. 폐교돼. 알았어? 가!” 이랬다. **인촌 선생은 원래 조회 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격이 과묵한 분이고, 말씀도 없으신 분이고, 말씀도 잘하시지 못하는 분이다. 생전 교단에 올라가서 학생들 나무라거나 훈시하는 분이 아니다. 이 양반이 교단에 뛰어올라갔다. “지금 가와모토 교관 선생으로부터 ‘학병은 걸로만 지원이지, 절대로 강제다. 너희들이 안가면 보전은 폐교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제 정무총감도 만났고, 조선군 사령관도 만났다. 그 사람들이 현관에 나오면서 거듭거듭 당부하거니와 ‘어디까지나 지원이지 절대로 강제가 아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나에게 했다. 설혹 강제라 하더라도, 제군들이 지원을 안 해서 학교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제군들의 부형으로부터 교육시켜달라고 해서 말았지 생명을 맡은 적 없어. 군대 간**

다는 것은 자네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알아서 생각해야지, 가라마라 할 수 없다. 설혹 보전이 폐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들 교육 맡았지, 자네들 생명 맡았나. 자네들이 잘 알아서 결정하소.” 이려고 내려갔다. 그러자마자 장덕수 선생이 바로 쫓아 올라가더니 매일신문을 들고 읽었다. “우리들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신문이 잘 전해주기 때문에, 이제부터 원문을 읽겠습니다.”하더니 ‘어디까지 지원이지, 절대로 강제가 아니다.’하는 일본 당국의 발표문을 매일신문에 난 그대로 읽었다. 이것은 다른 학교와 비교가 돼서 조심스럽지만 한국의 어떠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 데가 없었다. 이견 참 기가 막힌 일이다.

- 좌익 선생, 우익 선생 상관없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보전 교수 중에 박극채, 윤행중, 김광진, 최용달 선생은 아주 극좌였다. 유진오, 장덕수, 손진태, 옥선진 선생 등은 민족주의자였다. 우익. 일본한테 항거하고 민족혼을 부추기는 이러한 사상 가진 사람이라면... 군사 교련 선생(장유근)도 신사참배 거부하다 제대당한 사람을 모셔왔던 인촌이다. 학교 운영도 그렇게 하신 분이다.

- 설혹 그것이 신문에 실렸더라도 본인이 직접 쓴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소한 보전학생들은 없다. 우리에게 평소에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교단에 쫓아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친히 쓰셨겠어요. 그렇게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 본인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도 아무개 국민장, 사회장 할 때 장의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본인 승낙 받고 하나. 저명인사 이름 다 올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일제시대에는 일본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이름 다 올렸던 것이다. 그 당시 학생들도 별 관심 없었다. 우리가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젊은 놈들이 비분강개해서 영영 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 인촌을 가까이서 모셨는데 그런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런 위에서 ‘어떤 행동이 친일이다 뭐다’ 해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역사하는 사람들 참 거짓말쟁이가 많다. 해방 직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아는데. 당시에 글 나온 것, 뼈라 쪼가리 하나 가지고 증거로 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학생시절에 우리도 뼈라를 많이 써봤다. 후세 사가들이 남은 것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해서 ‘~~에 의하면’ 자꾸 인용해 버리면 사실처럼 돼 버리지 않느냐. 역사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러이러한 기사가 남아 있다.’고 하면, ‘하 그런가보다.’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같이 그때 상황을 아는 사람이 살아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다.

10) 김진섭 전 매일신보 기자(2009년 3월 19일)

- 매일신보에다가 기사를 좀 실리게 하라. 그래도 잘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기자들을 또 몇 명씩 중추원 참의다, 도지사다 일행 가운데 우릴 또 내세웠지요. 기관지로서 응할 수도

없고 안 응할 수도 없고 엉거주춤하면서 있는데 몇 명씩 아주 할당하다시피 했어요. 제 기억으론 사리원의 이씨가 몇 사람을 대조.

- 송진우 선생 그 옆에 인촌 선생은 물론이지만 이분들이 무슨 글을 쓰고 좌담회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안 해요. 그저 할 수 없이 나가라면 그저 어물어물 인사, 외형치레나 하는 분들 이지 본심을 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학병을 흑시 나가는데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 바빠서 할 새가 없다. 그럼 글을 써 달라. 무슨 글을 써야 되느냐. 그럼 인촌 선생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난 동아일보에 있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이런 말이라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자네들이 알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고 아마 필적을 남긴 게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도.

- 전혀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내고, 그 분들이 글 썼다 친일파다 하는데, 그 친일파면 학교는 왜 했습니까. 인재를 그만큼 키웠으면 그분들이 친일파로 컸습니까? 오늘. 우리 조야에 시방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전부 고려대학 출신들 아닙니까. 중앙중학교 출신들이고.

- 글을 썼다. 글 쓴 흔적도 역시 필체도 아니고, 또 글 쓴 사람들이 우리들이 보더라도 감각적으로나 그 내용을 보나 그 본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 인촌 선생이 아프시다 그러다가 일어나 앉아서 절 받더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아니 선생님, 이전에 글도 일본시대에 쓴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 군 알잖어. 내가 무슨 글을 쓰고 무슨 말을 해. 모를 적에는 그 다 뭐인지 모르겠는데 자네들이 알아서 해주게 한 것은 있지만은 내가 뭘 쓰라고 한 적이 있나, 내 필체를 남긴 적이 있나. 난 잘 모르는 일이지.”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조선총독부에서 그렇죠. 일이 제대로 돌지를 않으니까 신문기자도 동원하게 되고, 또 신문사를 통해가지고 유지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자꾸 강요를 했어요.

- 관변에서도 아주 좀 더 심하게 나오게 되고, 애꿎은 매일신보 우리 신문과 기자들만 그저 닦달하게 되니까 아주 귀찮아지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는 체는 해야 되겠고….

- 글씨 나 조만식 선생 글 보면 그건 뭐 얼토당토않은 글이거든요. 내 인촌 선생 글도 읽어봤지만은 그분들의 본심과 또 필체와 내용이… 글씨올시다. 나는 그,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감흥이 가질 않아요.

11) 高一會 회원들(2006년 9월 18일)

- **김진웅** : 친일 문제가 나오면 내가 조금 흥분하는데, 그 친일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엄격한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살고 보던 사람이 증언하고 그러는 게 제일 정확하단 말이지. 후세 사람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제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우리 때 우리 이름이 있었어? 창씨개명 했어. 전부 일본 이름을 써놨어. 국어 상용이라고 해서 일본말 안 쓰면 경찰관에게도 별별벌, 학교에서도 정확 맞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지. 전철타고 종로에서 남대문 쪽으로 가다 조선신궁 앞으로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지금 조선신궁 앞을 통과한다 하면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그쪽으로 절해야 했던 말이야. 이런 시대란 말이야. 이런 시대에 살았던 말이지. 나라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참 자기 집안일 안위를 다 집어 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하는 분들 참 기록한 분이시. 훌륭한 분이요. 그런 덕분에 해방도 되고 한 거지만서도 나는 그에 못지않게 여기서 남아서 민족혼을 깨우쳐 주고 몽매한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말이지, 조국을 찾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자꾸 교육시켜준 사람, 그 사람의 공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일제시대 몽양 여운형, 인촌 김성수를 민족의 지도자로 알았지, 그 사람들을 친일이라고 한 사람, 하나라도 있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얘기해보라 그래.

- **최재동** : 보전 2층 강당인데 '장행의 밤'이 있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종이 조각 하나 가지고 이거 학생들에게 권하라하면 그 말이라도 그런 시늉을 내야 되지. 안 내야 될 사람이 어디 있나. 안 그러면 보성전문학교 자체가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인촌 선생의 말씀과 똑같이 안호상 선생의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배고픈 두려움, 감옥소 가는 두려움, 병나는 두려움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체가 다 보태서 죽는 두려움에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야. 지금 현재 학생여러분이 말이야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가서, 하는 수 없이 가게 되면 가서 열심히 군사 훈련도 배우고 해서 무사히 돌아오라고, 이것이 안호상 선생의 말씀이고 인촌선생의 말씀도 역시 이래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가가지고 무사히 잘 돌아오라고, 이것만 말씀하셨지. 뭐 그래 저 저항하고 때려치우라고, 그 어느 놈이 학생 나가지 말라고 고향지를 사람이 어디 있소. 그 당시에 그러니 학교를 운영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보성전문학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때 조선인에 위한,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의 학교가 어딴노. 보성전문학교 하나 밖에 없어. 연희전문도 아니고 미국 선교사 그것이고 세브란스 전문도 그것이 아니고 보성전문 하나 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누가 만들었으며 그것의 유지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소. 유지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래 가지고 해방이 되어서 고려대학교까지 승화시킨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할게 뭐 있소. 그러면 그 뒤에 학생들 다 보내고 보성전문학교 이름이 뭐라고 바뀐 줄 알아. 경제전문학교로 바뀌었어. 척식경제전문학교로 바뀌었어. 하는 수 없잖아. 바꾸라고 하니 바꾼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러면 원천적인 일제 탄압에, 그러나 거기서 우리 조선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혈벗은 사람을 위해 광복 만들어 가지고 웃을 입혀야 되겠다는 광복쟁이 한 것 하고, 중앙학교 만

들고 보성전문학교 만들어 가지고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동아일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론해서 저항하고 이 3가지, 인촌 선생이 잘못된 것이 뭐냐 이 말이야. 거서 무슨 친일파를 운운하고 하느냔 말이야.

- **이중재** : 장덕수 선생이 학병 나가라고 강연을 하셨고 장덕수 선생은 생도감이거든. 교장 선생을 대신해서 했는지 뭐했는지를 모르지만 총독부에서 지명을 해서 너 나와라 하니까 이광수 씨도 나오시고 강연을 했어요. 우리 다, 그 강연을 들었지. 마지막에 인촌 선생이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원고 없이 그냥 막 강의를 했다고. 하라니까, 그 양반은 다 하라 그러니까 한거지. 인촌 선생은 딱 써가지고 와 가지고는 이렇게 총독부에 나보고 이거 읽으라고 하니까 내 읽는다. 그러고 얘기했다고.

- **서정석** : 선생이 학병 나가라고 권유하는 강연을 한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설산 장덕수 선생이 강연하는 것만 들었지. 선생님이 강연하는 것을 듣질 못했어요.

- **이중재** : 보성전문 1학년 때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에는 월요일 아침에는 조회를 했습니다. 보성전문 학생들 전체가 교정 뜰에 모이고 교장 선생 이하 교수들도 쪽 나와서 앞줄에 서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소위 조회를 하는데 조회의 첫 제목이 뭐냐. 저 일본의 천황이 있는 동쪽을 보고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해서 훈도감이 훈령을 하면 학생들이 다 절하고 그 다음에 황국신민 서사를 훈도감 선생이 선창을 하면 전체 학생들이 일본말로… 황국신민 서사를 따라서 제창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인촌 선생은 꺾 입을 다물고 계세요. 조회 안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교장 선생으로써 나오시고 서서 우리 학생들이 인촌 선생이 입을 다물고 있는 그걸 보지요. 우리야 물론 황국신민서사를 큰 소리로 따라서 하지마는, 그런 인촌 선생이다. 그러면 그것을 본 학생들이 무언중에 이심전심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장덕수 선생이 열변을 하지,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더구나 인촌 선생은 황국신민서사를 할 때 입을 다물고 계신 양반인데 그 학생들이 거기서 뭘 느끼고 뭘 배웠겠습니까.

- **김수명** : 여러분들이 쫓기대회라고 일컫는데 나간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지요. 그 학생 쫓기대회라는 명칭을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명칭부터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니 쫓기대회라고 함은 어떤 집단이 자기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전부 합의해 우리가 협심해 같은 보조를 취해서 나가자. Let's go 하는 것이 쫓기 대회입니다. 근데 그 날은 내가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딴 분이 안 계시다니 내가 거짓말해도 괜찮겠구먼. 그저께와 어저께 이틀 동안 63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뭐 하나 이제 회의록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서울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평안도 다 나왔는데 저는 함경도라고 나오지 말란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1943년 11월 16일이라고 기억했는데 그것이 맞구만

요. 우리 하숙집에 전보가 왔는데 다음날 ‘17일 10시까지 필히 등교하라’는 짝박한 일본말 전보였어요. 다음날에 정한 시간에 나왔는데 그때는 어떤뎐고 하니 총독부에서 자기네들이 정한 **학생 지원 마감일이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사흘 전에 지금 집회를 갖자 해서 나갔는데 다음날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학교 강당에는 약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집합을 했고** 거기서 김영주 부교장께서 오늘 긴급하게 모임을 소집한 것은 보성전문 의 학병 지원자수가 타교에 비해서, 그때 아사히 전문대와 세브란스를 아사히라 했고, 경성 고 상(高商), 고공(高工)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하다.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50%, 다 과반을 넘었는데 보성전문은 10% 이하의 한자리수의 퍼센티지 밖에 점하지 못하고 있 다. 그래서 학생들을 독려해서 지원자 수를 늘려 가지고 사흘 남은 마감일까지 전원 지원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질타성 경고를 받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덕수 선생, 김성수 교장 선생, 가와모토(한국 사람이야)라는 배석 장교 일본군 중좌의 말이… 그 때 맨 처음 장덕수 선생이 말씀을 했는데 다들 짝박하게 얘기해서 긴 얘기 안했습니다. 한 2~3분씩. **장덕수 선생이 말씀하신 주지를 지금 어휘까지도 가장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지만 아마 틀릴 겁니다. 그러나 제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해하면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장한 자식 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서고금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한 민족의 부활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룩할 수가 없다. 모두 몸을 던짐으로써 쟁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양반이 굉장히 극적 요소를 지닌 분이어서 손수건을 꼬집어 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본인이 흐느꼈습니다. 그랬더니만 내 주위의 우악스럽게 생긴 녀석들 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다들 오열하고 한 2, 3분 동안 회의가 중단될 정도로 모두 울었습 니다.

- 그게 끝난 다음에 김성수 교장 선생이 말씀하셨는데 (이중재 : 장덕수 선생의 말씀을 부 민회관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때도 그 비스듬하게 얘기했어요.) **김성수 교장 선생께서는 ‘제 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제군에게 지원하라 말라 말하지 않겠다. 교육의 목적이 멀고 넓 게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데 있는 만큼 제군은 이제 국제 정세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김성수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모토 중좌란 이 양반이 얘기한 것은, 가와모토가 얘기 한 것은 언급의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얘기하려면 하겠습 니다. 간단하니까. ‘자네들은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금방 죽음과 연결시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나는 북지전쟁에도 나갔다 왔고 소만 국경의 노모한사건 때도 내가 나갔 다 왔는데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았지 않느냐. 남방의 태평양성들은 대개 다 무인도다. 거기 자네들이 가서 금광이라도 하나 발견해봐라. 그럼 팔자 고치는 것 아니냐.’ 그런 유치 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상과 과장 이상훈 선생의 인도 하에 50여명이 상과 교실로 자리를 옮겨서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습 니다. 그때 잠정 결론으로서는 두 분, 장덕수 선생이나 김성수 선생이… 그때 당시 일본의 전황을 발표하는大本영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거기의 발표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했고 자 기네들이 패전한 것도 패전했다는 용어를 안 썼고 후퇴했다는 것을 전진이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자전거 구를 전(轉)자 전진이라고 했지…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 된 것이 내 기억으로 1941년 12월 8일 즉 소화로 하면 1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한

1년 가까이 일본군이 승승장구했을 땐니다. 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버마는 물론 인도네시아 등 남방의 섬들을 전부 손아귀에 넣었을 땐니다. 그러다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처음으로 일본이 참패를 했는데 그때大本營 발표가 ‘심대한 손해를 입었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심대한 손해’란 미드웨이해전과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을 받았을 때 ‘심대한 피해’란 말을 썼어요. 그 두 번밖에 없는데 미드웨이해전이 언젠가 그때는 내 기억이 1942년 초로 기억 했어요… 오늘 아침 며느리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했더니 1942년 6월 5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는 몰랐지만 어렵פות이 미드웨이해전에서 일본군이 참패했다면 미국이 반격을 가하면 전기를 마련했다. 우리가 어렵פות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분들은 대개 정보에 정통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분들이 17일 날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종전이 멀지 않았고 종전의 결과가 형태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어렵פות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나가란 말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잠정적인 결론을 냈는데 장덕수 선생의 말 씀은 지원의 불가피성은 인정 하면서도 그것을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생각 하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는 그때 상과에 갔던 모임에서 그걸 우리들이 느꼈고 또 그리고 김성수 교장의 말씀은 전쟁의 종말을 어느 정도 예견하시고 가능하면 지원을 좀 유보 하고 다른 회피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유하는 고뇌에 찬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 신 거다 우리가 잠정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 그러면 친일파를 규정하는, 정죄하는 모임에 관해서 의견을 내면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맞아 맞아) 편향된 이념과 관점으로 친일인사 친일파를 심 사 판정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또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제3자적 법정 변호인에 결론이나, 또 고인의 숨겨진 참뜻을 헤아리려는 노력도 없이 강요된 연설문이나 특 정 지위에 있었던 죄로 피할 수 없이 강요받아서 쓴 글만을 대상으로 친일파로 정죄하는 것 은,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대한민국 관을 가진 분들은 모르 겠습니다만 수많은 식자(識者)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촌 선생을 비롯한 많은 애국인사들에 대한 친일 판정은 마땅히 취소하고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 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울분을 느낀 것은 그분들이 일제에 끝까지 항거해서 감옥에 가서 영어의 몸이 됐다면 친일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정론을 펴기 위한 언론사나 민족의 힘으로 세운 학교를 일제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한 그 어른들의 번민과 고뇌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나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 김진웅 : 보전은 학병 지원자가 없단 말이야. 그때 당시의 신문 보도도 ‘보전도 3명 나왔다’고 나올 정도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월요일마다 조회를 해요. 조회 때 가와모토 장교가 올라가가지고 ‘지원이 무슨 지원이냐. 말이 지원이지 강제다, 지원 안 하면 보전 없어진다.’ 고 했던 말이야. 생전에 교단에 올라간 적이 없는 인촌선생이 그 때는 자진해서 올라갔어요. ‘방금 가와모토 교관께서 지원 안 하면 학교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내가 총독부에 들어가서 경무총감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이지, 강제 아니다. 설령 제군들이 안나가서 보전학교가 문 닫게 된다고 하자. 나는 제군들의 부모로부터 자네

들 교육 시켜 달라고 말았지, 생명을 맡은 적은 없다. 생명에 관한 일은 제군들이 알아서 해라'고 했다. 그 뒤를 설산 선생이 쫓아 올라가서 매일신보 기사 중 '어디까지 지원이지, 절대로 강제 아니다'는 기사를 꼭 읽었던 말이야. 그 시기에 그 환경에서 친일파 가와모토 배속장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쫓아 올라가 가지고 말이야. 어디까지나 절대로 강제가 아니다. 자네들이 안 나가서 보전이 문 닫는다고 하자. 그러나 나는 니들 교육을 맡았지 생명에 관한 건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어? 그건 아무나 못해.

- 이종우 : 내가 학병을 나갔다왔는데 우리끼린 효자 병이라고 그래요. 내가 학병을 안 나가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교장 선생 했는데 그만두어야 해. 집안 망해요. 안 나가면 집안이 견딜 수가 없어. 그때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12) 장택상 전 국무총리

(동아방송 '정계야화' 제9회, 1965년 2월 19일)

장택상 : 인촌이 그 때 그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뉘야 할 것은 그게 말하면 그게 해방 전 이태 전입니다. 해방 전. 그 때 이제 이자들이 어떤 포섭을 했는고 하니. 조선총독이 이제 우가끼 뺏니다.

사회자 : 우가끼 총독.

장택상 : 맨 끝장으로 왔던 아베 전이지. 우가끼 때 우리나라 유수한 명사들을 일본 귀족원 의원으로 포섭하려고 갖은 계책을 다 썼지. 그 계책에 끌려들어간 분이 참 아깝게도 윤치호 씨, 오세창 선생 그리 되었어요. 인촌을 우겨대서 집어 열라고 이 자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 강압적으로 해보다가 회유적으로 해보다가. 하, 인촌이 누구라고 듣나요 그걸.

사회자 : 그 때만 하더라도 인촌 선생님이 어저께 말씀 나왔습니다만 거 우리나라 민족적 인재의 구심점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뭐.

장택상 : 아니 이걸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촌 만나고 친하고 참... 친구들 지금도 허다하고 많이 있지만은 내의 인촌의 인상은 이거예요. 그 오척단구입니다. 키도 우리 키보다도 적으니까 좌우간. 그 뭐 또 농을 잘하고 이 뭐 참 친구끼리 뭐하든지 이러면 말 열 마디 나오면 일곱 마디는 농으로 그 양반이 늘 참 행세를 하니까. 허나 어떠한 그 대의 명분에 딱 걸려서요. 과썸한 일이 있다든지 나라나 민족에 관한 그 일에 딱 봉착할 때는 서릿발 같습니다. 참. 매와 같은 위엄이라는 거는 도저히 당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친일파 거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깝게도 그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에게 참 이용을 당했다 그렇지. 그게 만약 우리 측으로 돌아섰다면 참 큰 인물 될 사람들... 그 이복으로 납치해간 사람들이 지사 지낸 사람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촌 앞에 와서는 꿈쩍을 못했어요. 난 그 고하 같은 범, 사자 같은 이도 인촌 앞에선 고개를 잘 들질 못했으니까.

그 분을 갔다가 일본 귀족원 의원으로 끌어다 넣으려니 인촌이 듣나요?

사회자 : 대개 어떤 사람들이 공작을 했었나요? 그 때

장택상 : 그 때 그 공작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상용 씨라고 우리나라선 친일파론 참 거물입니다. 그 분이 인제 역할도 많이 했지만. 그것 보담도 팔목의 야기이라고 조선총독부 보안과장으로 있던 자지. 그 분이 인촌을 자주 만났고... 고하, 인촌, 낭산 그 다 자주 만났습니다. 그 셋만 삶으면 조선반도에 대한 저희들 정책은 다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 하는 그러한 복안으로. 야기가 갖은 술책과 참 모든... 금전도 아마 얼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촌을 귀족원 의원으로 내세울라고. 인촌만 내세우면 대한제국은 합병당하고 다 없어졌지만 앞으로 새싹 트는 우리 독립정신이라는 건 고대로 소멸되고 만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인촌 하나의 문제니까 좌우간. 인촌만 엮어 놓으면 뭐 앞은 탄탄대로다. 한국에 대해선 더 걱정할 여지가 없다. 이런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건 자타가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 인촌을 끌어넣으려고 갖은 술책을 다 썼지.

사회자 : 팔목(八木)이라는 보안과장은 결국 해방직전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장택상 : 해방 전 일년 전에 관리가 됐습니다. 그자가. 내가 한 번 만나봤습니다. 한 번. 무슨 인사해 본 적은 없고. 강연회에 갔다가 야기를 봤는데. 그 자가 한국을 6, 7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한반도를. 총독 밑에 불과 경무국 과장이지만은. 과장으로서 행세한 게 아니고, 직무는 과장이래도.

사회자 : 특수공작.

장택상 : 네. 특수공작. 기밀비라는 게 그 때 돈으로도 수천만 원을 썼고. 또 좌우지간 똑똑한 자야.

사회자 : 결국은 인촌선생이 창씨도 물론 안하셨고. 뭐 일체 가담 안하셨...

장택상 : 그런 얘기. 말씀조차 내지 마쇼. 창씨가 뭐야. 인촌이 창씨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수립되나요?

사회자 : 그래서 결국 인촌선생님 일제시대 항거 여러 가지 말씀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우선 거기까지 듣고 내일은 또 인촌 선생님 평상시 성품, 이런 걸 좀 더 깊이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13) 우승규 언론인(1982년 9월 30일)

- 여러 방면으로 많고 언론계에 종사했고 정계에도 부통령까지 됐었다고 하는 그런 면보다도 나는 그 분을 한 가지 위대하게 보는 점이 있다. 원고 하니 그 당시에 동아일보 탄생 초에 상해에서는, 내가 그 때 상해에 있었다. 그 당시 상해에서는 소위 경기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교파하고 평안도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파 사이에 창조파니, 개조파니 싸움이 한창 벌어질 때였다. 경기도 사람을 평안, 함경도 사람이 볼 때는 사람으로 안 봤다. 경기도 사람도 역시 그랬다. 한창 그렇게 파별로 싸울 때 동아일보는 김성수 씨가 창간해 가지고 허다한 인재를 다 망라해서 모았다. 평안도 이광수, 함경도 설의식과 같이 고루고루 인재를 망라했다. 요새 말로 화춘협력해서 일치단결해서 이 나라를 위해 언론기관을 창설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창간 전후 이야기지만 내가 본 가운데도 함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도 있고. 꼭 전라도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었다. 인촌 선생 그분의 전통적인 인사방식이 그렇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동아일보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중앙학교, 고대에서도 그랬다. 현상윤 같은 사람. 좀 중용을 했냐. 지금까지도 현상윤은 아낀다.

14) 카터 J. 에커트 美 하버드대 교수

(‘제국의 후예’ 저자, 2005년 5월 30일)

- 친일 시비를 어떻게 보는가?

“The whole issue of 친일 of collabor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is extremely complicated. It is very difficult first of all I think to define what is meant by collaboration. One of the problems is that there isn't enough attempt to do that. So that anyone who i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organization for example is deemed to be 친일, for example the 총독부. Anyone who worked for the 총독부 is automatically then assumed to be 친일. But, I think if one is going to deal with this issue, you have to consider the exact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and not simply think in terms of organizations, and this is very very difficult I think and complicated. As I have said a number of times already, publicly, I don't think it is fair to, even if you can deem a particular individual to be a collaborator by a mutually agreed upon definition, to them castigator blame the family thereafter the children, grandchildren, and great grandchildren. I just don't think that that is a fair way to deal with the issue. I think, actually, in many ways the issue with collaboration and colonization is best left to historians and scholars, people who are willing to spend the time to look at the documents, to try to understand what happened objectively. I think there's a real danger in turning the whole 친일 issue into a political issue. Because once that happens it immediately loses its complexity and it becomes a tool rather than a serious and open investigation of what happened.

“친일 문제는 너무 복잡한 문제다. 친일, 친일파라는 정의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그 정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일제시대 어떤 특정기관, 예를 들어 총독부와 관련이 있던 사람은 다 친일이라는 식으로 규정한다. 그보다는 더 구체적인, 그 개인이 놓여있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전에 내가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해 동의된 기준에 의해 친일파였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후손까지 조상의 행적에 의해 처벌 또는 비난받는다 것은 공정치 않다. 친일 문제나 식민주의에 관련된 문제들은 역사가들에게 남겨져야 할 문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실제 문헌을 고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역사가들이다. 친일 문제를 정치화하는 순간 친일과 관련된 상황의 복잡성이 사라지고 단순히 정치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진지하고 열린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This is actually a very good example of what I was just talking about. I think if you take a highly political perspective and want to use with 친일 issue as a political tool, it's very easy then to point to certain actions by 동아일보, or by, the book is really about 김연수, (his elder brother, 성수) the book is mainly about 김연수 who was an entrepreneur 기업가, and in order to exist, 동아일보 had to make certain kinds of accommodations with the colonial government. In order for 김연수 to carry out his business he had to make certain kinds of accommodations with the colonial government. So, it's very easy. If you want to attack 김성수's family you can say, "Ah, Collaborator, they collaborated with the colonial government." But this is precisely what I was talking about. As a historian you want to understand the whole concept here. 동아일보, for example, is in many ways a great record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s a valuable source of daily life, of Korean opinion, Korean fashion. And that's why I like to show it to my students. We open the page to 1923 and we can see living Korea at that time. It's very exciting to study. So, 동아일보 made a great contribution actually to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Korea. But to do that it had to make a certain accommodation with the colonial government. So, how does one judge such a thing? You can only understand it in this larger context. And the same thing with 김연수, his younger brother, 경성방직 and the business company associated with 김연수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and to do that they had to exist within a certain kind of framework. So to simply label one or the other as 친일 is to miss the complex reality of a context in which these people lived and the organizations developed.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친일 문제를 정치도구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의 식민기간 행위라든지 아니면 기업가의 김연수 씨의 행위라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민정부에 어느 정도 순응을 했어야 됐고 김연수 씨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민정부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야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성수 씨 가족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친일이라고 쉽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큰 맥락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식민지 기간 한국인들의 사안과 당시 상황에 대한 훌륭한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나 패션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당시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훌륭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당시 동아일보가 놓여있었던 일제 일본의 식민지 정부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야 됐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가 친일이나 아니냐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거고, 보다 큰 당시에 놓여져 있던 맥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씨도 마찬가지로 인데요. 당시 그분이 이끌고 있던 경성방직이라는 사업체를 통해서 한국의 자본주의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프레임워크의 내부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친일이다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의 복잡성이라든지 놓여있던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5)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2009년 9월 7일)

- 격동기,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대결하고 갈등하는데 비친 그걸 가지고 실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 육당 선생의 학병 관계된 걸 얘기했지만 인촌 선생에 대해서 70년대 초반일거요. 내가 조교수 돼 가지고니까. 72년이나 73년, 아마 그때 저기를 나가셔서, 현민 유진오 선생님은 정계에 나갔다가 병을 얻으셔서 관두시고 은퇴하고 계실 때야. 붓글씨를 많이 연습하고 계셨어. 내가 일본 갔다 오고 그럴 적에도 늘 먹도 사다 드리고 선생님, ‘민족문화창달’이라고 그걸 하나, 민족문화연구소장 때니까 그거 휘호를 하나 써달라고, 지금도 민족문화 연구원에 있어요, 소장실에. 그걸 하나 써 달라고 부탁도 드리러 가고. 현직 총장으로, 학생 때 내가 장가들었는데, 그 총장이 학생 장가드는데 주례해 주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해주셨고, 또 ‘육당연구’라고 하는 책 처음 낼 때 서문을 써주셨고... 내가 그 어른한테 각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집 무상출입하는 사람이야. 가서 밥도 얻어먹고, 나중에 정계 저거 할 적에 비서실장을 하던 박찬세 씨가 잘 알지. 그건. 그래, 한번은 가서, 그때 왜 그랬는고 하니. 또 학교에서 인촌 선생에 대해서 이 자식들이 좌파 학생들이 인촌 동상 뭐 헐어 낸다고 끌어내린다고 그러고 할 때야. 그때가, 그 전에 좌파 학생들이 아무튼 학교가 조용할 날이 없었잖아요. 인촌 친일파로 몰고 막.

-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뵈고, “선생님, 그 인촌 선생님, 그 저 매일신문에다가” 매일신문이라는 게 조선말로 나오던 경성일보의 자매지야. 독자도 몇 안됐대. 한 몇 천부 찍었다 그래. 거기다 학병 권유하는 그런 글 쓴걸 가지고. 그래 맞아. 그때 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동아일보 뭐지, ‘한국언론사’인가 뭐 썼는데 거기다가 난리 쳤지. 맞아. 여

하 간에 말이야. 그래, 여쭙보기를 “인촌 선생이 그런 학병 권유하는 글을 쓰셨다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애들이 야단인데” 또 하나는 내가 또 그때 같은 시기에 그게 있어. 조지훈 선생님을 좌파 학생들이, 조지훈 시비를 세운다니 학교에다가, 이걸 반대하고 난 리야. 반대하는 이유가 걸작이야. 조지훈 선생 아버지 조현영 선생이 월북이 아니라 납치거든. 제헌국회의원으로. 그리고 그 조지훈 선생 할아버지 조인석 씨가 저, 인민군 들어왔을 적에 당신 아들이 제헌국회의원이고, 손자가 남하해 가지고 민족시인이고 하니깐, 할아버지를 연행을 했어. 인민위원회에서. 그러니깐 연행당해 가시다가 말이야. ‘내가 너희 놈들한테….’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집안 한양 조씨 집안이 대단해. 그 생가 앞에 개울이 있어요. 평소 때는 조그만 개울인데, 장마가 질 때는 물이 많이 내려가지. 그리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하셨어.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 좌파 학생들이, 지금 뭐 정계에 누구누구 내가 말은 안하지만 그때 날 뛰던 학생들이요. 지금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하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사람들, 참 내 속 어지간히 썩힌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그 자들이 조지훈 선생 집이 모두 극우였다고 시비 못 세우게 난리쳐. 그거 세운다고 다 돈까지 모아놨는데, 내가. 그걸 했다가는 고인한테 더 욱되게 된단 말이야. 그때 내가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났지. 그래서 아마 그거 연장선상으로 인촌에 대해서, 아마 유진오 선생님한테 여쭙본 거 같아. 이제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니깐, 하필 왜 그때 가서 새삼스럽게 그걸 여쭙 봤나. 더듬어서 생각하니깐. 조지훈 선생 관계로 해서, 내 직접 은사니까, 또 민족문화 연구소 소장으로 모시고, 내가 총간사를 했고, 그분 돌아가시고 내가 소장을 이어갔고, 학맥이 그렇게 통하니깐, 조지훈 선생님은 친부모와 같은 분이니까.

-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여쭙더니 이 어른이 “인촌 그 어른은 평생 당신 손으로 글 한줄 쓰신 분이 아닐세.” 그러서. 학교 소식도 전하면서 좌파 학생들이 그렇게 NL인가? 뭐 하여튼. 지금 짐작도 못하실 거야. 그때 나는 김상협 선생님 총장 하실 적에 이념서클, 문제서클 지도교수를 전부 맡으라 그러고, 또 김상협 선생님 스피치라이터를 또, 국문과 교수라고, 그런 거 써오라 하면 맨 날 밤을 훌딱 새우고 그걸 써가고 그랬다고.

- “인촌께서는 평생 글 한줄 안 쓰신 분이고, 그걸 전부 내가 대필을 졸업식사라던가, 어디 가서 뭐 말씀 하실 때가 있으면 전부 나한테 대필을 시키셔서 내가 썼는데, 내가 쓴 사실이 없네.”

- 그때 단말마적인 뭐 일제 전쟁 말기가 돼 가지고, 막 아무나 이름대가지고 인촌 뿐 만 아니라 써달라고 그래서 써주는 사람은 당연히 써주고, 다행이고. 써달라고 말도 못 붙일 사람이 있고, 써달라고 하면 ‘난 모르겠네.’ 그러고 ‘알아서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을 것 아냐? 인촌 선생께도 써달라고 많이 들 갔었겠지. “근데 인촌이 나한테 쓰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 난 쓴 기억이 없어. 근데 그때 매일신문 건이니까 아능 조용만 씨가 잘 알 걸세.” 그러시더라고.

- 조용만 씨가 구인회 멤버고 매일신문 학예부장을 했어. 경성제국대 영문과 나와 가지고. 우리 고대 영문과 교수야. 나도 직접 배우고 그랬지. 잘 알지. 그래서 그때 그 어른이 이미 은퇴했을 거야. 정년퇴임 하셨을 거야. 그 어른이 따님 댁에 계시다가 수원에 그 무슨 실버타운에도 계시고 그랬어. 그때 그 어른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나 뵙도록, 서울서, 그 어른이 잘 가시던 다방이 그, 저, 종로 네거리에서 안국동 쪽을 올라가다보면 아, 그 무슨 다방이더라. 잊어버렸다. 옛날 노인네들 모이는 그 2층에, 그리 약속을 해서 가서 여쭙봤어.

- “선생님, 현민 선생을 뵈는데, 인촌의 그 학병 권유하는 연설을, 연설문을 현민이 안 쓰셨대요. 그러면 누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 “글쎄 뭐 그때 말기가 돼가지고 말이야. 난리 치는데.”

- “그 저 선생님, ‘아능 선생님께 여쭙보면 잘 알걸세’ 그러시는데. 선생님 좀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말을 좀 더듬는, 그걸 뭐라 그러냐. 놀언은 아니고. 놀자가 말씀언(言) 번에 안 내(內)자 하면은 말더듬을 놀(訥)자야. 놀언은. 글쎄, 그거도 놀언이라고 할까? 말을 좀 더듬으셔. 또 급하시고.

-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휴, 그 얘기 왜 또 꺼내. 아휴” 그러니깐 그거에 대한 많은 언론, 그 자신이 언론계에 있었으니깐 시달렸던 모양이야. “그런 얘긴 왜 또 꺼내? 왜 또 꺼내?” 그러셔.

-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좀 확인해야 할, 저기. 그래서 현민께 여쭙봤더니 아능 선생님께 가서 여쭙보면 잘 아실 거라고 그래서 뵙자고 한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사양하시다가

- “하, 참, 말 마 그때, 그 매일신문이라는 건 그냥 뭐 총독부 기관지니까, 그 말 맞아.” 몇 등급이 있단 이 말이야. 말도 못 붙여 볼 사람, 꼭 필요하지만. 말 붙이면 그 거절할 사람, 또 가서 이런 걸 요청을 하면, 부탁을 드리면 ‘에이, 난 모르겠네. 당신네가 알아서 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알았네’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써서 보내주는 사람,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인촌은 쓰지도 않을 분이고,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실 분이고, 그러니까 그때 급하고 뭐 신문은 나가야되는데 매일매일 오더가 떨어진다는 거지. 누구 이름으로 받아내라, 누구 거 받아내라… 신문사에선 받아 낼 수가 없으니까 학예부 기자, 뭐 서너 명인데, 그거뿐만 아니라, 사회부 기자 뭐 해가지고, 순전히 앉아서 그것만 썼다는 거야. 맨 날 B29가 공습 온다고, 여기 폭격은 안했지만, B29 지나가면 공습경보 내려가지고, 말이지. 응? 다 옆드려

있어야 되고 말이지, 방공호 찾아가야 되고, 그런 판국에 무슨 신문제작이고 뭐고 제대로 되겠나?

- 앞아 가지고서 전부 그런 거 대필해가지고 누가 썼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깐 개인 말을 하기가... 모르진 않으셨을 거야. 나는 안 썼고, 물론 자기는 안 썼고. 아까 말한 김모 씨라는 사람도 그중의 하나지, 그 사람이 전부 쓴 것도 아닐 거야. 난 알아. 그때 분위기를 조용만 선생을 통해 잘 들었거든. 그때 매일신문 안에 분위기를.

16) 김성식 전 고려대 교수(1982년 10월 22일)

- 사실은 인촌 선생보다도 현(상윤) 총장을 먼저 봤다. 1946년 2월이다. 문교부에 갔다가 사실은 연세대학을 갈라고, 유억겸 총장을 만나러 갔다가, 현 총장을 만났다. 난 초면이거든. 현 총장은 고려대학 문과가 46년 9월부터 되니까 우리 대학으로 가자했다. 거기서 언약이 되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2월 말일 경 가회동인가 현 총장 댁에 갔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와서 있으라고 했다. 1946년 9월에 고대에 들어와서 있다가 48년쯤 해서 이인수 선생이 주동이 돼서 교수들이 연구발표회를, 교수 상대로 연구 발표가 있었다.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던 19세기 초의 독일 학생운동을 발표하게 됐다. 그 때 인촌 선생이 오셨다. 아마 대학생들 데모에 대해 흥미 있어서 오셨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처음 기억 인상이다. 인촌은 한 시간 동안 내 발표를 주의 깊게 들었다. 학생들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외국 학생은 어떤 운동을 일으켰느냐가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1950년 3월 하순경 '대학이라는 것이 뭇인가' 2년 동안 강의를 계속했다. 원고지에 올려서 '서구 대학의 역사'라는 책을 썼다. 연구 서적으로 나왔다. 그걸 갖고서 느닷없이 인촌 댁을 찾아갔다. 그냥 책만 전하려고 갔다. 명함을 보시드니 들어오시라고 했다. "내가 이런 책을 하나 써서 평생 교육사업에 헌신하신 선생님께 기증으로 드립니다." 하고 써서 드렸다. "내가 뭐 한 거 있나"하고 겸손해 하시며 받으셨다. 그게 인상에 남았다.

- 진해 피난시절이다. 서병권 이사도 피난을 왔다. 나도 피난을 왔다. 세 댁을 빙글빙글 돌았다. 서 이사께서는 생선을 잡아서 우리 집에 보내기도 했다. 인촌 선생 댁을 간간 찾아갔는데, 저녁도 대접 받았다. 무척 손아래 사람을 귀여워한다. 특히 자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여워해주는 걸 느꼈다. 4월 하순께 한 번 갔더니, "김 선생, 산보나 갑시다." 했다. 사모님하고 나갔다. 공원 높은 탑으로 슬슬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모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인촌 선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나 돌아다보니 길바닥 몇 가게에서 엿을 사고 있더라. 엿을 사가지고 오더니 "김 선생, 이런 데는 엿을 사서 질금질금 씹으면서 산보하는 게 제격이야."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이 참 서민적이구나.' 전연 의례적인 양반 티라든가 내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전연 없어요. 아주 순박하신 분, 그 분 얼굴이 그리 화려한 얼굴도 아니고. 시골 농사꾼처럼 소박한 사람이구나. 이 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도 많고, 지체도 높으시고, 학교 경영자에, 정당에도 간여하시고 어딘가 그런 티가

하나도 없어. 정말 색다른 분이다. 돌아가시기까지 지켜봤는데, 이분은 서민과 잘 어울리면서 어딘가 자기 생각은 백운대 같은 높은 데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을 잘 쓰시는 것 같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도 특기가 하나만 있다면 잡아두셨다. 역시 큰 사업을 하려면, 장군은 용병을 잘 하는 것처럼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그분은 사람을 잘 쓰시는 것 같다. 어울리면서 세밀한 것도 알면서, 높은 데 올라서 사람을 쓰시는데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잘 쓰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역시 같은 서민적이지만 원대한 생각을 갖고서 사람을 써서 자기 사업에 성공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 같다. 옛 사먹으면서 한 시간 동안 걸었다. 의례적인 격식을 차리지 않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서민적이면서도 생각은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을 쓰는 데 재간만 하나 있으면 적재적소에 갖다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 들은 얘기다. 경성방직의 김윤복 씨인가 당시 공장장이었는데,

구주대학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이분이 잘못돼서 만주로 갔다. 해방 이후에 다시 경성방직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촌의 입김이 들어가서 다시 채용됐는지, 수당 선생이 단독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눈에 조금 거슬려도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꾸준히 사람을 믿고 쓰면 언제든지 자기 덕이 돌아온다는… 인촌은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나 생각한다. 하여간 사람 보시는 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다른 사람은 지적할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좋은 사람을 자꾸 끌어 모으려하는 성격이 계신 것 같다. 유진오 선생이 고려대학에 계신 것도 인촌 때문이다. 그분은 원래 경성제대를 졸업했고, 경성제대 강사로 가야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인촌이 딱 잡았다. 역시 인촌은 재간 있는 사람을 잡는 재간이 인촌에겐 있다. 경성제대 졸업하고 보성전문에 픽업해서 갖다 났다. 어떤 결과가 됐느냐 하면 사실 유 선생이 실수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오신 것은 인촌 덕인 줄 안다. 이분이 인촌 그늘 아래서 그래도 무난히 자랐었지. 만일 인촌의 문 밖에 나갔다면 이리 같지, 저리 같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분이 재간이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바람만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유진오는 인촌의 감화를 받아서 바람 맞을 것 바람 좀 맞고, 사람을 무던히 귀여워해서, 하나의 삶을 실수 없는 인간으로서 평생 마치게 하는 그런 재주도 인촌 선생이 있지 않나. 나는 인촌과 유진오 선생의 관계를 한 30년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 인촌이 역시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인촌이 학병 연설을 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백서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도 한다. 나는 “좋다, 다 했다 말이야. 나는 듣질 않았지만, 남이 다 그러니 했다고 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민족운동을 한 기간이 긴가, 친일파 기간이 긴가하고 따져보자. 요즘 계량 사회니까 계량적으로 따져보자 말이야.”하고 평가를 합니다. 춘원에 대한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분은 이제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잡아끌고, 그 산하에 들어가 놓으면… 고대교수 중에도 인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필요하니까 그대로 둔 것이다. 그러나 아무

리 싫어해도 인촌에 대해 반기까지 든 사람은 없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을 잘 쓰시는 분이라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 인촌 선생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장면 씨가 인촌을 카톨릭으로 개종시켰다. 그러나 원래 인촌은 기독교로 개종했던 분이다. 이걸 이아주 사모님에게 직접 들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아주 여사는 “우리 제사는 우리 대에만 이렇게 하지, 다음 대에는 안하도록 합시다.”고 약속을 하고 시집갔다고 한다. 그 가문에 전라도 유가에서 제사라는 게 1년에도 몇 십번씩 하지 않나. 자신은 크리스천이고, 인촌의 가풍을 어길 수는 없고, 절충안이었던 것이다.

- 고려대학교 뒤에 묘목지가 있었다. 거기에 조그만 집이 있어서 몇째 아드님이 거기 있었다. 하루는 길에 가다 만났다. 사모님이 거길 가자고 했다. 집안 사정을 얘기해요. 유진오 선생 총장 시절, 자기가 인촌하고 싸울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갖고 싸웠다. 왜 자식은 생각하지 않고, 전부 돈이 있으면 학교 재단에 모두 넣느냐. 자식들 생각 안하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했다. 그래서 그 묘목지는 인촌 자제분에게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세히는 모르겠다. 고거 하나밖엔 없었다는 이야기. 사모님께 사사로운 이야기 많이 들었다.

- 부산 송도에 피난해 있을 적에 뇌일혈로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부산 대신동으로 피난 왔다. 내가 갔더니 인촌이 거의 감정에 격고해서 “김 선생, 나 기독교로 개종했소. 하느님 아버지, 저 공산당 김일성 하루 빨리 무찔러 주시오.”하고 종얼종얼 자꾸 기도를 하더라.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어느 분이 인촌을 개종시켰을까. 선생님 어떻게 돼서 기독교로 개종하셨냐고 물었더니, “김창인 조사에게 했다.” 그 후에 만나 김 목사에게 물어봤다. 강남의 총현교회 김창인 목사. 김창인 조사가 개종시켰다고 들었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 느꼈다.

- 고려대학교 내 인촌의 무덤자리가 원래 총장 관사 예정지였다. 인촌 선생이 그 자리에 자기 집을 짓고 부부끼리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유택이 되고 말았다고 이아주 여사가 그랬다. 이아주 여사 장례식도 그곳에서 거행됐어. 자기 집을 짓고 학교를 보고 살다가 죽으면 총장 관사를 하려고 했는데 유택이 됐다고 하시더라.

- 고대 강당 지을 때 인촌 선생이 매일 나와서 보고 있었다. 저분이 학교를 저렇게 사랑하나. 심심해서 나오시나 생각했다. 항상 달걀 만지듯 고려대학교를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깨질세라 어떻게 될세라 애지중지했다. 또 하나는 고려대학 본관을 짓는데, 어떻게 가다다 정문에 같이 모시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촌 선생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김 선생, 이거 원 줄 알아? 이게 호랑이야. 이게 한국의 상징이야. 이리 와 하더니, 뒤로 가더니

뒤에는 무궁화 두 송이가 있다. 이건 무궁화라고. 집을 지으면서 한국의 상징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전설로 내려오는 호랑이와 무궁화 꽃을 붙이셨다고 한다. 일제시대 때 하루는 일본인 시학관을 모시고 인촌 선생이 오는데 본관 현관 들어가면서 바닥에 방사선 모양의 모자이크가 있다. 시학관이 유심히 살폈다. 태극기가 아닌가 유심히 보는 것 같더라고 느꼈다고 하더라. 자세히 보지 않고는 모르거든. 태극기는 아니니까 그냥 속 지나가더라고. 호랑이와 무궁화를 봤으면 말썽을 일으켰을 텐데 못보고 지나가더라고 인촌이 말씀하셨다. 그 꽃 모양은 이화 비슷하지만 내가 들은 것은 무궁화입니다. 나는 직접 들었어요.

- 도서관 짓는 데 전국을 차타고 돌아다녔다. 평양에 들어서 친척 집에 들렀다. 점심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설렁탕 시켜 오라고 해서 잡수었다. 글을 한 장 써달라고 하니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다. '담백명지(淡白明志)' 성격이 담백하고 밝은 것이라. 그 분이 액자로 해서 걸어놓았더라. 한운지 씨 덕이었다. 공산당에게 잡혀서 돌아가셨을 거다. 달필 아니라 어린애 습자 같이 그렇게 썼다.

- 1948년 10월 달에 인촌 선생을 명륜동 우리 집에 모신 적이 있었다. 1948년 10월 8일이 어머니 환갑인데 은수저 한 벌을 가지고 오셨다. 한복차림으로 국회 김동원 부의장과 함께 오셨다. 내가 2년 반 동안 고대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다. 1965년 9월~1968년 2월까지. 이종우 총장 때. 65년 (한일회담)비준하지 않았어요. 박 정권에 쫓겨났다. 73년 8월 30일이 정년퇴직인데 고려대 연구실 떠나는 게 딱 아쉬웠는데 만일 인촌 선생이 살아 계셨으면 내가 여기 있겠다고 했으면 그 분은 내게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하고 아쉽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고생 많이 했을 때다. 그분은 역시 조금 다르지 않았겠는가 생각했다.

17)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2008년 11월 18일)

-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편이 인촌 선생이나 친일파 문제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얘기하는데요.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송실중학교를 다녔어요.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할 수 없으니까 일본 총독부에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교장을 파면시키고 문을 닫기로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5, 6백 명 학생을 일본 학교로 편입시키고 일본교육을 받게 하는가, 한 사람이 신사참배하고라도 민족주의학교를 계속해나가느냐 기독교와 교육계 평양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운동주 시인은 안하겠다고 학교를 자퇴하고 용정학교에 다시 갔어요. 나도 교회목사님이랑 주변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해 1년을 쉬었어요. 평양 유지들이 걱정을 하다 한국인 교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래서 뽑힌 사람이 교회장사인 정두현 교장이예요. 신사참배를 하기로 하고 교장이 되었어요. 1년 학교를 쉬고 학교에 갔어요. 교장선생님과 한달에 한번씩 신사참배를 하는데 학생들이 줄을 서서 했어요. 깊숙이 절을 하는 건데 교장 선생님이 절하는데 얼굴을 들고 보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많이 울었어요. 슬픈 표정을 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시네요. 그걸 보고 나니까 민족과 국가를 잃

아버리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민족의식이랄까요 키워나갔거든요.

- 얼마 전 친일파 명단을 만든 실무에 관여한 사람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기를 '서울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친일파라고 밀렸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교육계 있던 사람들은 다 친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여기에 있었으면 친일파 명단에 들어갔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분을 친일파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 분들 덕분에 우리들 애국심 때문에 해방되고 독립됐는데 쉽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했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윤동주가 창씨개명 했다고 해서 친일파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도 창씨개명 했다고. 창씨개명 안하고 공무원이 될 수도 직장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처럼 시골서 농사짓는 사람도 아버지는 임시로 바뀌더라도 되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에서 김씨 성은 그냥 두고 다음에 한 글자 넣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친일 문제를 선택으로 아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였는데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촌 선생의 문제도 그런 위치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서 사료가 나왔든지 서류가 나왔든지 해서 이렇다 이렇다 그건 그 당시에 상황이나 실정을 모르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건 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요즘 6·25 전쟁이 북침이나 남침이나 많이 하잖아요. 나같이 그걸 다 보고 다 겪은 사람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켰다하는 것은 99가 아니고 100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다 겪었으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나오는 문헌이 있었다, 서류가 있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역사를 바꿔놓는다 생각하는데 그 시대를 산 사람의 증언은 역사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인촌 같은 사람이 만약에 없었고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독립을 했겠느냐, 독립의 기반을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점에서 봐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길 했는데.

- 하나 확실한 것은 인촌 선생이 글을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당신도 글 쓰려고도 안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촌 선생은 투고하거나 글 쓰시는 분이 아니고요. 동생 되시는 김연수 씨는 얘기 길게 못하는 분이예요. 어디가면 써가지고 가서 몇 마디 읽지. 인촌선생은 그렇게 글 쓰고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말씀은 잘 하셨나요?) 말씀 잘하시는 분은 아니고. (달변은 아니시고).달변은 아니고요. (말씀하시길 좋아하셨다는 얘길 들었는데) 좌담을 좋아하셨죠. 그렇게 민주주의도 얘기하시고 그러시지만 체계적으로 학문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이예요. 학자타입이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으시고요.

- 거기서 얘기할 때는 친일파 명단 만든 실무자와 얘기할 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창씨 안했던 사람 없을 것 같다 했는데, 남이 창씨개명하면 안 된다하는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창씨개명 안한 경우가 얼마나 되나 우리가 하면 괜찮다고 하고 남이하면 평가를 떨구고 하는 데 자꾸 빠지게 되는데.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지나친 얘기지만 이광수 선생이나 최남선 선생이

일제 말에 친일행동 한 것 인정한다. 그러나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분이 변절해서 친일 운동한 비중하고 그렇게 되기 이전에 민족정신이 남긴 결실하고 어느 편이 더 컸냐하는 것은 역사가들이 살피게 된다. 안 살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의식이 자꾸 나가는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 민족의식이 살고 전통이 살았구나 살피게 되지요. 지금 친일파 명단이 발표되고 그랬다 해도 먼 후일에는 좀더 건전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 친일파 명단을 발표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역사의 무대가 있는데 이쪽을 친일파라고 해서 몰아내고 우리가 그 위치를 차지하면 그건 역사를 목적을 위해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 화가들, 문학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려 있잖아요. 좌파하고 우파하고. 역사 무대의 영역 대립이 있는데 역사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나면 인촌 선생처럼 민족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력이 조금 밝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다 아는 얘기인데요. 김일성이 되기 전에 김성주였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좌파에서는 김일성은 김일성이지 김성주가 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고향사람인데, 사실은 초등학교의 선후배예요. 내가 갔을 때는 김일성은 졸업하고 떠났기 때문에 같이는 못 다녔고. 같은 고향이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김성주 때 그러니까 해방되고 얼마 안돼 고향에 왔어요. 동네 어른들이 “김성주가 왔는데 내일 아침 환영잔치가 있을 테니까 한번 가자.”고 했어요. 김일성과 함께 조반을 먹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성주야, 해방됐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김일성이 친일파 숙청, 두 번째는 토지개혁이라고 5가지를 얘기해요. 이야기를 듣다보니 저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공산당 강령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산당은 조직이 있으니 어떻게 접수한다는 것이 다 있었어요. 한국은 조직이 없어 이승만 박사가 정권잡고 반공하자니까 일제시대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이 서서히 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들은 흑백이니까 중간이 없고 미국은 민주주의니까 중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우물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 좌파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폄하할 때 친일파 숙청을 못해 정통성이 없어졌다하는데요. 과거사 정리한다는 친일파 문제가 지난 정부가 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의 무대를 차지해야한다, 친일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껴왔지요.

- 인촌 선생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지만은 나는 나 자신도 얘기 더 안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주위 사람들도 얘기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이 남겨놓은 중앙학교 고려대학 동아일보 경성방직 같은 업적이 튼튼히 있는데 거기에 돌을 던져보고 계란을 던져 봐도 변함은 없거든요. 나는 인촌의 뜻은 그만큼 크다고 봐요. 인촌을 평하는 사람들 특히 목적을 갖고 그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고려대학의 일부교수들이 자본주의 착취의 표본이 됐던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고요. 인촌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모든 점에 대해 가만 계실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2. 면담 증언

18) 이종찬 전 국정원장(2004년 9월 1일)

- 우리 당숙(독립운동가 이규봉)이 조부인 이회영이 설립한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는데 병이 나 귀국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에 집안 전 재산을 팔고 갔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었다. 당숙은 어릴 적 한문을 좀 배운 게 있었는데, 인촌이 먹고 살게 해주었다. 인촌은 “걱정 말라. 동아일보에 와 있으라.”고 해서 동아일보 교정부에서 일하게 해주었다. 당숙은 당시 동아일보에는 박헌영도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산주의자인 박헌영도 어려울 때 인촌이 월급을 주면서 먹고 살게 해주었다.

- 서재필 박사가 고려대에서 강연했는데 인촌 선생이 모시고 와서 인촌이 서재필 박사를 소개했다. 강의가 다 끝나고 한 학생이 일어나 “다시 미국 가시는 겁니까?”하고 물으니 서 박사는 “가야지”하고 대답했다. 그 학생이 다시 “갈 거 뭐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모시겠습니다.”고 말하자, 서 박사는 “그런 소리 말라. 나는 늙은 사람이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인촌이 대통령감이요”라고 말했다. 서재필 박사가 “인촌이 대통령감”이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지자 이승만 박사는 인촌 김성수를 더욱 경계하고 한판 붙게 됐다.

- 일제시대 인촌을 보면 그 당시 어떻게 그런 처신을 할 수 있었을까 감탄하게 된다.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형국이었다. 가인 김병로는 “농사 흉년보다 사람 흉년이 더 무섭다”고 했다. 인촌의 교육사업은 중요했다. 요즘 친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백이숙제처럼 수양산에서 고사리만 먹고 살지 않았으면 모두 친일파로 이야기한다.

- 요즘 ‘과거사 청산’을 보면 중국의 ‘문화혁명’과 똑같다. 당시에 ‘3반, 5반 운동’해서 지주들이나 친일파 논란이 거셌다. 말하자면 “현재 있는 모든 기득권 세력을 죽이자”는 운동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지도자 중에는 문화혁명 세대가 하나도 없다. 후진타오 같은 지도자들은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이었다. 후진타오는 발전소 기술자였다. 문화혁명 기간 중에도 발전소는 돌려야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숙청당하지 않았다. 만일 현재 중국의 지도자들이 법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했다면 모두 박멸됐을 것이다.

19) 김재순 전 국회의장(2008년 7월 15일)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서 인촌 선생을 수록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속에 편견이 있는 사람이다. 인촌의 업적은 인재 양성이야. 많은 사람을 키웠고 그것이 반일이다.”

- 인촌을 만난 것은...

“1946년 세배를 갔다. 본인은 나서지 않고 장덕수 송진우를 앞세웠다. 보성전문학교를 통해 사람 키웠는데 친일하라고 교육했겠나. 그 당시 애국하는 방법이 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다시 나라 찾겠다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겠나. 교육도 독립 준비하는 단계 아니겠는가. 나라를 지키고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인재 양성 한 것인데 독립운동이 따로 있느냐.”

- 도산 안창호 선생 일은?

“나는 박의규(朴義圭)에게 들었다. 동아일보 체육부장을 지낸 참 재미있는 분이다. 박의규와 가깝게 지냈는데 박의규 씨는 도산의 보디가드랄까 수행원이랄까 도산이 시골 같은데 가면 따라다녔다. 1935, 36년경이다. 도산이 서울에 오면 화신 앞에 있는 중앙호텔에 묵으신다. 여러 사람이 찾아오는데 인촌도 와서 절한다. 박의규는 수행원으로 방구석에 있다가 인촌의 손이 자부동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본다. 박의규는 참 유머가 많은 사람이다. 인촌이 돌아가고 도산 선생은 방석 같은데 신경 안 쓴다. 박의규가 얼른 방석 밑을 보면 1000원도 있고 그랬다고 한다.”

- 인촌 선생의 다른 일화는?

“이것도 박의규에게 들은 얘기인데 인촌 선생과 관련 있는 얘기다. 도산 선생이 인촌에게 한인 중에 물고기 전문가가 없느냐고 물었다. 인촌이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도산은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에게 단백질을 공급해야하는데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뽕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물고기가 항상 벌떡벌떡하는 강을 만들어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양어장 전 공하는 사람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다. 인촌이 ‘좋은 인재가 있다’며 ‘찾아봐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호남 출신으로 동경대를 나온 정 모씨, 호남사람이면 알만한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으면 100세 정도? 를 소개했다. 당시 조선총독부 기술직이었던 정 씨는 키가 크고 장대했다. 그는 도산이 보자고 해서 관청에서 알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겁도 났다고 했다. 도산 선생을 찾아보니 ‘단백질을 공부하는 사람이니 아랫사람이지만 훌륭한 공부를 했소’라며 격려해주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양어장 큰 것과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작은 것의 도면을 그려줄 수 없느냐고 해서 돌아와서 해드렸다고 한다. 나는 나중에 정씨를 만나 이 얘기를 확인했다. 그리고 해방 전 평양 근처 송태산에 있는 도산의 시골집 송태산장에서 정씨가 설계해 준대로 설치한 양어장을 보았다.”

- 그밖에 해줄 말은?

“친일인명사전 만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국민의 태도가 아니다. 같은 민족끼리 민족 수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 이철승 전 국회의원(2004년 7월 8일)

- 해방 전 총독부 밑에서 협박 강요에 의해, 먹고살기 위해 굴종 협력한 사람은 죄가 아니다. 국내에서 창씨개명 안하고 독립운동을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인촌이 그랬다. DJ, YS가 다 창씨개명하고 DJ는 일본인 학교도 다니고 그랬잖나.

- 김일성 동생 김영주도 관동군의 군속을 지낸 친일파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 편에 선 자는 친일 경력 묻지 않고 우익에는 친일파로 재단했다. 여운영이 주도하는 좌익세력도 인민공화국 수립 직전(미군정 직전) 인촌을 문교부장관에 내정했을 만큼 인촌을 인정했다.

- 공산당 내부에도 장안파 재건파 속에는 일제 때 동장 식량배급소장 등을 지낸 이규엽 등이 있었다. 좌익으로 월북한 황철 심영 등도 일본인 위안한 예술단 출신들이다.

- 친일파 문제는 해방되어 제헌국회 때 끝낸 일이다. 한번 진통을 겪어서 끝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좌익들은 정치도구로 자꾸 이를 들고 나온다. 북한도 남한은 해외파의 이승만과 국내파의 김성수와 한민당이 만들었다고 할 만큼 인촌은 대한민국 정통성 문제와 직결돼있다. 언제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 고손자들까지 친일문제를 갖고 싸울 것인가. 지금은 친일파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를 갖고 국회에서 싸워야 할 때다.

- 인촌이 매일신보에 썼다는 학병권유 논설이 강요에 의해 씌어졌다는데...

“나는 학병반대운동을 주도했고, 학도병으로 끌려간 대상이므로 당시 상황을 잘 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은 여러 곳에서 학병 권유 운동하라는 권유받고도 칭병을 하며 안했다. 고하는 총독 등의 학병 권유요청을 거부했다. 학생들이 ‘학병을 가야 하느냐’고 물으면 가지 말라고 했다. 고하와 인촌은 매일같이 회합해 대동아전쟁상황과 국내 상황 등을 분석하며 학교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일본은 학병을 보내 식민지 운영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있을 때이지만, 고하가 학병을 반대했는데 함께 한 인촌이 학병을 권유했겠나. 물론 당시 일본은 인촌에게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병운동을 권유하라’고 강력히 종용했다. 그러나 인촌은 “나는 교육을 맡은 사람일뿐 남의 자식을 학병에 가라 말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비판론자들은 인촌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병을 권유하는 연설과 설득을 하고 다녔는데….

“나는 인촌에게 학병 권유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전장행회라고 학병을 지원한 학생들이 나가기 전에 위로하는 송별회가 있었는데 눈물의 환송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선생님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껴안고 위로했는데 인촌은 나오지도 않았다.”

- 학병 권유 논설이 인촌이 쓴 게 아니라는 근거는?

“인촌 선생은 신문 같은 데 글을 쓸 줄 모르는 분이다. 써야 할 때도 비서 교수들이 써주는 것이고, 문제의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는 등 매일신보 논설도 총독부 경무국 학무국 등에서 강요하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김병규 기자도 설득하면서 초안까지 잡아준 것이다. 이를 ‘창피하지 않게’ 글을 다듬어주도록 유진오 선생에게 부탁한 것이다. 양호기에도 나오지만 유진오 선생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하다. 인촌은 그런 선동적인 글을 쓴 적도 없다. 문투나 용어도 그런 것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재주도 없다. 인촌은 한번도 학병을 가라는 식의 말을 하러 나온 적이 없다.”

- 학병거부운동은 어떻게 이뤄졌고, 인촌은 어떻게 관계되었나.

“보성전문 대표인 나와 경성제대 대표인 이혁기, 그리고 각 전문의 대표 등 열 몇 명이 중심이 돼 비밀리에 모여서 학병 가지 말자고 연판장 돌리고 각 학교에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다. 당시 나는 인촌선생 댁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말하자면 나는 고하 인촌의 직계고 이혁기는 몽양 여운형의 직계였다. 그런데 학병 지원율이 안 올라가니까 일제는 학부형들 불러다가 강요하고 권유하고 그랬다. 그러다가 학병반대운동 그룹의 해화전문 쪽 대표가 집에서 얘기한 내용이 총독부에 들어갔다. 그 집안은 친일파 집안이었다. 이를 들은 고이소 총독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나서면서 학병반대 운동은 무산됐다. 인촌은 직접 학병반대를 언급했다기보다는 물으면 학병문제에 관해 물으면 ‘난 교육만 맡았지 남의 자식을 학병 가라 말라 할 수 있겠느냐’며 묵묵부답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인니까.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에서 학교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상 강한 거부가 있겠느냐.”

- 인촌이 학부모들을 찾아다니며 학병을 권유했다는 비판론자의 주장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 했다면 민족진영의 안호상(내 담임선생) 손진태 장덕수, 이런 분들이 다 존경받던 분들인데, 또 좌익의 박극채 윤행중 등 좌우익의 교수진이 모두 인촌을 존경하고 따랐겠느냐. 당장 우리 학생들부터 가만있었겠느냐.”

- 인촌이 당시 무슨 총력연맹 등에 가입했다는 데 대해.

“당시 교장 등 일정 직위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운형도 살아남으려고 그런 일에 더 적극적이었다.”

- 1943년에 학병을 권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학병독려 연설을 했다는 비판론자의 주장에 대해.

“내가 1944년 1월 20일 끌려갔는데 그런 간담회를 주최한 적도 그런 연설을 한 적도 없다.”

21) 이종재 전 국회의원(2004년 10월 14일)

- 인촌이란 양반은 말을 안 할 뿐 만 아니라도 못하고, 글도 안 썼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보전 다닐 때 대동아전쟁,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한다고 해서 조선, 만주, 중국까지 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했다. 그런 전시 치하였단 말이야. 일본 놈들이 교육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학생들은 군복 비슷한 국방색, 카키색 옷을 입고 다리엔 각반을 찼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전교생과 전 교수들이 모여서 조회를 한다. 조회 때 교장 선생이 교단에 올라가야 하는데, 인촌 선생이 안 올라가고 교단 옆에 서 있다. 그러면 장덕수 선생이 교단에 올라가서 서고, 배속장교가 사회를 맡아 구호를 외친다. 제일 처음에 동방요배를 한다. 일본 천황폐하가 계시는 동쪽을 향해서 절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한다. ‘나는 황국 신민이다’는 것이 첫 구절이다. 생도들은 다 있고, 교수들도 서 있고, 단상에는 장덕수 생도감이 서 있고, 밑에 인촌이 서 있고. 배속장교가 ‘황국신민의 서사’하고 외치면 학생들도 일제히 ‘황국신민의 서사’, “우리들 황국신민은…” “우리들 황국신민은…”하고 따라한다. 월요일 아침에는 정례적으로, 으레 이것을 해야 했다. 교장, 교수 학생 모두 마찬가지였다. 누구든 참석 안하면 헌병대에 끌려갔다. 그러면 인촌 선생은 어떻게 하느냐. 인촌 선생을 보면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게 인촌이다. 말을 안 해 이 양반은. 인촌이 글을 썼다, 연설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조작한 것이다. 보전 졸업생들이 1년이면 수 백 명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 그걸 모르는 놈이 누가 있느냐.”

- 교장 선생 훈시도 없었는가.

“아이, 없었어요. 교장 선생 훈시가 있어야지. 없어요. 학교 교장을 하려면 시무식 때고 뭐고, 한마디씩 해야 하잖아요. 그걸 모두 장덕수씨가 대신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교장처럼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랬지요. 일본 놈들 치하에서 인촌은 멍청히 바보 노릇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 한민당 수석총무 때는 어떻게 했는가.

“앞아서 사람들 모여서 좌담하는 것은 잘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을 못한다는 것이다. 인과 덕으로 끌고 간 것이다. 학교도, 신문사도, 한민당도 덕으로 만들고 덕으로 끌고 간 것이다.”

- 국민총력연맹, 임전보국단 등 친일 단체에 인촌이 이사, 감사 등의 직책을 맡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끄떡하면 장례위원 명단에 내 이름 ‘이중재’라고 나왔다. 내가 장의위원 교섭 받은 것도, 승낙 한 것도 없는데 장례위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내 이름이 나온 적이 많았다. 일제 시대 내선일체, 대동아공영권 건설한다며 보국단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주동자는 진짜 가담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인촌 뿐 아니라 3분의 2는 명단에 올라갔는지 본인도 몰랐을 것이야. 일본 식민 치하에서 명단이 올랐는데 올리지 말라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만일 적극적으로 그런데 참여해서 활동할 사람 같으면 왜 창씨개명을 안 하겠는가. 인촌은 창씨개명도 안했다. 창씨개명을 안 한 것은 민족적 긍지를 갖고, 자랑을 갖고, 최소한도의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나도 창씨개명 했고, 노 대통령 아버지도 창씨 개명했다. 누구 아버지처럼 고문하고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제시대 고급 관료를 했다고 해서 친일파로 모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신문에 이름났다고 친일파로 모는 것은 더욱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런 거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해방 직후에 좌익들이 전봇대에다 ‘친일파, 김성수, 한민당 김성수 친일파 민족반역자다’라고 뼈라를 써서 붙였다. 또 신문지에다 검은 먹물로 써서 전봇대에 붙였다. 인촌을 친일파라고 했던 것은 좌익 측에서 정치적으로 공작했던 것이다. 상대방 정당을 치려고 하면, 인촌을 쳐야하는데, 그래서 인촌을 친일로 몰았던 것이다. 그런 것을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인촌이 친일파라고 하면 그런 행적이 있어야지요. 매일신보에 그런 글이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학생들이 가만있었겠는가. 뒷구멍이라도 소란이나 공론이 있었을 것이다. 그 때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매일신보 기자가 와가지고 사진 찍고 대화한 것처럼 만들어서 신문에 썼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때는 앉으나 서나 모이면 화제는 학병문제다. 누가 학병 갔느니, 안 갔느니, 도망갔느니. 도망 간 놈 많았다. 탄광으로, 산으로, 절로 도망갔다. 누가 행방불명 됐단다, 도망갔단다, 누구에게 편지를 써놓고 도망갔단다 하고 말이 있었다. 인촌이 평소에 입도 안 여는 사람이 무슨 기자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겠는가. 그 당시 학병 나가게 된 놈들에게는 ‘학병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 있었다. 더구나 보전 줌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본 놈들이 얼마 안 있으면 패전한다고 생각했지, 일본 놈들이 미국을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이긴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거든. 그럴 정도로 반일적인 생각이 강한 학교 아니냐. 학병에 나가면 다 살아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 있었다. 친구지간에도 너 이제 가면 언제 보겠냐 하고 했다. 시골에 있는 학부모는 학병 나가기 전에 강제로 결혼도 시켰다. 장가라도 보내놓고 군대 보낸다고. 맨 화제가 학병 이야기였다.”

- 나는 보성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보성학교 다닐 때 일본어 상용하라고 강요당했다. 일본 말만 써라, 조선말만 쓰면 처벌받는다라는 것이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시간 뿐 만 아니라 평소에서 운동장에 나와서 놀 때도 일본말을 써야했다. 조선말 쓰는 놈은 처벌했다. 처음에 한번 걸리면 관찮고, 두 번째 걸리면 3일간 정학이다.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 상용을 그렇게 심하게 강요했다. 보성학교만 해도 항일투사가 많이 나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립학교다. 내가 일본말을 안 쓰고, 조선말로 떠들면서 운동장에서 2층으로 공부하러 올라

가다가 계단에서 일본말 선생에게 걸려서 3일간 정학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엔 또 방공 연습에 협력 안했다고 조선 농 반장이 일러서 동대문 경찰서에 끌려가 얻어맞고 정학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조행(操行)’이 ‘병(丙)’이 됐다. 품행이 갑을병 중에서 ‘병’을 맞은 것이다. 품행이 ‘병’을 맞으면 첫째 조선 사람은 일본 유학을 못 가게 했다. 총독부 학칙 조문에 나와 있다. 경성제대 가봐야 떨어지고, 일본 유학도 금지야. 우리 같은 놈은 갈 데가 보전, 연전 밖에 없었다. 내가 꼭 우등생은 아니지만 공부를 괜찮게 했는데 보전을 갔다. 보전 입학원서를 받으러 가니까 그 때만 하더라도 보성학교 다니다가 보전을 가니까 어마어마했다. 석조건물에 운동장도 넓고 굉장하더라구. 원서를 어디서 주나 알 수가 없어. 풀밭에서 잡초를 뽑는 늪은이가 있더라구. 내가 “영감님, 이거 원서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합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아, 예.” 하고 일어서더니 “이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가면 원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나는 “어이, 고맙습니다” 하고 갔다가 원서 받고 나오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풀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님, 하루 종일 그것 뽑으면 얼마나 뽑습니까” 하고 놀림 반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가 씩 웃고 가만있더라구요. 그런데 입학식 때 말이야, 교단에 나와서 “학교 잘 왔다, 고맙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영감이야. 인촌이란 사람이 첫 인상부터 그랬어요. 복장도 풀 멜 때 입는 복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담배 피우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하지. 인촌 선생이 매일 아침 담배공초를 주워서 담고, 휴지를 주워서 담고 하시더라구요. 교장선생님을 할 때 말이야. 그 양반이 그렇게 검소하다. 가끔 학교 가는 길에 인촌을 만난다. 교장 선생님이 가면 학생들이 죽 따라간단 말이야. 교장 앞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인촌선생이 걸어가실 때 뒤에서 보면 구두 뒤쪽이 닳아서 천을 대서 기웠더라고. 천하의 김성수 선생이 신발에 천을 대서 기워 신었다는 것을 보면... 그 양반의 제자 된 입장에서 보면 하시는 행동이 검소하고, 사람을 말로써가 아니라 인과 덕으로 끄는 것이었다. 아침에 우리들 만나도 아무런 말씀이 없다. 우리 같으면 “자네, 요즘 공부 잘하나”라고 인사말이라도 할 텐데, 절대 그런 말도 없다. 그렇게 말씀이 없는 사람이 뭘 어디서 강연하고, 글 쓰고 해. 어디서 인촌이 강연한 것을 들었다는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다. 강연 한 적도 없고, 할 말도 없고, 학교에서도 강연 안하는 데 어디 가서 강연을 해.

- 보전을 딱 들어가니까 교사 2층에, 그 때는 법과 상과 두개 과 밖에 없었다. 철학시간이 되니까 키가 훌쩍 크고 빼짝 마른 양반이 옆에 책을 끼우고 들어오셨다. 야, 대단하구나. 그 분이 딱 들어오더니 조선말로 “이 반의 반장이 누구냐”했다. 반장이란 놈은 교단 제일 앞에 앉아 있었다. 대동상업학교 나온 놈이었는데, 일본말로 히라끼란 놈이었다. 히라끼란 놈이 “하이”하고 발딱 일어나더라구. 학생들이라는 게 특히 교실 안에서는 일본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예 상식화 돼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말 쓰는 놈이야 약간 드물지만, 보전만 하더라도...그래서 선생이 들어와서 “이 반 반장이 누구야” 하니까 히라키가 “하이, 와따시와 데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이 “자네 일어나서 창문 닫어” 하더라고. 그 때가 4월 달이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안호상 선생이 창문을 다 닫으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공기가 엄숙해지고 심각해졌지요. 이 양반이 칠판에다가 백묵으로 동그라미를 탁 그리더니, ‘피’라고 쓰더라구. 또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그 안에 ‘흙’이라고 썼다. 그리고 두개를 묶어서 작대기를 긋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참’이라고 쓰더라구. 그리고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게 다다. ‘참’은 진리요, ‘흄’은 국토, ‘피’는 민족이다. 민족과 국토가 진리다.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내가 가르치는 철학은 다 배운 것이다”고 하더니 마지막에 가서 “이 철학 과목 60점 이하를 받으면 과락 이에요. 과락 받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내 철학 시험지에 60점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만 써도 60점은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겠어? 국토, 민족이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어?”라고 말하더라구. 이게 철학시간 첫 시간 수업의 모든 내용이였다.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철학 수업에. 헤겔 이니 하는 것 모르는 놈은 정말 그것만 써가지고 60점 맞은 놈이 있었다.

- 내가 1학년 때 학병 문제 일어났을 때 안호상 선생이 동대문경찰서에서 딴따라 얻어맞고 나왔다. 우선 조선말로 강의하니까. 그러니까 잡혀갔지. 이 양반이 헌병대에서 나온 다음에 금강산 절로 들어갔지. 거기서 8년을 지냈지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애국자로 보였다. 보성전문에 보면 맑스주의 학자들이 많았다. 인촌 선생이 그런 것 다 알면서 그런 사람 썼다. 김일성 정부에 들어가서 북한 경제기획위원장한 사람이 운행중, 김일성대학 교수한 박극채 교수. 특히 박극채 교수는 경제학 강의하면서 맑스주의 경제학을 그대로 강의했어요. 그래서 8·15 후에 고대에 좌익이 많았다. 공부 잘한 사람은 모두 좌익이었다.

- 학병 안간 학생들은 근로동원을 갔다. 부평의 인천 조병창이라고 있었다. 소총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다. 기숙사 같은 데서 집단 숙식을 했다. 빈대가 많았다. 밥을 먹는데, 보전 학생들 옆에 법전, 의전, 광전 등이 2줄로 마주보고 밥을 먹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들 밥은 짝얇고, 재네들 밥은 고봉이었다. 밥 주는 것까지 차별했다. 쪼였을 때니까 배가 고팠다. 빨간 김치도 아니고 허연 다깽이었다. 그래서 이에 항의해서 우리가 동맹단식을 했다. “이따다끼마쓰”하고는 아무도 안 먹었다. 식사 시간이 끝난 뒤에 “이따다끼마시다”하고 일어났다. 구령이 끝난 다음에 일어서서 공장으로 갔다. 한 이틀을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헌병대에서 와서 당장 주동자를 잡아갔다. 내가 선동자란 말이야. 헌병대에서 늑신하게 얻어맞았다. 우리는 ‘후폐이센징’. 항일 반일 저항하는 놈으로 찍혀서 두들겨 맞았다. 장덕수 선생이 교섭 수완이 탁월했다. 채병덕 제3공장장과 교섭해 사흘 만에 우리들이 풀려나왔다. 그 대신 밥이 좀 달라졌다. 단식 농성의 원인이 그랬다는 것은 지들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거든. 장덕수 선생은 수완이 좋고, 말솜씨도 좋아 총독부 관리들을 주물러서 터뜨리고 했다.

22)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나의 젊은 시절’, 철학과 현실, 2005년 가을호, 222쪽,
2006년 9월 22일 면담 확인)

- 내가 인촌 김성수 선생을 알게 된 것은 유명모 선생님의 목요강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좀체로 남을 칭찬하시는 일이 별로 없었던 유 선생님이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인촌을 소개하

시면서 인촌을 극구 칭찬하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인촌에 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내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로서 한 평생을 마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다석(多夕) 선생님을 통해서 각인된 인촌 때문이다. 내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때가 1965년이었다. 그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먹던 때였다고나 할까? 한국의 대학에 직장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를 택한 것은 바로 다석이 심어준 인촌의 모습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3) 박영호 다석 유명모 선생 제자(2006년 9월 12일)

- 다석은 1959년 서울 역 앞 세브란스 에비슨 강당과 1961년 서울 종로2가 YMCA 등에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이 때 인촌을 큰 그릇이라고 아주 높게 칭송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150번지 그의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원래 남 칭찬하는데 아주 인색한 다석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우리들이 이광수는 어땠어요? 하고 물으면 '재주 있는 사람' 이라고 간단히 말하곤 했는데 인촌에 대해서는 한 강연의 3분의 2를 할애해 칭찬할 때도 있었다. 이승만 독재시대 때 은근히 이승만을 비난하며 인촌이 큰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1942년 '성서조선'도 폐간되기 직전 '황국신민의 서사' '총후 국민들의 자세' '일선 군인들에게 보내는 위문편지' 등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무교회주의자로 한국 기독교 양심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던 김교신 선생조차도 편집장으로서 '성서조선'을 계속 발간하기 위해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친일적인 글들을 이 잡지에 실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는 그게 생존의 방편이었다. 마음속에서 이를 갈더라도 겉으로는 일본인들과 친한 척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와서 동아 조선일보가 당시 친일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시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24) 김진섭 대한언론인회 자문위원(전 매일신보 기자)

(2005년 6월 17일, 2007년 9월 7일, 11월 19일,
2008년 7월 21일, 4차례 면담)

- 일제시대에는 일본말을 사용하니까 우리 한국말은 언문이라고 했고, 한글신문은 언문신문이라고 했다. 일본사람들은 매일신문에 대해 언문신문이지만, 신문은 자기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친일이냐 아니냐'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떠나서 조국 독립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신문기자는 지사(志士)지 월급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조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계도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에서 움직인 것이 당시 신문인들이다.

- 그 당시를 살아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당시 신문기자들이 접했던 일본 통신 중에 공개되는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애들을 좀 아니까 비공개되는 새로운 소식을 빼낼 수 있었다. '일본군이 남방

으로 가게 되서 북방에 배치된 군대들을 뺀다.’는 등 일본군의 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정보를 갖고 주요 어른들을 뵙는다. 그런 분 중에는 인촌 선생도 계시고, 여운형 씨도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면 이 소식이 서울 시내를 뱅 돈다. 그러면 모두들 “아,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겠느냐”하고 서로들 논의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들도 “당장 신문은 제작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일본은 망할 것 같다”고 하면서 조국 독립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요즘 모르는 젊은이들은 우리 나이 대의 사람들에게 ‘좌익이다, 우익이다, 친일이다, 아니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매일신보에서도 해방되면 죽는다는 말도 내부에서 나왔다. 자꾸 일본이 고초를 겪게 되니까 그랬다. 당시에는 춘원이 됐던, 여운형 씨가 됐던, 누가 됐든 전부가 다 ‘자 일본은 망해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식이었다.

- 학병제도가 생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고 하니, 일본에서 미국의 B-29기가 격추돼서 사이판 앞에서 떨어졌다. 그 미국인 조종사 몇 사람을 붙잡아서 함상에서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시켰다. 당시 미국 조종사들은 21~22살 정도였다. ‘너는 어떻게 조종사가 됐느냐’고 물으니깐, “콜롬비아대학 중퇴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 인터뷰 내용들이 언론과 신문지면에 파급되어 연일 실리게 되니까 일본 조야에서 일본 학생들도 쫓기하라고 했고 이에 덩달아 조선총독부에서도 조선 유지들에게 조선 청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 조선총독부에서는 고관들이 지식인들과 접촉해서 ‘대학생들 군대 내보내게 해 달라’고 자꾸 강요했다. 그 일을 매일신보가 주동하라고 했다. 우리는 기관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학병 나갈 사람들 용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 일본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가 입국해 매일신보 서울 본사의 사회부에 들어갔다.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었던 홍종인 씨가 나보고 “너 고향 가봤냐”고 물었다. 그래서 “아직 못 갔다 왔다”고 했다. “3개월 정도 갔다 오지 않겠느냐”는 말에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열흘 후에 평양 지사 주재원 발령이 났다. 42년도인가. 그래서 갔는데 한 열흘 쯤 되니까 평양지사의 고영환 지사장이 나보고 조만식 선생을 만나고 오라고 해요. 나는 조만식 선생 만나고 오라고 하는 것은 글을 씌우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사 사무실 앞에 조만식 선생 따님이 살았다. 가는 길에 오영진(영화인) 씨를 만났다. “김 형 언제 왔어?” “내가 석 달 동안 평양 주재하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그랬더니 오씨가 “잘 됐다. 매일 만나게 됐군.” 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 댁 따님 집에 올라갔더니 언제 왔냐고 해서 같은 말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계시니 기다리라고 해. 내가 조만식 선생께 큰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홍 군 잘 있냐”고 물어요. 나는 “몇 달 있다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도 일본이다 되가는 때니까 왔습니다.”하고 인사를 한 후 “선생님 저 왜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인사하러 왔지만 아시겠지요?” 했다. 그리고 나는 ‘당분간 시골에 내려가 있으십시오.’ 하고 나왔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는 ‘조 선생을 못 만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영환 지사장이 ‘김 기자는 일본에서도 일했던 일류기자인데 그것도 못하면 말이 돼. 취재를 갔으면 끝까지 해야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예끼 여보쇼’하고 혼내더라고. 그리고 나서 동료 김창

문을 부르더니 ‘조 선생 만나고 오라’고 지시하더군. 김창문 형은 나에게 ‘지사장이 취재비로 돈을 많이 주면서 조 선생 댁에 갔다 오라는데 어떡하지?’했다. 나는 ‘야, 그 돈 있으면 술이나 마시자’하고 그 친구랑 우리 이모 집에 갔었지.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출근했다. 이 친구 지사장에게 굉장히 꾸지람을 들었어요. 본사에서는 ‘왜 조 선생 글을 빨리 보내지 않느냐’고 굉장히 독촉을 받았다. 결국 그 지사장이 사진부 기자하고 자기가 직접 조 선생 댁에 찾아갔다. 그래서 매신에 그 지사장이 쓴 조만식 선생의 글이 난 것이다.

- 고영환 지사장은 해방 후에 자살했다. 해방 후에 나는 돈을 가지러 평양에 내려갔다. 김창문, 오건일 검사가 함께 갔다. 내가 평양지사에 저녁에 도착해서 그 지사장에게 ‘서울 본사에서 오라고 하니 올라가십시다. 난 내일 떠나겠소.’라고 했다. 그러고 나와서 목욕한 뒤 다음날 아침 5시에 갔더니 그 지사장의 어머니가 ‘이 사람아, 우리 아들이 자살했네.’하고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조만식 선생 댁에 함께 취재를 갔던 사진부 기자가 ‘친일파로 폭로 하겠다’는 협박을 했는데, 그 지사장은 협박에 못 이겨서 자살한 것 같다. 그 사진부 기자는 해방 후 좌익 쪽 활동을 했다. 다음날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 매신 본사에 그 지사장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다.

- 매일신보에서는 뒷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세창씨를 사장으로 모시자고 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오세창씨에 대해 사상검도를 하자’고 했다. 나는 벌써 ‘이것들이 남로당 계열이구나.’하고 생각했다. 이후 매신 기자 중에는 남로당 계열 사람이 많았고, 우왕좌왕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다 일류기자들이었다.

- 나는 인촌 선생을 우리 현대 조선민족사의 증인이고, 민족사를 만든 창시자로 본다. 왜냐. 박헌영, 허헌이 동아일보의 기자였다. 동아일보가 화재가 났을 때도 기자 명단은 금고에 넣어 놔서 보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다. 유명한 공산주의자들도 모두 동아일보 기자였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었다. 모두 일류 명사다. 동아일보 안 거친 명사 있는가. 그 사람들이 조선 민족을 이끌다시피 했다.

-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반도호텔에 왔을 때였다. 우리들이 갔는데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는 어떻게 됐냐.”하고 그것부터 물어봤다. 해외에서도 우리 조선 민족의 앞뒤 움직임, 지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동아일보를 봐야 했다.

- 인촌 선생은 조만식 선생과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분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라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나’하시는 분이다. 일제시대 내가 돈화문 앞에 살고, 상만 씨도 가회동에 살았다. 상만 씨는 ‘집에 왔다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 했다. 인촌 댁에 가서 인촌 선생을 만나면 인간미가 넘치고 아주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들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인자한 분이였다. 또 이름을 얻으면 남기는 것을 못 보았고, 표면에 나서는 법이 없다. 인촌

이 김좌진 장군 아들에게 집도 사줬다고 한다. 그 걸 지도한 것이 송진우 씨였다. 인촌은 아무도 모르게 줬다. 인촌이 3.1독립사건 때 도와준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거대한 뿌리가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만 보고 이야기한다.

- 조만식 선생도 그랬고, 여운형도 글이 난 적이 있다. 연설집도 낸 적이 있다. 조선총독부가 글을 써달라고 강요를 하면 ‘내가 그걸 아나. 난 글 쓸 줄 모르네.’ 이렇게 말하셨을 것이다. 매신에 난 글과 인촌 선생의 평소 언행을 비교해보면 직접 쓴 글인지 알 수 있다. 매신의 기자가 갔던가 했을 것이다. 그 쓴 것을 갖다 놓으면 필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 인촌 선생도 당시에 누가 썼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생이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니까. 시국에서 요청하니깐 그것에 적당히 맞춰서 나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일언반구 한 것은 없다. 인촌 선생이 했다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평소에 말씀하는 그 어른의 언질과 언법과 언행과 일치하지 않는다.

- 김병규 기자를 아는가. 동경제대 불문과를 나왔다고 하던데?

“병규. 내가 평양 가 있을 때 같은데, 병규가 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 맘대로 썼을 것이다. 병규는 해방 후에 북쪽으로 간 사람 같다.”

- 유진오 선생이 인촌 선생하고 가까워서 뭐 있으면 그 분들이 대변을 했을 것이다. 인촌 선생이 자신이 글 썼다는 것은 절대 없다.

- 총독부가 매일신보에 학병 권유 글을 쓰라는 것은 총독부 지시인가?

“조선총독부의 지시였다. ‘학생들이 학병 가니까 지식인들이 용기를 북돋워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매일신보를 들쭉시키고, 시끄럽게 하면서 받아오라, 받아오라고 재촉했다. 인촌 선생도 절대로 글 쓸 분이 아니다. 우리 기자들도 ‘시골이라도 가십시오.’ 할망정 글 부탁은 하기 싫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민족이 동아일보에 신세를 졌다’고 했다. 동아일보에 신세를 졌다는 것은 인촌 선생에게 신세를 졌다는 것이다. 요즘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촌에게 신세지고 밥 먹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민족이 신세를 졌다고 했고, 당시의 여운형, 박헌영도 다 기자들이었다. 좌익 우익이 없었다. 월급에 매여서 신문기자를 한 것이 아니라 지사였다. 전부 목숨 걸고 했다.”

- 8·15 후 1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한경직 목사 등 종교인 16명이 불려갔다. 그들이 왜 정권에 붙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유지들은 무조건 무더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더기

로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상룡 씨 같은 사람은 국민총연맹 총책임자였다. 유지들을 묶어내는 사람은 대체로 보면 중추원 참의다. 중추원 참의는 평안남도엔 유지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낸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알게 모르게 추천돼서 단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다. 총독부에서 도매가격으로 이름을 낸다. 그 단체에 왜 이름을 냈어? 이런 말을 못한다. 돈이 많거나 지방 유지들은 피할 수 없었다. 인촌의 경우 동네북이었을 것이다. 중앙중학교, 고려대 출신 중에 선생님 주례 서 주십시오,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본인은 모르는데 고문이 돼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촌 선생은 돈도 남모르게 멋있게 쓴 어른이다.

- 우리가 신문기자 하면서, 꼭 일본에 필요한 것에만 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알려줬다. 우리는 내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 무조건 일본에게 '네, 네'하고 살지는 않았다. 젊은 사람들도 공부를 했으면 깨달아야하는데,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 큰 절을 하고 편찮으시다는데, '병문안을 왔습니다'고 문안을 여쭙었다. 인촌은 '잘 왔소' 했다. 당시가 한국전쟁 때인데 인촌은 몸이 아프시다 면서도 타임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마지노선이 어떻게 됐는데, 걱정이요'하고 말씀하셨다. 만날 때는 선후배 관계에서 하는 식이다. 인간미가 넘친다. '이런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 군 어떻게 된 거지'하고 물으신다. 그런 것들에 대해 아랫사람에게도 격의 없는 말씀으로서 물으신다. '저도 이렇습니다.'하고 대답한다. 대화를 할 때 보면 진지하고. 정이 오간다.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할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해'라고 말한다. 김상협 고대총장 시절 '인촌 선생은 리어카 끌고 고무신 신고 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총장이 왜 리어카를 못 끄냐. 할아버지도 끌었는데.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다. 리어카를 끌고 고무신 신고 다녔다.

- 여운형 씨는 제스처가 많다. 인촌은 제스처가 없다. 시골 박 서방이다. 조금도 구김이 없는 분이고, 젊은 사람과 농담도 하고 솔직한 사람이다.

- 해방 뒤 동아일보 기자들은 좌익들로부터 반동분자 취급을 받았다. 좌익들은 '동아일보 기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설치고 다녔다. 당시 우익신문으로는 동아일보와 대동신문, 현대일보 정도였고 조선일보가 중간노선 그리고는 해방일보 등 온통 좌익신문이었다. 남로당에서는 우익인 동아일보가 눈엣가시였다. 편집국에 "떡을 사라"며 젊은 떡장수가 수시로 들어왔는데 이 자는 동아일보 기자들의 동정을 살피는 남로당 스파이였다. 그런 정도이니 좌익들의 테러에 대비해 각자 자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소뿔로 만든 긴 구두주걱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살벌하기 짝이 없던 시절이었다.

- 6·25 당시 국군이 평양에 입성할 때 나도 전초 1사단 부대 중군기자로 따라갔다. 그 때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서울 등지서 납북한 7,000여명을 서둘러 학살한 장소인 ‘붉은 거리’에 가보았다. 보통문에서 십리 정도 떨어진 곳인데 가보니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덮인 흙 위로 머리카락이 보이기도 했다.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모두 몰아넣고 총살한 뒤 급하게 흙을 덮었던 것이다.

- 총독부는 경성일보, 매일신보에 민족지도자들의 글을 게재하라고 편집국장에 주문한다. 그러나 편집국장의 지시를 받은 기자들이 민족지도자들을 접촉해보면 그들은 ‘내가 뭘 알아. 자네들이 알아서 써라’는 식이었다. 인촌의 경우 총독부를 대신한 매일신보 등에서 글을 쓰라고 강요하다시피 하니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뭘 알아. 자네들이 알아서 하지’ 했을 것이다. 민세 안재홍의 경우도 말 안하고 ‘자네들이 알아서 하지’ 식이었다. 조만식 선생도 그렇고. 김병로 선생의 경우도 빠져나갈 틈 만들어놓고 속말은 전혀 안했다.

25) 최서면 선생

(2004년 9월 19일, 10월 18일, 11월 30일, 3차례 면담)

- 어느 날 탄허 스님에게 물어봤다. “일본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민족반역자가 독립운동가로 평가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독립운동가가 민족 반역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혜안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탄허 스님이 “종이 한 장 가져오시오. 장자의 이야기 중에 ‘불을 끄는데, 바깥에서 불을 끄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불안에서 불을 끄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구 이승만 바깥에서 운동한 것은 오히려 좋은 여건에서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립운동한 것은 가장 힘들었는데, 그것이 김성수이지요.”라고 말씀하셨다.

-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상해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비가 부족했다. 인천에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이 동아일보 인천지사다. “내가 김구 어미인데, 고향 갈 여비가 없다.”고 하니까 지사장이 서울까지 표를 사줬다. 서울까지 와서 김구 어머니는 이번엔 동아일보 본사를 찾아갔다. “내가 김구 어미인데 여비가 없다.” 그래서 안악까지 가는 표를 동아일보 본사에서 사주었다. 그 얘기가 백범 일지에 나온다. 백범이 1인칭으로 쓴 책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 김구 선생은 “친일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이웃나라인데, 친일파가 많아야지. 내가 말하는 친일파는 민족 반역적 친일파가 처단 대상이지, 민족 반역 행위를 하지 않은 친일파는 우리가 길러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고려대학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반민족적 친일파는 누구냐. 밀정들이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많

다. 내가 지난번에 낸 외교사료관 목록 안에는 ‘일정 리스트’만 따로 골라서 해 봤다. 목록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일부러 만든 이유는 보훈처가 하도 훈장을 잘못 줘서다. 김구 선생은 당시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말하는 건 ‘반민족적 친일파’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중국에서 왔다고 ‘친중파’는 다 좋다고 말하는데, ‘반민족적 친중파’도 처단해야한다. 중국에서 아편장사 했던 사람은 처단해야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건국을 못하고 있는데, ‘불이 나면 도적의 손도 빌린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서 건국을 한 다음에 민족반역자를 처단을 해야지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에 의해서 처단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 윤치영 당시 내무장관은 반민특위가 자신도 잡으러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내일부터는 제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니까, ‘반민특위에서 저를 잡으러 온 겁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냐”며 반민특위 해체 지시를 내렸다고 내가 윤치영 한테 직접 들었다.

- 지배를 받는 민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항거방법은 ‘면종복배’(面從腹背)다. 면종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면 전멸할 수밖에 없다. 면종복배를 어떻게 잘했느냐의 모범이 되는 게 김성수다. 총도 없으면서 칼 들고 나가서 데모한다면, 총 쏘면 다 죽어버리는 것이다. 자고로 세계사에서는 지배를 받는 민족의 유일한 방법은 ‘면종복배’다. 김성수가 면종복배의 상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제총독부도 귀족원 작위를 받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 총독부 관리들이 김성수가 작위를 거부한 것으로써 일제 36년 통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김성수에 대한 존경론이 해방 후에도 있다. 일본 사람들의 식민통치를 당하는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면 면종복배가 최선이였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든 ‘면종(面從)’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했다.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 신문사 사장들 좀 보자는데 안 간다면 회사 문 닫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물며 총독부 통치 하에서야 일러 무슨 말 하겠는가. 간디도 영국 통치자들 앞에서 ‘무저항’으로 일관했다. 문제는 ‘복배(腹背)’를 어떻게 했느냐 여부다. 두 가지 사례를 들겠다. 황옥(黃鈺)이라고 일제 경찰의 경부 직급을 지낸 사람이 있었다. 조선인으로 경부가 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은 뒤로는 의열단에 폭탄을 날라다준 사람이라는 사실이 백범일지에도 나와 있다. 그가 일제에게 일체 면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그 많은 화약을 만질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고영근(高永根)이라는 사람은 민비를 죽인 패거리의 한국 측 대표 격인 한우범이라는 자를 처단하기 위해 10년간 한우범에게 면종복배했다. 한우범에게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사야했는데, 이를 위해 고영근은 10년간 극진하게 한우범의 시종을 들었다. 그런 끝에 한우범이 일본으로 도피하면서 그를 유일한 동행 인물로 선택했다. 일본에서 숨어 다니며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던 중 한 음식점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고영근은 허리춤에서 숙 망치를 꺼내며 ‘만고역적아, 심판의 망치를 받아라’며 내리쳐 10년 만에 한우범을 처단할 수 있었다. 수없는 자객들이 한우범을 노렸지만 모두 실패했었다. 이 얘기는 이황돈 비사(이조비사)라고 곤등이라는 사람이 쓴 일본책 ‘조선유신, 비를 세우다’ 장에 나와 있다.

- 야기 노부오 전 총독부 보안과장이 해방 후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일민 김상만 선생께 데려가 소개시켜줬는데, 이 자리에서 야기는 “내가 귀족원 작위 받으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받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아, 조선 사람 지배에 실패했구나.’하고 느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야기 과장은 실제 책에서 ‘조선 민족은 우리가 도저히 지배할 수 없는 민족이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같은 얘기를 들은 일민은 빙긋 웃으며 “제게 재미있고 훌륭한 일화를 들려주시니 저도 선물 하나 드리겠다.”며 고려대 본관 쪽으로 안내했다. 고려대 본관 후문 입구 바로 위쪽 벽에 개구리 모양 비슷한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일민이 아버지가 남겨준 이 문양을 야기에게 보여주니 야기가 깜짝 놀랐다. “이 건물 지을 때 우리가 ‘민족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며 살살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던 것인데 결국 여기 있었던 말이냐”고 속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 인촌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 반박할 생각하지마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싸움엔 끝이 없다.

26) 한운사(극작가, 학병 출신, 2007년 2월 6일)

- 요즘 과거사 캐낸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잘들 해야지, 잘하면 뜻있는 일이 되겠고 잘못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게 돼.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네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입장에 있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 인촌과 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인촌은 알짜만 살고 간 사람이다. 젊어서 일본 유학 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아마 압도당했을 것이다. 마치 김옥균 처럼. 일본에 대해 두려움과 부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인촌이나 고하가 동경유학시절 배운 것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인데, 그 시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멋대로 깎아내리고 있지만 그건 잘못이다. 학병 출신을 앞두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서울 동성상업학교에 모아 일주일간 훈련을 시켰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신 차리면 산다.’고 울부짖자 모두가 박수를 치는 그런 분위기로 변했다. 그 이튿날(1943년 12월 30일) 동송동 동성상업학교 운동장에서 일본 국가를 제창했는데, 앞에 서있는 학생들만 부르고 뒤에서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헌병이 칼로 찌르면서 노래 부르라고 으박지르는 것이었다. 그때 사지에 피가 끓는 느낌이었다. 이날 장학회 참가를 위해 동송동을 출발, 창경궁을 거쳐 조선총독부 앞에서 좌회전하여 광화문을 지나 부민관으로 향했다. 우리의 행렬 옆에는 가족들이 울부짖어 사지로 가는 행렬을 실감케 했다. 부민관에는 2천여 명 가까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고이소 총독에게 ‘총독은 우리가 나간 뒤에 2500만 조선인의 장래를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물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그 후 난리가 났다. 그날 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이소가 ‘아까 나한테 질문 던진 아이 잡아넣지 말고 20일간 집에 가둬놓고 군에 보내라.’고 지시했기 때문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일경은 고향집으로 가는 나를 조치원 여관까지 따라다니며 다음해 1월 20일 학병 나갈 때까지 철저히 감시했다. 학병을 가서는 저녁마다 두드려 맞았다. 나에 관한 정보가 모두 부대로 간 것 같았다. 인촌이 여기저기 독립자금 등을 주고 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내가 그 시대 인촌의 입장에서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애족하는 정

의가 있으면서도 현실의 조건이 까다로워 졌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문제를 오늘날의 잣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참고 자료

27) 김수환 추기경 ‘인촌 김성수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

(동아일보 1991년 10월 13일자 5면)

“저는 인촌 선생이 살아계실 때 선생을 만나 본 일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 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제하와 해방 후 혼란기를 살아오며 간접적으로 접했던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존재를 짐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은, 인촌 선생에 관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바와 여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분의 생애는 오늘의 우리가 삶의 귀감으로 삼기에 족할 만큼 자랑스럽고 보람찬 것이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촌 선생은 무엇보다도 모든 유형의 사람을 한품에 포용하는 마음의 주인공 거인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그늘에 가서 쉴 수 있는 거목이었습니다. 선생은 중앙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설립 운영했지만 인기 있는 교사나 유명한 학자는 아닙니다. 또 경성방직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대재벌의 기업가도 아닙니다. 동아일보를 창간했어도 대기자가 아니며 해방 후 한민당의 산파였으나 대정치가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덕망 있는 교사나 유명교수가 인촌이 경영하는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훌륭한 기술자나 산업역군이 인촌 선생의 기업에서 나오고 일제의 폭압에 대항하고 민중의 참 길잡이가 되는 대기자가 인촌의 신문사에서 쏟아져 나오고 인촌 선생이 창당한 정당에서 나라의 동량이 될만한 대정치가가 나왔습니다. 인촌 선생이야말로 한 시대를 이끌어온 각계의 훌륭한 일꾼을 수 없이 배출한 지도자의 산파요, 민족사의 산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촌 선생의 또 다른 특징은 ‘평범의 비범’ 이랄까, 매사를 평범 속에서 구상하고 이를 겸허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낮추어 항상 겸양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뒷자리에 앉아서 남의 공로를 드높여 주는 것이 인촌 선생의 국량이요경륜이었습니다. ‘公先私後’ ‘信義一貫’ ‘淡泊明志’ 등 인촌 선생의 좌우명이 모두 이 같은 ‘평범의 비범’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몽양 여운형이 해방 후 건준을 거쳐 공산당에 휩쓸렸을 때에도 설산 장덕수를 시켜 끝까지 설득케 하고 그가 언젠가는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촌 선생은 내면적으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담박명지’의 무욕한 천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인촌 선생 스스로도 ‘옆에 있어서 일개 조연자가 되기를 좋아하되 직접으로 그 국에 당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바가 아닙니다.’라 말한 것처럼 그는 항상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은 뒷전에 물러서서 이들을 돕는 것으로 직분을 삼았습니다.”

“그는 당대에 부호 소리를 듣는 대경영인이면서도 사생활은 일반 서민들의 궁핍에 비견할 만큼 검약과 절제와 극기를 닦았습니다. 일제말기 온 국민들이 식량난을 겪을 때 그 역시 점심을 거르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새로 재성한 양복에 기운 구두를 신는 등 겉으로는 볼품없는 촌로와 같았습니다.”

“인촌 선생의 인간적인 위대한 모습은 바로 이 같은 극기와 겸양의 실천으로 세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담박과 명지로써 천하의 인재들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28) 김대중 전 대통령 ‘역사를 바로 조명해야 한다’

(동아일보 1993년 8월 15일자 5면)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의 독립지사들과 같이 감옥가면서 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못지않게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인 분들의 공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교육사업 문화사업 종교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내일을 기약하게 깨우치고 실력을 양성하게 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김성수 선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성수 선생은 참으로 특이한 존재였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협력을 일제에 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강요된 것이고 혹은 조작된 것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인촌은 비록 감옥가고 독립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독립투쟁가 못지않게 우리 민족에 공헌을 했다고 나는 믿는다. 인촌은 동아일보를 창설해서 조선일보와 더불어 3·1운동 이후의 거의 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계몽하여 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그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 공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인촌은 오늘의 중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운영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일제하 이 나라를 이끌 고급인력을 사회에 배출, 우리 민족의 내실역량을 키웠다. 인촌은 또한 근대적 산업규모의 경성방직을 만들어서 우리민족도 능히 근대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능력을 과시했다. 이것은 그 당시 일제가 우리에게 ‘조선인은 근대적 산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열등감 부식 정책에 광분한 데 대한 가장 결정적인 반격이었던 것이다. 경성방직이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에게 준 금지와 위로는 참으로 큰 것이었다. 인촌은 그 탁월한 인격과 덕성으로 해서 주변에 수많은 인재를 모아가고 우리 민족의 보호와 발전에 노력을 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 사소한 행적을 들어 친일 운운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정부기관에서 조차 논의되었던 것을 본 일이 있다. 나는 이런 자세는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 신용하 교수도 최근에 말하기를 ‘일제하에서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었다. 모든 국민이 모두 망명하고 해외로 나갈 수는 없었다. 그런 때 국민과 고초를 같이하면서 이 민족에 힘을 주고 민족을 보호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한 바 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이것 역시 민관이 합동하여 조사에 나서 일제하에서 그러한 입장이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흑백을 분명히 가려주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명예를 얻을 분은 얻고 비판을 받을 분은 받는 그러한 일이 행해지기를 바란다. 적당히

덮어두고 불투명한 상태로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튼 오늘 광복 48주년을 당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일제 이래 오늘까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조명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9) 이승만 전 대통령 추도사(1955년 2월 24일)

금월 18일 김성수 씨의 별세는 우리나라의 중망가진 지도자 한 분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인 고로 민중과 정부가 다 일심으로 애통하는 바이다.

내가 하와이에 있을 때부터 김 공과 벌써 고인이 된 송진우 장덕수 제씨와는 친분이 생겨 교통이 막힌 중에서도 이 분들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정 밑에서 압박이 극심할 때 이분이 집안 재산을 털어서 교육사업을 시작했으며 일면으로는 신문을 내어서 일정에 반대하여 왔으니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내가 귀국하면서부터 이분들이 나를 위하여서 개인적으로나 조직을 통해서 분투노력해 준 것은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정시대 미인(美人)들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를 권하여서 공산당과 합작하여 연립정부를 세워야 된다는니 혹은 신탁통치를 받아야 된다고들 할 때 임시정부 측의 여러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합동을 할 적에 김 공이 나를 도와서 지지하여 준 것과 공개적으로 구호한 것은 그 당시 우리 입장을 백절불굴하고 나가는 자리에 막대한 힘을 주었던 것이다.

이 몇 가지만 가지고 보아도 그 분이 애국적인 성심과 앞길을 보는 정견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개인의 득실과 이해를 헤아리지 않고 지켜서 싸워온 분이므로 우리나라 모든 지도계급 여러 사람 중의 특출한 인물이었으며 애국지사 중에 유일한 자리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김 공이 나를 절대로 지지하자고 한 것도 사사(私事)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조금도 생각한 것이 없고 내 입장이 애국주의에서 나온 것을 깊이 깨달아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행하여 온 것이므로 그 애국심을 우리가 추앙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김 공은 우리나라의 큰 교육가였으며 애국지사였음을 우리 사람들은 영구히 기념할 것이며 또한 그는 지금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가라고 불리우기는 합당치 않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이것을 싫어하여서 정당 방면으로 나서기를 대단히 싫어했던 것이다.

중간에 불행히 내가 그의 동지들의 의도를 거부하고 길이 갈라지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 싸워오는 주의라는 것이 보통 평민과 빈천한 민중을 위해서 살길을 목적해온 것이므로 내가 여러 가지로 고려하며 주저하다가 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므로 김 공에게도 많은 섭섭한 감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김 공에게 밀접한 친우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 분들은 물론 김 공을 사랑하며 추앙하는 뜻이 나보다 더 간절할 것은 내가 믿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명한 인격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그 분의 정신과 주장을 숭배해서 그 분이 생전에 투쟁하며 노력하던 실경(實景)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또한 친구의 사후의 그 정신을 살리는 본의도 되고 또한 그 주장하던 바가 이후 사람에게라도 모범이 될 만큼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공공한 복리

를 주는 것이므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혹 옳지 않은 일을 해가면서라도 정권을 도모한다면 내가 알기까지는 이 분이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정의와 공심(公心)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존경해야 될 것이다.

고 송진우 공이 피해당한 후도 가장 슬퍼하며 국사에 대하여 근심하던 분이 김 공이었다.

송 공이 피해당하였을 때 우리가 큰 인도자를 잃은 것을 통곡하니 만큼 김성수 공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또다시 통곡할 것이다.

30) 신익희 민의원 의장

(신창현, '海公 申翼熙', 1992년, 799~800쪽)

“마음이 결백하고, 언행이 올곧고 활달하여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고, 한평생 소신을 굽히지 않고 더럽히지 않았으며, 지내온 그대와 더불어 나라 일을 같이하며,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앞날을 기약했는데 이제 그대가 믿기지 않게도 가고 마니 진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도다.”

光明磊落 平生不諭 與共國事
親愛期許 今焉已矣 實傷吾心
乙未仲春 愚弟 申翼熙 哭輓

31) 조병옥 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동아일보 1955년 2월 25일자 4면)

“선생은 부이불치(富而不侈)라 하면서도 사치하지 않고, 귀이불교(貴而不驕)라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빈이불굴(貧而不屈)이라 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성품과 도야된 인격의 수양을 가진 분으로서, 부유한 환경 속에서 안일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희사하였으며, 자기의 명성 및 사회지위가 높아감에 따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겸허하였으며, 자기의 사재가 있었다고 해서 운택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하여서도 한번도 범속(凡俗)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덕망과 고절과 인자와 겸허한 양심적인 선생이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앞에 나서지를 않고, 또 한번 신임한 동지나 선배에게는 좀처럼 의심치를 얹아 그 포용력이야말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스스로 수그러지게 하였던 것이다. 사실 필자가 마음을 터놓고 양심적으로 냉정히 말해 본다면 인촌 선생과 같이 애국 애족 단성(丹誠)의 애국자 및 지도자는 오랜 민족사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32) 김병로 전 대법원장

‘인간 인촌을 말함’ (동아일보 1955년 2월 26일자 4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일은 어떤 사업과 경륜도 애국애족의 정신을 떠나서 한 것이 없고, 그의 동지에 대한 뒷받침도 공로를 의도함이 아니요, 다만 그 동지애의 자연발로이었던 점이다. 이제는 한 토막 고초와 슬픔의 역사로만 상기되는 지난날의 항일운동에 있어 많은 지사들이 무한한 고생을 겪으며, 해내(海內) 해외(海外)에서 투쟁할 때, 그는 말없이 그들의 여비를 걱정해 주고, 두툼한 봉투에 감사와 애정을 담아 주었던 것이다. 혹 어떤 이는 그가 재력이 있으니까 그쯤이야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할지 모르겠으나, 그때 우리나라에 그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인촌 선생 외에 없지 않았을 것이요, 또 그것은 결코 재력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해 두고 싶다.”

33) 허 정 전 국무총리

‘내일을 위한 증언-허정 회고록’ (샘터사, 1979년, 96~98쪽)

“당시 국내에서 지도적 인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은 인촌 김성수, 고하 송진우, 민세 안재홍, 몽양 여운형 씨 등이었다. 설산은 그 길로 몽양 여운형 씨를 찾아갔다. 몽양과 설산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몽양은 그때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간판을 경기에 고에 내걸고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그를 새로운 정당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몽양은 일제 말기에 자신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지하단체인 ‘건국동맹’을 표면화하여 건준(建準)을 조직했던 것이다. 설산은 몽양에게 새로운 정당 조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몽양은 거국적인 정당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임시정부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전혀 달랐다. 몽양은 ‘나도 상해에 있어 보았지만 임시정부에 도대체 인물이 있다고 할 수 있소? 누구누구 하고 지도자를 꼽지만 모두 노인들뿐이요. 밤낮 앓아 파벌 싸움이나 하는 무능무위한 사람들뿐이요.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새 정당이 수립하는 정부에 개별적으로 추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할 수는 없소’라고 하며, 임시정부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몽양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 때문에 설산은 몽양의 신당 참여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몽양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그 나름으로 집권을 꿈꾸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당시의 조선총독 아베(阿倍信行)가 총독부의 권한을 국내 요인에게 넘겨주려고 했을 때, 고하는 한 마디로 이것을 거절했으나 몽양은 이 교섭에 응했고, 또한 후에는 이른바 인민공화국 정부라는 해괴한 정부를 조직하기도 했던 것이다. 설산은 인촌도 만났다. 인촌은 설산의 설명을 신중한 태도로 듣고는 곧 찬성했다. 그러나 그는 교육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당 조직의 일선에 나서거나 정당의 중요한 자리를 맡지는 않겠으며 뒤에서 힘껏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촌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그가 새로운 정당 조직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이 정당을 조직하는 데에는 인촌의 도움이 컸던 것이다. 인촌은 일은 자기가 하더라도 자신을 앞세우지는 않으려고 하는 분이였다. 그가 이룩한 수많은 업적을 우리는 알고 있거니와, 어떠한 일에서나 그는 자신의 명성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가능한 한 뒤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그 공로와 영광은 남에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이었다. 민세도 전적으로 찬성했으나, 고하만은 의견이 달랐다. 고하는 임시정부의 환국을 서둘러 그분들을 모시면 되고 새로운 정당을 조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34) 이범석 전 국무총리

‘우등불’ 후편 (삼육출판사, 1992년, 274쪽)

“그 이튿날 아침 아홉 점에 우리는 본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감시하는 헌병 중 한국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 국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성수 씨와 안재홍 씨에게 연락의 쪽지를 부탁하고(김준엽 동지의 재치와 모험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의도 비행장을 떠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35)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長征’ 1권 (나남, 1987년, 431쪽)

“이렇게 해서 조국의 땅을 처음 밟기는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맥없이 돌아가게 되었으니 기 막히는 일이었다.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연락을 취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변소로 나갔다. 문 앞에는 일본헌병 몇 명이 경계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나를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변소로 안내하였다. 그런데 그 헌병은 아무리 보아도 한적 사병 같기에 우리 둘만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는 슬쩍 우리말로 ‘요새 서울 사정은 어떨소?’ 하고 나즈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좀 당황하였지만 기쁜 얼굴로 쳐다보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다. 나는 재빠르게 ‘우리 일행 중의 4명은 한국인이고 지휘관은 유명한 이범석 장군시오. 우리는 임시정부에서 먼저 파견된 정진대(挺進隊)인데, 할 수 없이 내일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휴전조약이 체결되면 곧 다시 입국할 것이오. 그러니 급히 이 사실을 신석우(李장군의 손위 매부) 선생, 여운형(李장군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분)선생, 조만식 선생, 김성수 선생, 안재홍 선생께 알려주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꼭해 주시오’라고 했다. 그 청년은 놀라면서도 희색이 만연이었다. 틀림없이 알리겠다고 하면서 몹시 흥분된 모양이었다. 이 일을 슬그머니李장군에게 보고하였더니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하셨고 張·魯 두 동지도 우리 사명의 일부는 달성한 것 같다고 하면서 기뻐했다.”

36) 서상일, 고(故) 인촌 김성수 동지는 왜 위대하다 하는가.

‘**新生公論**’ 1955년 6.7월 합병호 (신생공론사, 33~35쪽)

생(生)은 기야(寄也)요, 사(死)는 귀야(歸也)라 하였다. 모든 부동물(不動物)은 성주괴공(成住壞空)하고 동물은 생노병사(生老病死)하는 4대 법칙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을 모두 무상(無常)으로 보고 유상(有常)을 찾으려 하는데 있다.

인촌 동지는 이 세상에 생을 기(寄)하였다가 대자연의 본래에 귀(歸)한 것이다. 안공(眼孔)을 크게 하여 보면 그는 천도(天道)에 순응하였으니 애통할 아무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애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불수(不隨)의 몸이 된 3년 동안에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매일 작대기를 짚고 50회 60회씩 행보의 연습을 거듭하여 오다가 속 시원한 고비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속담에 장병(長病)에 효자 없다는 것인데 그 부인께서는 지리한 3년 동안을 한때와 같이 간호하여 오다가 천붕지괴(天崩地壞)의 변을 당하였으니 그 누구보다도 구국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심정은 이루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정(國情)이 난마와 같고 민주 과업을 완수치 못한 오늘에 있어서는 국난(國難)에 현상(賢相)을 절실히 생각하는 이 마당에, 사람다운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인간의 쓰레기만 남게 되니, 남아있는 우리 자신의 불행한 비애에 눈물이 스스로 앞을 가리울 뿐이다. 우리는 인촌 동지의 돌아갔음을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는 이 나라 이 겨레에게 위대한 존재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촌 동지의 옥지(辱知)가 된 40여 년 동안에 경방 동아 등 주금(株金)모집과 보전(普專)기금 모집차로 대구에 걸음이 있을 때마다 협조의 노(勞)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고하 송진우 동지의 참변 이후에 당시 한민당 내에서는 후(後)의 당수(黨首)를 위요(圍繞)하고 3파(派)가 준동(蠢動)하였을 때에 그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당내 수습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창랑 장택상 군과 협의하여 인촌을 추거(推舉)하기로 하고 인촌을 움직이도록 공작을 시작하였다. 인촌은 교육계를 위하여 전심하겠다고 고집하여 용이하게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나라와 민족이 있는 후에 학교도 있는 것이라고 대의명분을 들어서 역설(力說)도 하였고 다른 동지들도 강권한 결과 겨우 승낙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는 거의 10년이 가까운 동안에 당(黨)·국(國)을 위하여 극정(克情)을 같이 하여오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그의 거룩한 점에는 머리가 수그러졌던 것이다. 인촌은 절대적인 양심의 소유자이다. 사람의 마음은 양심과 야심의 두 면이 있는데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말하는 것이다. 인촌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희유(稀有)한 물욕적 야심이 없는 성선의 한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보기 드문 책임감이 강하였다는 특수성을 가졌다. 그가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사업이 유종의 미과(美果)를 거두어가고 있는 것도 요컨대 책임 수행에 충실하였다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천성은 강의(剛毅)하였다. 일찍이 박춘금의 권총공갈에도 자약(自若)하였고, 왜제(倭帝)의 귀족원의원 ‘미끼’에도 의연하였다. 그는 또한 초범(超凡)의 총명을 가졌다.

고(故) 고하 동지와 사이에서 인촌이 지혜를 빌린 것이 아니라, 고하가 인촌의 지혜에 따른 것 인만큼 그러한 총명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특징이 인촌의 위대한 일면도 말하는 것이지만 그밖에 커다란 두 가지 성분을 높이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하나는 행운이었다는 것이다. 호남재벌에 생를 향유하였고, 산업계의 왕자인 김연수와 같은 아우를 가졌다는 것이다. 교육 산업 언론 정계 등등에 있어서 그의 양심 책임감 강의성 총

명 등이 그 사업의 원동력이 아닌 바는 아니지마는 이러한 행운의 환경이 그를 도와서 대성케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인촌의 덕의 인(人)이었다. 덕은 마치 봄바람과 같다. 삼동설한에 공공 얼어붙은 두꺼운 나무껍질 속과 땅 덩어리 위에서 움이 돋고 가지가 벌어져서 꽃이 피는 것은, 천하언재(天何言哉)며 천하언재(天何言哉)요, 사시(四時)가 행언(行焉)하고 만물이 육언(育焉)이라, 무위이화(無爲而化)라는 천의(天意)는 춘풍이 당당(蕩蕩)하고 화기가 애애(靄靄)함과 같이 인촌의 전 인격은 이 덕으로서 장엄(莊嚴)된 것이다.

나는 운불여아(運不與我)하고 덕무급인(德無及人)함을 매칭자탄(每稱自嘆)하여온 것인 만큼 항상 덕 있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숭경(崇敬)의 염을 금하지 못하였던 한사람이다. 제제(濟濟)한 명사들과 접촉이 허다하였던 가운데서 고(故) 의암 손병희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다음에는 인촌 동지가 덕의 제1인자로 굴지(屈指)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이다. 물론 인촌도 인간인 이상에는 그의 결함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마치 봉건 잔재의 여풍(餘風)이 있다든지 정실인사에 그 총명을 의심받기도 하였고 성미가 때로는 남의 감정을 찢러주는 것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인촌을 대할 때마다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은 그 덕의 강화에서다. 왈(曰) 경허하다, 왈 관후(寬厚)하다 하는 등등 모든 형용사는 요약하면 덕의 일면을 지적함에 불과한 것이다. 인촌 동지의 사랑(舍廊)앞에 ‘덕유린(德有隣)’이라는 액서(額書)를 볼 때마다 나는 언제든지 인촌은 덕의 인(人)이로다 라는 연상을 하여왔던 것이다.

사람은 정신과 육신이 합하여 한 물체를 이루고 그것의 대명사가 곧 ‘성명(姓名)’이다. 사계(斯界)에 생을 기(寄)함에 있어서 그 생의 발전을 위하여 시간적으로는 길게 살자는 것이요, 공간적으로는 널리 살자는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육신의 백년생(百年生)도 있는 것이요, 성명의 천추생(千秋生)도 있는 것이며, 또한 정신의 영생(永生)도 있는 것이나, 공간적으로는 개인으로 살자는 것도 있고 가족으로 살자는 것도 있으며 국가 민족적으로 살자는 것도 있고 세계적으로 살자는 것도 있으며 우주적으로 살자는 것도 있다. 인촌 동지는 시간적으로 천추죽백(千秋竹帛)에 살았고, 임종 직전에는 또한 영생의 길을 찾았으며, 공간적으로는 국가 민족적으로 살았고, 또한 하느님이 부르신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살게 된 것이다.

인촌 동지가 남기고 간 경성방직은 자급자족할 만한 민족자주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금후에 백(百)경방 천(千)경방 만(萬)경방이 속출할 것이요, 동아일보의 민족 지도의 봉화가 되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하여 결사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백만 천만의 독자를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은 백(百)인촌 천(千)인촌 만(萬)인촌을 양출할 것이요, 민국당은 신당을 협조 합작하여 국민 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당이 의도하는 목적을 지향하여 반독재·호헌구국과 반공산·남북통일의 사적 과업완수를 기하려는 인촌 동지의 유지 계승을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인촌 동지의 위대하였던 존재를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삼가 그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 바이다.

끝으로 내가 일찍이 음미하던 시 일구(一句)를 소개하고 인촌의 민족적 유업을 찬미하는 바이다.

동서역사 세세대대 찬란하던 그 문화는 큰 사람의 한 세상에 이상(理想)하던 그림자요, 억만창생 자자손손 복 누리는 저 기업(基業)은 그네 조선(祖先) 한 평생에 정성 다한 자취로다.

37) 이강훈 전 광복회장

‘동상 제막식 추모사’ (‘인촌기념회사’, 1992년, 15쪽)

“물론 선생은 몸소 총칼을 들고 일제와 맞싸우거나 독립운동단체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선생은 독립운동 일선을 뒷받침하는 ‘제2선’의 독립운동을 자임했다. 동아일보나 중앙학교 보성전문학교 경성방직 등은 모두 일선의 독립운동을 성원하는 제2선의 독립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일제하의 동아일보가 민족의 항일의지와 자주역량을 배양키 위한 문화투쟁이었다면 중앙학교 보성전문학교는 독립전사를 키우는 교육투쟁이었다. 그리고 경방은 일제의 경제침략에 맞서 민족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투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총칼로써 왜적 몇 사람을 해치울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거대한 국력을 등에 업고 밀어닥치는 제국주의 침략을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온 겨레의 독립의지를 일깨우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잘 가르쳐 내일의 민족역량을 배양하고 국민경제의 자립을 통해 국력을 비축하는 길이 오히려 확실한 독립을 담보하는 지름길이였다. 인촌 선생의 언론 교육 산업 활동은 바로 독립의 길로 국민들을 인도하는 독립자강 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38) 이희승 선생

‘인촌 선생 밑에서 배우고, 일하고’

(一石 이희승 전집 9,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년, 33쪽)

“인촌 선생은 학교를 맡으시면서 두 가지 일을 서둘렀다. 하나는 유능한 교사를 모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계동에 대지를 마련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것이었다. 당시 교장은 석농 유근(柳瑾) 선생, 학감은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 선생이었다. 교사진은 기하에 이강현, 화학에 나경석(羅景錫), 대수에 백농 최규동, 조선어에 이규영(李奎榮·주시경 선생의 제자), 지리·역사에 이중화(李重華), 그림에 고희동(高羲東), 창가(음악)에 이상준(李尙俊), 체조에 김성집(金聲集) 선생 등이었다. 교장 석농 선생도 한문을 가르쳤고, 학감 민세 선생은 수신(修身)을 맡았으며, 인촌 선생 자신은 경제원론을 가르쳤다. 경제원론은 교재가 없어 인촌 선생이 일일이 필기를 시켰는데, 공부시간의 그분은 매우 자상하면서도 근엄한 분이였다. 틈틈이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말을 들려주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39) 이은상 선생

‘인촌 김성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년, 279~280쪽)

“고려대학교의 명칭은 인촌 선생 스스로 정하신 것이다. 보성(普成) 조선 고려 등 세 개의 명칭을 가지고 논하되 보성은 전문학교 때의 이름이니 대학이 되면 갈아야 하고, 조선은 개국 당초부터 끝까지 국토 내에서만 우물쭈물 하였고 세력이 밖에까지 미쳐보지 못 했으나, 고구려는 한때 요동에까지 세력이 팽창하였던 것이니 그 웅대 활달한 기상과 자주 불패의 정신이 취할 만하나, 다만 三字名은 불편하니 ‘구(句)’자를 약하여 ‘려’로 하겠다는 것이었

다.”(‘아, 인촌은 가시다’, 新生公論, 1955년 6월호)

40) 서정주 시인

‘인촌 김성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년, 218~219쪽)

“원래 우리 집안은 양반가였지만 조부가 도박을 좋아해 재산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아버지는 재주가 있었지만 나라도 때맞춰 망하여 과거도 보지 못하고 6개월짜리 측량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창군 측량기사로 일본인 밑에서 측량을 하다가 인촌 선생의 양부(養父) 되시는 동복영감(禩中公)의 땅을 대게 되었다. 원래 부친은 백일장에서도 장원도 한 문재(文才)도 있어 얼마 안 되어 인촌 선생의 양부님 눈에 들어 비서인 서생(書生)이 되어 편지 대필도 하고 경리도 담당 했으며 소작료를 거둬들이기도 했다. 큰 지주 밑에 작은 지주 생긴다고 생활도 점점 나아지고 인촌 닻이 서울로 이사 가자 마름(畝音)을 맡아 관리했다. 내가 인촌 선생을 처음 뵈는 것은 보통학교 5학년 땀가 6학년 땀가 그랬다. 인촌은 아버지보다 대여섯 살 위였다. 그런 데도 아버지를 만나면 언제나 ‘서 선생’ ‘서 선생’하던 것이 인상에 남는다. 나는 인촌 선생과의 인연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앙고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때마침 일어난 광주학생사건 때문에 학교에서 만세운동을 모의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시골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마름을 그만 두고 고창 읍내로 이사를 나왔다. 그것이 1931년이던가, 그러면서 인촌과 멀어지게 됐는데 아주 소원한 것은 아니었다. 동복영감(禩中公)이 아버지를 매우 신임하여 땅을 살 때나 팔 때는 꼭 아버지를 오라 했다. 고창고보에 편입학 했으나 그 후 다시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총독부의 퇴학 중용을 받고 자퇴한 후 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인촌 선생이 줄포 닻에 내려 왔으니 가서 인사 여쭙라 하여 줄포로 갔다. 그분은 사랑채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다. 내가 인사를 올리자, ‘자네 몇 시 차로 왔는가?’ 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 녁 시 차로 왔습니다.’ 했더니 선생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나 이런, 녁 시라는 말도 있나? 이 사람아, 녁 점이면 녁 점, 네 시면 네 시지 녁 시가 뭔가? 하하하’ 흥안무색, 아무 말도 안 했으나 무척 창피했다. 그 말이 그 후 내가 시인된 잠재적인 자극이 된 것 같다. 그 후로는 뱀지 못했는데 1935년 이던가 내가 혜화전문에 다닐 적이었는데 집에서 보내준 학비를 모두 술 마셔 버려 빈 털털이가 된 적이 있었다. 급한 김에 계동으로 인촌 선생을 찾아가서 집에서 학비가 오지 않아 그러니 도와주십사 했다. ‘얼마나 되는데?’ ‘삼십 원 올시다’ ‘아 그래? 잠깐만 기다리게’ 그러더니 담박 돈을 내주셨다.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생면부지의 학생에게도 언제나 도와주시는 것 같았다. 그분은 교육 제일주의자였다. 일제 말년에는 징용을 안 가려고 시골집에 내려가 면 서기를 했다. 해방이 되어 서울에 올라 왔는데 취직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촌 선생의 넷째 아드님인 상흥(相欽)에게 동아일보에 들어가게 힘 좀 써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인촌 선생께 내 얘기를 했는지 담박에 허락이 나서 그것도 평기자도 아닌 문화부장이란 감투를 쓰게 되었다. 어느 날 인촌 선생이 오라 신다기에 계동 집으로 찾아갔더니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었다. ‘자네지 참. 자네 시가 아주 훌륭하다며? 문학이 좋다고들 하데. 나도 자랑스럽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녁시’ 생각이 나서 속으로 웃었다. 그 때문에 내가 시인이 된 것 같다. 훌륭한 이의 영향이란 그렇게 큰 것이다.”

41) 손기정 선생

‘孫 선수 왔으니 환영회 하자’ (위 책, 370~371쪽)

“내가 인촌 선생님을 뵈는 것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그 다음해 그러니까 1937년이었
다… (중략)… 뒤늦게 귀국은 했지만 대학 진학이 막연했다.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아일보를 생각하고 인촌 선생이라면 힘이 되어 주리라 여기고 계동 맥을 찾아보았다. ‘마
라톤 하는 손기정입니다. 보성전문에 입학시켜 주십시오.’ 다짜고짜 그 말부터 했다. 선생
님은 내 손을 잡으시더니 감격하신 듯 눈물을 글썽이시고 입학 부탁은 뒷전으로 미루고 친구
분들을 부르시며 손 선수가 왔으니 환영회를 해야겠다고 하셨다. 술상이 들어오고 모든 분
들이 어린 나를 축하해 주는데 몸 둘 바를 몰랐다. 인촌 선생님까지 일어나셔서 창을 부르
셨는데 ‘아마추어’로는 잘 하시는 편이었다. 마라톤 선수 하나를 위해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아시고 술상까지 차리며 격려해 주시는 걸 보니 손기정 개인보다도 선생님의 애국심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 했다. 물론 나는 보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뒤에도 마라톤 하던 내
후배 선수들, 이를테면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가 된 서운복 함기용 선수들을 추천하면 그들
의 실력도 있었지만 보전 입학을 승낙하셨다.”

42) 서운복 선생

‘그것은 조선민족의 한(恨)이었다’ (위 책, 372~373쪽)

“1947년, 보스턴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오자 인촌 선생님은 계동 맥으로 손기정
남승룡 두 선배와 나, 그리고 이철승 씨 등을 불러 환영 잔치를 해 주셨다. 그 자리에는 형
제님 그리고 자제분들 친구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저녁 대접이 끝나자 선생님은 여흥 한 번
하자 하셨다. 선생님은 따님을 부르시더니 노래를 부르라 했다. 따님은 음악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아주 고운 소프라노로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이날 인촌 선생은 ‘손기정이 일
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을 때, 우리는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뛸 때를 얼마
나 기다렸는지 자네들은 잘 모를 걸세. 그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한(恨)이었다네’라고 말씀
하시면서 우리의 분발을 촉구했었다. 해방 후 손기정 남승룡 권태하 김원배 등 우리나라 마
라톤의 원로들과 조선마라톤 보급회를 만들어 후진육성을 시작했는데 재정의 뒷받침은 모두
인촌 선생이 해주신 것이었다. 그때도 돈 가진 분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찾아가면 귀찮아하
실 뿐 이해와 격려를 해주시는 건 인촌 선생님뿐이었다. 그는 초기 우리 마라톤에서 대부
같은 기여를 했다. 그 결과로 1954년에도 보스턴마라톤에서 함기용 손길운 최윤철 선수들
이 1,2,3위를 다 차지해 기염을 토했고, 동아일보에서 만든 동아마라톤은 바로 한국 마라톤
의 산 역사이자 동시에 한국 마라톤의 성장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가장 전통 있는 경기대회이
기도 하다. 인촌 선생은 스포츠의 육성을 민족운동의 하나로 생각하셨고 스포츠가 뭔지를
아신 분이였다. 당시 보전운동장은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경기장이었고, 선생님은 이 경기
장을 만들 때 본관 건물과 맞먹을 정도의 투자를 하여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들에
게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것이었다.”

43) 백선엽(白善燁) 전 육군참모총장

그때 그 이야기 - 老兵이 걸어온 길 90년
(국방일보, 2008년 10월 15일자)

“지리산 작전 3개월 동안 내가 늘 신경을 쓴 것은 군기였다. ‘음참마속’의 비화처럼 내부 군기를 엄정히 하는 한편, 장병들이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크고 작은 부대들이 작전을 시작할 때마다 나는 ‘절대로 마을에서 숙영하지 말라’고 거듭 지시했다. 인가가 가까우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법이다. ‘죽이지 말라, 태우지 말라, 능욕하지 말라’는 만군 시절의 진중 교훈을 늘 떠올리고 있었다. ‘물 한 대접, 쌀 한 톨도 거저 얻지 말라’는 말도 반복 교육했다. 그뿐만 아니라 식량을 여유 있게 갖고 나가 숙영지 인근 주민들에게 나눠 주라고 지시했다. 사령관 임명 직후 김성수(金性洙) 부통령에게 받은 친서가 늘 가슴에 살아 있었던 것이다. 김 부통령이 한지에 친필로 쓴 편지에는 주민들 생활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군경의 민폐가 심한 현실을 적시하고 ‘부디 국민을 애호해 민간에 폐를 끼치지 말고 치안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44)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

(경향신문 1955년 2월 24일자 2면)

왜정도 말기(43년)에 가까웠을 때의 일이다. 학원에 대한 왜정의 간섭이 날로 심하여 연희전문학교에 대하여는 이미 탄압이 시작되어 학교는 수색을 당하고 몇몇 교수가 검거를 당하였던 때인지라 같은 사학의 처지에 있는 보성전문학교로서도 언제 머리위에 일정의 철봉이 떨어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일이다.

입학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학교에는 사복을 입은 동대문 경찰서 고등계주임이 나타났다…(중략)…橫山(요꼬야마)라는 그 경부는 소위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잔혹한 고문으로 이름 있는 자였다…(중략)… 얼마 후 요꼬야마가 나가는 것을 본 나는 곧 교장실로 달려가 인촌선생께 그자가 온 까닭을 알아보았다. 인촌은 심히 불쾌한 얼굴로 학생의 입학 청을 하러 왔던 것이라 대답하였다… (중략)… 요꼬야마의 입학 청은 몹시 끈기진 것이었다. 본인이 직접 3,4차 왔을 뿐 아니라 부하 형사를 보내어 위협을 일삼았다… (중략)… 내내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날 요꼬야마는 정복에 칼을 차고 고등계형사 3,4인을 대동하고 학교에 나타났다. 아차 이제는 총검거로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학교를 폐쇄하고 우리를 총검거하려면 할 수 있는 구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인촌 선생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시는가 학교의 폐쇄를 각오하고 끝끝내 그 학생의 입학 청을 거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학 청을 허가함으로써 위기를 면하려는 것인가… (중략)…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그리하여 오후 4시 경이나 되었을 때 인촌선생이 몹시 피곤한 그러나 무표정한 얼굴로 내방으로 들어오셨다.

“갔습니까.”

나는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중략)… 그리고 선생은 내 책상 옆 의자에 앉으시며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의껏 해보다가 안 되면 단념하는 것이지요. 일에는 집착하여 의를 구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하시었다. 나는 그 때의 감명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중략)… 전 사재와 전 정력을 기울여오던 사업이지만 일제의 압력에 굴하여 한 명의 부정입학을 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45)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 ‘사람 모으는 힘을 가진 지도자’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년, 374쪽)

“내가 고려대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서 이다. 귀국하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드문 시절이라 서울대 연대 등에서도 오라고 했지만 난 고대를 택했다. 그 연유는 나도 독립운동을 좀 했고, 평소 인촌 선생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시대,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를 한국의 정부로 생각했었다. 말이 쉽지 일제의 탄압 아래서 신문경영 학교경영 기업경영 등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임시정부를 좀 알아서 김구나 이승만 등 지도자들을 많이 알았지만 인촌만큼 훌륭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인촌의 가장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것은 ‘사람 모으는 힘’을 가진 지도자라는 점일 것이다. 근래의 역사 가운데 인재를 제일 많이 기르고 모은 분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고대를 택했는데 올해(1984년)로 35년째다.”

“6·25가 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했다. 나중에 보니 피난 내려온 교수들은 약 20명이었다. 7월 하순 어느 날 인촌 선생이 교수들을 광복동 근처의 동아반점 2층에 불렀다. 어떻게든 사는가 근황 정도를 물으실 줄 알았더니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반액 정도였지만 월급을 나눠 주시는 것이었다. 모든 교수들이 감격했다. 일생 내내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 (위 책 300쪽)

- ‘長江’ 3권 (나남, 1990년, 290~291쪽)

“나는 여기서 ‘위대한 발견’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한 기쁘기도 하였다. 양호기(고대 출판부 간, 1977년 2월)의 66쪽에 있는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인촌이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무제한 타협도 부득이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총독부의 강요대로 정원을 초과한 28명의 학생을 희생시켰을 것이지만, 그러한 때의 인촌의 태도는 의연하였다. 명백한 비리의 굴복을 거부할 결심을 굳힌 인촌은 이미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들의 제명을 거부하고 말았다. 결과는 인촌의 교장직 사퇴로 끝난 것이었다. ‘정원 초과’에 관해서 그 배경을 알아보면 유 총장은 ‘양호기’ 65쪽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아일보를 놓고 칼질 가위질 하던 일정의 손길은 시국의 각박화와 함께 1935년 봄 드디어 교육기관인 보성전문 학교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신입학생의 정원 초과였다. 이 문제의 내용과 전말도 ‘고대 60년사’에 상세하므로 이곳에 되풀이하지 않거니와, 요는 일정당국의 보전에 대한 고의적, 악의적인 탄압이었다는 한 마디에 그치는 사건이었다. 정원 초과는 1할에서 2할 정도까지는 그때 어떤 학교에서나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고, 보전도 그 전 해까지 매년 2,3할에서 심하면 5, 6할까지 정원을 초과하는 데도 아무 말 없던 것인데 입학지원자 수의 격증, 30주년기념 도서관 건립모금의 기세 등에 놀란 일정 당국은 1935년에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썽을 일으키는 방식이 또한 몹시 졸렬하고 작위적인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혹시 그런 일도 있을까 해서 미리 각과 140명씩의 정원 인가 신청을 내놓고(新校舎의 학생 수용능력은 각과 200명씩이라도 충분), 그 범위 안에서 법과 125명, 상과 140명에게 입학할 허가를 해줬던 것인데 (그 중에서 지정 기일까지 수속을 완료한 자는 도합 228명), 총독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도록 인가를 안 하고 질질 끌어 오다가 등록 마감일 오후에 와서야 갑자기 정원을 엄수하도록, 환언하면 이미 입학 수속을 끝낸 학생일지라도 정원을 초과해서 입학한 자는 이를 취소하도록 날벼락을 내렸던 것이다.’ 내가 놀란 것은 어쩌면 50년 후에 꼭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는 정말로 되풀이 되는 것인가! 인촌 선생이 사임한 경과가 어쩌면 이렇게 나의 사임과 비슷할까! 당국의 강요에 의한 사임, 사임 강요 이유가 입학생 문제, 그 수자도 인촌은 28명이고, 나는 25명, 게다가 인촌도 학생을 살리기 위해 본인이 희생했고 나도 학생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점!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인촌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사임했고, 나는 이 나라 군사정권에 의해 사임했다는 점이다. 내가 기뻐했다는 것은 나의 처사가 옳았다는 것을 재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훌륭한 인촌 선생도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인촌에 대해 친일파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 있어요. 신문사, 학교 등을 운영하다보니 일본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과 편지도 주고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전후 맥락도 보지 않고 인촌이 일본인에게 보낸 편지만 보고서 그를 친일파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학도병에 나가라고 독려하는 글을 썼던 것도 그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봐요. 유진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회활동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던 사람들이야 그런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인촌 같은 사람이 사회활동을 다 접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당시 우리 민족을 위해 더 좋았을까요? 인촌은 그런 사업을 해서 뒤로는 독립운동을 도왔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운영하던 인성학교에 돈을 댄 것도 인촌이었지요. 제가 고대 총장을 할 때 인촌의 동상을 없애겠다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있어서 제가 말렸어요. 인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고대가 싫으면 그들이 떠나라고까지 했지요. 광복군 출신인 제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인촌상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인촌이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46)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인촌과 교육 - 특집 인촌 정신의 재구성’

(高大文化 13호, 1972년 8월호, 170~172쪽)

“세상에서들은 흔히 인촌을 가리켜 교육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이 단순히 인촌이 교육에 직접 종사하고 또 각급 학교를 경영한 데서 오는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호칭이라면 인촌에게는 딱 들어맞지 않는 감이 있다. 그는 물론 교육자다. 그러나 보통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교육자라는 말을 같이해 논할 수 없느니 만치 숭고하고도 위대한 교육자다. 진실로 그는 일생을 교육적으로 살다갔다. 천품이 남달리 어질어서 평생, 이 말 많고 남

뜯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것처럼 많은 일을 하고 갔지만 어느 누구도 인촌을 폄훼하는 사람은 없다. 그는 ‘인자(仁者)는 무적(無敵)’이라는 고성(古聖)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그의 자질은 유년 시부터 나타났으니 그가 시대의 대세를 직감하고 신학문을 배우고 신교육을 받고자 부모 몰래 향리를 떠날 때(1908년 19세) 향우 송진우, 백관수와 동행, 자기의 학비를 나누어 쓰면서 학업을 마쳤다. 이것이 한 달이 아니고 일년이 아니며 6년간을 하루같이 그러했다는 것은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후 평생을 수많은 사업을 경영했지만 그 때마다 일을 꾸며서는 유능한 인재를 찾아 윗자리를 맡기고 자기는 뒤로 물러앉는다. 또 가다가 일이 난관에 부딪치면 스스로 쾌히 나아가 그 책임을 맡아 처리한다. 그리고는 또 뒤로 물러앉는다. 사람을 쓰되 끝까지 믿고 쓰며 한번 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 (중략)… 인촌은 글을 별로 남기지 않은 분 중 하나다. 그렇다고 말씀도 별로 남기신 것이 없다. 오직 행동으로, 실천으로 일생을 살다갔다. 그러므로 이제 그 분의 천품과 자질을 재현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바가 있다. 다만 그분이 이룩해 놓은 사업의 결과와 지난날의 성해(聲咳)에 접했던 사람들의 말을 빌어 겨우 그 편린을 더듬을 수 있을 뿐이다… (중략)… 인촌은 결코 달변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에게 지시할 때는 어느 웅변가보다도 더 학생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 감격은 오래토록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진심 그가 이 조국과 민족에 향한 마음이 남달리 뜨거웠고, 교육에 대한 정열이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다. 사실 보전 시절에 학생들은 유별나게 거칠고 사나웠다. 이윽 高商(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신) 학생들과의 싸움이 끊일 사이 없었고 특히 학생들의 경찰에 잡혀가기가 일수요, 심지어 전차 차장을 두들겨 패서 회사 측으로부터 항의 소동이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가끔 학생들을 모아 놓고 훈화를 하는 데 이때 인촌의 그 진정한 마음과 절실한 외침은 순식간에 그 거칠고 사나운 학생들을 양처럼 만들고 만다. “이놈들! 닭이 백 마리면 그 중에 봉이 한 마리라는데…내가 그 봉 한 마리를 바라고 너희들을 오늘날까지 가르치는 거다. 그런데 바라는 봉은 한 마리도 안 보이고 몽땅 병아리들이니 웬일들이냐?”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 그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눈물을 짓는다… (중략)… 일제 말 어느 해 승승장구하던 럭비부가 왜놈들에게 진 적이 있었다. 면목 없이 머리를 떨구고 교장인 인촌 앞에 선 선수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 고기를 못 먹어서 졌다. 고기를…”하며 목이 메었다. 이 얼마나 절실한 말인가. 일제 말 왜놈들은 모든 생활필수품을 배급제로 하여 놓고 한국인에게는 일년 내내 고기라고는 구경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저희들 왜놈들끼리는 뒷구멍으로 생선이며 소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시합에 지고 돌아온 선수를 대하여 먼저 스스로 기성세대의 책임을 느끼는 어진 마음, 어느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듯 인자할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해박한 지식이 아니요, 고매한 인격과 덕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교육신조로 삼은 인촌은 때로 학생들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처벌을 해도 학생들은 그 스승을 원망하지 않았다.”

47) 이정식 美 펜실베니아대 명예교수

‘역사의 시각에서 보는 인촌 김성수’

(2005년 2월 18일, 인촌 서거 50주기 추모사)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남강이 오산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 김홍일(金弘晷)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18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의 의식이 깨고 각성을 해야만 힘이 생길 게 아닌가. 그런데 무작정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본들 도대체 그 외지에 한국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속히 독립을 하려면 국내에서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말일세.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자네 같은 훌륭한 일꾼은 그 무엇보다도 교사가 되어야 하네. 그래서 민족진영을 길러야 하네. 실상 국내에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해외에 나가 유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 있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해. 자네 같은 사람이 전국에 걸쳐 교사가 되어 우매한 백성들을 일깨워 민족의 얼을 넣어 준다면 독립을 위해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걸세’… (중략)… 저는 일제시대의 민족운동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 후의 독재정권시대의 정치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각 분야의 수장들이 일제시대나 독재체제하에서 겪어야 했던 고초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흑시대에 우리 겨레를 이끌어 나갔던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존경심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상실한 그들이 자기의 금지를 손상시키는 일까지 감수해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끌어 오던 단체,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의 옥쇄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절충과 타협을 거듭하면서도 가야 할 길의 좌표를 잊지 않고 학교나 기업체를 이끌어 나갔던 고독한 지도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일제의 발악적 전체주의 시대에도 조선민족으로서의 좌표를 잊지 않고 민족을 이끌어 갔던 인촌 김성수 선생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중략)… 일제의 발악적인 전체주의 통치기간 동안 해외의 망명객 가운데는 국내에서 굴욕을 참아가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렸던 지도자들을 비하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젊은 층의 일부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옛날 중국 삼국시대의 장비처럼 마음이 얇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관우, 곧 관운장이 유비의 두 부인을 모시고 가다가 조조에게 붙잡혀 그의 병영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생각이 깊지 못한 장비는 관운장이 배반한 것으로 단정하고 관운장을 죽여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관운장은 ‘신재조영심재한(身在曹營心在漢)’이라는 구절이 들어간 시를 대나무에 새겨서 유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몸은 조조 밑에 있으나 마음은 유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관운장은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조 밑에서 굴욕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중략)… 저는 인촌 김성수의 공적도 관운장 못지않게 빛날 것을 확신합니다.”

48) Choong Soon Kim, A Korea Nationalist Entrepreneur : A Life History or Kim Songsu, 1891~1955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한국 번역본 : 김종순, '문화민족주의자 김성수', 일조각, 1998년, 25~28쪽)

“식민지 기간 한국에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타났다. 일본 고위관리를 사살하기 위하여 어떤 이는 수류탄을 투척하고 폭탄을 폭발시키기도 했다. 보호조약의 일본 측 장본인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9년 한국의 애국지사 안중근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만주와 연해주 등 여러 곳에서 일본인과 맞부딪치며 무장투쟁을 벌여 나갔다. 어떤 이는 해외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의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식민지에 남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무엇이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김성수도 식민지에 남아 민족주의 활동을 전개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김성수와 그의 동료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본을 당장 격퇴시키는 목표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근시안적인 안목이므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서구의 형태에 기초한 국가의 기본 기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성수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정열을 쏟아 부었으며, 결국 그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로빈슨(Michael Robinson)은 ‘김성수의 개인적이고 교육적이며 전문적인 노력은… (중략)… 1920년대 한국의 지식인 세계를 잘 설명해 준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파벌의 기원과 진행과정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성수는 한국의 문화민족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지식인이었다.”

49) 표정훈 출판평론가

‘나의 천년’ (푸른역사, 2004년), 할아버지 이야기

(160~162쪽) “곤란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질문. 할아버지는 인촌 김성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신이 다니신 중앙고보는 1915년 인촌이 중앙학회로부터 인수하면서 사실상 설립자가 된 학교였다. 비록 중앙고보에서 학업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오늘날 중앙고등학교의 동관과 서관, 그러니까 각각 1923년과 1921년에 일본인 건축가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 완공한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을 수십 년 만에 돌아보시고 깊은 감회에 젖기도 했다. 이 두 건물은 각각 사적 제283호와 제282호로 지정되었다. 할아버지는 인촌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셨다. 인촌이 중앙고보에서 강연을 할 때였다. 강연이 끝날 무렵 할아버지는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코가 개 코라는 소문이 있는 데 정말입니까?’ 강연장이 폭소의 도가니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당시 중앙고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촌이 해외여행 중 개 코를 붙였다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성형 수술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학생들의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총대를 멘 셈이었다. 인촌의 대답? 그냥 웃고 말더라. 그 밖에 일본인 학생

들이 다니던 당시 용산고보와의 축구 경기는 늘 패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끝나곤 했다는 이야기, 특히 그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면 효과 만점이었다는 이야기. 국어학자 이윤재(李允宰) 선생이 수업 도중 몰래 우리나라 역사, 주로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등 외적을 물리친 위인들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 주다가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일화. 고보 시절을 추억하시는 할아버지는 마치 그 시절로 되돌아가신 듯 보였다. 할아버지는 인촌의 친일 행적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알고 계셨다. 하지만 그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았다. 왜일까? 조심스럽게 여쭙어보니 역시 조심스럽고 간단하게 답하셨다. ‘그는 자본가였다. 자본가가 자본을 축적하려 했으니 당연한 일이지.’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의미가 함축된 사회주의 계급 이론에 입각한 답이었다. 할아버지는 중앙고보에서 훌륭한 스승들과 만날 수 있게 해 준 인촌을 분명 존경했다. 그리고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말을 무척 아꼈다.”

(166~167쪽) “우리에겐 타도해야 할 독점자본주의 국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국가라는 게 없었지. 나라가 없다는 현실, 그 현실을 너는 모른다. 실감하지 못한다. 일본 공산당과 우리가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차라리 ‘식민지 공산주의’ 아니 ‘식민지 한반도 공산주의’라는 별도의 설명 틀을 만들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중국 공산당도 다르지. 중국은 일제의 전면적인 지배를 당한 적이 없으니깐. 더구나 신해혁명으로 황제 국가 체제를 스스로 타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사회주의자로서 할아버지의 전체적인 입장을 강경하게 밀고 나간다면 인촌은 매판자본이든 민족자본이든 타도해야 할 자본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지점에서 주저했고 철두철미하지 못했다. 자본가로 인식하면서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가 다행스럽게도(?) ‘실패가 예견되어 있던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같은 혁명가들이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 세력 가운데 얼마나 됐었는지는 잘 모른다. 짐작하기로는 적지 않은 수가 아니었을까?”

50) 이근진 선생

(CNB NEWS 2007년 4월 29일, ‘인촌 김성수’)

“임창영 박사는 이승만 박사가 1912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은 이후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프린스턴 박사가 된 분이다. 그 분이 한국에서 가졌던 공직은 민주당 시절 주 유엔대사가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3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한다. 그 분은 강연 중에 자신의 신변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인촌 김성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물론 그 이야기는 그의 회고록에도 잠깐 나온다. 그 당시는 배를 타고 유학을 갔다. 입학 허가서는 받았지만 학비는 고사하고 배 삿조차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평안도 출신 친구중의 하나가 인촌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아이디어를 냈다. 이미 인촌 김성수는 조선의 지도적인 인물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학생이 찾아가서 사사로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여러 군데 도움을 청하였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한 터인지라 이미 주눅이 들대로 든 상태였는데, 그래도 마지막 용기를 발휘하여 인촌 김성수의 집을 찾아 갔다. 조금 늦은 밤이었는데도 일개 학생 신분인 그가 면회를 신청하자 사람을 시켜서 용건을 물은 다음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았다. 인촌 김성수는 ‘선진국의 학문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라’고 딱 한마디를 하고는 배 삿과 일부 학비에 해당되는 돈을 건네주었다. 그

외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촌 김성수의 인간 됴됨이를 알 수 있는 증언 중의 하나다.”

51) ‘민족지로 키워온 사람들 - 동아일보 창간60주년 기념좌담회’

- **최승만(중앙여중 재단이사, 전 동아일보사 잡지부장)** = 인촌 선생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 분은 사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또 난 체 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이 아주 평민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차이는 있는데도 그저 친구로 대해주셨지 선배나 사장이니 해서 우쭐하는 모습을 도무지 그 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우리 집이 사직골에 있었는데 인촌 선생이 자주 들르셨습니다. 나는 기자고 그 분은 창설자이시자 중책을 맡으신 데다 위품이나 연령으로 해도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부근에 오시면 꼭 찾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잠깐 여기까지 왔다가 내 들르는 길일세” 하셨어요. 그런 일은 말이 쉽지 행동은 꽤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돼요. 또 그 분처럼 자신의 힘자라는 대로 각 방면에 돈을 쓰시는 분도 드물 것입니다. 언론을 위시해서 학교와 산업에 이르기까지 힘이 있는 데로 전력을 다하셨어요.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인촌 선생께 신세진 일이 있어요. 인촌 선생이 저에게 1백원을 준 적이 있어요. 큰 돈이었어요. 이런 큰 돈을 잘 모르는 학생에게 선뜻 내주신 것을 볼 때 사람을 길러야겠다는 장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인촌의 심정이 아닌가 느껴져요.

- **서항석(예술원 회원, 전 동아일보사 학예부장)** = 나는 처음 보성학교에 다녔는데 4학년 때 일인 선생에 대한 배척운동을 벌였어요. 이때 교장은 최린 선생이었는데 우리가 자진퇴학원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학교 당국은 ‘퇴학을 명함’이라는 방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최린 선생 댁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자진해서 퇴학한다는 데 왜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퇴학을 명함입니까? 우리들은 인재 퇴학을 당해서 다른 데도 갈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들의 길을 막을 작정입니까?”하고 항의했더니 너희들 잘못은 없지만 학교 체면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하시면서 인촌 선생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예요. 아마 우리 문제로 상의하신 모양인데 인촌 선생께서 모두 받아 주신다고 하신 모양이에요. 소위 문제아들이는데 인촌 선생은 모두 받아들였어요. 웬만한 교육자적 결심이 없으면 힘든 일이지요. 또 1929년경 몇몇 사람이 뜻을 모아 문화원을 하나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운영비를 영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인촌 선생을 뵈고 말씀 드렸더니 쾌히 응낙하시더군요. 그 일이 성사되진 못했지만 역시 젊은이의 뜻을 이해하신 인촌 선생의 일면이 나타난 것이지요.

- **유광열(한국일보사 논설위원, 전 동아일보사 사회부장)** = 제가 해방 후 한때 신익희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었어요. 언젠가 인촌 선생이 신익희 씨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내가 아까 와서 얘기를 하고 나갈 때 신익희에게는 잘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대에게는 인사 잘못된 것 같아 도로 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인사를 안했다고 이렇게 오실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인사를 하고 가셨거나 안 하고 가셨거나 관계 없습니다”고 했더니 “어찌 신익희에게는 인사를 하고 유광열에게는 인사를 안 하고 가라는 법이 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는 민주주의고 무엇이고 창달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꾸 인사를 받으라고 해요. 그 분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52) 방규식 김택균 이용훈 선생

‘대한민국 장수 기업의 조건’ (해토, 2005년, 302~303쪽)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기업 설립 목적은 무엇일까? 이윤 추구였을까? 아니면 부의 축적이었을까? 유 박사의 지인들은 교육사업이 유한양행의 설립 목적이었다고 단언한다. 즉 기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기술 교육의 기회와 함께 일자리를 주는 것은 물론 그 이윤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훗날 유 박사가 해방 이전 했던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는 보성전문을 설립한 인촌 김성수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내 좋아하는 친구는 김성수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사회를 위해 동아일보와 고려대학을 세운 일, 참 부럽습니다. 공익사업을 한거 말이죠.’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건이 애국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 설립이 어려웠던 탓에 유일한의 교육사업 투신은 한국전쟁 이후에야 이뤄지게 된다.”

53) 김을한 언론인

‘신문야화 - 30년대의 기자수첩’ (일조각, 1971년, 283~284쪽)

“1932년 여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선일보의 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전고투하다가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진 한기악 씨가 거쳐할 집도 없어서 안정사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루는 그를 위문할 일이 있었다. 내가 갔던 날은 일기가 몹시 더웠는데, 극도의 신경 쇠약이 된 한기악 씨는 별로 반가와 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인촌 김성수가 찾아왔다. 인촌은 한기악 씨의 손을 붙들고 월봉! 이게 웬 일인가? 어서 나하고 가서 우선 병을 고치세. 나중 일은 아무 염려 말고...실상인즉 월봉 한기악 씨는 동아일보 창간 때 동인으로 이상협 씨 일파가 동아일보를 탈퇴할 때 그도 함께 나와서 시대일보로 갔으므로 일시는 김성수 씨를 배반한 사람이건만, 옛 친구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듣자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따뜻한 우정의 손을 내민 것이었다. 그리하여 심신이 다시 회복된 한기악 씨는 인촌의 권고대로 중앙학교로 가서 교육계에서 여생을(몇해 되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으니, 월봉·인촌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은 하나의 마담으로서 오래오래 전해 내려갈 것이다.”

54) 한만년 일조각 설립자

(‘계우회보’ 제110호, 2003년 9월 30일자)

“선친(月峰 韓基岳)은 인촌의 친구로 동아일보 창간 기자도 하시고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하셨는데 나중에 인촌이 우리 중앙학교의 서무책임자를 맡기셨어요. 중앙학원의 감사도 맡기셨고요. 중앙학교에 봉직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인촌 선생이 제 부친과의 옛 정을 생각해 제 형하고 제 학비를 부담해 주셨지요. 제가 중앙학교에 다닐 때와 보성전문에 다닐 때 인촌은 나를 불러 학비를 주셨지요. 너무 송구도 하고 또 자존심도 있어서 보성전문 시절에는 가정교사를 해서 학비를 내면 인촌 선생이 집으로 불러서 나를 꾸짖으시고 학비를 다시 내주시곤 하셨지요. 그러니 내가 인촌의 특별장학생이 아닐 수가 없지요.”

55) 김장수 선생

‘인촌 김성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년, 230~231쪽)

“보전 서관(西館) 뒤에 양계장이 있었다. 2백 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일제 말기 사료가 모자라 닭들이 시들시들 하는 형편이었다. 닭 사료도 총독부 축산과에서 배급을 타오는 때였다. 하루는 인촌께서 양계장을 둘러보시고는 ‘닭 모이가 모자라 큰 일 이구먼’ 하고 걱정을 하시었다. 나는 축산과 서기에게 가서 절을 여러 번 하고 ‘외교’를 잘 하면 닭 모이를 조금 더 배급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신 선생께서는, ‘그래? 그럼 나도 축산과 서기한테 가서 절을 할란다. 시들시들 맥을 못 추는 닭들을 볼 수가 없구먼’ 하시면서 언제 축산과에 가려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지금 막 가려는 참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럼 가자며 앞서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인촌 선생을 모시고 닭 모이 배급을 받으러 총독부로 가게 되었다. 지금의 종합청사 앞 치안본부 건물 구석진 2층에 축산과가 있었다. 광화문에서 전차를 내려 그 쪽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하니 기가 찼다. ‘선생님, 닭 모이가 급하긴 해도 축산과 서기한테 선생님이 절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인촌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시더니, 좀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는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했다. ‘김 선생. 총독부 서기에게 절을 한다고 생각 말고, 보전 보고 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세’ 인촌은 축산과 서기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으며, 그리하여 보통 때보다 좀 많은 사료를 배급 받았다.”

56) 이상돈 전 국회의원(위 책 234~235쪽)

- 일제 말처럼 인촌의 가슴을 어둡게 한 적은 없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이었다. 그 시련을 헤쳐 나가는데 얼마나 질긴 끈기와 슬기를 필요로 했는지 그 때의 친지들은 악몽으로 비유하고 있다. 일제의 탄압으로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가 폐간 당한 후 열흘쯤 지나 인촌 선생을 찾아가 뵈었다. 선생님은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개탄하셨다. 선생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동료 사원들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모르겠다며 몹시 걱정하셨

다. ‘그래 자넨 어쩔려나?’ ‘예. 전 마침 어떤 회사에서 와 달라구 해서 일자리는 다행히 얻게 됐습니다.’ ‘정말 잘 됐구먼. 잘 됐어’ 아주 기뻐하셨다. 마침 창 밖에서는 천둥소리가 울리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인촌 선생은 물끄러미 창 밖을 내다보시더니 말씀을 이었다. ‘소나기는 맞으면 자기 손해여.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지. 처마 밑에 들어서서 잠시만 기다리면 소나기는 제절로 그치거든’ 말씀이 끝나자마자 소나기를 흠뻑 맞은 고하 선생이 뛰어들어 오셨다. ‘저걸 보게. 잠시만 피하면 맞지 않을 걸, 그걸 못 참아서 다 맞았잖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뒤로 나는 선생님의 소나기 말씀을 떠올리며 참고 용기를 북돋곤 했다. 그날 고하 선생은 말씀 중에 ‘사원들 중에는 내가 신문사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구만. 내 기가 막혀서, 날 그렇게들 모르구 살았던가?’ 라며 혀를 차는 것이었다. 그러자, 인촌 선생이 핀잔을 주셨다. ‘이거 봐, 내가 날마다 조선히otel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해. 왜냐하면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허지만 자네는 돈도 없는 사람이 조선히 선생이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서대문 경교장에 가자고 하셨다. 그때는 장미가 귀했던 시절인 데다 겨울 장미라서 정말 귀한 것이었다. ‘거긴 왜 가십니까?’ ‘음, 백범 선생을 뵈러 가야지. 감기몸살로 몹시 고생을 하셨다가 일어나신 모양인데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지’ ‘정말 정성 이십니다’ ‘여러 소리 말고 어여 가자’ 그래서 백범 선생이 계신 경교장으로 갔는데 내가 모시고 들어가는데 건방지게도 경비실에서 부르는 것이었다. 인촌 선생님을 모를 리도 없는데 경비실로 들어오라더니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왜 만나려느냐 하면서 몸수색까지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수작이야? 꼬치꼬치 묻는 것도 불경스러운데 몸수색이라니?’ 내가 화가 나서 외치자 경비원들이 무뚝뚝하게 받는 것이었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수색을 하는 것이니 협조 좀 하쇼?’ 그러자 인촌 선생은 화가 나시어 뭐라 한 마디 하시려다가 꼭 참으시고 꽃다발을 다시 들고 나에게 가자고 하시며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다. 그때처럼 민망해 본 것도 처음이었다. 나도 정치는 아는 것 없지만 때로 선생님과 한 방에서 자게 될 때 간간이 여러 말씀을 드리기도 했다. ‘선생님, 그 사람들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써 주시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으니 참 서글픍니다. 선생님, 잘해 줘야 그들에게 나중에는 이용만 당하십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는 것이었다. ‘그러, 내가 왜 그러나, 왜 그러나 하고 내가 내 발을 열 번 짚는다.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했으니 다 위대하게 보았더니 들어와 하는 꼴 보면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독립운동 한 안 도산이, 백범이 불쌍허. 양군!’ ‘예? 선생님’ ‘장차 내가 죽거든 김 아무개는 세상에 나와서 죄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죽었다고나 전해 다오’ 그런 말씀은 빼 있는 말씀이었다. 그때처럼 선생님이 외로와 보인 적이 없었다.

- 부통령 하실 때 부산에서 가끔 차를 타고 모시고 가는 때가 있었다. 장관도 경호차가 따라 다니고 급할 때면 사이렌도 웅웅 불어가면서 달려가던 때인데 유독 선생님만은 경호차도 안 불고 호위비서인 양 경사(梁煥喆) 하나만 짚 차 앞자리에 앉혀 두고 다니셨다. 날씨는 찌는 듯이 무덥고 빨리 가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광복동 네거리 쯤 지날라치면 피난민으로 인산인해이니 차라리 내려서 걸어가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양 경사! 부통령 차에는 사이렌도 없소?’ ‘있지요?’ ‘있으면 웅웅 하라구. 바빠서 빨리 가야 하는데 뭘 하고 있는가?’ ‘있어도 못 부시게 하십니다’ ‘누가?’ ‘선생님이요’ ‘왜 그러시죠?’ ‘이 사람아, 욕먹어! 부통령이 뉘 대원군인 줄 알았나? 백성들의 머슴이여. 머슴이 가면서 왜 소리는 지르는가?’ ‘거참 너

무 하십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 문이라도 열어 놓으십시오’ ‘걸어 다니는 사람도 좀 생각해 타고 가는 거 자랑하려고 문 열자고 하는가? 더워도 좀 참게’ 정말로 소박하고 진실하며 겸손하신 분이였다. 요즈음에는 그런 분 찾기 힘들 것이다. 아니 없다.”

57) 양환철 선생(위 책 293~294쪽)

“1947년경이었다. 날씨가 꽤 추웠던 것으로 보아 겨울철 같은데 인촌 선생이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서대문 경교장에 가자고 하셨다. 그때는 장미가 귀했던 시절인 데다 겨울 장미라서 정말 귀한 것이었다. ‘거긴 왜 가십니까?’ ‘음, 백범 선생을 뵈러 가야지. 감기몸살로 몹시 고생을 하셨다가 일어나신 모양인데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지’ ‘정말 정성 이십니다’ ‘여러 소리 말고 어여 가자’ 그래서 백범 선생이 계신 경교장으로 갔는데 내가 모시고 들어가는데 건방지게도 경비실에서 부르는 것이었다. 인촌 선생님을 모를 리도 없는데 경비실로 들어오라더니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왜 만나려느냐 하면서 몸수색까지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수작이야? 꼬치꼬치 묻는 것도 불경스러운데 몸수색이라니?’ 내가 화가 나서 외치자 경비원들이 무뚝뚝하게 받는 것이었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수색을 하는 것이니 협조 좀 하쇼?’ 그러자 인촌 선생은 화가 나시어 뭐라 한 마디 하시려다가 꼭 참으시고 꽃다발을 다시 들고 나에게 가자고 하시며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었다. 그때처럼 민망해 본 것도 처음이었다. 나도 정치는 아는 것 없지만 때로 선생님과 한 방에서 자게 될 때 간간히 여러 말씀을 드리기도 했다. ‘선생님, 그 사람들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써 주시고 옥은 옥대로 얻어먹으니 참 서글픍니다. 선생님, 잘해 줘야 그들에게 나중에는 이용만 당하십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는 것이었다. ‘그러, 내가 왜 그러나, 왜 그러나 하고 내가 내 발을 열 번 짝는다.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했으니 다 위대하게 보았더니 들어와 하는 꼴 보면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독립운동 한 안 도산이, 백범이 불쌍혀. 양군!’ ‘예? 선생님’ ‘장차 내가 죽거든 김 아무개는 세상에 나와서 죄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다가 죽었다고나 전해 다오’ 그런 말씀은 뼈 있는 말씀이었다. 그때처럼 선생님이 외로와 보인 적이 없었다.”

58) 유달영(柳達永) 박사(위 책 186쪽)

농민문학을 하던 작가 이무영(李無影)씨가 동아일보 기사를 할 때 마침 동아일보가 정간을 당했다. 그러자 월급이 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더니 나중에는 그나마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무영씨는 갓 결혼해 새 살림을 할 때인데 굶을 수는 없어 친구에게 1원을 꾸어 쌀과 고기를 조금씩 사서 퇴근을 하다가 그만 쌀 봉지가 터져 길에 흩어져 버렸다. 그래도 그걸 다 주어 담아 집에 와서 밥을 해먹고 있는데 짐꾼 하나가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들어 왔다.

“누가 보낸 거요?”

“나도 모릅니다.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요.”

“누구냐니까?”

“얘기하지 말라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짐꾼은 그냥 돌아가 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실 유리창 밖으로 내다보던 인촌이 터진 쌀 봉지에 쌀을 주어 담는 걸 보고 곧 쌀가마를 보내준 것이었다고 한다.

59) 양회영 선생(위 책 306쪽)

“6·25 후 수복된 다음 나는 계동 댁으로 인촌 선생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내 손을 잡았다. 적 치하, 피난살이 등 여러 얘기 끝에 나는 광주(光州)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렸다. 인촌 선생의 동지 중에 현준호 씨란 분이 있었다. 이 분은 6.25가 나자 광주에서 내무서에 잡혀가 정치보위부에 넘겨졌다. 빨갱이들은 그때 그들의 정치 선전을 위해 ‘미제국주의 8적(賊)’을 조작하고 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그 8적은 이승만 신익희 조병옥 인촌 등 여덟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준호 씨는 그 8적 중에 인촌 선생이 끼어 있다하여 도장 찍기를 거부했다. ‘김성수가 어째서 민족반역자냐? 그야말로 민족 애국자이다. 일제 36년 동안 그는 민족독립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했으며 언론기관을 세워 싸웠으며 민족 기업을 일으켜 일제와 맞섰다. 그가 민족반역자라면 초부도 웃는다. 그의 이름이 끼어 있는 한 나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 그러면서 현준호 씨는 갖은 고문을 다 당했는데도 끝내 도장을 찍지 않고 신의를 지켰으며, 결국 빨갱이의 총에 목숨을 빼앗겼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인촌 선생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60) 오상직 선생(위 책 360~361쪽)

“자유당 국회의원 중 김정실(金正實)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중앙고보 때부터 인촌 선생이 학비를 거의 대어 주다시피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개헌파동으로 어수선할 때 이승만의 일인독재를 막을 생각으로 인촌이 부통령 사표를 내자 김정실이, ‘이런 시기에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않고 사표를 내려는 것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는 술책이다’고 성토를 벌이는 것이었다. 인촌의 도움으로 그가 출세하게 된 것을 익히 알고 있던 나는 껄스름해서 그 일을 얘기했더니 인촌은 오히려, ‘여보소. 그 사람도 제 속까지 자유당 편이겠소. 시대가 그런 걸 어찌 그 사람만 나쁘다 나무라겠소’하며 그를 감싸주고 걱정하시는 것이었다.”

61) 김소희 선생(위 책 363~365쪽)

“인촌 선생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열여섯 쯤 됐을 때(1927년)였던 것 같다. 인촌 선생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선생의 선친이신 지산(芝山·曠中公) 선생과 원파(圓坡·祺中公) 선생을 먼저 알게 되었다. 두 분의 국악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남달라 가끔 자택에서 소리자리를 마련했다. 춘향가 한 마당을 완창하자면 17시간 정도 걸리는데 두 분은 자제들과 함께 밤을 세워 들곤 했다. 자주 부른 국창(國唱)은 정정열(丁貞烈) 씨와 박녹주(朴綠珠) 씨였는데 정

정열씨는 근대 우리나라 판소리의 5대 명창 중 한 분으로 ‘불임소리’라는 묘법을 터득한 대가였고, 박복주 씨 또한 나처럼 송만갑(宋萬甲) 선생으로부터 배운 동편제 소리의 명창이었다. 당시 나는 전수학생이라 그 분들을 따라가서 쉬는 틈틈이 한번씩 불러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 열여섯에서 스물 서넛이 되도록 들락였으니 오랫동안 빈 셈이다. 인촌 선생도 아우인 수당 선생과 함께 소리를 몹시 좋아했다. 광주(光州)에서 친구인 현준호(玄俊鎬·호남은행장)씨가 오면 고하 선생과 함께 나를 불러 소리를 듣자고 하신다. 어느 때는 세 분이 소리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슨 상의를 하는 지 밀담을 나누느라 소리를 안 들을 때도 있었다. ‘나 안 헐래요?’ ‘왜 그러나?’ ‘노래시켜 놓고 듣지도 않는데 무슨 신이 나서 불러요?’ ‘그랬던가? 미안하네. 헐 얘기가 있어 그랬네. 그냥 허소’ 인촌 선생은 미안해했다. 그 때는 몰랐지만 내 나이 이제 이순(耳順)을 넘기고 보니 그 분들이 모이면 왜 그렇게 심각하고 왜 그렇게 한이 많고 한숨과 눈물이 많았는지 나라 없는 세상에서 큰일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희(姬)야. 하다 중지하면 안 된다. 그리 되면 민족혼이 끊기는 거여. 판소리야 말로 민족혼이 배어 있는 우리 것이여. 알겠지?’ 일제 말이 되어 우리 국악계도 갖가지 탄압을 받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때마다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쥐어 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대접도 아주 후하셔서 정정열 씨 같은 분에게는 1년 생활비를 미리 대주기도 하셨다. 쌀 몇 가마, 장작 몇 트럭 등이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다. 내 나라 찾으면 국악에 대한 대접이 높아지리라 했지만 국악을 나라의 음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즐길락’(樂)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 한심스러울 뿐이고, 그럴수록 인촌 선생 같은 분이 그리워질 뿐이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인간문화재가 되었는데 이제야 득음(得音)의 경지에 이른 듯싶다. 지금의 노래를 들려 드리고 선생님의 은덕으로 명창이 되었으니 내 정성 다하여 불러 보고 싶다 한들 계셔야 들어줄 게 아닌가. 소리란 들어주는 분이 있어서 부르는 것인데 이제는 ‘들어 주는 분’들이 없으니 노래는 그만하고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찾아뵙고 소리를 들려 드렸다. 그렇게 반가와 하실 수가 없었다.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만정(晩汀·나의 호)도 늙는다!’ 하시며 안타까와 하시던 모습이 어제 같다. ‘민족혼이 담긴 우리 노래를 계승하고 보존해야 허네. 후진양성에 힘 쏟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 허’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다. 안 되는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지만 이제는 찾아갈 선생님도 없으니 이 사정 뉘에게 말하리오.”

62) 박초월 선생(위 책 365~366쪽)

“1942년인가 내가 열일곱 살 때 아우 되시는 수당 선생 소개로 인촌 선생 댁을 갔다. 그때 처음으로 레코드 취입을 했는데 그걸 아시고는 자랑스럽다며 격려를 해 주셨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한 소리는 ‘수궁가’와 ‘심청가’였는데 특히 ‘수궁가’를 좋아하셔서 언제나 그걸 듣자고 하셨다. 한 대목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장장 3시간이나 걸리는 한 마당을 다 들으셨으니 얼마나 그 분이 우리 국악을 좋아 하셨는지 알만 하다. 특히 일제 말기에는 심사가 울적하신 날이 많아 그런 때는 꼭 청해 들으시곤 눈물을 흘렸다. 사모님도 같이 들으셨는데 꼭 좋아하고 나를 아껴 주었다. 극장 공연이나 다닐 뿐 그런 좌석에는 절대 안 다니던 나였지만 선생님이 부르면 가곤 했는데 인상에 남는 건 두 분 형제애였다. 그렇게 형님을 위하고

형님이 아우를 생각하는 그런 형제, 요즈음은 볼 수 없다. 선생님이 병석에 계실 때 두 번 갔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좋아하시는 소리라도 해 드리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찾아뵈었다. 중풍으로 누워 계셨는데, ‘초월이가 소리를 헌다는데 내가 누워서 들을 수 있나? 부인, 나 좀 일으켜 줘요’ 그러시며 만류하는 데도 굳이 일어나 들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 날도 수궁가를 완창했는데 그이도 울으시고 나도 울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온다. 거기 오신 다른 분들도 모두 다 울었다. 두 번째 문병 후 1주일 만에 돌아가셨단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다. 해가 가면 잊어버리려니 했지만 잊혀지지 않는다. 나도 죽으면 그 어른을 뵈겠구나 생각하니 더욱 지난날이 생각된다. 나라 일이며 학교며 모든 것을 다 간여하시고 계시던 어른인데 마음대로 못하시고 마음먹은 대로 된 일이 안 되시니까 우신 거지 박초월이 소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닐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선생님이 어느 때는 소리를 하시는 적도 있는데 ‘나도 거 한 마디 헐란다’하시고는 ‘육자배기’를 뽑으시기도 했다. ‘천년을 살까나 만년을 살까나. 몇 백 년 살더란 말이야. 죽음에 들어 놀 수가 있느냐. 살아생전 호시절에 내 멋대로 놀거나’ ‘심청가 중에서 뽕덕어미 노래도 가끔 하셨다. 두 노래가 대표곡이고 춤을 추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63) 장덕희(장덕수 선생 여동생, 위 책 285~286쪽)

“1920년, 그러니까 오빠(雪山 張德秀)가 동아일보 주간으로 계실 때 우리 가족은 계동의 인촌 선생님 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는 열일곱 살이었다. 우리 식구는 어머니, 오빠 내외, 그리고 나, 네 식구였다. 인촌 선생님은 어린 나를 친누이 동생처럼 귀여워 해주셨다. 그때 선생님은 상처를 하시고 혼자 계실 때라 안채는 비어 있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아주 여사와 재혼을 하시게 되어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수은동(授恩洞)에 집 한 채를 사 주셨던 것이다. 인촌과 고하 선생님은 가끔 놀러 오셔서 오빠와 함께 밤늦도록 신문사 일을 상의도 하시고 그랬다. 두 분 다 술을 잘 하셨다. 2,3 일에 한 번씩 찾아 주시니까 계동 집에 살 때나 마찬가지로 한 식구처럼 대해 주셨다. 오빠가 미국으로 유학(1923년)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오빠의 심정이 아주 복잡했던 것 같다. 그 한 해 전에 올케가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죽어 오빠는 몹시 상심해 있었는데 좌익에서 무슨 자금을 횡령했다고 덮어씌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13년 동안이나 인촌 선생님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 주셨다. 그걸 받으면서도 큰 오빠한테 받는 것처럼 어머니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였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생각해 주었는지 알 만하다. 그 뿐이 아니다. 오빠도 계시지 않고 아무도 없는데 어머님 회갑이 되었다.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인촌 선생님은 회갑연을 열어 들여야 한다고 하셨다. 마침내 명월관에서 아주 성대한 회갑잔치를 열게 되었고 각계의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었고 선생님은 아들 노릇까지 해 주셔서 어머니와 나는 감격해서 몇 번이나 울었다. 내가 애국애족의 마음을 깊이 갖게 된 것은 어릴 적 오빠, 인촌, 고하 같은 분의 교훈적인 행동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인촌 선생님은 자상하고 사람들을 아끼셨다. 특히 인재를 골라서 훌륭하게 뒷받침하고 아끼셨다. 친구들이 모두 훌륭했다. 한 번 사귀면 헤어질 줄 모르고 신의를 지켰다.”

64) 현영원(玄永源) 선생(위 책 307쪽)

1954년. 일본에서 귀국하여 아내와 함께 계동 댁에 인사를 갔다. 그때 선생님은 병환 중이셨다.

“니가 영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 돌아가고 너를 처음 만나고, 또 너 처의 첫 인사를 받는데 누워서 받을 수야 없지. 부인, 나 좀 일으켜 줘요”

부축을 받아 겨우 앉으셔서 절을 받으셨다.

“나 때문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너 알고 있냐?”

그러시며 우셨다.

내가 아버님 친구 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광주에서 아버님과 친구들이 인촌 선생의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했다 한다. 그러자 선생님은 호의는 고맙네만 반찬이 세 가지만 넘어가면 난 안 먹을 테니 그리 알게 하시더라. 상을 차렸다고 해서 내려 오셨는데 생일상이 너무 화려로운 걸 보자 이건 약속이 다르다며 친구들이 붙잡아도 그냥 나오셨다고 한다. 그렇게 형식과 사치를 싫어하신 분이다. 선생님과 아버님은 아주 흥허물 없이 가까운 친구였다고 한다. 아버님이 계동 집엘 가면,

“순민(인촌의 막내딸)아! 네 오래비가 왔다!”

하시며 농담을 했다고 한다.

“야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자네 아들이란 말인가? 농담도 가려서 혀”

정색을 하고 그러면,

“야 이 사람이 내가 자네나 만나야 농을 허지. 나처럼 점잖만 빼고 사는 사람이 언제 농을 하는가?”

하시며 두 분이서 가가대소하곤 했다고 들었다.

65) 민족정경문화연구소

‘친일파 군상’ (삼성문화사, 1948년)

(16쪽) “각인(各人)의 경우와 행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不同)한 만큼 그 한계의 규정이 용이치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독자 중 혹은 기계적 속단으로 누구는 본집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고, 어느 때 어떤 담화를 발표하였고, 어떤 강연회의 연사가 되었고, 어떤 친일적, 전쟁 협력적 단체의 간부로 그 이름이 발표되었으니, 그이는 친일파, 전쟁협력자에 틀림없다는 경솔한 단정을 내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31쪽) “모 정당 측에서는 김성수도 전시 협력이 많았다 하여 친일파시 한다. 그러나 전시에 모모 단체, 모종 집회 등에 김성수의 명의를 나타난 것은 왜적과 그 도구배들이 김성수 명의를 대부분 도용한 것이라 하며, 김성수 자신이 출석 또는 승낙한 일은 별로 없다고 한다. 김성수는 조선의 교육, 문화사업을 위한 큰 공로자인 동시에 큰 희생자이다. 그는 광대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에 그 이름을 낸 일이 있었다고 한다.”

66) 임종국 선생- 중복 안되는지 확인해야 함

‘배앗긴 시절의 이야기’ (민족문제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2007년)

(345쪽) 안암동 찬란한 서장

“그 소용돌이는 송현동 교사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횃불이었다. 자고나면 안암동으로 옮겨진 교사에서 보성전문의 새로운 시대. 인촌이 재단을 인수하면서 보성전문은 새로운 모습으로 백 년을 향해서 웅비했던 것이다… (중략)… 송현동 시절의 교사에는 도서관은 고사하고 도서실조차 없었다. 축구장도 회의실도 교수들의 연구실도 없었다. 교사라고 협차한 2층 벽돌 건물과 그보다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목조 2층집. 명색이 체육장의 전부인 테니스 코트 하나는 학생들의 발랄한 기상을 위해서 홍로침설(紅爐添雪)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가난한집 제사처럼 돌아오는 이런저런 지출. 교수들은 초등학교 선생들처럼 교무실 1개로 복작거리면서 월급을 털어 경비에 보태기 예사였다. 그러던 중 인촌이 암야(暗夜)에 불기둥처럼 보성전문의 경영을 맡고 나섰다. 양부 김기중(金祺中)에게 청해서 5백 석의 전답과 6천여 평의 대지를 제공하게 하고, 또 생부 김경중(金暲中)으로 하여금 5천 석 전답을 기부하게 하여 인촌은 그 동안 빛투성이던 재정을 정리하는 한편, 안암동 현 위치에 6만 2천여 평의 광활한 부지까지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장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인촌의 안목에 의해서 오늘날 고려대학교의 기초가 마침내 완성을 본 것이다. 무려 2개월 이상의 시일을 소비한 끝에 완성된 건축가 박동진(朴東鎭)의 본관 설계도, 석조와 철근이라야만 장래의 대학에 부합하다는 것은 인촌의 야심이자 경륜이었다. 하여 인촌은 일인 청부업자 후지다의 손으로 석조 본관 건물이 건축될 때 향후 백 년에 대한 유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정문 양쪽 기둥에는 호랑이를, 후문 양쪽 기둥에는 눈에 띄지 않게 무궁화 한 쌍을 조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경영난에 봉착한 보성전문을 구출한다는 정도였다면 건물도 목조나 벽돌로서 족했을 것이다. 또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6만여 평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촌의 생각은 보성전문의 구출 유지가 아니라 차라리 향후 백 년에 주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전 이사회가 예정한 신설리 1만 평을 포기하고 굳이 대지 물색을 시작한 인촌은 몇 번인가 연희전문 일대를 시찰하면서 한강 넘어 동작동 까지도 지세를 살피던 것이다. 이리하여 굳이 철근 석조를 고집한 인촌은 본관을 건축할 때 4층에 천정실을 증설하도록 설계 변경까지 하게 하였다. 장래 연구실로 이용하게 하자는 생각인데 첫째도 견고, 둘째도 견고를 주장한 인촌은 공사 중 매일같이 현장을 감독하면서 시멘트의 배합과 석재 하나를 붙이는 것까지도 세심한 주의로써 지켜보았다. 인촌이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성력을 기울인 것은 물론 그의 경륜의 일단이자 구미를 돌아보고 온 안목의 소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야 아닌 것이, 1920년대에 태동하여 마침내 좌절되고 만 민립대학에의 꿈. 그럼 인촌의 속셈은 보성전문을 통해서 민립대학에의 꿈을 기어이 달성하자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상은 보성전문이 고려대학교로 웅비할 토대를 갖춘 데 대해서 그 무렵 민립대학에의 꿈은 아무튼 뿔래야 뿔 수 없는 성질의 이야기이다.”

(353~354쪽) 석조 도서관의 건립

“그 찬란한 꿈은 석조 도서관의 설계에 의해서 보다 완벽한 것으로 현실화하고 있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방방곡곡, 미주에서까지 열성적으로 각출하여 보내 온 거래의 성금. 그렇기 때문에 석조도서관의 건물은 인촌이나 당시의 교직원 혹은 기념

사업회의 역원 같은 한 개인이나 일부의 인사들에게만 공로를 돌릴 성질이 아니었다. 거래가 합심해서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래의 공로이자 땅의 소산으로 돌아가야 할, 즉 거래의 재산이요 꿈이자 희망이었다. 이 사업을 물론 인촌은 독력으로 이루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안암동 6만 3천여 평을 확보한 인촌의 안목과 성력, 그는 그보다 못잡게 거액인 10만 여 원으로 석조 본관건물을 준공케 했다. 이 석조 본관은 그때 지나치게 화려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던 것이 하찮은 변소 하나를 보더라도 그 무렵 어지간히 보기 어렵던 수세식인데 백색 고급 타일까지 깐 것이었다. 좀 웅졸한 얘기지만 그 넓은 부지에서 다만 2만 평 정도만 축소했다. 또 그 사치한 석조 본관에서 2~3만 원 내외만 절감했다면, 3층은 몰라도 2층 정도의 도서관 건축비라면 50보 100보로 조달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촌은 2만 평을 축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땅을 더 사들이기만 했기 때문에 한때 고려대학교 소유 토지는 안암동 학교 주변에만 무려 50만 평 정도에 달했다(이 50만 평은 최초의 6만 3천 평과 그 후에 구입한 종암동의 3만 평, 또 해방 후 불하 또는 임대 계약을 맺은 평수까지 합한 것이다). 이토록 거액을 들이면서도 도서관의 설계를 계정(計定)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촌의 설계 그 자체였다. 원래가 좌절된 민립대학의 꿈을 바탕으로 하여 출발한 인촌의 야망. 그렇기 때문에 인촌은 도서관 하나만이라도 민족의 힘의 총화(總和)에 의해서 마련하고 싶었으리라.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과 연구실의 설비. 그럼으로써 그것은 대학의 두뇌이자 족히 상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 힘의 총화에 의해서 마련한 보성전문, 또 오늘의 고려대학교인 것이다.”

(360~384쪽) 암흑의 서장

“인촌이 학교를 인수하기 전, 그러니까 박승빈이 제9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성전문의 경영이 날로 핏박을 더해 가던 그 무렵이다. 우가끼가 제6대 총독으로 부임했다. ‘교육 즉 생활 즉 근로’라고 말하면서 농촌의 자력갱생운동을 추진한 우가끼는 또한 농촌의 진흥교육 등으로 크게 식민지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야마나시(山梨半造)와 데라우찌(寺內正毅) 시대의 무단교육, 식민지 정책에로의 환원밖에 다른 의미가 없었다. 만주사변의 발발과 국제연맹의 탈퇴 등으로 풍운이 절박해 가던 국제 정세. 장래의 전쟁을 몽상하면서 우가끼는 농촌진흥 운동으로 시장의 확대를 도모했고, 근로교육으로 인해 인력의 군수화를 획책했다. 제7대 미나미(南次郎)가 부임했다. ‘국민정신의 함양’으로써 교학의 본지를 삼은 미나미는 국민성의 도야, 국민도덕의 연성, 국민적 신념의 부식 등을 말하면서 이른바 ‘교학진작(敎學振作)’이라는 통치방침을 위해서 한층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신념과 긍지를 초·중·전문대학에 똑같이 강제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미나미 지로의 교육정책은 이른바 ‘황민화교육’으로 표현되는 제국주의적인 민족말살정책이 분명했다. 첫째는 일본의 국민임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1937년 10월 이후 그는 각급 학교 등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케 함으로써 기한 바 목적의 달성을 획책하였다. 둘째는 전체주의적인 국가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강권 발동. 1936년 8월에 신사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모든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신을 섬기도록 강제했다. 이를 거부한 끝에 송실전문 등등 12개 중학과 8개 초등학교가 1938년에 폐교 처분을 당했다. 셋째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교육적·사회적 조치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37년 4월 이후 폐지되었으며 일어의 상용이 강제되었고, 1940년 2월에는 창씨개명제가 실시됨으로써 마침내 성명까지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받는 세월이 되었

던 것이다. 이리하여 미나미가 부임한 이래의 6년은 날로 가중하는 탄압 속에서 누구나 밤길을 가는 느낌이었다. 1936년의 제령 제16조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법, 또 1941년 3월에 시행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에 의해서 일제하의 민족운동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로 돌입하였다. 남은 것은 저들의 총칼에 쫓겨서 전쟁에 협력해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 지원병 제도는 1934년 5월에 시행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전력 증강책으로 학교근로보국대 실시요강이 발표되었으며, 또 1942년 5월에는 징병제 실시의 건이 발표되면서 고이소(小磯國昭)가 부임하자 마침내는 학도병까지 징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촌이 교장으로 재임한 것은 이렇게 암흑의 그림자가 짙어만 가던 1937년 5월이었다. 이후 해방되던 이듬해 1946년까지 교장으로 재직한 인촌은 교명이 '경성 척식 경제 전문학교'로 바뀌는 그 일제 말엽의 암흑속에서도 끝까지 발전의 길을 소홀히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1937년에는 석조도서관 건물이 낙성, 개관하였다. 1938년에는 대운동장이 준공하였다. 1940년에는 새로 마련된 운동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운동회가 베풀어지면서 이른바 암흑시기지만 보성전문은 위축되지 않았다... (중략)... 당시 보성전문의 적격자 수는 268명(혹은 261명)으로 조사되었는데 마감 일주일 앞둔 11월 12일 정오 현재 불과 16%인 43명만이 지원을 완료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멀리한 채 도피했을 뿐, 지원을 마친 43명도 실은 도피 생활에 실패했거나 혹은 도피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렇지만 당국으로 볼 때, 학병문제는 단순히 수천 명의 병력을 보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즉, 미구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는 단계에서 일반 민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더라도 학병만은 100%로 지원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군관민을 총동원해서 지원 독려에 광분하였다. 그리고 일부 관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특히 보성전문의 지원 성적이 크게 부진하자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이리하여 11월 4일의 중추원 간담회 석상에서는 기피자를 생산장에 징용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되었다. 이튿날인 11월 5일에는 학도사기양양대회가 당국의 주선으로 개최되었다. 각 학교 교장에 대한 유명무형의 압력과 협박! 어용작가와 친일문인들을 동원하더니 마침내 민족진영의 인사들까지 끌어내어 강연행각을 갖게 하였다. 그들 중 더러는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식으로 궁색한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총을 잡으란 말인가? 숨어 사는 학생들이 가장 혼란을 느낀 것이 있다면 믿었던 의사·열사들의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발언 그것이었다. 학병 문제가 고비를 넘기자 당국은 법문과의 교육을 정지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본교를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많은 학생들을 학병으로 징병 노무자로 빼앗겼는데 학교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자폭은 할 수 없으니 지시대로 척식경제전문이 될밖에. 1944년 4월에는 신교(新校)로서 첫 번째로 경제과 96명과 척식과 100명을 모집하였다... (중략)... 정보국에 복무하면서 직책상 일본의 1급 국가기밀을 모조리 알았다. '일본이 머잖아 패망하겠군!' 휴가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장철수는 다시는 도쿄로 가지 않았다. 평소에 존경하던 인촌을 찾아가서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본 패전을 예언한 것이 1944년. 인촌도 장철수의 말이라면 신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시점에서 장철수 이상으로 일본 기밀을 알 사람은 달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장철수는 송진우를 방문했다. 화제가 묘한 곳으로 흐르자 지모가 출중한 송진우는 배를 움켜쥐면서 누워버렸다. 이리 구르고 저리 뒹구는 엄살병을 눈치 채고서 장철수는 여전히 1급 국가기밀을 말하고 있었다. 한참 만에 이야기가 끝나자 그제야 송진우도 좀 시원해졌는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제 좀 관찰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애

를 먹었어.’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장철수는 또 여운형을 심방했다. 그로부터 일본의 기밀을 전해들은 여운형은 비밀단체인 ‘조선건국연맹’을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해방이 되자 여운형은 이 조직을 재빠르게 건준으로 확대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학생들은, 본교의 김용문과 서태원 등은 건준이 그렇게 탈바꿈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건준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자 그들은 이미 말한 것처럼 미련 없이 그곳을 차고 나왔다. 국립종합대학의 안이 발표된 것은 그 해 6월이었다. 일제 때의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학교를 병합 또는 신설하여 종합대학교로 발족시킨 것이었다. 그러자 열띤 데모가 날마다 대학가를 휩쓸었다. 그들은 국립종합대학안 반대를 외치면서 심지어는 파출소 앞에서도 적기가를 부르는 소동이였다. 참말로 세상은 험하고 소란했다… (중략)… 1946년 10월에는 대구에서 붉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폭동을 일으키고 말았다. 경찰관서를 점령해서는 경찰관을 죽이고 그 가족을 학살하고…그런데 좌익에서는 이것을 민중폭동이라고 선전하였다. 한마디로 질서 없는 세상이었다. 있는 것은 좌우의 날카로운 대립과 충돌뿐. 보성전문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해방 후부터 우익학생의 중심체가 보성전문에 있었기 때문에, 또 김성수 등 우익진영의 인사가 교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보성전문은 우익학생진영의 총본산이자 수뇌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좌익의 세력도 전국적으로 가장 강했다는 보성전문. 그들은 우익학생들의 세력에 눌려서 혹은 설득에 영향을 받아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보성전문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중략)… 이리하여 보성전문은 1946년 8월 15일자로 대학에의 숙원을 달성했다. 교명은 ‘고려대학교’인데 이것은 인촌이 직접 명명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국명이자 지명인 코리아, 또 대(大)고구려의 민족정신과 청자의 높은 문화성이 깃들인 고려, 인촌이 관립인 경성대학교에 빼앗길까 봐 꼭 심려했다는 일화를 남긴 채 ‘고려’는 우리의 교명이 된 것이다.”

67) 김남식 선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년)

(46~47쪽) 그리하여 9월 4일 여운형, 박헌영, 허헌, 정백 등은 경성의전병원 허헌의 병실에서 인민공화국(인공) 창건과 구성 인물 선정 문제 등을 협의, 비 오는 6일 오후 늦게 경기여고 강당에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중략)… 임시의장에 선출된 여운형은 연설에서… (중략)… ④ 일제잔재세력을 일소하며 봉건적 잔재와 반동적 반민주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중략)… 이 대회는 인민위원 55명(1명 미상)과 그 후보위원 20명, 고문 12명을 선출했다(‘공’은 공산당계).

중앙인민위원 : 이승만, 여운형, 허헌(공), 김규식, 이관술, 김구, 김성수, 김원봉, 이용설, 홍남표(공), 김병로, 신익희, 안재홍, 이주상(공), 조만식, 김기갑, 최용달(공), 이강국(공), 김용암(공), 강진(공), 이주하(공), 하필원(공), 김계림(공), 박낙중(공), 김태준(공), 이만규(공), 이여성, 김일성(공), 정백(공), 김형선(공), 이정윤(공), 김점권(공), 한명찬, 유축운(공), 이승엽(공), 강기덕, 조두원(공), 이기석(공), 김철수(공), 김상혁(공), 정태식(공), 정종근(공), 조동우(공), 서중석(공), 박문규(공), 박광희(공), 김세용(공), 강병도(공), 이순근(공), 무정(공), 장기욱(공), 정진태(공), 이순금(공), 이상훈 (이상 54명 중 공산당원 38명)

(48~49쪽) ‘인민공화국’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공’은 공산당계).

주석: 이승만

부주석: 허헌(공)

내무부장: 김구<임시대리>

외교부장: 김규식<대리>

재정부장: 조만식<대리>

사법부장: 김병로<임시대리>

문교부장: 김성수<대리>

체신부장: 신익희<임시대리>

68) 이만규 선생

(‘呂運亨先生 鬪爭史’, 민주문화사, 1947년, 206쪽)

“언제인가. 중앙일보 사장 시대에 몽양이 나에게 한 말이 새삼스럽게 기억된다. 현금(現今) 조선 안에 표면에 드러난 세력으로는 야소교 천도교 등 종교단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는 김성수의 그룹이다. 동아일보 보성전문 중앙학교 방직회사 직뉴회사가 모두 김(金)의 계통이다. 그 사업이 모두 민족적으로 훌륭하다. 이 다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그룹이 상당한 세력을 가질 것으로 멸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을 하려면 상당한 능률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는 자본주의에 편경(偏傾)하기 쉽다.”

69) 김준연 전 국회의원

(‘나만이 아는 비밀’, ‘獨立路線’,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년, 264~265쪽)

“원동 송진우 씨 덕을 출발해서 창덕궁 담을 지나 창덕궁경찰서 앞에 다달았다. 그때 저 남쪽으로부터 활발히 걸어오는 여운형씨를 발견했다. 서로 만나니 여운형씨는 평소의 그 활발한 태도로 악수를 청한 후 나에게

‘古下는 어떻게 하오?’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대답하여

‘古下는 나오지 않고 김성수 씨는 어제 오후 연천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야기할 틈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여운형씨는

‘동무는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여운형씨는 나를 만나면 동무라 불렀다. 그것은 내가 ML당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그이도 또한 공산당사건으로 투옥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나도 나서지 않겠소.’ 라고 분명히 대답했다.

그랬더니 여운형씨는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좋소. 나 혼자 나서겠소. 공산혁명으로 일로매진하겠소.’ 라고 결연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었다. 여운형씨의 이 한마디 ‘공산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소’는 해방 직후 우리 정국을 재는데 극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70) 김두환 전 국회의원

(‘피로 물들인 건국 전야’, 연우출판사, 1963년, 258~260쪽)

“강세형(姜世馨) 의원이 고 인촌 김성수 선생이 친일했다는 말을 하여 분개한 나머지 나는 등단하여 말하기를 ‘친일한 것은 당신이요! 일제 시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일본 농들에게 아부하여 권세를 누리던 자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를 감히 친일파로 모는지요?’ 자유당 총재李 대통령이 친일파의 두목이지 누가 친일파의 두목이란 말이냐! 해방 후 민족운동자나 독립투사는 모조리 제거하고 일본 농의 경찰밀정 해먹던 농 애국지사를 탄압하던 민족반역자 친일파만 두둔하여 독재의 성을 쌓고 아부 잘하고 간계 잘 부리는 악질 간상 모리배들만 살찌우고 있으니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두목은 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 누구란 말인가! 오로지 평생을 민족을 위하여 교육과 자선사업에 일생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이며 애국지사를 키워주신 인촌 선생을 친일파라니 될 말인가 하며 하단하자 한 기자가 질문하기를 ‘김의원 너무 과격하지 않소. 그런 발언을 하다간 경찰에 끌려가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나는 이미 각오한 지 오래라고 말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이것은 이 대통령의 오늘날의 행적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러나 나는 이 발언이 있을 후 얼마 안 가서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지만 소위 학자라 자처하는 강세형 씨가 인촌 김성수 전 부통령을 친일로 몬 것은 국민의 일대 분격대상이 안 될 수 없었다. 계엄령 하의 오월 정치파동시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수준이 낮고 독재자가 집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부통령직에 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통령직을 버리신 인촌 선생 보고 친일했다고 하는 자유당 의원의 망언은 비단 강 씨의 경우만이 아니었다. 그때의 자유당 의원들은 일종의 광신자들이라고 기술해야 좋다. ‘카리스마’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던 이승만 씨의 유지 정치를 뒷받침하는 충실한 거수기들은 방약무인이었다. 나는 이때 대통령 모독에 대한 징계위에 회부되었지만 신상발언에서 이 박사가 친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박사가 데리고 있는 측근자들은 모두가 일제 관료출신들이니 결국 친일의 ‘보스’라고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응수했었다.”

4. 인촌 김성수 선생이 한 일

(1) 독립운동지원

71) 이강훈(李康勳) 전 광복회장

- 동아일보 1990년 4월 1일자, 14면

“동아일보와의 인연은 독립운동군 자금조달관계로 끈끈하게 이어졌다. 동아일보 사장이던 고하(송진우)는 김좌진 장군에게 3백~4백 명 규모였던 독립군의 무기 구입과 훈련 등에 쓰도록 비밀리에 1만 원 가량씩 네 차례나 군자금을 보내주었다.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가 고하를 통해 보낸 것이지. 1만원이라면 그때 황소 1백 마리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으니 요즘 돈으로 수 억 원대의 큰 돈이지.’ 이 옹은 이 자금을 세 차례는 천도교 계통을 통해 받았고, 마지막에는 직접 받았다. ‘1930년 1월 24일 김 장군께서 일제의 하수인에게 암살된 지 며칠 후 20대 청년이 동아일보 심부름을 왔다며 당시 김 장군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나를 찾아왔소. 돈 1만원과 함께 만장을 가져와 장례식 등 사후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긴하게 썼지.”

- 자서전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삼기획, 1994년, 127쪽)

“장례는 이미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이 됐고 이을규가 총무를 맡았고 권화산이 장례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내가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내가 도착한 다음날 동아일보에서 특파원 김이삼(金利三)을 파견하여 조의를 표했고, 송진우 사장도 거액의 부의금을 보내왔다.”

72) 구익균(具益均)

- 회고록 ‘새 역사의 여명에 서서’ (일월서각, 1994년, 127쪽)

“김구 선생의 특무공작도 안창호 선생의 재정지원을 받고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미국 동포들이나 중국을 지나가던 국내 인사들이 안창호 선생을 신뢰해서 그를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대주었으므로 도산이야말로 독립운동자금의 주머니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유럽을 순방한 뒤 귀국 길에 상해에 들른 인촌 김성수도 도산을 찾아와서 인성학교에 기부금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기금도 내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년, 236~237쪽

“당시 나는 상해에서 임시정부 내무총장으로 독립운동을 지도하시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로 일했다. 선생의 사무실 겸 숙소는 프랑스 조계에 있었다. 어느 날 도산 선생은 애국지사들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인촌 선생만큼 용기 있고 진실한 애국자가 없다’는 말씀을 했다. 인촌 선생은 세계 일주여행 길에 상해에 들어서 일본인과 그 첩자들의 눈을 피해 가

면서 도산 선생을 찾아 왔었다는 것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도산 선생 사무실로 찾아 온 사실에 더 감격한 듯 했다. 당시 국내의 지사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보낼 때는 신변이 위험하여 꼭 人便을 이용하곤 할 때였다.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실력자 인촌 선생이 임시정부에 2천불, 그리고 인성학교에 5백불을 내놓으셨는데, 그 분이 직접 방문한 것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도산 선생을 직접 뵙고 독립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협의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참다운 애국자를 말할 때는 인촌 선생이 그 귀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73) 김기진(金基鎭 · 전 경향신문 주필)

‘한국근대화에 공헌한 인촌’ (思想界, 1961년 2월호, 218~219쪽)

“내 손으로 직접 러시아로 망명시킨 공산당 간부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러시아로 망명한 사람들의 거개가 모두 인촌 선생으로부터 노잣돈을 얻어가지고 망명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 서울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밀항해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달아나려면 일본 돈으로 3백 원 내지 5백 원 만 가지면 족하였다…(중략)…공산당원이거나 민족사상 운동, 혹은 직접 행동을 음모하다가 붙들려갔든지, 서대문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만주나 露領으로 망명하고 싶었을 때 인촌 선생한테서 돈을 얻어가지 아니한 사람은 거의 한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추상하고 있다. 1922년의 제1차 공산당사건이후 1931년 제3차 공산당(속칭 ML당)사건까지 10년 동안, 일제에 대한 공산투사 가운데서 인촌 선생으로부터 3백~5백 원의 돈을 얻어간 사람은 열 손가락을 꼽을 수 있건만, 지금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ML당의 이성태라는 이름뿐이다… (중략)… 주의와 사상은 자기와 다르지만, 일제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려는 목표에는 일치하는 까닭에 인촌 선생은 그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그 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74) 서병조 전 연합신문 편집부국장

‘정치사의 현장’ 제1공화국 편(중화, 1981년, 196~197쪽)

“반민특위 활동이 시작될 무렵, 특검부장은 김상돈 의원이었고, 그 중 특별검찰관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가였던 장홍영(張洪瑛)의원이 끼어 있었다. 그는 反民者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관 중에 있던 총독시대의 기록을 가져와 부일협력자와 일제에 반항한 애국지사들의 기록을 살펴봤다. 뜻밖에도 인촌 김성수 선생에 관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일제 치하에 독립단원 한사람이 그의 집을 찾아가 돈을 훔쳐갔다는 대목이 있었다. 사랑방에 주인이 없는 새 도둑이 들어와 금고를 털어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이 때 김성수 선생 댁을 찾아가 독립자금을 달라고 졸라댄 사람이 바로 장홍영 의원 자신이었다. 자신의 간청을 받자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신분을 확인한 선생은 사랑방에 있던 금고문을 열어 제치곤 돈이 들어있다는 시늉을 한 후에 용변을 보러간다면 자리를 비워주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기에 그제서야 주인이 없는 새 돈을 가져도 좋다는 것으로 판

단하고 독립자금을 가져가 요긴하게 쓴 일이 있었다. 스스로 독립자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도 육영사업과 언론사업, 민족자본의 육성을 위해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선생은 용의주도하게 도둑을 맞은 것으로 일제의 눈을 속였다. 이 사실이 제헌국회에 전해지자 인천 선생의 우국충정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75) 不逞團 關係 雜件-朝鮮人の部-在西比利亞 8(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외항일운동자료-시베리아, 1910~1926) 독립운동자금 모집자 검거의 건(경기도지사 보고), 日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문서번호 高警 제 35081호, 다이쇼 8년 12월 13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발송, 같은 달 16일 차관 수신

“이번에 러시아령 니콜리스크에서 독립운동자금 모집의 목적을 갖고 잠입한 불령선인을 체포 취조한 결과 형사소추에 넘김. 개요는 다음과 같음.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배일선인의 수괴 박용만(朴容萬·강원출신)이 올해 7월경 포남(블라디보스토크)에 온 뒤 ‘니콜리스크’로 옮기자 이민복, 조성환(曹成煥·경성출신), 백준(白準) 등과 함께 서북인파(함경남북 평안남북 황해도)를 제외하고 기호파(경기 충청남북)를 중심으로 독립군을 편성하려 함. 아울러 이러한 계획 하에 간도 길림지방의 동지들과 협조하여 독립 목적을 달성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大韓國民軍’이라 이름 짓고 총사령부를 포남에 두고 조성환을 총사령으로, 박용만을 총참모로 하기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동지들과 군자금을 모으는데 종사하기로 협의 결정했다. 이때 박상환 외 2명은 조성환 박용만으로부터 경성 중앙학교장 김성수,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에 거주하는 부호 閔永達에게 보내는 별지 역문과 같은 편지를 휴대하고 비밀리에 입경하여 10월29일 경성 동대문밖 청량사에서 김성수를 만나 이 서면을 교부하고 돈을 내달라고 청하기 위해 이곳을 향하는 도중에 발견 체포됨.”

<별지 제 1호> 조성환(曹成煥)이 김성수에게 보낸 편지

“일본인의 발호는 천인공노할 것이며 이에 궁여지책으로 독립을 창도한 이래 80일에 이릅니다. 전국 각지의 목소리가 이에 응해 세상이 놀라고 동시에 일본인의 간담을 서늘케 한 것은 실로 우리 민족의 재생을 기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를 만나 와신상담의 생각은 여전 하지만 자유의 진정한 대가를 준비하려는 욕심을 갖기에 이르러 志士는 각지에서 분주하게 뛰고 健兒는 무기를 쥐는 동시에 수백만의 겨류민은 결사보국에 종사하는 데 충분한 상황입니다… (중략)… 오늘날 좋은 계략은 구체적인 부대를 조직하여 이를 조국의 산에 두고 각지에서 스스로 응하게 하고 인물과 실력도 이에 따라 집중하면 이로써 신뢰감을 외인에게 주고 소위 식량과 군기도 빌려 큰 기회를 얻을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자금으로 대략 50만 엔을 모집하려 합니다. 여의하시다면 괴로운 상황이지만 광복의 기본사업을 꺾이기 위해 신속히 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여정이 다가오는 곳에 돌 하나 던져준다는 생각으로 고찰을 바라오며 그만 접습니다.”

<별지 제 2호> 박용만(朴容萬)이 김성수에게 보낸 편지

“저로서는 세상의 평에 따른 선생의 영명고덕 함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 풍모에 접하게 된 점 한스럽게 여깁니다. 저는 1개월 전에 미국에서 동쪽으로 돌아와 바깥소식을 찾아 상해의 임시정부와 길림, 군정사, 러시아령 국민회 등을 돌아보았습니다…(중략)… 선생, 속히 말을 내어 그 재주를 펼치고 동시에 그 자금을 뿌려 공명을 구함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평생 서신 교환이 없었음을 한스럽게 생각했으나 우연히 이군이 그곳에 건너간다는 것을 알고 그의 서류에 더해 이 편지를 함께 보내는 바입니다.”

76)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우남 이승만 문서 제16권’

(중앙일보사, 1998년, 374~375쪽)

“인촌은 1927년(추정) 8월 23일 이승만 박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편지에는 ‘이번에朴兄 편에 안부를 전하오니 넉넉지는 못하오나 정으로 알고 받아주시기 바란다’는 대목이 있다. ‘朴兄 편에 보낸 안부’라는 표현은 ‘인편에 보낸 독립운동지원자금’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영익 연세대 석좌교수 설명) 다음은 서한 전문.

東西落落 拜面相違 常切瞻慕之私 客年白君之還 特賜惠贈
感悚交極 伏惟爾後年深 體侯百福 而秋月春風 尊懷果如何
遠外溯頌 實非尋常者可比
下生省事姑保 而至若所營 去益難澁 寧不欲一一具陳 今因朴兄之便
茲問紙上之候 而多小只希情領
八月 二十三日 下生 金性洙 再拜

77) 김을한(金乙漢), ‘新聞夜話’ (일조각, 1971년, 205쪽)

“흥업구락부에서는 몇 해에 한번씩 열리는 하와이의 태평양회의에도 자주 대표단을 파견하는 한편 비밀리에 윤치호 윤치소 김성수 김일선 씨 등이 그 때 돈으로 수만 원을 모아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을 제일 경계하는 일본 경찰은 그에 대한 확증을 잡고자 흥업구락부의 간부들을 갑자기 일망타진한 것이다.”

78) 윤치호문화사업회

‘尹致昊의 생애와 사상’ (을유문화사, 1998년, 116쪽)

“이승만 박사는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가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미국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건만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 사탕수수 밭이나 파인애플 농장에서 노동을 해서 독립 운동에 쓰라고 1달러 2달러씩 기부를 하는 정치 헌금만으로는 태부족이었다. 그래서 흥업구락부에서는 좌옹(윤치호)이 중심이 되어 윤치소(尹致昭) 김성수(金性洙) 김일선(金一善) 씨 등이 왜경의 눈을 피해 가며 여러 차례 그때 돈으로 수만 원을 모아서 미국으로 보냈는바, 미국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을 제일 무서워하는 일본 경찰은 그에 대한 확증을 잡으려고 갑자기 흥업구락부의 간부 회원을 일망타진한 것이었다.”

79) 이정희(李正熙)의 회고

‘도산여록’ (흥사단출판부, 1986년, 268~269쪽)

“언제인가 미국에 계시던 도산 선생님이 목릉현에 계신 아버님(李甲) 병상에 5백 달러의 치료비를 보내주신 일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나는 정성껏 도산 선생을 간호해 드렸다. 그러던 나날, 나는 열흘마다 계산되어 나오는 병원비로 환자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110원씩 청구서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총독부 신세를 질 수 없다 하여 도산 선생은 ‘저들의 보조를 받을 수 없다’ 하시며 펄펄 뛰었다. ‘선생님, 그런 걱정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래,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놈들 돈으로 치료받을 줄 알아.’ ‘제가 밖에 나가서 몇 군데 다녀 보겠어요.’ ‘글쎄..., 한 번 그래 볼래.’ 마지못해 응낙하면서 견지동 李芝松 씨한테나 가 보라는 말씀이었다. ‘인촌 선생 댁에 가 볼까 해요.’ ‘알아서 하오만 도움 받은 일이 많아서...’ 그 밖에도 방응모 최창학 박흥식 제씨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나 그때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진 분 들인데, 그만두지...’ 하며 사양의 뜻을 표했다. 윤치호 씨에 대해서는 더욱 완강한 만류를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병원비 주선을 위하여 먼저 인촌 김성수 선생 댁에 갔다. 인촌은 ‘이런 일에 부인까지 나서다니 李君도 戰地에 가 있고 한데...’ 하며 즉석에서 쾌락해 주었다. 그리고 ‘위험하니 현금만은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는 주의까지 환기시켰다. 나는 감격했다. 박흥식 씨 회사에 갔더니 호응해 주어 흐뭇했다.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씨도 나중에 5백 원인가의 수표를 보내온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친구 오빠 나경석 씨를 통해 만나본 최창학 씨는 감시의 눈길을 두려워해서 거절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독지가들의 성금이 답지되어 도산 선생의 치료비와 장례비에 충당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중략)... 밤이 깊어갔다. 12시 자정을 알리는 시보의 울림이 마지막 ‘땡!’하고 칠 그 때 도산 선생의 숨길은 멎었다. 巨人の 최후였다. 향년 61세로 이렇게 생애의 막을 내렸다. 그 자리에는 안치호 장회근 이선행 김순원 그리고 우리 어머님과 큰 아이 이창선과 내가 있었다.

80) 이만열(李萬烈) 역 ‘백범일지’ (역민사, 1997년, 329쪽)

“아무리 생각해도 상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신 모친께서는 네 살이 채 안된 믿음을 데리고 귀국의 길을 떠나셨다. 모친께 입국 시에 여비를 넉넉히 드리지 못해 겨우 인천에 상륙했는데 여비가 모자랐다. 떠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없었는데, 인천 동아일보 지국에 가서서 말씀하니 그 지국에서는 상해 소식으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벌써 알

았다며 경성 갈 노비와 차표를 사서 드렸다. 경성 동아일보사를 찾아가니 역시 사리원까지 보내드렸다고 한다.”

81) 신용하(慎鏞廈), 새로 쓰는 한국문화 10 ‘백범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 (동아일보, 2003년 5월 8일자 19면)

“곽 여사는 극빈 속에서 둘째 손자를 영양실조로 잃을까 우려한 나머지 친척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해에서 귀국했다. 아들 백범은 인천까지의 뱃삿을 겨우 마련해 드리면서, 인천에서는 고향의 부호 친구에게 전화해 마중 나오면 따라가고 나오지 않으면 이모 댁을 찾아가시라고 했다. 곽 여사는 인천에 내려 아들 친구에게 전화했으나 일제가 무서워 나오지 않았다. 곽 여사는 망설이다가 이모 집으로 가지 않고 대담하게 동아일보 인천지국을 찾아가더니 서울 갈 차표와 여비를 주었다. 서울에서 다시 동아일보 본사를 찾아가더니 황해도 고향까지의 여비와 차표를 주었다.”

8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0권

‘동맹휴교사건재판기록 II’ (2002년, 38~41쪽)

“장석천(張錫天)은 치안유지법위반 피의사건(서울학생동맹휴교 격문배포사건) 관련으로 소화 5년(1930년) 1월 15일, 경성 종로경찰서, 사법경찰리 高木中 입회하에 진행된 신문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장석천은 1929년 11월 12일 발발한 광주학생시위 2차 봉기를 앞둔 11월 8일 광주로 내려온 허헌 황상규 김병로 등 신간회 간부들을 송정리에서 맞이한 뒤 향후 서울에서도 시위를 벌여 전국의 민족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중략)…광주시위가 성공적으로 벌어진 뒤 4일 만에 경찰의 검거선봉을 피해 상경, 허헌에게 보고하고 황태성 곽현 이항발 등 동료 학생들과 회동하여 서울 거사의 역할을 분담한 직후인 11월 25일 스승인 동아일보사 김성수의 집을 방문했다. 광주사건으로 도피하여 와서 곤란을 받고 있다고 하였더니 김성수가 다음날 자기 집에서 나에게 10원짜리 10장, 100원을 주었다.”

83) 국편위,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5권

‘중국지역독립운동재판기록 II’ (2001년, 72~73쪽)

“현동완(玄東完)은 ‘안재홍에 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관련으로 1936년 6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이익용 입회하에 진행된 신문 조서에서 ‘1934년 11월경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 간사 자격으로 중국 남경에 들렀을 때 김두봉을 만났다. 김두봉은 이 때 경성의 김성수의 도움으로 영국으로부터 어학 책을 송부하여 왔으므로 돌아가서 김성수와 만나면 잘 전언해 달라. 안재홍 원세훈에게는 이곳에 오면 독립운동을 시키되 생활은 보장할 테니

조선청년들을 보내달라고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진술했다.”

84) 김호일(金鎬逸),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년)

(346쪽) 3. 비밀결사 흑백당의 항일운동

1) 흑백당의 조직

흑백당은 1942년 4월 5일 경성광산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주낙원(경북중학교 17회 졸업생)의 집인 봉래동(현 서울 서대문구 만리동 2가 83)에서 경북중학교 17회 졸업생 이현상을 비롯한 7명과 중앙학교 졸업생 남상갑 등 8명이 비밀리에 창당발기를 거행함으로써 결성되었다… (중략)… (347쪽) 이현상이 해외소식에 빨랐던 것은 그의 부친 백강 이승호 였기 때문이다. 백강은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간부를 역임하고 귀국해서는 제동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국내 민족운동가들과 교제를 맺고 있었다. 그리하여 백강의 제동 한약방은 민족운동가들의 비밀 아지트로서 당시 만해 한용운, 민세 안재홍, 몽양 여운형, 인촌 김성수 등 민족지도자들의 출입이 잦았으며 이들의 밀담을 엿들은 이현상이 옮긴 것이다… (중략)… (349쪽) 성익환은 흑백당의 제안 설명에서 흑은 노예상태인 암흑을 의미하고 백은 희망과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흑백당’은 암흑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때까지 투쟁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350쪽) 한편 고문으로 추대된 만해·민세·인촌은 본인들의 의사를 묻고 고문에 추대하지는 않았지만 1940대년에 민족지도자로 추앙받는 이들을 받들었다는 것은 흑백당의 성격과 행동을 말하여주는 것이며, 특히 민족운동가로서 사회주의자의 지도자를 제외하였다는 것은 이 단체가 민족주의 노선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85) 경고특비(京高特秘) 제725호의 2

연희전문학교 동지회 흥업구락부 관계 보고,

경기도 경찰부장 1938년 5월 22일 발송, 경성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 등 1938년 5월 23일 수신.

(전략) ‘유억겸은 목하 재미(在米)중인 전 임시정부 대통령인 이승만의 복심(腹心)으로서 동인(이승만)이 대정 10년[1921년]경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혁명동지회를 조직하자 그 회원이 된 자로서 연전 우애회는 동지회계에 속한다. 더구나 동인(유억겸)은 귀선(歸鮮) 후 여러 번 기독교 교무 및 학사시찰 등 두 가지 구실을 빙자해 도미(渡美), 이승만 등과 연락한 의심이 농후한 것 외에 작년 1월 2일에는 인도에서 열린 기독교 전 세계회의에 목하 경성부 안국정(安國町) 104 거주 의 조선기독교 청년회 간사 윤치영(尹致暎)과 함께 참가 출석하여 대대적으로 조선독립 문제를 논의할 의도였으며 윤치영은 일찌기 미국 재주(在住) 중 혁명동지회 구미위원부의 간사로서 활약한 일 등’의 사실들이 판명됨으로써 다시 윤치영을 5월 17일 동행 취조했다. 현재 경성부 내에 거주하는 혁명동지회원으로 신흥우(申興雨) 구자옥(具滋玉) 백관수(白寬洙) 김도연(金度演) 유억겸 김양수(金良洙) 장덕수(張德秀) 김성수(金

性洙) 김활란(金活蘭) 홍명숙 등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 흥업구락부(일명 실업동지회)라는 비밀단체를 결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후략)

86) 경상북도 경찰부

‘경성고보교원양성소 내 비밀결사 검거’

(‘고등경찰요사’ 1934년 3월 25일 260~262쪽)

대정 3년 9월 이우용(李雨用, 당시 교원양성소 4년생으로 졸업 후 도내 영해공립보통학교 훈도) 발기 하에 동기 학생 등 6명과 함께 ‘현금(現今)의 상태는 내지의 몰산이 조선 내에 넘쳐나서 조선인은 경제상 패퇴자(敗退者)가 되었다. 국권 회복과 같은 것은 몽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도 역시 가까운 시일 각지에 흩어지면 자연 오늘의 정신을 누구에게도 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장래에 있어서 생도들에게 이 정신을 고취하고 또한 메별(袞別) 후에도 기맥을 통할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 사업의 선택에 관하여 협의 중 동년 10월 일본에 수학하고 그 문물제도의 발달을 보기에 이르고 조선인이 지금 각오한 바 없으면 영구히 일본인의 노예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대정 4년 1월 성경연구회에서 모여 이우용이 ‘훈도로서 취직 후 학동(學童) 및 청년에 대하여 조선 훈을 고취하고 정신적 결합을 도모하여 내지인(일본인)에 수탈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조선인 스스로 일으킬 회(會)를 만들어 민족 회흥(回興)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고 일동의 찬성을 얻은 후 이우용은 복안을 갖고 이를 남형유(南亨裕, 당시 휘문의숙 교사)에 상담하고 다시 동인의 소개에 따라 최남선과 상의하여 그 찬동을 받았다. 생도(학생)만으로는 설립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남형유가 주(主)가 되어 각종 중등학교 교사들과 협의하여 마침내 대정 4년 3월 조선산직(産織) 장려계를 조직하여 주식을 나누고 1주 20원으로 하여 주수를 한정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 교사를 주주로 하여 계원이 훈도(교사)로서 취임 후는 적어도 1인이 10인의 주주를 모집할 것을 맹약하였음이 탐지되어 각 도 경찰부에서 취조를 하여 계에 대하여는 해산을 명함과 동시에 각각 사법 처분에 회부되었다. 본 건 취조 중 대정 3년 10월 양성소 생도의 내지(일본) 수학 귀래(歸來) 후 불온 문구로 총만된 동유지(東遊誌)라는 것을 90부 출판, 동급생에 배포한 것도 발견되어 다이쇼6년 3월5일 보안법위반으로 송치되었다. 계의 역원 및 계원 등은 다음과 같다.

계장 중앙학교교사 최규익(崔圭翼)

총무 윤창식

회계 최남선

(중략)

일반계원

장연공립보통학교 이기중

(중략)

경성중앙학교 김성수

(2) 3·1운동 거사 계획 참여

87) 현상윤(玄相允) ‘3·1운동 발발의 개략’

(思想界, 1963년 3월호, 44~49쪽)

“이 때에 나는 김성수 송진우 양씨와 중앙학교 구내의 택사(宅舍)에 동거하고 있었던 관계로 조석으로 시사(時事)를 말하는 동안에 말이 여기에 미치면 3인이 다같이 초조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큰 운동을 일으키려면 먼저 단결력이 있는 천도교를 움직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중략)… 수하동 정노식 씨의 숙소에 들려서 정씨 더러 동소에 지숙(止宿)하는 김도태 군을 정주에 파송하여 이승훈 씨의 내경(來京)을 구할 것을 언탁(言托)하였다. 그리하였더니 2월 11일에 이승훈 씨는 급속히 상경하였다. 그러나 최남선 씨는 관현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이씨와 회견치 아니하고 송진우 씨와 나더러 회견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양인과 김성수 씨는 계동 김성수 씨 별택(別宅)에서 이씨를 회견하고 그동안 재경(在京) 동지의 계획과 천도교의 동향을 말하고 기독교 측의 참가와 동지 규합의 일을 청하니 이승훈 씨는 즉석에서 그것을 쾌락하고 김성수 씨로부터 수천원의 운동비를 받아가지고 그날로 관서지방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 후 이승훈 씨는 질풍뇌우(疾風雷雨)와 같이 평남북을 순행하여 장로파의 길선우 양전백 이명용 유여대 김병조 제씨(諸氏)와 감리파의 신흥식 씨 등과 회견하고 그들의 민족대표자 되는 승낙을 얻고 또 그 인감을 모아가지고 그 중의 신흥식 씨와 동반하여 다시 경성으로 왔다… (중략)… 이 때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3파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로 작성한 민족대표자 일동은 서로 대면도 할 겸 또한 최후의 회의를 행하기 위하여 28일 야(夜) 재동의 손병희 씨 댁에 회동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탑동공원은 다수의 학생이 집합하니 분요(紛擾)가 염려된다 하여 3월 1일에 행할 독립선언의 장소를 인사동 명월관 지점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최남선 함태영 송진우 정광조 현상윤 제인(諸人)은 잔류 간부로 하여 대표자들이 체포된 후의 제반 임무를 담당할 것을 결정하였다…(하략).”

88) 홍일식(洪一植) 전 고려대 총장 (2004년 12월 9일 면담)

“1956년 경 육당에게서 들은 얘기가. 3·1운동 당시 천도교 쪽은 최린이 있고, 북쪽 기독교 세력(서북 기독교)은 이승훈, 남쪽 기독교 세력은 이상재가 대표적이었다. 최린과 육당은 일본 유학을 같이 한 친한 사이다. 평양 쪽 기독교의 이승훈 선생을 천도교의 참여 세력에 합류시키려 서울로 불러왔는데 종로 YMCA 건물 옆에 황금여관에 묵었다. 거사 자금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 인촌이 육당을 불렀다. 인촌이 ‘기독교가 내야 할 몫이 얼마냐’고 물어서 육당이 얼마라고 얘기하니 인촌은 말없이 주머니 속에서 몇 천원을 꺼냈다. 인촌은 ‘이것을 내가 낸 것으로 하지 말고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 몫으로 낸 것으로 하라’고 말했다. 육당은 이 돈을 보자기에 싸서 그 길로 황금여관으로 달려가 이승훈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내가 육당한테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은 한용운 선생이 독립선언서의 뒷부분 공약 3장을 썼다는 논란이 나오던 무렵 독립선언서가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육당에게 시간

대 별로 여쭙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들은 독립선언서 탄생 과정을 ‘독립선언서 연구’라는 논문에 썼다. 사실 3·1운동의 발동이 처음 걸린 것은 광문회 사랑방에서다. 거기에는 아사히신문 등 외국의 신문 잡지가 다 모이고 지식인들이 서울 올라오면 모여서 이를 둘러보고 세계정세를 논하곤 했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천명 이후 우리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현상윤 선생이 이를 중앙학교 숙직실로 가져가서 논의한 것이다.”

“3·1운동 때 인촌이나 육당이 33인에 안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는 무식한 얘기다. 육당은 내게 독립선언서 작성 과정을 꼭 얘기해주면서 인촌의 역할, 자신의 역할, 인촌이 33인은 물론 48인에도 안 들어간 이유 등에 관해서도 얘기해줬다. 인촌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인데 다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사식을 날여주고 누가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돌보겠나. 그래서 인촌은 다 의논해놓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거사 5일전 출포로 내려가 있다가 거사 후 올라와 구속자들을 재정적으로 뒷바라지했다. 최남선 같은 학자는 이후 계속 학문 연구를 해야 하니까 또한 33인에서 빼놓은 것이다.”

89) 이병헌(李炳憲·당시 천도교 중앙본부 직원)

‘내가 본 3·1운동의 일 단면’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 1969년)

(407~408쪽) “최린 송진우 현상윤 최남선 선생은 계동 김성수 선생 댁에 모여 운동의 대표로 구한말 중신 중 박영효 윤용구 한규설 윤치호를 교섭하기로 각각 분담하고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하기로 하였다… (중략)… (411쪽) 이 무렵 필자는 최린 선생의 서신을 전하려고 중앙학교에 갔다가 김성수 선생 댁에 계시다 하여 계동 김성수 선생 댁으로 갔다. 송진우 최남선 현상윤 諸 선생이 김성수 선생과 연석 중이었다.”

90)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8권 : 문화투쟁사’ (1973년, 378쪽)

“1918년 말 국내에서는 △이승훈 양전백 길선주 등 평안도 지방 기독교 지도자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 천도교 지도자 △송진우 현상윤 김성수 등 중앙학교 교원 △박희도 이갑성 김원벽 강기덕 주익 한위건 이용설 등 서울 기독교청년 학생 등 네 갈래의 움직임이 있었고 후에 최남선이 중앙학교 측에 가담했다.”

91)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 3·1운동사’ (1973년, 509쪽)

“3·1운동 직전에 고종 황제 국상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던 태인면 청년 김현곤 송수련 박지선 등은 김성수 송진우 등 전라도 출신 인사들을 만나서 3·1운동의 계획을 알고 곧 선언서 등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92) 국가보훈처 ‘1999년 2월의 독립운동가 - 송계백’

“선생이 국내 파견 밀사로 결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생의 강렬한 독립의지를 실행위원들 모두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는 선생은 보성중학교 출신으로 교장 최린과는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손병희에게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계획을 전해 천도교의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고, 셋째는 당시 중앙학교 교사인 현상윤과는 보성학교 선후배 사이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신진 지도급 인사들에게도 독립선언 계획을 알려 이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목적 아래 선생은 1월 중순 국내로 잠입하여 중앙학교로 현상윤을 찾아 갔다. 그리고 선생은 비단 수건 위에 잔글씨로 써 사각모 안에 감추어 들여온 2·8독립선언서의 초안을 꺼내 보이면서, 동경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렸다…(중략)…손병희를 중심으로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 천도교 지도자들은 다시 독립운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참이었다. 이들은 송진우 현상윤 등 중앙학교 측의 인사들과 합세하여 독립운동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바로 이 때 선생이 도착한 것이었다… (중략)… 현상윤과 최린을 만나 거사 계획을 전한 뒤 잠시 고향에 있던 선생은 1월 28일 상경하였다. 그리하여 1월 29일 정노식을 만나 상당액의 보조금도 얻고, 선언서 인쇄에 쓸 활자를 구한 뒤 1월 30일 다시 동경으로 건너갔다.”

9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 3·1운동 재판기록’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영위원회, 1970~1976년)

(1) (재판기록 16,17쪽) 동년(1919년) 2월 상순 밤에 최린은 전부터 친근한 중앙학교장 피고 송진우, 사제관계인 동교 교사 피고 현상윤 및 송진우의 소개로 회견하게 된 역사전공자 피고 최남선과 최린의 상기 주소에서 회합하여 전기 계획을 알렸더니 우 3명이 모두 이에 찬동하였으므로 그 후 양 2,3일을 지나 우 4명은 밤에 다시 경성부 계동 중앙학교 내 송진우의 거실에서 회합하여… (중략)… 최남선은 기독교도의 동지를 구함에 대하여 먼저 그의 지기인 평안북도 정주군 기독교 장로교회 장로 이인환(일명 이승훈)에게 교섭하기로 하여 동월 7일 경 현상윤으로 하여금 이인환이 설립한 오산학교 경영의 일을 핑계로 동인의 상경을 재촉하였더니…

(2) (재판기록 17쪽) 이인환(=이승훈)은 동월(1919년 2월) 11일경 급거 경성으로 올라왔더니 최남선은 관헌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회견치 않고 송진우로 하여금 同日 자기 대신 계동에 있는 김성수 별택에서 이인환을 회견케 하여 前記 계획을 알려 기독교 측의 참가를 요구하였더니 이인환은 곧 이를 승낙하고

94) 대한민국독립유공자 공훈록 제6권

(국가보훈처, 1988년, 604쪽)

“3·1운동의 초기 계획에도 중앙학교 교장과 그 주변 인물이 깊이 관여하였다. 1919년 1월 동경 유학생 송계백이 2·8독립선언 준비 차 귀국하자 송진우 현상윤 등과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했으며, 3·1운동의 초기 준비단계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95) 47인 예심결정서(一)

(동아일보, 1920년 4월 6일자, 7면)

손병희와 그 연루 병 47인에 대한 고등법원의 예심이 결정되어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됨은 기 위 세인이 공지하는 바이나 예심결정서의 전문은 아직 세간에 광포되지 아니하였기 ○屬 구문이나 특히 차를 연재하여 해(該) 공판의 진행에 주의하는 인사의 참고에 공함

결정

無職 孫秉熙(六〇)

普成高等普通學校長 崔麟(四三)

天道教 道師 權東鎭(六〇)

天道教 道師 吳世昌(五七)

天道教 道師 林禮煥(五六)

天道教 道師 權秉德(五三)

天道教 月報課長 李鍾一(六二)

天道教 道師 羅仁協(四九)

天道教 道師 洪基兆(五六)

無職 金完圭(四四)

天道教 道師 羅容煥(五七)

天道教 長老 李鍾勳(六五)

天道教 長老 洪秉箕(五二)

天道教 道師 朴準承(五五)

基督教 長老教 長老 李寅煥(五六)

中央基督教青年會 幹事 朴熙道(三一)

基督教 北監理派 牧師 崔聖模(四七)

基督教 北監理派 牧師 申洪植(四九)

基督教 長老派 牧師 梁甸伯(五一)
 農 李明龍(四八)
 基督教 長老派 牧師 吉善宙(五二)
 세브란스聯合醫學校附屬病院 事務員 李甲成(三四)
 基督教 北監理派傳道師 金昌俊(三一)
 基督教 北監理派 牧師 李弼柱(五二)
 基督教 南監理派 牧師 吳華英(四一)
 基督教 新報社 書記 朴東完(三五)
 基督教 南監理派 牧師 鄭春洙(四五)
 基督教 南監理派 牧師 申錫九(四六)
 僧侶 韓龍雲(四二)
 僧侶 (白龍成) 白相奎(五七)
 平壤基督教書院會總務 安世桓(三三)
 無職 林圭(五六)
 基督教 南監理派傳道師 金智煥(二九)
 書籍出版業 崔南善(三一)
 基督教 長老 咸台永(四八)
 中央學校 校長 宋鎮禹(三一)
 無職 鄭魯湜(三〇)
 中央學校 教師 玄相允(二八)
 農 李景燮(四五)
 麵製造 販賣業 韓秉益(二五)
 普成社 工場監督 金弘奎(四五)
 無職 金道泰(二九)
 天道教 大道主 朴寅浩(六六)
 天道教 金融觀長 盧憲容(五三)
 水原三一女學校 教師 金世煥(三二)
 普成法律商業專門學校生徒 康基德(三一)
 延禧法律商業專門學校生徒 金元璧(二七)
 基督教 牧師 劉如大(四二)

右 內亂 被告 사건에 대하여 高等법원장의 命을 受한 豫심판사 조선총독부 판사 楠常藏 同 永沼直方으로부터 提出한 訴訟記錄 及 意見書를 조사하여 高等법원 검사장 대리 朝鮮총독부 검사 草場林五郎의 의견을 청하여 결정함이 左와 如함.

主文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함

理由

第一 ○古의 대전이 중국에 근하여 점차 평화의 서광이 現○라함에 當하여 大正 7년 1월 상순 미국대통령 ‘윌슨’은 강화기초조건으로 14개조를 제창한지라. 기중에 식민지문제 등

주권에 관한 사항은 민족자결주의에 從하여 해결할 旨趣의 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波○민족의 독립을 승인하라는 지취와 대소국가의 정치상 독립 급 영토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을 조직하는 지취의 조항이 있고 기후 대정 8년 1월 중 불국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어 연합 각국 강화위원은 동소에 참집하여 대독강화조항을 심의하고 미국대통령 ‘윌슨’도 역 도불하여 친히 강화회의에 到하여 기 주장의 철저에 노력하게 된 바 ○者 日韓併呑의 결과 조선의 독립을 失 하였음에 ○○불만을 포한 천도교 聖師 피고 손병희 同 교도의 유력자인 보성고등보통학교장 피고 최린, 천도교 도사 피고 권동진, 동 피고 오세창은 금회의 강화회의는 전란의 결과를 처리하는 동시에 영구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개조를 도함인 즉 ‘윌슨’의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금차 전란의 巷이 된 在구주 각지의 민족뿐 아니라 세계 일반의 민족에도 또한 ○용될 것임으로 차기를 승하여 조선민족이 꺾기하여 독립욕망의 ○렬함을 표시하여 구미 각국의 주시를 ○起하고 且 미국대통령의 意를 動케 할진대 조선의 독립은 ‘波○’민족의 독립과 同一히 강화회의의 의제에 상하여 기 승인을 득하겠기에 至하겠고 특히 기 당시 재외조선인중 이미 독립운동을 시하기 위하여 佛國파리에 도향한 자가 있다는 풍설 급 재 동경 조선유학생 중 독립 운동을 하는 자가 있다는 풍설이 頻煩히 조선 내에 전파하고 우 상해 재류의 조선인으로 서양 각 지방에 來하여 독립운동을 선전한 자가 있어 차로 인하여 경성 기타 각지의 인심이 점차 動搖하여 각처에 독립운동발발의 ○를 畀한 시기임으로 好機不可逸이라 사유하여 동년 1월 하순 손병희의 주소에서 수회 會合 擬議한 결과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에서 탈하여 독립국을 형성케 하기를 기도하고.

- 47인 예심결정서(二)

(동아일보, 1920년 4월 7일자, 3면)

其 手段으로 먼저 同志를 糾合하여 朝鮮民族代表者로 孫秉熙 等의 名으로써 朝鮮의 獨立을 宣言하고 且 宣言書를 秘密히 印刷하여 朝鮮 全道에 配布하여 民衆을 煽動하여 旺盛히 朝鮮 獨立의 示威運動을 起케 하여서 朝鮮民族이 如何히 獨立을 熱望하는지를 表示하고 一面 帝國政府, 貴衆兩議院, 朝鮮總督府 及 講和會議의 列國委員에게 朝鮮獨立에 關한 意見書를 提出하고 又 米國大統領 ‘윌슨’氏에게 朝鮮獨立에 關하여 盡力을 乞하는 旨의 請願書를 提出하기로 定하고 其 計劃의 實行에 就하여는 崔麟으로 하여금 擔當케 하기로 하였음으로써 동년 2월 상순 야 崔麟은 이전부터 친한 중앙학교장 피고 宋鎮禹와 사제의 관계가 있는 동교 교사 피고 玄相允 급 송진우의 매개로 회견하게 된 역사전공자 피고 崔南善과 崔麟의 주소에서 회합하여 전기 계획을 고하매 우 3명이 皆 차에 찬동하였음으로 기후 양 3일을 경하여 우 4명은 야간에 재차 경성부 계동 중앙학교 내 송진우의 거소에 회합하여 其際熟議한 결과 박영효, 윤용구, 한규설, 김윤식, 등 구한국시대 요로에 재하던 지명의 자 급 기독교도를 勸說하여 동지를 삼고 차등의 자 급 孫秉熙 이하 천도교도 중 주요한 자를 조선민족대표자로 하여 기명의로써 독립선언을 하고 차 기명의로써 독립선언서 의견서 급 청원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각 서면의 기초는 崔南善이 담당하고 우 구시대의 인물에 대한 교섭은 崔麟, 崔南善 급 宋鎮禹가 우 기독교 측에 대한 교섭은 崔南善이가 차를 담당하게 되었음으로 其後 崔麟, 崔南善, 宋鎮禹는 右 尹用求 等에 對하여 各其 交渉을 誠하였으나 結局 要領을 得치 못하고 中止하고 崔南善은 基督教徒의 同志를 求함에 就하여 먼저 其 知己인 平安北道

定州郡 基督教長老派의 長老 李昇薰이라는 李寅煥에게 交渉을 誠하기로 하여 同月7日頃 玄相允으로 하여금 李寅煥의 設立한 五山學校 經營의 事에 稱託하고 同人의 來京을 勸促케 하였으므로 玄相允은 被告 鄭魯湜家에 赴하여 鄭魯湜에 對하여 同人處에 止宿한 定州郡人 被告 金道泰로 하여금 定州郡 葛山面 益城里 李寅煥 許에 到하여 右 崔南善의 言을 李寅煥에게 傳達케 할 事를 依頼하였으며 鄭魯湜은 崔南善, 崔麟이 朝鮮獨立運動을 企劃하여 其 同志를 求하기 爲하여 基督教徒인 李寅煥에게 交渉을 誠할 必要上 同人을 招하는 事情을 知하면서 其 計劃의 實行을 幫助하기 爲하여 右 依頼에 應하고 即日 被告 金道泰에게 對하여 定州에 赴하여 李寅煥에게 右 傳言을 爲할 事를 依頼하매 金道泰는 右 事情을 知悉하고 同樣 幫助하기 爲하여 此를 承諾하고 同月 8일 京城을 出發하여 其 翌 9日 定州에 到하여 李寅煥의 住所로 向하는 途中 知人 同所 五山學校 教員 朴賢煥을 遇하여 同人에게 其 當時 李寅煥이 所幹이 有하여 平安北道 宣川에 赴하여 不在인 事를 聞하고 情을 知치 못하는 同人에게 對하여 李寅煥에 右 傳言을 依頼하였으므로 同人은 特히 宣川에 赴하여 此를 李寅煥에게 傳하였으므로 李寅煥은 同月11日頃 急遽히 京城에 出來하였는데 崔南善은 官憲의 注目を 避하기 爲하여 自身이 會見치 않고 宋鎮禹로 하여금 同日 自己에 代하여 **桂洞 金性洙別宅에 서** 李寅煥과 會見하고 前記 計劃을 告하여 基督教側의 參加를 求하고 且 同志糾合을 付托케 한바 李寅煥은 即時 此를 承諾하고 同志를 糾合하러 即日 京城을 辭하고 平安北道 宣川에 赴하여 同月 12日頃 基督教長老派牧師 被告 梁甸伯의 住所에서 同人 及 其 當時 長老會에 出席기 爲하여 宣川에 來集한 基督教長老派長老 被告 李明龍, 同 牧師 劉如大, 同 牧師 金秉祚 等과 會晤하여 宋鎮禹에게 칭취한 前記計劃을 告하여 찬동을 구한 바 우 3명은 各 동지자 되기를 승낙하고 劉如大, 金秉祚는 독립운동에 關하여 만사를 李寅煥에게 一任하고 차 필요한 서류에 押用케 하기 爲하여 各자 各 人장을 同人에게 預탁하고 梁甸伯 李明龍은 李寅煥의 주의에 依하여 친히 獨立운동의 모의에 참여하기 爲하여 京성에 赴하기로 하고 尙 李寅煥은 同월 14일 平壤記笏病院에서 기독교 장로파 목사 피고 吉善宙 同교 감리파 목사 피고 申洪植 等과 面회하고 전기계획을 告하여 찬동을 구한 바 양명이 各 동지자 되기를 승낙하고 李寅煥의 주의에 依하여 스스로 京성에 來하여 獨立운동의 모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더라.

기 후 李寅煥은 同월 17일 경 재차 京성에 來하여 소격동 金昇熙 가에 투숙하고 直時 人을 파견하여 宋鎮禹에게 來京한 旨를 통지하매 동인은 一兩度 우 旅宿에 來訪하였으나 기대도가 熱心○ ○한듯하며 其 所言이 要領을 득치 못함이 있고 우 崔南善도 용이히 李寅煥과 면회치 아니함으로 李寅煥은 내심에 의혹을 抱懷하였던 시에 마침 중앙청년회 간사 피고 朴熙道를 遇하여 朝鮮獨立운동에 기독교 측의 동지자와 회견코자하는 의사를 부탁하였으므로 동인은 차를 승낙하고 동원 20일 야 京성부 수창동 기 주소에 기독교 남감리파 목사 피고 吳華英, 동 목사 피고 鄭春洙, 동 북감리파 감리사 吳箕善 급 申洪植 등이 各 獨立운동의 동지자를 集합하고 자기도 기석에 열하고 李寅煥과 회합하여 獨立운동의 事를 협의한 결과 京성 各 지방에서 기독교의 동지자를 구하여 차와 공히 日本정부에 獨立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기 동지모집에 취하여 鄭春洙로 하여금 元山방면을 담당케 하였고 당야에 별로이 기독교 장로파 피고 咸台永의 肩書住所에 동인 '세부란스' 병원 사무원 피고 李甲成 평양기독교서원 총무 피고 安世桓 기독교 장로파 조사 吳尙根 동 목사 玄楯 등 모든 獨立운동의 동지자가 회합하였으나 하등 결의한 바가 무하였더라. 연이 기 익 2월 21일 崔南善은 李寅煥을 기 전기숙소에 방하고 相伴하여 崔麟 가에 부하여 崔麟과 회견케 하였는데 기제에

崔麟은 李寅煥으로부터 전야 朴熙道가에서 기독교도의 동지가 회합하여 기독교측에서 독립 운동을 행하게 된 사를 문하고 독립운동은 민족전체에 관한 問通임으로 종교의 이동을 불문 하고 합동함이 가타는 의를 설하고 간절히 합동을 구하였음으로 李寅煥은 동지와 협의한 후 諾否를 결하여 회답할 지를 約하고 尙운동비 兪통을 요구하고 귀래한 바 崔麟은 즉일 孫秉熙에게 금 5000원을 기독교 측에 대여할 사를 요구하여 동인은 차를 승낙하고 천도교 대도 주 피고 朴寅浩 급 동교 金融觀長 피고 盧憲容에게 우 사정을 고하여 동 금액의 지출을 구 한바 우 양명이 개 전기 독립운동에 찬동하고 지에 참가하여 이의 없이 천도교의 보관금 5000원 지출의 절차를 종료하고 기 익 22일 현금 5000원을 崔麟에게 교부하였음으로 동인 은 차를 휴대하고 直時 李寅煥의 숙소에 도하여 동인에게 교부하였더라. 李寅煥에게 傳하였 음으로 李寅煥은 同月11日頃 急遽히 京城에 出來하였는데 崔南善은 官憲의 注目을 避하기 爲하여 自身이 會見치 않고 宋鎮禹로 하여금 同日 自己에 代하여 桂洞 金性洙別宅에서 李寅煥과 會見하고 前記 計劃을 告하여 基督教側의 參加를 求하고 且 同志糾습을 付托케 한바 李寅煥은 卽時 此를 承諾하고 同志를 糾습하러 卽日 京城을 辭하고 平安北道 宣川에 赴하여 同月12日頃 基督教長老派牧師 被告 梁甸伯의 住所에서 同人 及其 當時 長老會에 出席키 爲하여 宣川에 來集한 基督教長老派長老 被告 李明龍, 同 牧師 劉如大, 同 牧師 金秉祚 等 과 會습하여 (후략)”

96) 이희승 추모 문집간행위원회 편

‘딸깍발이 선비, 一石 李熙昇선생 추모문집’
(신구문화사, 1994년, 448~449쪽)

“一石은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원래 3·1 운동의 태동은 33인이 꾸민 것이 아니고 김성수 송진우 현상윤 등의 인사들이 처음으로 논의 했었다’ 면서 대내외적인 상황이 이를 더욱 무르익게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97) ‘古下 宋鎮禹 先生傳’

(동아일보사, 1965년, 74~75, 86쪽)

“고하는 송계백을 앞세우고 인촌의 하숙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중략)… 동경서 온 밀사 송계백을 하숙에 숨겨두고 이튿날부터 고하와 기당(현상윤)은 다시 치밀한 계획을 짜고 활동을 개시했다. 활자는 육당이 경영하는 출판사 新文館에서 얻기로 하고… (중략)… 송계백은 무사히 사명을 마치고 자금과 활자 등을 짊어지고 다시 사선을 뚫고 동경으로 돌아왔다. 송계백과 정노식이 짊어지고 들어온 활자는 물샷 틈 없는 일경(日警)의 감시와 그 앞잡이들로 인해 모처럼의 활자를 사용치 못하고 선언서는 등사판 프린트로 박았다.”

98) 최형련(崔炯鍊) 전 중앙고등학교 교장,

‘3·1운동과 중앙학교’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 1969년, 321~322쪽)

“이러한 계획과 진행에 대한 전말에 곁들여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특별히 주의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중략)… 하나는 일시적 운동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에 민족대표자 몇 사람이 희생만 당하고 말 것이 아니라 선언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람은 후방에 남아 있으면서 제2차, 제3차, 몇 차든지 존속하여 운동을 관철하기로 하였으니, 그런 연유로 인촌 고하 기당 선생은 민족대표로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면에서 비밀히 한 일이라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자상한 내용을 알 도리가 없으나 인촌 선생이 운동자금으로 상당히 거액을 낸 것은 사실이었다. 특히 인촌 선생은 日警이 요시찰 인물로 주목하는 동시에 중앙학교 인수 당시에 벌써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그 허가문제부터가 말썽거리가 되어 항상 감시가 우심하던 처지인데, 인촌 선생이 만일 이 운동에 직접 참가하면 후방 일은 고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설한 평양대성학교가 105인 사건으로 당했던 것과 같이, 중앙학교도 당장에 폐교당할 것이라 하여, 모든 계획과 준비가 완성된 후에는 인촌 선생은 이 운동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표시하기 위하여 고하 기당 등 여러 선생이 누누이 강권하여 인촌 선생은 거사전인 2월 하순에 부안 줄포 향제로 내려가 한가히 있으면서 이 운동이 잘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99) 이현희(李炫熙)

‘日帝時代史의 研究’ (한국학술정보, 2002년, 68~70쪽)

“중앙학교 교장 송진우, 교사 현상윤 및 김성수 등은 중앙학교 구내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거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략)… 그러던 차 1918년 12월 말경…(중략)… 송계백이 선배되는 현상윤과 송진우를 만나 선언서 초고를 보이니 兪, 宋 등은 이를 육당에게 보여 참가 허락을 받고, 최린을 경유하여 손병희에게 제시하였다… (중략)… 1919년 2월 11일, 이승훈은 급거 상경하여 현상윤 송진우 김성수 등과 인촌 別宅에서 기독교의 참가를 권유하고 대동단결 규합을 호소했다.”

100) 6·10 만세 운동 격문

-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의 계획이 있었으니 그것은 통동계(通洞系)라고 불리우는 중앙고보의 이동환 박용규, 중동고보 김재문 황정환 곽대형 등이 계획한 것인데 이들은 모의에서 과격한 행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조선독립만세만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이 때의 격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민족아! 우리의 철천지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들아!

죽음을 결단코 싸우자!

만세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檀紀 4259년 6월 10일

조선민족대표 김성수 최남선 최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권 : 의열투쟁사’,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년, 576쪽)

- “중앙고보 측 학생이 천도교나 그 외의 사회 인사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그들이 만든 격문이 민족대표 김성수 최남선 최린으로 한 점은 민중의 호응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더라도 중앙고보 체육교사 조철호와 밀접히 협의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독립운동사 8권 : 문화투쟁사’, 436~437쪽)

- “뿌려진 격문 끝에는 민족대표 김성수 최남선 최린 등 지명한 3명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는데 이는 보다 효과적인 대중 동원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며 또한 이 만세운동의 민족주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이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황묘희, ‘6·10만세운동의 민족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과 민족주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편, 국학자료원, 1999년, 46~47쪽)

- 상기(上記) 통동운동의 독립선언문에 김성수 최남선 최린 3씨를 조선민족 대표로 선정한 것은 군중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3씨의 승낙도 없이 모르게 한 것이니, 3씨에게 죄송하기 한이 없던 중에, 김성수 최린 양씨는 6월 9일에 종로서에 연행되어 종일 흉악한 봉변까지 당하고 석양에 조건부로 나왔다. (중앙교우회, ‘중앙80년사’, 1993년, 66쪽, 註)

- ‘崔麟氏도 同行, 본 사장도 동행’

“9일 오전 11시경에 종로서 고등계에서는 동서의 길야(吉野) 경부보와 김(金) 형사부장이 자동차로 출동하여 본사 사장 김성수 씨를 계동 자택으로...(중략)...동서로 동행하여 2층으로 다리고 올라갔는데 2층에는 일반신문기자의 출입도 엄금하고 즉시 취조를 개시한 모양이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절대비밀에 부침으로 아직 알 수가 없다.” (동아일보, 1926년 6월 10일자, 5면)

(3) 민족문화사업지원

101) 김선기(金善琪) ‘한글 맞춤법과 인촌’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년, 213~214쪽)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제정은 아주 시급한 문제였다. 나는 당시 25세의 약관으로 권덕규 김윤경 최현배 씨 등 선배들을 모시고 18인 소위원회 위원으로 125회의 모임을 갖는 동안 모

든 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심지어 화계사 회의 때는 모든 경비까지 조달해야 할 정도였다. 경비 150원은 거금이었는데 선친(金鐵中·동아일보 전 총무국장)께서 구해다 주셨다. 인촌 선생의 후원이 아니었나 싶다. 어쨌든 통일안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으나 시행이 문제였다. 모든 신문 잡지 출판물이 호응을 해줘야 하는데 호응을 하자면 활자를 다시 주조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있었다. 제정만 해 놓고 시행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조선어학회에서는 날더러 동아일보를 설득하도록 책임을 맡겼다. 인촌 선생과 고하 선생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아일보가 10만부를 찍어 전국에 홍보를 하고 앞장서서 새 맞춤법을 시행해 주었다. 한글이 오늘날의 체계를 잡은 것은 동아일보의 공로인 동시에 인촌의 공로인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1만부가 나갈 때였다. 나는 동아일보에 파견되어 맞춤법 교열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1942년, 언어말살을 기도한 일제의 흉계에 의해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 나도 가람 이병기(李秉岐)와 연행되어 옥고를 치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촌 선생도 고역을 당하시고 겨우 투옥만은 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옥고를 치르고 나와 인촌을 뵈러 갔더니 내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 하시고, 고문을 당하면 못할 말이 어디 있겠나 하시며 이극로(李克魯)를 걱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직감한 내가 물었더니 혼자만 알고 있으라며 말씀했다. 잡혀간 이극로가 매에 못 이겨 사전 편찬 등은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으며 조선기독교서출판관의 책임자로 있던 인촌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그럴잖아도 틈만 엿보던 경찰은 인촌을 옳아 넣으려 했다. ‘어느 날 보안과장 야기(八木)라는 자가 날 청향원(술집)으로 부르더구먼. 술 한 잔 사겠다는 거여. 무슨 꿈공이가 있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걸 취조여. 조선어사전 편찬은 독립운동의 방법이었다고 이극로가 붙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였지.’ ‘그래서요? 뭐라셨습니까?’ ‘조선어 사전 하나 편찬해서 독립이 된다면 왜 진작 편찬하지 인제야 허느냐! 일본 경찰이 그렇게 편협한 줄 몰랐다. 독립운동과 사전 편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고 말했지. ‘그랬더니 뭐래요?’ ‘말이 막히는 지 더 말이 없더구먼.’ 그 뒤에도 감시의 눈을 번뜩이며 인촌 선생을 계속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씀은 결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범인으로서는 못할 일이다.”

102)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편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1년)

“(169쪽) 제2차 독회(1933년 7월 26일부터 화계사 태화원에서 열린 제2차 조선어철자법위원회)에서의 모든 뒷바라지에 힘써준 김성수 송진우 및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의 후의와 회의 때마다 회의자료 기타의 인쇄물을 전담한 한성도서주식회사의 희생적 봉사는 통일안 제정위원들의 노고와 함께 길이 새겨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76쪽) 동아일보가 통일안을 실시하기로는 1933년 4월 통일안의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부터였다. 이는 신문에서뿐만 아니라 동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동아 신가정에도 같은 방침을 취하였음은 물론이다. 국내 신문 중에는 물론 한글 출판물로서의 신 철자법 사용으로는 동아가 효시에 들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에 뒤따르는 활자의 개정과 노년층 독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낯선 글자로 인한 구독자 감소로 말미암아 한때는 재정적 타격까지 받았다고 한다.”

103)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한글학회, 1993년, 23쪽)

“조선어학회 운영은 이극로 박사에 의한 것이고, 이극로 박사로 하여금 조선어학회를 운영하게 한 장본인이 김성수 선생임을 경찰 당국이 모를 리 없었다. ‘조선어학회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김성수 선생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은 것은 총독부의 정치적 방침에 따라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이극로 박사를 고문하고 추궁하면 김성수 선생까지 확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성수 선생을 증인으로도 부르지 않았다. 동아일보사의 주인이요, 정치적으로도 조선의 대표적 지도자인 그를 괘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04) 이희승의 회고

‘인촌 김성수전’ (인촌기념회, 1976년, 377~378쪽)

“인촌 선생은 조선어학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맺고 계시지 않았지만, 기회 있는 대로 음으로 양으로 원조를 아끼시지 않으셨다. 단번에 많은 금액을 내주신 일은 없으셨으나,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청하면 거절하시는 일이 없으셨다. 이극로(李克魯)가 간사장으로 학회 일을 맡았을 때도 그랬고, 내가 간사장이었을 때도 그랬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으로 표준어 조정위원회를 우이동 봉황각에서 열었을 때 인촌 선생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던 삼백 원을 투척하셨고 철자법 위원회를 제1회 개성, 제2회를 인천, 제3회를 서울 화계사에서 열었을 때도 그때마다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내주셨던 것으로 안다.”

105) 허웅 ‘한글과 민족문화’

(교양국사총서 편찬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년, 198~199쪽)

“1933년 한글 반포 487돌 기념식상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민간학회의 안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의 애국 동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각 언론 기관, 특히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적극적이요, 희생적인 성원 아래, 온 국민에게 널리 쓰이게 드디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움직일 수 없는 국어 정서법으로 확립되었다.”

106) 이병도(李丙燾)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년, 217쪽)

“그때 우리나라에는 학술잡지가 없어 진단학회를 조직, 진단학보를 발간기로 했다. 조윤제 이윤제 김상기 손진태 등이 학회 멤버가 됐는데 우리 집 사랑방이 사무실이었고 나 혼자 논문집필 그리고 논문수집, 편집, 인쇄까지 다 맡아서 해 가야만 했다. 학보를 발간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여 인촌, 김연수 윤치호 최기동 백낙준 씨 등을 찬조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시

돈으로 50원씩 1년에 네 번을 도와주었으니 2백 원 꼴이었다. 10여 호 계속 나오자 일본인들도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찬조위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윤치호 씨 같은 분은 겁이 많아서 잘못 하면 검속 당한다며 제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나는 화가 나서 당하면 우리가 당하지 찬조한 분들은 괜찮다며 안 주시려면 그만 두라 했더니 나가는 날 불러 세우고 수표에 50원을 적어 준 일도 있다. 그에 비해 언제나 격려를 해주며 찬조금을 낸 분이 인촌이었다. 찬조금을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고생스럽더라도 이 일은 꼭 계속해 나가야 하네’라고 말하며 우리를 격려해 준 것은 더욱 큰 힘이 되었다.”

10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8권 : 문화투쟁사’

(국가보훈처, 1973년, 968~970쪽)

“여기서 일찍부터 이 방면 학술단체의 조직을 계획하여 오던 인사들은 1934년 5월 7일 발기인 총회를 열고 조선 및 인근 문화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학회 창설을 보게 되었는데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이렇게 창립을 본 진단학회는 다시, 권덕규 권상로 김성수 김원근…의 20인을 찬조 회원으로… (중략)… 그러나 이러한 학술운동도 일제말기 일제 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정신 말살을 기도하여 조선어학회 관계자들을 투옥시킬 무렵에는 일제의 감시와 간섭을 받아 진단학회는 폐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08) ‘독립유공자공훈록’ 제6권 (국가보훈처, 1988년, 605쪽)

“1935년 1월에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이윤재(李允宰) 이극노(李克魯) 이은상(李殷相) 이종린(李鍾麟) 안재홍(安在鴻) 이인(李仁) 등과 함께 조선기념도서출판관(朝鮮紀念圖書出版館)을 발기하여 창립하고 초대 관장에 선출되었다. 그 첫 사업으로는 김윤경(金允經)의 ‘조선문자 급 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를 간행하였다.”

10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8권 : 문화투쟁사’

(국가보훈처, 1973년, 1003쪽)

“정치 경제적으로 극히 불우한 환경에 있는 우리 처지에 있어 학자 문인들의 좋은 저술이 있더라도 경제난으로 하여 제대로 발간되지 못하는 형편을 돕기 위하여 1935년에는 사회 유지들의 결혼 회갑 장례 개업 등등 길흉 간에 쓸 비용을 절약하여 기념도서를 출판하도록 알선하는 기관으로 ‘조선기념도서 출판관’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 때 발기인은 김성수 이윤재 이극노 이은상 이종린 안재홍 이인 등 각계 인사였는데…”

110) 독립운동사 제9권 ‘학생독립운동사’

제2장 초기의 학생운동

조선물산장려계 가입

(80쪽) “1910년~1918년에 일어난 항일적 성격을 띤 학생운동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교원양성소에서 태동한 조선물산장려계가 그것이다. 1914년 9월 경성고보교원양성소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용우(李用雨)는 동기 학생 6명과 함께 일본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하에서는 국권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졸업 이후 각지 교사로 활동하더라도 학동(學童) 및 청년들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하여 조국 광복의 길을 찾고자 역설하였다. 그들은 동년 9월 중에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더욱 분발하여 당면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체를 만들기로 하고 그 1차 합의를 1915년 1월 성경연구회에서 갖고 휘문의숙 남형유(南亨裕)와 최남선의 찬동 및 지도를 받아 1915년 3월 드디어 조선물산장려계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또한 1914년 일본 여행에서 돌아오자 이와 같은 조직의 취지를 살려 편집한 ‘동유지(東遊誌)’ 90부를 발행하여 동급생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상 조직체의 중요 인물들은 1917년 3월 5일에 보안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는데 당시 조선물산장려계의 역원과 계원은 모두 130여명이나 되었다. 이들 중에는 최남선, 김성수(金性洙), 박중화(朴重華), 유근(柳瑾), 김두봉(金斗奉), 안재홍(安在鴻)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의 계원은 대부분 현직 보통학교 교원들이었다. 이와 같은 학생층 발의에 의한 조직체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대일 경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 실력을 축적하여 나가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가 이들을 보안법에 저촉시켜 탄압한 것은 이른바 안악사건, 105인 탄압에 이어 반일적 인사의 성장을 꺾어 버리기 위한 또 하나의 토벌적 조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1) ‘여자 야학과 독지가’

(동아일보, 1921년 5월 13일자, 4면)

“光州 靑年會經營인 女子夜學會는 設立以來巾○界에 不○한 貢獻이 有하나 但 維持方針이 極히 艱難한 中에 智識의 飢渴이 甚한 女子들의 入學志願者가 日復增加하되 學館의 收容力 부족으로 幹部의 苦心이 不○함을 仄聞한 有志 玄俊鎬氏는 金 六十圓 金性洙氏는 金 四十五圓 光州 老人契에서는 金 三十圓 徐廷禧氏는 金 三十七圓을 寄贈하얏슴으로 學館擴張의 曙光을 得하였는데 就中 徐廷禧氏의 寄贈金은 年前 萬歲事件으로 大邱鐵窓下에서 服役中作業한 賃金全部이라 過般同會總會에서 右 諸氏의 篤志에 對하여 會員一同은 滿腔의 謝意를 表하였 다더라 (光州)”

112) '전 조선적으로 동정 翕然 - 오산고보의 찬연한 부흥'

(동아일보, 1934년 2월 23일자, 석간 3면)

벌써 6만원을 돌파

신 건축비 계상코 百般의 준비

(정주) 30년 역사를 갖이고 관서에 웅립하여 혁혁한 광채를 발휘하든 오산고보(五山高普)가 불의의 화재로 5, 6만원의 손실과 다시 구득하지 못할 비품까지 전소되었다함은 수차 보도 하였거니와 학교에서는 곧 지원회 혹은 학부형회 혹은 졸업생회를 열고 각각 잇는 힘과 정성을 모은 것은 물론이요 일반사회 유지의 동정금과 각 언론기관의 열렬한 성원으로 교사 재건 복흥운동은 거의 전 선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한다.

동교 복흥 총공사비 10만원 예산의 기금모집에 노력중인 동교 이사회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이튿날 밤 새로 3시 반까지 동교에서 이사 7인과 직원과 신문기자 열석으로 이사장 김기홍(金起鴻) 씨의 개회 하에 회의를 열었는데 주기용(朱基瑢) 교장의 설계예산안의 설명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은 총건평 6백평에 ○○연약제(매평 백원) 건축비 6만원 각양 설비 ○○4만원(○ 물리화학 실험기구등 1만4천원 박물관본 7천원 도서 7천원 기구에 7천원 설비 5천원)인데 지금까지 일반사회유지제씨의 기부금액은 다음과 같다한다.

▲박용운 씨 2만원 ▲김기홍 씨 6천원 ▲오필은 씨 3천원 ▲이○○씨 3천원 ▲오희원 씨 2천원 ▲조○○씨 천원 ▲이○○씨 5백원 ▲보험금 2만원 ▲○원회 4천5백원 ▲전교학생 2천5백원 ▲동아일보사 3백원 ▲경성 김성수 씨 5백원 ▲경성 민영환 씨 5백원 ▲경성 박흥식 씨 백원 ▲재경졸업생 6백원 합계 6만4천50원”

(4) 중앙학교, 보성전문 통한 인재 육성

11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7 한일관계사료집’

(2005년, 148~149쪽)

“경성 중앙학교장 김성수는 동경 와세다 대학 정치과를 출한 청년 재산가이니 인격과 식견이 한 인간에 尊崇을 受하다. 1915년 당시 기호학회가 관리하던 중앙학교를 인계하려 할새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끼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씨와 약 1개년을 두고 100여 차례 청원과 회견을 遂한 끝에 겨우 인가를 得하니 左記에 회화는 김씨의 手記에서 出한 것이다. 오전 9시에 회견하자는 약속으로 8시40분경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에 往하다. 명함으로 통하여 들어간 후 4시간여가 지나 오후 1시20분경에 국장실에 入하니 세끼야 국장은 무슨 서류에 잠심(潛心)해야 나의 入을 不知하는 듯하다. 약 10분후에 고개를 들어

‘네가 김성수냐’

‘그렇소’

‘너는 왜 중앙학교를 인계하려하느냐’

‘청년교육이 소원인데 신설은 당국에서 불허하므로, 경비가 곤졸(窘拙)해 폐지의 境에 在한 중앙학교를 인계하려 함이요’

‘너는 왜 청년을 교육하려하느냐’

‘우리 민족도 남과 같이 잘 사려 함이다’

‘바카야로! 바카야로!’하고 성을 내더니

‘너희 조선인의 교육은 조선총독부가 하지 않느냐. 너희는 돈이 있거든 상업이나 하여라’

차후에도 이와 비슷한 모욕의 담화가 有하다가 마침 와세다 대학 교수 법학박사 다나까(田中穂積)의 소개로 김씨의 중앙학교 인계를 승인하게 된다.”

114)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9권 : 학생독립운동사’ (1973년, 790~791쪽)

“중앙중학은 항일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항일의 교풍을 이어받고 있던 터인데, 중일전쟁 후로 학교 당국은 조선어 과목을 수의과목(隨意科目·선택과목)으로 돌려 과목 이름만 두었다가 1939년부터는 일어상용을 강조하면서 민족문화에 관한 과목은 전면 폐지하게 하였다. 이것은 전국 각급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었으며 중앙중학의 일각에서도 여기에 저항하는 학생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중앙중학의 현상윤 교장은 수선 시간에 민족정신을 환기하는 강의를 하였고, 김상기는 4천년의 민족사를 비밀리에 이야기했으며, 지리를 담당한 최복현(崔福鉉)은 수업 중에 임진왜란 때 이 충무공의 전승과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또한 최복현은 때로 시국담을 하였는데, 중일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으니, 일본은 패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즉 사제간에 반일의 저류가 엄연히 흐르고 있었다. 이 당시 3학년생이던 노국환 황종갑 이기을 유영하 조성훈 등은 평소에 뜻이 맞는 학우들로서 매주 한두 차례씩 만나 민족정기와 독립 쟁취에 관해 협의하여 오던 중 4학년이 되던 1940년 10월에 역사와 정치에 관한 문제를 한 문제씩 연구하여 매주 1회 회합, 토론하는 ‘5인 독서회’를 만들었다. 지도교사로 최복현을 추대하였다. 그때 4학년의 이교환과 3학년의 신태균도 이와 비슷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5인 독서회는 1941년 7월 초순에 활동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① 이기을 황종갑은 고향이 함흥이니 하기방학 중에 고향으로 가서 항일유격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고, ② 유영하 조성훈은 일본에 유학중인 선배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하였으며, ③ 노국환은 그의 부친과 백형을 통하여 김성수 송진우 정인보 씨 등의 국제정세관과 임시정부의 소식을 들어오기로 분담하였다.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최복현 교사에게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제2학기의 개학 3, 4일 전에 서울에서 만나 연락상황을 토대로 협의를 하자는 서신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황종갑의 서신이 검열에 발각되어 황종갑 이기을은 함흥에서 체포되고 노국환 유영하 조성훈 그리고 최복현 교사는 8월 22일 서울 동대문서에 구속되었다가 함흥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115) 유홍(柳鴻) 전 유관순 기념사업회장 (1984년 4월 23일)

“1916년 입학해서 5월 그믐께 강화 마니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마포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까지 갔다. 인촌을 비롯한 모든 교사도 함께 갔다. 강화 마니산에서 단군을 모신 참성단에 올라갔다. 그런데 교장 유근 선생이 눈물을 흘렸다. 비는 쏟아지는 데, 다리는 아파 죽는데 학생들은 유근 선생이 갑자기 우니까 처음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했다. 유 선생은 ‘여기가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가르친 단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볼 날이 없다’며 우신 이유를 말씀하셨다. 유 교장의 눈물에 인촌도 따라 울었다. 다른 선생님들도 막 울었다. 그다음에 학생들도 다 울었다. 학생들도 감화를 받아서 그 날의 경험이 민족사상, 배일사상의 근원이 됐다. 그날만큼 쇼크 받은 적이 없다. 마니산에 수학여행을 간 것 자체가 민족교육이었다.”

116) 신도성(愼道晟) 전 국토통일원장관

‘중앙 80년사’ (중앙교우회, 1993년, 38쪽)

“인촌 선생은 수신시간에 교재를 뒤로 제쳐놓고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은근히 민족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었다… (중략)… 한번은 외국을 가시는데 여권에 적어야 하는 국적이 남의 나라 이름으로 되어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실감했다고도 했다. 배 안에서 식사를 할 때 식탁에 승객들의 국기를 꽂는 데 그 국기 가운데 태극기가 없었다는 울분을 얘기하셨다. 그리고 3·1 운동 때의 말씀도 하셨는데 중앙학교에서 모의하던 얘기를 하셨다. ‘3·1 운동이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난 줄만 알고 있지? 사실은 중앙학교에서 시작된 거야. 계획도 세우고 유인물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거 한 집이 바로 저 집이야!’ 하고 우리학교 숙적실을 가리켜 주셨다. 이렇게 인촌 선생은 중앙학교가 민족주의의 본거지임을 일깨워 주셨고 우리는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117) 김승문(金勝文)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년, 360쪽)

“당시 변호사들 중에 독립운동 사건을 맡을 경우 남몰래 무료 변호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김병로 이인 허헌 등이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변론비는 동아일보에서 은밀히 대주는 경우가 많았다. 인촌은 그 사실도 감추었다. 그리고 인촌은 수많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면서도 기록을 하거나 겉으로 나타내지를 않아 누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는 당사자들 밖에는 모른다. 일제시대 그의 도움으로 공부를 한 장학생 수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제외하고, 전문학교 대학생(국내와 일본) 약 680명,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유학생 50명 등 약 73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고 집계되고 있다. 그렇게 인재를 아끼고 도와준 이는 일찍이 없을 것이다.”

(5) 동아일보 발행 통한 언론 투쟁

118) 최두선(崔斗善) 중앙학교장, ‘동아일보 창간 경위’

(동아일보, 1960년 4월 1일자 4면)

“김성수 씨는 그때까지는 교육사업에만 전심해서 그 때 중앙학교를 경영했고 그 후에도 전문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에만 전심하려고 하는 분인데 여러 동지들이 모두 권하기를 학교도 급하지만 이것은 당장 급한 일이니 또 마침 관청이 민간신문을 한두 개 허락한다는 틈에 애국진영, 민족진영에서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고했어요. 김성수 씨는 주저하고 내가 신문에 생소하고 뿐더러 그러자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있어야 될 텐데 간단하지 않다고 사양했지요. 그 때 어떤 이가 권했느냐하면 신문계의 대선배라고 할 유근 선생…(중략)… 또 당시엔 젊었지만 신문계에서 이름 있는, 다시 말하면 편집경험이 있는 이상협 씨가 있습니다…(중략)… 이 분들이 권유하고 내가 다소 중간에서 심부름한 셈이지요. 김성수 씨에게 설명도 해드리고 요새로 말하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이상협 씨가 만들어온 것을 말해 드렸지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같이 그 얘기를 해서 결국 김성수 씨도 솔깃해졌어요. 그러면 좌우간 힘 좀 쓰겠다고 해서 창간을 발기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총독부에 발행인 겸 편집인에 이상협, 인쇄인에 이용문 씨 명의로 기미년 10월에 허가신청을 냈는데 그 허가가 그 이듬해인 1920년 1월에 나왔습니다.”

119) 이강훈(李康勳) 전 광복회장 ‘동상 제막식 추모사’

(‘인촌기념회사’, 1992년, 14쪽)

“만주로 망명한 후 나는 주로 백야 김좌진 장군의 지도 아래 재만 한인들의 독립운동의 전위로 활약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운동가들에게 인촌 선생이 이끄는 동아일보는 마음의 안식처요, 우리를 음양으로 돌봐주는 후견인이었다. 동아일보가 있기에 우리 민족도 할 말을 하고 살 수 있고, 답답할 때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120) 김성수(金性洙) ‘難關은 두 가지’

(‘別乾坤’, 1927년 2월호, 12쪽)

“정신상 고통이야 일반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신문은 원래 민중을 상대로 하는 기관인 동시에 일방으로 당국의 감독이 많은 기관입니다. 그럼으로 더욱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민중의 의사와 시대에 적당하도록 언론을 발휘하려면 당국의 주의가 많고 당국의 주의를 많이 받는 범위 이내의 언론으로만 하면 민중이 환영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차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문을 어찌서 허가한 것인가라고 하여 그 비판의 목소리는 매우 강했습니다.”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미공개자료 조선총독부관계자

녹음기록,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2002년, 해안, 163쪽, 총독부 정무총감 다나카 다케오의 증언)

*** 1차 사장 시기 (1920년 7월~1921년 9월)**

- 1921년 8월 백두산에 기사를 특파했다. 사회부 민태원(閔泰瑗) 기자와 사진기자가 북청 혜산진을 경유, 백두산에 올랐다. 민 기자는 '白頭山行' 제하의 등반기를 8월 21일부터 18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권덕규(權惠奎)의 '조선 역사와 백두산'이란 강연회를 가졌다. 민 기자는 백두산등산 보고 강연회를 열고 30여 장의 백두산 실경 사진을 환등기를 동원, 일반에 공개했다.

*** 2차 사장 시기 (1924년 10월 21일~1927년 10월 21일)**

- 창간 직후(1920년 4월 11일자) 단군 영정 현상공모 社告를 냈던 동아일보는 1926년 3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77회에 걸쳐 '단군론-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방문화의 연원'이란 최남선의 논문을 연재했다. 이 기획은 1926년 2월 당시 총독부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협회의 기관지 '文教의 朝鮮'이란 日文 월간 잡지 2월호에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장 오다(小田省棼)의 '소위 단군 전설에 대하여'란 논문이 나오자 동아일보가 2월 11, 12일 양일에 걸쳐 '단군 否定 畵'이란 사설을 통해 이 논문의 이면에는 계획적인 조선정신 말살 음모가 숨어 있다고 통박한 뒤 나왔다. 단군에 대한 동아일보의 관심은 1934년 1월 시작된 평안남도 강동군 강동읍 단군릉 수축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계속됐다. 배달소년까지 참여, 228원을 각출하는 등 전 국민 모금운동에 나서 500원의 성금을 단군릉 수축 기성위원회에 전달했다. (동아일보, 1934년 1월 12, 13일자, 2면)

- 1926년 7월 중순에는 최남선 박한영을 백두산에 보내 7월 28일부터 1927년 1월 23일까지 89회에 걸쳐 백두산 참관 기행문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 "총독부 경무국이 남긴 비밀 자료집에 수록된 연도별 압수기사 건수를 보면 김성수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가장 많은 압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기간에는 다른 신문도 다 같이 압수 건수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김성수의 경영 기간에 항일 논조가 더 강화되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성수는 이와 같이 어려웠던 시기에 신문사를 이끌었던 것이다." (정진석, '評傳 仁村 金性洙', 동아일보사, 1991년, 325쪽)

121) ‘윤치호 일기’ (김상태 편역, 2001년, 역사비평사)

(248~249쪽) 1923년 11월 4일 일요일

최남선 군이 10시 30분쯤 찾아와 1시간 30분 동안이나 시대일보를 발행할 수 있게 현금 3만원을 대달라고 성화를 부렸다. 그는 요즈음 자금시장이 얼마나 경색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그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자기의 요구를 되풀이했다… (중략)… 최군이 신문을 발행해 이윤을 남기는 데 실패할 게 뻔하다. 그가 동아일보를 능가하는 반일적 논조를 펴는 걸 일본인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반일적인 논조에서 동아일보에 뒤처지면, 조선인들은 그의 신문을 성원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가 동아일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발행부수 면에서 동아일보를 누르지는 못할 것이다.

(350~351쪽) 1935년 10월 2일 수요일

일본인들에게 시정 25주년은 당연히 경사스런 축전이다. 하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수치스런 행사일 수밖에 없다. 일본 신문들은 지난 25년 동안 총독부가 이룩한 경이적인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로 지면을 가득 메웠다. 그런가 하면 조선인들이 경영하는 신문들,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는 지난 25년 동안의 각종 통계는 물론이고, 일련의 기념행사에 관한 소식조차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468~469쪽) 1940년 7월 31일 수요일

김종찬의 말로는, 1~2일 전 두 명의 조선인 청년이 자기를 찾아와 오는 8월 10일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다고 말하더라. 이 청년들은 방바닥을 땡땡 내리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소리 내 울더라.

1940년 8월 11일 일요일

어제 저녁 조선의 두 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호를 발행했다. 두 신문의 폐간으로 조선인들이 깊은 상처를 받을 게 틀림없다.

122) 金日成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전 8권)

(1권, 65~66쪽) “나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비밀연락을 자주 다녔다. 언제인가는 포평주재소에 갇힌 애국자들에게 옷과 음식을 차입해준 적도 있다. 내가 제일 많이 다닌 집은 우편물위탁소였다. 아버지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 잡지들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을 그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형권 삼촌의 이름으로 동아일보 지국을 맡아 보았는데 수입은 따로 없었지만 신문은 그저 얻어 볼 수 있었다…”

(90쪽) “내가 조국으로 돌아온 그 해(1923년)는 평양지방에 전염병까지 퍼져서 시민들이 모진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홍수의 피해를 입은 온 도시가 형용하기 어려운 곤란

을 당하였다. 동아일보는 그 해 홍수로 인한 참상을 전하면서 평양 시내 총호수의 절반에 달하는 1만여호의 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하였다.”

(184~190쪽)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유격대에 여장군들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여성이 조선에는 없었다. 고보시절에 수놓이나 재봉 같은 것만 배우던 책상물림의 녀자들인데 그 처럼 용감하고 담력이 있었다. 한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리관린을 두고 굉장히 떠들었다.”

(2권, 36쪽) “나는 그 때(1930년 6월) 카룬에 가서 진명학교 교원들인 류영선과 장소봉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장소봉은 진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동아일보 지국장의 일도 겸하여 보았다…장소봉은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려고 장춘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전향하였다. 한 때는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188~190쪽) “나는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위원장이며 《농우》의 주필이었던 최일천의 집에서 몇 주일씩 유숙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를 최천, 최찬선이라고도 불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찍혀진 최형우라는 이름은 해방 직후 서울에서 저술사업을 할 때 사용한 그의 필명이다. 오가자에서는 그가 제일 개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김혁처럼 시는 짓지 않았지만 뛰어난 산문가의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유로 여러 해 동안 장춘에 나가 비밀공작원활동을 하면서 동아일보 지국장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 과정에 우리에게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좋은 글을 써서 투고도 자주 하였다.” 최일천은 일본정보계통이 주목하는 《요시찰인》이었다. 그가 맡아보는 동아일보지국의 출입문 밖에는 매일같이 일본 헌병들과 밀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당번을 썼다. 적들이 최일천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장춘에 나와서도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며 국내 애국인사들과의 밀접한 연계 밑에 우리에게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 그는 반제청년동맹조직을 통하여 직접 육성한 여러 명의 핵심청년들을 항일유격대에 보내주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반영된 재만 조선인들의 민족해방투쟁 실상과 그것을 유감없이 구사한 활달하고도 격정적인 필치는 바로 이상과 같은 혁명실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수련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일천은 심양과 베이징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에 나와 국내의 저명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전과를 소개하였다. 조국광복회가 결성된 후에는 그 강령도 해설해주었다. 그의 선동에 따라 이극로 선생이 지도한 조선어학회와 민족운동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와 민족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일천은 일본 관헌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해지자 동아일보 지국의 일을 할 때 만주 각지를 돌아다니며 손수 수집해놓았던 우리의 투쟁자료들과 독립운동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나와 당시 조선어학회를 책임지고 있던 이극로 선생에게 그 자료들을 모조리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우리가 오가자에서 발간한 《농우》잡지 묶음도 있었다. 《이것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 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역사 서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최일천은 이런 부탁을 남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해방 직후 이극로 선생이 자기의 부탁을 받고 소중히 보관해온 자료들을 넘겨받

아가지고 단숨에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써냈다. 그 책은 파지를 모아 제조한 모래알까지 섞인 재생지에 인쇄된 것이었으나 구독자들이 너무 많아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백지에 전문을 베껴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탐독하는 인기 도서로 되었다.”

(199~200쪽) “나는 이러한 과제를 간도 로정의 첫 단계 사업목표로 정하고 동만으로 가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고유수에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류봉화 최득영과 함께 장춘으로 나가다가 밀정의 고발로 반동 군벌당국에 체포되었다. (1931년 3월 26일자 동아일보 2단 보도)…장춘으로 이송되어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하였다. 내 생애에서의 세번째 감옥살이였다.”

(308쪽) “우리 부대는 직업과 지식정도 출신지역과 출신조직이 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출판물들과 중학강의록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면서 꾸준히 눈을 틔워온 청년들이 있는가하면 장광자의 《소년방랑자》나 최서해의 《탈출기》와 같은 소설작품들을 읽고 사회개조의 푸른 꿈을 키워오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학교물은 조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적위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에서 몇 해 동안 정치적 수련을 쌓아오다가 총을 한 자루씩 얻어가지고 무장대오에 들어온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물현상을 이해하는데서 자연히 수준상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4권, 113쪽) “나도 길림시절에 조선일보 지상에서 (동아일보의 잘못, 동아일보 1927년 1월 5일자 2면 보도) 간디의 편지를 읽고 박소심과 함께 무저항주의를 논평한 적이 있다. 그 편지의 원문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나이다. 내가 보낼 유일한 부탁은 절대로 참되고 무저항적인 수단으로 조선이 조선의 것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1926년 11월 26일 사바르마티에서.”

(5권, 56쪽) “우리가 서간도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에 국내에서는 일장기말소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 소식이 백두산 밑에 까지 날아왔다. 이 사건의 발단으로 된 것은 신문 동아일보가 1936년 8월에 베를린에서 있던 여름철 올림픽 경기대회 마라톤 종목의 1등 수상자인 손기정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의 앞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이였다. 노발대발한 총독부당국은 동아일보에 정간처분을 내리고 그 관계자를 구금하였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손기정의 경기 성과와 일장기말소사건을 소개하는 강연을 하였다. 우리 부대의 모든 대원들은 강연을 듣고 동아일보 편집집단이 취한 애국애족적인 립장과 용단에 열렬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었다.”

(6권, 55쪽) “그 당시 사령부에는 동아일보 만선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외의 신문들과 <레닌주의 제 문제><사회주의대의><국가와 혁명> 같은 책자들을 비롯하여 식견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출판물이 수두룩하였다.”

(176쪽) “해와 달도 빛을 잃어가던 조국 땅에 있어서 보천보 밤하늘에 타오른 불길은 민족의 재생을 요구하는 서광이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인상적인 표제를 달고 보천보 전투 소식을 전하였다.”

(8권, 394쪽) “1938년말에 동아일보는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적색연구회라는 비밀결사가 있었다는 혐의로 그 연루자들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실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화국의 초대 교육상이었던 백남운도 적색연구회의 조직성원이었습니다…(중략) 우리는 내각을 조직할 때 백남운을 첫 교육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한때 과학원 원장도 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였는데 일을 아주 양심적으로 하였습니다.”

(400쪽) “왜정말기 국내에서 민족의 넋을 고수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인 조직가운데는 조선어학회도 있습니다. 이극로의 말에 의하면 조선어학회는 1930년대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어연구회라는 것은 그 전신입니다. 조선어학회가 소문도 없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어학회가 조직된 후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온전한 조선말사전이 없었습니다…(중략) 조선어학회 내부에는 우리의 조직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극로를 비롯한 선각자들을 망라한 비밀지하조직이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일천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극로를 찾아간 것이 1936년 가을과 1937년 여름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조직에서 그에게 국내 지식인들 속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 과업을 주어 파견하였습니다. 최일천은 장춘에 있는 동아일보 지국장으로 서울에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123) 이희승 선생

‘인촌 선생 밑에서 배우고, 일하고’

(一石 李熙昇 全集 9, 창작과 비평사, 1996년, 38쪽)

“경성방직 창립 준비가 끝나갈 무렵 동아일보 창간 준비도 착수됐다. 이 일이 시작되자 양기탁 선생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 설산 장덕수씨의 중형인 장덕준 선생은 계동 인촌 덕에서 나와 숙식을 함께하며 일했다. 결핵을 앓고 있던 장덕준 선생은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다 길에서 각혈을 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창립을 위한 목록견서도 내가 쓰게 되었다.”

(6) 경성방직 설립

124) 조기준(趙璣濬)

‘한국자본주의 발전사’ (대왕사, 1991년, 288~289쪽)

“3·1운동 이후에 근대 기업계에서 활동하는 지방의 대지주 및 상인의 기업의식과 행태를 보여 주는 적절한 모델로써 경성방직주식회사 설립을 들 수 있겠다. 이 회사의 설립의 동기

와 목적, 주주의 구성 및 회사운영의 방식 등은 바로 1920년대에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민족주의 사상의 발현이라고 하겠다. 경성방직회사가 설립되는 배경을 보면 을사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일본 공장 면포가 이미 도시와 농촌에서 면포의 구 생산기반을 잠식했고, 또 1917년에는 일본 중외산업계의 방직자본이 한국에 진출하여 부산에 조선방직회사를 설립시켰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민족계 자본에 의한 방직공장 하나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식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시기에 민족계 방직회사 설립을 강력하게 밀고 나온 사람은 김성수와 이강현이었다… (중략)… 경성방직은 지방의 대지주와 거상이 주축이 되면서 전국에서 군소지주들도 다수가 주주로 참가하였다. 경방 창립자 김성수는 이 회사를 민족의 기업체로서 설립코자 전국에서 뜻있는 사람이 다수 참가해 주기를 바라면서 전국을 유세했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이 회사는 군소주주 182명의 참가로 이들이 전체주주의 62.9%를 점하고 있어 명실공히 민족의 기업으로 출발한 것이다… (중략)… 일본인 자본이나 일본인 기술자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전적으로 민족의 자본과 기술로 설립, 운영된 것이다. 경방의 제품은 태극성, 농구, 불로초, 산삼, 삼신선, 천도 등 한국 민족이 즐겨 쓰는 명칭의 상표를 택했고, 민족기업제품의 애용에 호소하여 주로 경기와 관서, 관북지역에서 시장을 개척했다. 경방은 민족의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민족의 힘으로 육성되어 성공을 거둔 1920년대 민족기업의 전형적 모델이라 하겠다.”

125) 주의종

‘대군의 척후-일제하의 경성방직과 김성수, 김연수’

(푸른역사, 2008년, 131~134쪽)

“경성방직의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김씨가 농업 부문에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그 대안으로 공업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1920년경 이후 쌀값 하락으로 지주경영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김씨가 그 대책으로 일부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중략)…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매우 도식적이고 기계론적인 오해다. 김성수에게 이윤은 주요한 동기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집안의 지주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서울에서 중앙학교와 경성직뉴의 인수, 경영, 이어서 경성방직과 동아일보사의 설립 작업에 매달렸는바, 가업인 지주경영에 관여할 겨를이 없었거니와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민했던 흔적도 없다. 또 이 활동들은 수익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벌인 교육사업, 언론사업, 방직사업은 당시로서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까먹는 일이었다. 그와 그의 집안이 수익성만을 중시했다라면 다른 많은 지주들이 그랬듯 아예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도 그의 활동들은 지주경영의 수익성 저하와는 무관했다. 그가 교육 및 기업 활동에 나선 1917~1919년에는 쌀값이 해마다 올라서 지주경영의 수익성이 갈수록 높아졌고, 경성방직과 동아일보사가 설립된 후에 지주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중략)…당시 한국인 대지주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한국인 대공업가는 매우 적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경제논리로 보아 공업투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으며, 토지가 여전히 최고요, 왕이었다…(중략)…따라서 김성수가 경성방직을 설립한 것은 기존 지주경영의 수익을 저하라는 요인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던 근대화 이념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문명개화

와 실력양성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에 유학하며 근대문명의 위력을 절실히 체험했다. 그는 날로 발달하는 일본의 공업을 보고 조선의 장래도 결국은 공업화에서 구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은 그를 앞당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근대화론자가 되었으며, 그래서 중앙학교, 경성직뉴의 인수, 경성방직과 동아일보사의 설립에 나선 것이었다. 근대화라는 시대의 대세에 들어맞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것이었지만, 당장은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경성방직의 설립은 그 이념적 동기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26) ‘경방 80년, 1919~1999’ (경방, 1999년, 74쪽)

“김성수는 상표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므로 도안은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아이디어만은 회사에서 내놓아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태극무늬를 제시하였다. 태극무늬 천으로 만든 전주지방의 태극선 부채처럼 상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태극’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기에 들어 있는 나라의 상징이자, 민족혼의 상징이므로 경성방직의 설립 정신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5. 추모의 글

127) 한국일보 1955년 2월 20일자 사설,

‘인촌 선생 서거의 비보를 듣고’

인촌 김성수 선생이 가시었다. 몇 해째 숙환으로 신음하신다 하였지마는 다시 재기의 날을 기다려 파란 많은 조국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려니 했더니 그날을 보시지 못하고 홀연히 가시었다. 가신 선생의 한도 깊으시려니와 민족의 거성을 잃은 우리의 비운은 또 어떨다 할 것인가. 선생의 생애가 오로지 민족정기의 발양으로 시종하였고 선생의 유풍(遺風)이 그윽히 이 땅에 훈향(薰香)을 남기고 있음을 누구 하나 모를 이 없다 하지마는 가신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 그지없는 까닭에 그 빛나는 일생을 또다시 돌이켜 흠양(欽仰)하는 것이다. 이 땅을 짓밟은 일제의 폭정에 항거함에 선생은 먼저 인재의 배양에 착안하시었으니 남다른 선각(先覺)은 벌써 여기에 시작되었었다. 학창을 나오시자 정혼(精魂)을 기울이신 중앙고보와 뒤이어 경영하신 보성전문이 이 나라의 동량을 배출하기 그 얼마였으며 깜박이는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 앞날의 희망을 불어주기 그 얼마였던가. 우리 최대의 교육가로서의 선생은 또한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 길이 불멸의 위치를 쌓으신 것이다. 일제와의 투쟁은 비단 저들에 대한 정면의 항거만으로 될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인의 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으로써 저들에 대항할 강인한 실력의 축적이 급선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선생은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창설하여 민족 산업 육성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 손으로 된 최고의 근대적 생산시설이 바로 이것이었으며 우리에게도 이 역량과 이 경륜 있음을 내외에 밝히신 선생은 또한 경제의 일면에서도 출중한 민족의 지도자이시었던 것이다. 선생은 교육과 경제와 아울러 일제와 투쟁하는 최대의 무기로 언론을 택하시었다. 그 창간하신 동아일보가 갖은 탄압에도 불굴하며 과감하게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고 형극의 길을 걸던 2천만 동포의 울분을 대변해 주었던 것은 우리 민족운동사의 찬연한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이려니와 이 웅혼한 설계가 선생의 흥금에서 나왔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며 여기에 선생의 숭고한 거보를 또 한번 추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미 이후 격동하는 난국에 서서 택할 수 있는 온갖 부면(部面)에서 의연히 민족의 선두를 걸어 오셨고 초지일관 어떠한 유혹에도 눈을 돌리신 일이 없는 선생의 족적은 해방 후에도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셨다. 전통적인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한국민주당 창건에 진력하시고 오로지 반공, 반탁, 어지러운 정국에 뚜렷한 지표를 밝히셨으며, 정부 수립됨에 제2대 부통령으로서 국정의 혼미를 광정(匡正)하려는 일념에 불타셨다. 병석에 누우신지 3년, 오직 국가의 장래를 근심하시다가 드디어 가신 것이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장자(長者)의 풍(風)과 국사(國士)로서의 자취는 비록 가신 후에도 한민족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 깊이 사무쳐 있는 것이다. 길이 본받아 선생이 이루지 못한 민족의 과업을 우리 스스로 성취함으로써 선생의 명복을 빌자는 것이다.

128) 경향신문 1955년 2월 20일자 사설, ‘弔 인촌 김성수 선생’

전 부통령이며 민주국민당 최고 고문 인촌 김성수 선생이 18일 하오 5시 25분 졸연히 장서(長逝) 하시었다. 피난 당시부터 연래(年來) 고생하던 속환으로 인하여 약석(藥石)의 효(效)도 없이 다사다채(多事多彩)한 일생의 막이 고요히 내려지고야 말았다. 선생은 현재 야당 진영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가 정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실로 큰 것이었거니와 그보다도 육순유오(六旬有五)의 그 짧지 않은 전 생애를 통하여 종시일관(終始一貫) 민족운동의 최선봉으로 정신하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정기의 고수에 분골쇄신하심으로써 실로 전 민족적 찬양을 일신에 모으고 계시었던 것이다. 이제 뜻하지 않게 선생을 잃으니 새삼스러이 선생의 존재가 더욱 컸음을 느끼면서 모두가 공허로 돌아드는 듯도 하다. 일찌기 전북 고창에서 생을 받으신 선생은 큰 뜻을 품고 부급(負?) 도일(渡日)하여 이역의 찬별 아래서 형설의 공을 쌓고 고토(故土)로 돌아오시자 그 남달리 부유한 환경 속에서의 안일을 마다하고 감연히 포악한 일제와 겨루어 형극의 길에 발을 들여 놓았던 것이다. 우선 육영에 뜻을 두어 중앙중학의 경영을 떠맡으시었고 그 뒤 또 보성전문의 경영을 인수하였던 것이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원대한 사려에서 다음 세대를 등에 걸머지고 나아갈 유위(有爲)의 인재들을 배출케 하려는 민족 백년의 대계에서였음은 구태여 말할 것까지도 없는 일이라. 선생이 맡으신 이래 양교(兩校)의 문운(文運)이 융창해졌을 뿐 아니라 그 문하에는 선생과 뜻을 같이 하는 일세(一世)의 일재(逸才)들이 수없이 모여들어 민족운동의 한 추진력이 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이것만으로써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니와 일본의 경제적 잠식을 그대로 앉아서 멀거니 바라다 볼 수만도 없어서 경성방직회사를 설립하시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고 최대의 공산(工産) 기관인 동시에 또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은 민족의식의 양양 그것을 잊지는 않았다. 경성방직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태극성’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또 그 제품에는 민족의 얼이 엷히어 있어 다른 일인(日人) 상사의 제품보다 월등하게 우량하였던 것도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선생은 또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않았다. 이번에 의도하신 것은 일제에 대한 정면으로부터의 과감한 항거 그것이었다. 그것이 동업 동아일보의 창간이었다. 한민족의 입장에서 곳곳이 서서 일본의 식민지 시정을 완부 없으리만큼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규탄하였던 것이다. 이 대담무쌍한 필진에 대해서 일제는 연거푸 정간으로써 탄압을 가중하다가 중일전쟁이 방농(方濃)한 1940년 8월 11일 드디어 폐간의 최후 수단을 내리고 만 것이다. 이처럼 일제 당국자들은 선생 및 선생의 사업을 악독하게 탄압하였지만 일아성(一牙城)을 형성하고 있는 선생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라고 없었다. 물론 처음에는 선생에게 대한 일제의 위협과 공갈이 설 줄을 몰랐다지만 그러나 끝끝내 백절불굴하는 그 고절과 덕망에는 그들의 머리가 수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선생에 대하여 회유의 올가미를 씌워보려고도 하였지만 그러나 선생은 이를 일축하고 고절을 지켜왔던 것이다. 선생이 오랜 세월을 두고 몽매에 그리던 8·15 해방이 찾아들자 그 혼란한 와중에서 선생은 국내의 민주민족 세력을 규합하여서 한민당을 조직한 다음 그 초대 위원장으로서 반공건국투쟁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민족적 대동단결이 언제나 염두에서 떠나지 않았던 선생은 한민당의 문호를 개방하여 민국당으로 개편한 다음 서슴지 않고 제2선으로 물러앉는 아량을 가졌었다. 또 한편 제2대 부통령으로서 민주 발전에 기여하려고 심로(心勞)한 바도 많았었다. 그러나 이제 선생은 홀연히 가시었다.

비록 선생이 불귀의 객이 되어 이 땅에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단성(丹誠) 어린 피와 땀으로 이룩하여 놓은 공든 탑은 길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민족사의 한 모퉁이를 현란하게 장식하리라. 더욱이 선생은 만년(晩年) 신앙의 길을 닦아 오시다가 임종에 앞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편안히 천주께 귀의하시었다. 영광의 십자가를 가슴에 굳게 안고 조용히 숨을 거두신 그 거룩한 임종은 수난의 일생을 더욱 빛나게 한다. 위대한 민족지도자를 영결하려 할 때 애도의 애정(哀情)을 무엇으로 표할지 모르는 바이나 다만 선생의 위대한 민주민족의 지도정신을 본받아 이 거래의 통일과 발전을 선생의 뜻대로 반드시 성수(成遂) 할 것을 맹세하는 바이다.

129) 평화신문 1955년 2월 20일자 사설, ‘故 인촌 김성수 선생을 뜻함’

(1) 시(時) 을미 2월 18일 하오 5시 25분 큰 별은 한국에서 떨어지다. 우리나라 제2대 부통령 인촌 김성수 선생이 65세를 일기로 크게 왕생하신 것이다. 선생은 일찌기 한말 다단(多端)할 시기에 탄생하여 국민적 조고여생(早孤餘生)으로 약관에 해외로 부급(負?)하여 적에게 일지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통함원(忍痛含冤)해가며 수학하는 일방 고국의 영걸을 교결(交結)하여 후일의 사업을 준비하였으니 선생 선견(先見)의 밝음과 후사주비(後事籌備)의 치밀함이 벌써 그때부터 영단(?端)을 보였던 것이다. 아무리 외적의 침략으로 사직(社稷)이 강로(強虜)의 마제(馬蹄) 아래 유린되었다하여도 유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는 민족이 반드시 기반(羈絆) 벗는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한 선생은 그날에의 예비로 조대(早大) 정치경제과에 적을 두었으니 어찌 후일의 청운(靑雲)을 뜻하였음이라. 후진들을 그 길로 계도키 위함이었으니 해외에 수학한 자 모두 귀향하여 권문세가의 뒷문을 두드리지 않은 이 적외 선생은 오죽 지기(知己) 고하 송진우 씨를 비롯한 몇몇 동지와 중앙학교를 개설하고 몸소 교단에 올라 목메도록 외쳤으니 고인(古人)의 말한 대로 ‘환규곤상(桓圭袞裳)이 부득위영(不得爲榮)이오 유덕피사해(唯德被四海)하고 공급후세(功及後世)’라던 그 심경을 그대로 펴던 것이다. 선생은 시무(時務)에 통하는지라 영재(英材)의 배양이 천일(千日)의 양병(養兵)보다 더욱 뜻있음을 예각(豫覺)한 것이니 어찌 용속(庸俗)한 유자(儒者)의 규예(窺?)를 용허(容許)할 바이랴. 시(時) 이롭지 못하매 몸을 숨겨 육영에 힘쓴 것이니 ‘선굴자(善屈者)는 선신(善伸)’이라던 나옹(奈翁)의 말을 그대로 실천함이라 이것이 후일의 ‘선신(善伸)’을 준비한 것임은 더 말할 것이 없는 일이었다.

(2) 시운(時運)이 우리 민족의 일어날 바를 가르쳐 제1차대전은 종결을 고하고 민족자결의 사조(思潮) 육합(六合)에 팽배하여 3·1의 큰 움직임이 생김에 강로(強虜)도 어쩔 수 없어 회유의 방책으로 언론의 기회를 주니 선생은 고난을 무릅쓰고 동아일보를 창설하였다. 이는 오로지 제한된 범주에서나마 민족 의사를 외부에 발양하고 국민의 갈 길을 내부에서 계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혈(熱血)의 튀는 곳 성곤(誠摺)의 사무치는데 어찌 번포(藩圃)의 제약에 구애될 것이라. 동아일보는 일제의 압수와 정간이 십지부족(十指不足)한 바 있었고 마침내 전쟁준비로 단말마 경에 이른 일제는 폐간까지 시킨바 있었다. 그러나 그 형극의 20년, 고난의 일대는 마침내 몽매한 국민으로 하여금 지향할 바를 가르쳤고 어리석은 후진으로 하여금 시대성을 깨우치게 하였으니 유형(有形)한 공적보다 무형(無形)한 이바지가 국가

와 민족에게 많았음은 새삼스레 말할 바 아니다. 선생은 중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 줌이 간난(艱難)한 국보(國步)를 부드럽게 여(啓)는 바임을 알은 지라 그 사업에 착수하려면 먼저 자신이 세계적으로 안목을 넓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구미 시찰의 길에 올랐으니 이는 부가 용식(富家庸息)의 허영적 만유(漫遊)와 그 본질이 달랐던 것이다. 미영(美英)의 시찰을 마치고 온 선생은 중앙학교 이외에 새로이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식으로 조직과 외모를 갖추어 금일에 이르니 이것이 곧 오늘의 고려대학이다. 이래 23년간 중견 이상의 총재(聰材)를 해마다 사회에 보내니 그 공적이 어찌 큰 바 없다 하리오. 선생은 천성이 온화후덕하여 벌공양신(伐功揚身)을 싫어하고 오직 자자근근(孜孜勤勤) 민족과 방가(邦家)를 위하여 도움 되는 일만 하였으니 어찌 하루아침의 작심이나 한두 해의 수양으로 될 바이라. 오로지 그 천성의 시키는 바임을 다른 자 가히 알 수 있는 바이다.

(3) 태강즉절(太剛則折)은 천하의 정리(定理)라 마침내 일제 패망하여 돌아가고 고국의 맑은 하늘에 태극기 다시 나부끼게 됨에 민중은 막연한 감격과 궤도 잃은 흥분에 날뛰어 그칠 줄을 모르며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펴고 탁치를 운운함에 선생은 그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상아의 탑을 나서서 개연(慨然)히 동지를 모아 정당을 만들고 군정을 달래기도 하고 길항(拮抗)기도 하였으니 평소 선생의 족적으로 보아 어찌 정권으로 식지(食指)가 움직인 노릇이라 하라. 중도에 국민이 우매하여 동지 고하(古下) 설산(雪山)을 뺏어가니 할 수 없어 자편(自鞭)해야 정계로 나왔으니 이는 다만 위국위족(爲國爲族)의 핏진(逼眞)한 일념이 마침내 선생을 끌어 내린 것이다. 고(故) 성재(省齋) 이시영 옹이 노환으로 부통령을 사임하매 재삼 사퇴하였으나 사세(事勢) 선생을 놓지 않는지라 부득이 부통령에 나아가니 노(老) 대통령의 번거로운 금회(襟懷)를 덜어드리고자 함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시세(時勢) 국가에 불행함인지 선생은 환후가 생겨 더 감당할 수 없어 불과 1년에 사임하니 선생은 담연(淡然)한 심경이었을 것이나 방가(邦家)로서는 불행이 더할 수 없는 바였다. 그러나 상자(床茲)에 위신(委身)하여도 선생 계심으로서 국민은 미더워 하였거늘 이제 거연(遽然)히 영서(永逝)하시니 노(老) 대통령은 좋은 반려를 잃은 바이며 더욱이 대통령이 ‘인촌은 먼저 갔고나…’ 탄식하여 ‘비부인지위통(非夫人之僞慟)이오 이유위지(以誰爲之)리요 하던 고인의 그것을 방불케 하니 국민들은 더욱 애도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130) 자유신문 1955년 2월 20일자 사설,

‘김성수 선생의 長逝를 애도’

한국민족운동의 선구자이요 전 부통령이던 인촌 김성수 선생은 오랫동안의 숙아(宿?)로 18일 오후에 향년 65세로 장서하였다. 선생은 전북 고창에서 출생, 약관에 일본에 유학하여 조대(早大) 정경과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교육계로는 중앙고보를 창설, 고려대학을 인계하여 다수한 총준(聰俊)을 양성하였고 언론계로는 동업 동아일보사를 경영하여 일제의 탄압하에서 꾸준히 싸웠으며 실업계로는 경성방직을 경영하여 민족적 산업 자주에 이바지 하였었다. 8·15 해방 후 공산당들이 나라를 그르치려할 때에는 의연히 민족진영을 고수하여 구국투쟁에 힘쓰다가 1951년에 고 이시영 선생의 뒤를 이어 부통령으로 취임, 위난한 조국 광구(匡救)에 힘썼으니 선생의 일생은 실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바쳐왔던 것이다. 부통령 재직 중에 애국의 일념으로 숙야자자(夙夜孜孜) 한 것이 빌미로 숙아(宿?)를 얻어 사직, 오

래 병석에 누웠다가 마침내 회춘하지 못하고 장서(長逝)하니 우리 국민 된 이로는 누구나 애도하지 않을 이 없을 것이다. 향년 65세이면 천수로는 그리 요수(夭壽)라 할 수 없으나 조국의 국난이 서(?)치 못하고 외적과 내적을 퇴치하지 못한 이 때에 선생이 살아 있어 많은 일을 하여 주기를 기대하던 우리로는 국민적 견지로 보아 더욱 애도하는 바이다. 선생의 일생이 반일 민족운동에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인격은 고결 공정하여 일호의 사심과 공리를 떠났다는 점으로도 누구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던 바이다. 현하 통일, 민주독립이 우리 국민의 지상과업으로 요청되는 이 때에 민족, 민주진영의 통일전선 결성을 위하여도 선생과 같은 공정무사한 분의 일언일동이 대국(大局)에 영향 하는바 절대한 바인데 선생을 잃음으로써 오늘 손실을 무엇으로 보전할 것인가를 모를 바이다. 선생은 이미 장서하였으나 그 탐탐(耽耽)한 애국지성이 그대로 후인(後人)에게 남아서 통일대업에 도움이 되기를 심도(心禱)하면서 아울러 영령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131) 중앙일보 1955년 2월 20일자, 天地片片

사람의 공로와 치적 그리고 그의 인격은 그 사람이 이 사바(娑婆)와 사이를 달리하였을 때에 새삼스러이 인식하게 되고 또한 빛나게 된다. 더욱이 그분이 참다운 애국자였고 애족자(愛族者)였다면 그 죽음으로 하여금 더욱 애석의 감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해방 후 수많은 정객이 또는 일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명(一命)을 초개와 같이 돌보지 않고 악전고투한 애국자가 동족에게 저격을 받고 쓰러지거나 피난살이 노옥(蘆屋)에서 때묻은 새까만 이부자리를 유일한 유물로 하여 기세(棄世)한 애국지옹(愛國之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온 겨레는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왜 이리도 동포들은 그 분에게 무심하였나 하는 회오(悔悟)하는 심정을 이길 수 없는 감상에 젖었던 것도 사실이다. 18일 서거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경우 역시 그분도 확실히 이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특히 누다(累多)한 사재를 던져서 육영사업에 혹은 일제의 총검에 굽히지 않고 필봉으로써 대결할 우리의 언론기관을 세웠고 또한 끝끝내 사수한 영도자이었다. 해방 후 부통령의 요직에서 이 나라를 다스렸고 한편으로는 수많은 인재를 육성 배출시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 오늘 중추적인 위치에 서게 한 그분의 공적은 세상이 다 아는 뚜렷한 생(生) 기록이기도 하다. 그분이 정치적인 이념으로서 여인(與人)이었던 야인(野人)이었던 이는 차치하고 일상 검소한 생활양식과 나를 모르는 비(非) 이기(利己)의 위인이었거늘 또한 오랜 병석의 신음 끝에 울연히 영면한 위인일진대 어찌 우리들이 애도의 정이 없으리요. 한 사람 한 사람 가버리는 애국자와 애족자들, 이에 어찌 유감 아니 하리요.

132) 중앙일보 1955년 2월 21일자 사설, '김성수 선생의 서거'

인촌 김성수 선생은 장년(長年)의 숙환으로 인하여 지난 18일 65세를 일기로 하고 마침내 서거하였다. 선생은 고(故) 성재(省齋) 이시영 옹의 뒤를 이어 제2대 부통령으로 추대되었다가 재임 1년 후 스스로 그 직위를 사퇴하고 이래 난치의 질병으로 3년 동안 요양을 거듭하였으나 약석(藥石)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늘 그 장서(長逝)를 보게 된 것은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바이다. 선생은 일제 36년 동안을 고스란히 국내에 앉아서 겪어오며 음으로 양으로 종시(終始) 일제의 학정에 반항하며 투쟁해 온 열렬한 지사의 한 분이다. 선생은 사재를 쾌척하여 혹은 육영사업을 혹은 언론기관을 또 혹은 산업시설을 이룩하기에 실로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선생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이 그 어느 것이 국가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지성에서부터 우려나온 것이 아님이 없었음으로 36년간의 암흑시대에 있어 선생은 오직 하나의 광명(光明)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겨우 광복은 얻었으나 심각한 공산 침공으로 인하여 국토는 초토되고 그 위에 통일의 날은 아직 예기하기조차 어려운바 있어 국가 민생은 앞으로 더욱 다사다난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선생과 같은 공결(公潔)하고 고매한 우국의 사(士)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실로 일대한사(一大恨事)가 아닐 수 없다. 선생도 또한 국토의 통일과 민생의 안정을 보지 못한 채 거연히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길이 지하의 유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삼가 선생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33) 연합신문 1955년 2월 21일자 사설, ‘인촌 선생의 長逝를 뜻함’

오로지 조국광복을 위해 민족의 선각자로서 일관하여 온 인촌 김성수 선생이 65세를 일기로 한 많은 국토 위에서 지난 18일 별세하였다 함은 기보(既報)한 바와 같거니와 선생이 영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신의 안일과 가족의 걱정보다도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비원을 가슴에 안은 채 명목(瞑目)하였음을 볼 때 우리는 다시금 선생의 영면을 통한 애석해 마지않는 바이다. 선생은 포악한 왜정 탄압 속에서도 굴치 않았고 온갖 탄압과 대결하여 조국의 독립과 민족 실력의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늘날 조국 광복의 초석이 되는데 몸을 바치었고 양단된 국토의 수난 속에서도 북진통일로 완전독립에 선생은 몸소 선두에서 싸워 오다가 통일독립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 앞에서 떠났으니 선생의 한 많은 애국지정(愛國之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애끓는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는 바이다. 이제 선생은 비록 우리 앞에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선생의 그 높고 깊은 정신과 찬연한 업적은 우리 국가민족의 산 거울과 등불로서 우리나라와 겨레가 영속하는 한 영원불멸할 것이니 선생의 몸은 가도 선생의 뜻과 남긴 열매는 한층 더 날이 갈수록 새로워 질 것이다. 선생은 간악무도한 일제와 정면으로 싸우는데 ‘교육 경제 언론’의 3대 무기로서 항일투쟁을 하여왔으니 우리 민족이 망국의 한을 씻는 단 하나의 길은 인재의 양성과 자급경제의 확립에 있으며 불타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면 언론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선각자이었다. 선생의 영전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 한 분을 잃어서 유감이다’라고 말한李大통령의 심회는 정히 선생의 애국애족의 공적을 높이 찬양한 바로 우리는 선생의 영면을 슬퍼함과 아울러 선생의 남긴 뜻을 받들어 조국의 앞날을 반석 위에 빛나게 하는데서 비로소 선생의 명복을 비는 참 뜻이 있다 할 것이다.

134) 국도신문 1955년 2월 21일자 사설, ‘哀哭 인촌 선생’

민족의 선각자이고 대 경륜가이신 인촌 김성수 선생은 65세를 일기로 잠자듯이 장서(長逝)하였다. 그의 죽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같이 통절애절케 하는 것은 그의 인정과 성품이 범인에 탁월하다는 것 보다 그가 남긴 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한 족적이 너무나 큰 까닭일 것이다. 그의 일생은 너무나 고매하였고 청렴하였고 결백하였고 자애하였고 강의(強毅)하였다. 이 모든 우리가 택하고 따라야 할 인격과 생활은 또 오직 민족과 국가를 위함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고 그를 존경하는 바이다. 그의 일생은 정중동(靜中動)의 실로 조용한 가운데 큰 맥박이 움직인 진실한 정열과 감투(敢鬪)의 또 항쟁과 ‘디레탄’의 일생이었다. 남들이 가두에서 또는 직접 행동의 일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울 때 그는 냉정한 이지와 이성으로 크나큰 포부와 의욕과 희구를 가슴속 깊이 파묻고 오로지 민족의 광복과 국가의 회운(回運)을 위하여 밑받침이 될 육영사업과 산업발달에 힘을 기우려 왔다. 우리는 그가 부통령의 요직에 앉아 민족과 국가의 진흥 흥성을 위하여 일하고 노력하였다는 정보보다도 묵묵히 실로 묵묵히 민족과 국가를 위한 광고(曠古)의 대 이상을 안고 착착 그 하나하나의 실천을 꾀하고 일평생을 바치었다는 것을 더욱 흠모 존경하는 바이다. 그는 갔다. 그러나 그가 일생 걸어온 너무나 크고 거룩한 발자취는 우리 민족사에 길이 같이 남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찬연히 빛나라. 그는 정치에 치중한 지도자라기보다 정치의 기초가 되는 ‘경제 교육 언론’의 세 방면에 힘을 두고 일생 헌신하여 온 지도자이다. 그래서 오늘날 민족 자본 축적의 기초담이를 한 이도 그였고 수많은 영재와 일꾼을 길러내어 국가의 간성 동량으로 세상에 내보내어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일하게 만든 이도 그였고 언론기관을 통하여 민족이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하게 하고 우리의 주장을 주장케 한 것도 그의 공에 맡기는바 절대적이었다. 그는 일제시대에 있어서 민족 항쟁을 하는데도 항상 선진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 민족 전체가 그 민도가 향상되게 함으로써 민족 자주의식의 자연적 계발과 민족독립사상의 자연적 발발을 복돋는 것으로 그의 사명으로 하여왔다. 그는 항상 민족의 실리를 기하고 일해 온 지도자이다. 허세를 취한 적은 한번도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존재는 늘 동요 안 되고 확실하고 또 그 반면에 헛되이 빛나거나 한 부박(浮薄)한 존재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언제나 믿고 따르는 불변의 존재이었다 할 것이다. 그는 비분감개(感慨)로만 현실에 처하기보다 언제나 절망 가운데에서도 삶을 위하여 소생과 희망의 씨를 뿌려 온 지도자이다. 이제 그는 영면하였다. 그는 눈을 감기에 무척 괴로웠으리. 그의 기도하는바 크나 큰 포부와 다 못 이루어진 현실적 사정을 돌아볼 때 그는 임종에 있어서 한이 많았으리라. 그러나 그가 그린바 경륜과 포부는 반드시 개화될 것이다. 위대한 민족의 실리를 위하여 싸워 온 투사이고 지도자인 그가 남긴 족적은 그대로 민족의 앞날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하는바 크리라 믿는 바이다. 우리는 이제 인촌 선생의 장서의 비보에 접하고 복받치는 울음에 통곡하며 선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바이나 선생이 남기고 간 뜻을 받들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일할 것이며 선생의 민족 실리를 위한 대 목표인 경제 교육 언론의 발달과 진흥에 노력하고자 하는 바이다. 삼가 인촌 선생의 장서를 통곡하며 그의 영전에 민족의 이름으로 그의 남긴바 뜻이 민족과 국가를 위할 수 있게 실현될 것을 비는 바이다.

135) 충북신보 1955년 2월 21일자 사설, ‘인촌 선생 長逝를 弔함’

인촌 김성수 선생은 지난 18일 하오 5시 25분 65세를 일기로 서거하시었다. 피난 당시부터 고생하시던 속환으로 인하여 약석의 효과도 없이 이 민족이 슬펐을 때에 그도 슬퍼하였으며 이 민족이 즐거워할 때에 그도 즐거워했던 명실 그대로 민족 운명과 한 가지 한 그의 일생의 막은 고요히 닫혀지고 말았다. 선생이 민국 입후(立後)에 고(故) 성재(省齋) 이시영 선생의 뒤를 이어 제2대 민국 부통령이었다는 사실에서 선생을 추앙한다느니 보다 임종할 때까지 이 나라의 정계의 최고 지도자로서 민족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애태웠다는 점에서 또 육순유여오(六旬有餘五)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시종일관 민족운동의 최선봉으로 조국의 독립과 민족 정의의 양양을 위하여 정신하였었다는 사실이 그를 민족적 혜성으로 전 국민의 찬양을 일신에 모으게 하였다. 이제 뜻하지 않게 선생을 잃으니 다시금 선생의 존재를 더 한층 느끼게 되며 애달픈 심사를 금할 길이 없다. 일찌기 선생은 민족수난과 형극의 길이 시작되자 민족해방운동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민족 자제들의 육영사업으로써 중앙고보(현 중앙중고등학교) 및 보성전문을 창건 혹은 인수 경영하심으로써 이 나라의 유위(有爲)한 인재를 많이 길러 내었고 또한 민족 의사의 발표기관인 동아일보를 고(故) 고하 송진우 선생과 함께 창건 경영하심으로써 언론으로서 지독한 일제의 압정에 항의하여 민족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한 역경 속에서도 동아일보를 길러 낸 것도 인촌 선생의 가지가지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경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 땅이 해방 되었을 때에 국내의 반공민주세력의 총결정체인 한국민주당을 창설하여 열렬한 반공투쟁을 전개하며 한때 미군정고문회의장으로서 그 소신을 굽힘없이 시시비비로 협조하여 민족 영도자 이승만 현 대통령과 동일보조로 가능한 지역에서의 국제연합 감시하의 총선 실시의 터전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수립에 크나 큰 공헌을 하였고 또한 고(故) 성재(省齋) 이시영 선생이 부통령 자리를 물러남에 제하여 제2대 국회의 절절한 요망을 물리치지 못하고 부통령에 취임 후에는 민주발전에 기여하려 하였으나 뜻과 같지 않아 그 자리를 물러서는 동시에 민국당의 지도적 지위를 물러앉는 아량을 표시하여 제2선에서 이 나라 이 거래의 앞일에 대해서 항상 심로(心勞)하였으며 병상에서도 끊임없이 애태웠었다. 그러나 이제 선생과는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비록 선생이 불귀의 객이 되어 현세에 안 계신다고는 하나 그 단성(丹誠)어린 피와 땀으로 이룩한 공든 탑은 길이길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민족사와 함께 영겁토록 빛날 것이며 민족사를 찬란하게 장식하리라고 믿는다. 위대한 민족적 거성과 영결하려 함에 무엇으로 애도의 뜻을 표할지 모르겠다. 선생이 서거하신 그 익조(翌朝) 대통령 이승만 박사 부처가 계동 자택으로 조문하신 바와 같이 전 국민은 그의 장서를 총심으로 슬퍼하는 바이며 다만 선생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쌓아올렸던 민주적 애족정신의 유덕에 위배됨이 없도록 이 거래의 통일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맹세하면서 선생의 유업을 흠모하는 동시에 선생의 영원한 명복을 빌면서 붓을 짓는다.

136) 서울신문 1955년 2월 22일자 사설,

‘인촌 김성수 선생의 서거를 애도함’

지난 18일 갑자기 인촌 김성수 선생의 서거가 전해졌다. 때는 바야흐로 새봄이 가까워지려는데 65세의 활동할 시기를 등지고 아깝게도 가버린 선생을 온 국민은 가슴깊이 애도하는 정회(情懷)에 잠기었다. 민족의 지도자의 한 사람을 잃었다는 비보가 가랑비 내리는 이 강산에 한번 전해지자李大통령 부처를 비롯하여 이미 고인으로 고요히 잠자는 계동장(桂洞莊)으로 조객의 발길은 그칠 사이가 없다.李大통령은 온 국민을 대표하여 고 인촌선생의 서거를 애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인촌 선생이 일정 하에서 교육 언론 사업 등의 각 방면에서 일본의 침략 정치에 항쟁을 꾀하였고 해방 후에는 정치에 나서서李大통령의 애국주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어李大통령을 지지한데 관하여 칭찬을 한 다음에 다만 중간에 와서 길이 갈려진 것을 섭섭히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자유당에서는 지난 19일에 인촌선생의 서거를 충심으로 애도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여, 선생을 ‘민족의 선각자이며 애국자’라고 높이었다. 또 그날 卞외무부장관도 조의를 표명하여 인촌 선생을 ‘정치가로서보다 교육가, 자선 사업가로서의 공적’을 칭찬하였다. 이것은 고 인촌 선생에 관한 한국 민족이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찬사인 동시에 또 그것은 고 인촌 선생으로서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온 국민의 애도의 간절한 가슴과 찬사의 자자한 선율이 서로 교착(交錯)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정부에서는 각의에서 고 인촌 선생의 장의를 광영의 국민장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선생의 생전의 공적에 대하여 온 국민이 마음속에서 보내드리는 꽃다발이라고 할 것이다. 선생은 온 국민들이 보내드린 찬란한 꽃다발에 묻히어 오는 24일에는 영결식을 마치고 생전부터 택한 고려대학교 뒷산에 고요히 묻히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대의 아들이다. 그러나 파란 많은 최근 50년의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한국적인 사회적, 역사적인 조건 밑에 뚜렷하게 서 있는 인간상을 찾을 적에 서슴지 않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의 하나가 곧 인촌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인촌 선생의 남긴 업적은 누구나 다 보아왔고 누구나 다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 및 공간적인 면에서 오는 존재적인 구속 밑에서 최대한의 주체성을 고집하였고 또 그것을 살려온 사람으로 인촌 선생에 앞설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선생이 종생(終生)의 업적으로 내어걸었던 것은 학교, 신문사, 사업 그리고 정치의 네 가지 부문이었고 그 네 가지의 부문에서 모조리 충전(充全)한 성공을 본 것도 선생의 풍부한 지도성과 다각적인 역량을 알 수 있게 한다. 교육부문의 활동은 그야말로 일정에 항쟁하는 기반공작을 구축한 것이며, 신문사의 부문은 일정과의 항쟁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업의 부문에 있어서는 민족자본의 육성을 위한 활동이었다. 이것은 해방 뒤에 오는 정치상의 활동의 분야와 합쳐서 네 가지의 활동부문을 떠받들어 주는 가장 기간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제하에 있어서 한국의 근대화는 외적의 지배 하에 있었을지언정 여전히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자본의 형성은 자본주의의 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민족을 살리기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꾀하였던 것이다. 국산품의 애용, 지방애(地方愛)의 발로 같은 것은 결국은 민족애의 근거를 관통하는 길이 아닐 수 없다. 담배 한 갑이라도 고향의 가게에서 사 준다는 것이 곧 그 때의 민족자본의 윤리였다. 또 그것은 일정과의 합법적인 싸움의 발판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각적으로 구성된 인촌 선생의 눈부신 활동의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항일, 애족의 굳은 신념으로 투철 되

지 않은 부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수의 일정이 패망하고 물러간 뒤의 한국의 사회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李大통령의 애국주의를 누구보다 강하게 지지하고 직접 보좌의 위치에 나섰던 선생이李大통령과 그 방향을 달리하게 된 것도 또한 한국사회의 근저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천에 그 연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까. 이제 인촌 선생의 업적 위에 그것을 계승하는 우리 민족의 내일의 전망 속에는 오직 정치면에 있어서의 선생의 정의심과 공심(公心)을 받들어 일치 합심하여 난국에 처할 생각을 더욱 굳게 가져야 할 것이다. 언제나 말하는 평범한 말이지만 고(故) 선생의 명복을 길이 비는 동시에 선생이 몸소 이룬 학원의 민주화, 언론의 창달, 자립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다 같이 힘쓰자.

137) 전남일보 1955년 2월 22일자 사설, ‘인촌 선생의 영면을 弔함’

인촌 김성수 선생은 18일 오후 5시25분 홀연히 영겁의 길을 떠났다. 찾아든 봄을 등지고 험악한 국보민운(國步民運)과 구곤적피(久困積疲)한 민생을 등진 것이다. 인촌 선생은 세인이 주지하는바와 같이 전라도 고창군 호농의 출신으로 남달리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분이다. 그러나 선생은 스스로 안일한 생활을 일척(一擲)하고 일제에 항거하는 형극의 길을 택하였다. 4247년 조도전대학 정경학부를 나와 사회에 들어선 선생은 바로 그 익년인 48년 서울 중앙고보의 경영을 맡아 인재육성에 경력(傾力)하였고 그 후 보성전문을 인계받아 수많은 수재를 배출시켰다. 동아일보사를 창설하여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러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과감히 항쟁하였고 해방 이후로는 미군정 고문회의장, 한민당 위원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회장, 민국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반공 민주 건국에 정신(挺身)하였다. 83년에는 한국 제2대 부통령에 취임하여 국운의 신장과 민생의 개혁을 위하여李大통령을 보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선생의 역정을 살펴볼 때 새삼스러이 선생의 고매한 인격 겸비한 지덕과 그리고 불타는 민족정신을 더욱 강렬하게 감득(感得)하거니와 인간의 일생이 어디 그렇게 고결과 정의와 투쟁으로써 엮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선생은 영원히 잠들고 선생의 유업을 그리고 유덕을 추앙하는 겨레의 곡성만이 높다. 이미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장의(國民葬儀)가 결정되어 국내 저명인사 수백 명의 장의위원이 선정되고 서울 계동 호상소(護喪所)에는李大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조문객이 답지하여 고인의 명복을 받고 있다. ‘훌륭한 지도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슬프다’...李大통령의 조사다.李大통령의 애도와 같이 실로 위대한 지도자를 상실한 국민의 슬픔은 가슴에 눈물이 고이게 한다. 국운이 어지럽고 민생이 답답하니 선생을 구만리 장천의 저 멀리, 영겁의 세계로 보내야 하는 국민의 비애는 한결 더 깊은 것이다. 그러나 본디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역사는 무한한 것이다. 그러니 속세에 남은 우리는 선생이 엮어 놓은 위대한 역사 속에서 선생을 다시 찾는 것으로써 자위로 할까? 인생을 일컬어 무상산(無常山)이라고 했고, 꿈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무상의 인생, 꿈의 인생이라는 운명론에 의지하여 자안(自安)으로나 할까? 인생의 생사가 한 조각 뜬 구름이요 한 조각 뜬 구름이 꺼지는 것이라고 했거니 왔다가는 인생을 슬퍼하는 것은 오히려 부질없는 일인가? 그러나 그게 다 자위가 되는 것도 아니요 자안(自安)도 되지를 아니한다. 선생을 잃어버린 겨레의 마음은 부질없는 것이건 말건 슬프기만 하고나. 선생의 장의식(葬儀式)은 24일이다. 24일 후이면 선생과는 영영 작별이다. 선생을 작별하는데 있어서 국민장

의(國民葬儀)로 모시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요 떳떳한 일이나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선생을 안식의 터전으로 모시려는 장의위원이 거족적으로 나선 수백 명의 저명인사들이니 또한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더욱이 거기에는 선생이 투신하였던 정계와 언론계와 교육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여야의 판가름도 없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서글픔을 느낀다. 그것은 어찌 선생의 생전에 이렇듯 여야와 각계가 단합되고 호응할 수 없었던가에 상도(想到)하기 때문이다. 선생의 영전에 여야의 가림 없이 무릎 꿇고 안식처로 모시려는데 여야가 다 호응 단합하고 있는 이 시간의 아름다운 사실을 유명을 달리한 선생이 어찌 그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실상 정치적인 편견을 버릴진대 선생을 추앙하는 마음은 선생의 생전이나 영전에 나가 다 다를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생을 잃고 영전에서 흐느끼는 국민의 심정을 영구히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어지러운 국보적피(國步積疲)의 민생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의 단결이 요청되는 이 때 선생의 장서가 국민의 단결을 이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선생도 안도의 눈을 감을 것이다. 여기 거래의 합장으로써 선생의 유업을 예찬하고 여기 민족의 꽃다발로써 선생의 가시는 길을 장식하느니 부디 명복하소서...

138) 민주신보 1955년 2월 23일자 사설, ‘弔 김성수 선생’

민족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아 온 인촌 김성수 선생은 18일 하오 5시 서울 계동 자택에서 지병인 위궤양으로 향년 65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인촌 선생의 비보가 전해지자 계동장(桂洞莊)에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사업 등 각계의 많은 조위객(弔慰客)들이 줄을 이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李大통령 부처께서는 19일 상오 10시 계동 고인의 자택을 방문 하시고 고인의 영전에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李大통령은 특히 상주에게 우리 민족에 끼친 고인의 공적을 찬양한 후 ‘이후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따뜻한 말씀을 하였다한다. 선생은 진실로 최후의 일각까지 우국애족의 단충(丹忠)에 철두철미하였다. 생각하면 육순유오(六旬有五) 선생의 다채로운 생애는 오직 조국광복을 위하여 깨끗하게 바쳐졌던 것이니 단기 4224년 전북 고창 땅에 출생하여 일본 조대(早大) 정경학부를 마친 후 약관의 몸으로 귀국하신 이후는 교육사업에 경제계에 그리고 언론계에 민족운동 최선봉적 지도자로서 인재를 육성하고 민족의 경제기반을 닦고 민족 언론을 개척하여 분골쇄신하였고 혹은 해외의 망명동지들과 손을 잡아가며 포악한 일제 압정에서 민족을 지켜내려고 동분서주 좌불안석하여 일신의 안위를 돌볼 겨를이 없었으며 끝까지 그 지조를 굽히지 않았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또 선생의 인격은 항상 관후겸양(寬厚謙讓) 하였으며 고결하였으며 애지중지 민족을 사랑하시던 진실 일본(本)의 단충(丹忠)은 선생이 떠나간 후에라도 길이 이 민족 이 나라 사표로서 만인의 가슴속에 길이 흠모 될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가고 말았으니 이젠 다시 선생의 면영(面影)을 대할 길이 없으며 비록 조국은 광복 되었을지라도 아직도 국토는 남북으로 갈리운 채로 민족통일 과업은 그 어느 때나 이루어지려는지 모를 이 때에 통일을 못보고 떠난 선생의 애끓는 정지(情地)인들 오직이나 슬펐을 것인가. 바야흐로 시간은 다기다난(多岐多難)한 이때에 선생 같은 지도자의 한 분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의 슬픔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충심으로 조의를 드리며 선생의 명복을 빌 따름이다.

139) 조선일보 1955년 2월 24일자 사설,

‘인촌 김성수 선생의 국민장’

인촌 김성수 선생 국민장이 24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다. 선생의 혼백이 타계로 가신지는 벌써 일주일이나 되나, 선생의 유해만은 아직도 사바(娑婆)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 영결식을 거행함으로써 선생의 유해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선생의 부음을 듣고 경달(驚?)하던 그때에 배승(倍勝)한 애절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날을 당하여 선생의 업적이 무엇이며 선생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 보답한바 무엇이 있던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오늘 국민장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이 넉넉히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선생의 평생사업 중에서 우리가 찬양하여 마지않은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사업을 선생이 꾸준히 하여 왔고, 우리 민족에게 없지 못할 언론기관을 창설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일정시대부터 경영하여 왔는데 그 곤란과 고심이 여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일에 비록 마음만으로는 선생에게 경의를 표하였을지 몰라도 이에 대한 유형적 보답을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일제하에서는 정치적 환경이 이를 허치 않았던 관계이고, 해방 후에는 혼란한 사회 사정이 이를 거를치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해방 후 선생이 정치계에 투족(投足)하였던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고 4285년 부통령에 추대되어 수개월간 재직하였던 것은 더욱이 기억에 새로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선생이 정계에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은 선생을 위하여 다행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선생은 성심으로 민족을 사랑하였고 진실로 국사를 근심하였지만 그 실(實) 혁명가가 아니었고 정치가도 아니었던 것이다. 선생은 교육가요 사회사업가요 정계에 뒷받침을 한 분이다. 선생이 교육과 문화에 남긴 거대한 업적은 금일에 찬연할 뿐 아니라 금후 영구히 계승될 것을 생각할 때 선생을 추앙하는 마음이 자생(自生)치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여 선생의 재세(在世)시에 이 사실을 더 잘 인식하려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유명을 달리한 오늘에 더욱 간절한 바 있다. 세태는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고 풍조와 기세에 휩쓸리기 쉽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바다. 선생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였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선생의 유업을 어떻게 잘 계승하느냐에 있다. 선생과 영결하는 이 마당에 이 결의가 표명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치적인 편견으로 선생을 잘못 해석한 점이 있었다면 이 역시 이 마당에서 뉘우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선생은 여기서 비로소 안심하고 명목(瞑目)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선생의 영결을 고하오니 선생은 길이 명복을 누리소서.

140) 대구매일신문 1955년 2월 24일자 사설,

‘故 인촌 선생을 애도함’

조국 통일의 민족적 흥업을 앞에 두고 혼돈한 현실 속에서 헤매는 한국민은 또 위대한 한 분의 선도자를 잃은 비운에 조우하였다. 국제 정정이 난마처럼 얽히어 국민의 나아갈 길이 암흑에 달리고 현실의 탁류가 굽이쳐 조국의 난경(難境)과 민족의 수난이 거듭할 때마다 선열을 추모함이 가슴에 사무쳐 애절한 이 국민으로부터 심술곳은 운명은 또다시 인촌 김성수

선생을 빼앗음으로써 국민을 어두운 시련의 와중에 던지어 비통에 잠기게 한다. 가혹한 압박과 교묘한 유혹으로써 민족적 의기를 꺾고 양심을 빼앗아 이 민족을 항구적 노예상태에 두기를 치정(治定)의 제일의(第一義)로 삼던 왜정 하에 있어서 선생이 타고난 부귀와 재질(才質)은 그들의 독수(毒手)에 의하여 역용(逆用)됨이 상례였겠거늘 약관 일본의 유학에서 귀국한 선생은 허물어진 조국과 짓밟힌 민족에 광명과 자유를 찾아 주기 위하여 백년의 대계를 깊이 흥중에 간직하고 육영사업과 산업 흥기의 대업을 개시(開始)하는 한편에 침잠한 민족혼을 환기하며 울분한 민족의 심정을 토로하고 정의와 진리의 소재를 밝히어 일제의 양심을 찌르고자 언론사업을 창시하여 붓으로써 그 총검과 맞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 하였었다. 이렇게 하여 건설과 투쟁으로 조국광복의 길을 닦되 해외의 독립열사들과 맥락을 긴밀히 하였으니 그 흥도(鴻圖)의 원대함에도 치밀한 조직성이 기저가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는 고도의 지식에 의하여 세련된 인격으로서 열화 같은 조국적 감정을 감추어 있지 않고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선생이 몽매속에서도 대망하고 그 신념을 통하여 예견한 해방이 움에 국가재건의 방도와 민족 만년의 생도(生道)를 민주주의의 진체(眞諦)속에 발견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을 조직하여 공산주의에 과감한 길항(拮抗)을 개시하고 혼미하는 민족의 앞에 만년의 도표를 내세웠다. 그리하여 탁치를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배격하여 공산주의와 함께 소위 중립파와도 타협을 거부하고 감투한 나머지는 하지 군정의 좌우합작에도 반기(反旗)를 높였던바 오늘의 민국의 노선이 선생의 일관한 신념과 전연히 궤를 동일히 하였으니 그 고원하고 심수(深邃)한 식견에는 경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생은 풍부한 지식과 유족(裕足)한 환경을 가졌으며 개인의 호사와 영달은 꿈꾸지도 않았으니 그 지식은 방가(邦家)와 민족을 위하여 쓰여졌고 그 유풍(裕豐)한 환경은 남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니 그 고매하고 겸허한 달덕(達德)은 무위이화(無爲而化)의 묘경(妙境)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모략과 중상이 정객의 상도(常道)처럼 되어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언감(焉敢)히 선생을 비방하는 자 없을뿐더러 고 이시영 부통령 후임으로 굳이 사양하시는 선생을 여야의 정객이 한마음으로 모셨으니 선생의 덕망은 정치적 도의의 상징이기도 하려니와 일세의 사표로서 길이 송양하기에 족하며 더구나 부통령 재임 시에 야기된 혼탁한 정파를 염기(厭忌)하여 추상열일(秋霜烈日)의 사표와 함께 그 영직(榮職)을 호말(毫末)의 애착도 없이 던진 초탈한 태도는 길이 이도(吏道)의 기강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한 교본이 될 것이다. 3년 유여를 병욕(病褥)에 계신 선생으로서 그 임중에 제(際)하여는 가사와 개인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유연도 없이 오직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시면서 종용(從容)히 왕생하셨다 하니 선생은 진정한 애국자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이제 국제의 정정은 더욱 착종(錯綜)하여 가고 현실은 부패를 더하여 방가(邦家)의 난국이 꼭이 선생의 재기를 기다리는 때에 선생은 길이 가시니 국민은 슬프고 안타깝고 원통한 심사로 창자가 끊어지듯 하다.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땅바닥을 두들기며 아뢰어도 유달리 인자하신 선생이 왜 대답이 없으신가. 오늘 선생의 뒤를 따르는 장안의 인해 속에서 애끓은 만가(輓歌)가 구슬프고 목메어 울부짖는 소리, 천지를 흔들거늘 선생은 왜 이 겨레를 버리고 길이 가시는가. 비록 유명을 달리 할지라도 유서 깊은 고대의 뒷산 영대(靈臺)에서 고요히 잠드신 선생의 명복을 흐느끼며 비는 심사 더욱 애절하다.

141) 대전일보 1955년 2월 24일자 사설,

‘인촌 선생의 국민장에 際하여’

(1) 오늘은 고 인촌 김성수 선생의 국민장의(國民葬儀)일이다. 내외로 국난의 도(度)가 심중할뿐 아니라 지도자의 빈곤이 오늘과 같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때 다시없는 만큼 선생을 영결하는 우리 국민, 심정은 어둡고 아프고 쓰라림을 금할 길이 없는 바이다. 65세를 일기로 한 선생의 생애가 오직 민족정기의 발양으로써 일관하였으며 선생의 유풍(遺風)이 그윽하게 이 땅에 유향(遺香)을 풍기고 있음을 누구하나 모를 사람이 있으리오만은 선생을 영결하는 오늘 이 마당에 선생을 추모하는 절절한 마음 더욱 새로웁기 비할 데 없는 것이다. 근역을 짓밟은 일제의 폭정에 항거함에 있어 선생은 먼저 인재 배양에 착안하시어 남다른 생각으로 중앙고보를 비롯하여 보성전문학교의 경영에 정혼(精魂)을 기우리시어 이 나라의 동량을 수 많이 배출하셨고 감박거리는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 앞날의 희망을 부쳐주시기에 얼마나 심혈을 경주하셨던가? 이렇듯 선생께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가로서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 불멸의 위치를 쌓아올렸던 것이었다.

(2) 그러나 일제와의 투쟁은 저들에 대한 정면 투쟁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견한 선생께서는 또다시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으로써 일제에 대한 강인한 실력의 축적을 꾀하였던 것이니 선생은 경성방직회사를 창설함으로써 민족 산업 육성에 솔선 시범하는 동시에 근대적 시설을 갖추어 우리 민족에게도 이만한 역량과 경륜이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였던 것이다. 어찌 그뿐이었으랴 선생은 진일보하여 교육과 경제와 아울러 일제와 투쟁하는 최대의 무기로서 언론기관이 있어야 할 것을 통감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창간된 동업 동아일보가 일제의 갖은 탄압에도 백절불굴하면서 과감하게도 저들의 식민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형극의 길을 걸어오던 2천만 동포의 울분을 대변해 주었던 것은 우리 민족운동사에 찬란하게 장식하는 한 페이지이거니와 이 웅혼한 설계가 모두 다 선생의 흥금에서 마련된 것을 회상할 때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또 한번 웃음을 여미면서 추앙치 아니치 못하는 것이다.

(3) 기미 3·1운동 이후, 격동에 격동이 쉴 새 없이 연속되던 난국에 서서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택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할 수 있는 온갖 부면(部面)을 통해서 의연하게 우리 민족의 앞장을 서서 걸어오셨고 초지일관, 여하한 유혹에도 원눈하나 깜짝이지 아니하신 위대한 선생의 족적은 해방 후에도 초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셨으니 전통적인 민주적 세력을 규합하여 한국민주당 창립에 진력하셨고 한결같이 반공, 반탁의 기치를 높이 들어 어지러운 정국에 뚜렷한 지표를 밝히셨으며 정부가 수립된 후, 제2대 부통령으로서 국정의 혼란을 광정하려는 일념에 불타셨던 것은 우리가 이미 열지(熱知)하는 사실이다. 이래, 병석에 누으신 지 3년 유여(有餘), 자신의 병고를 제쳐놓고 국가의 장래를 근심하시다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고매한 인격과 우국지사로서의 위대한 자취는 선생이 비록 오늘 구원(久遠)한 길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속 깊이 사무쳐 있어 선생의 유풍(遺風)을 본받아서 민족 비원인 조국통일의 성업 완수에 쇄신분골할 것을 뼈에 새겨 맹서할지니 우리는 오늘 위대한 선생의 명복을 위하여 정성을 기우려 합장하는 바이다.

142) 자유민보 1955년 2월 24일자 사설,

‘弔, 故 김성수 선생의 靈’

인촌 김성수 선생은 3년여의 병석에서 백약이 무효로 드디어 지난 18일 서거하였다. 인촌 선생의 장서(長逝)에 대하여李大통령의 통곡사를 비롯하여 민족 전체의 각계각층에서 애도에서 우려 또한 애통사가 헤아릴 수 없었거니와 고인의 영이 영원히 떠나 황천으로 가시는 오늘에 임하여 우리는 전 민족 애곡의 정과 선생의 영이 안민하심을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는 바이다. 인촌 선생이 경술국치 후의 조국 회복을 위하여 항일 독립투쟁에 물심전체(物心全體)적 희생을 다한 것은 국외에서 항일투쟁으로 신명을 받치신 순국선열보다 국내에서 일제 악정에 시달려가면서 전 재산을 경주하여 경제 문화 사회의 각 방면으로 조국 건설에 위대한 공헌을 세운 것은 청사에 영원히 빛나는 바이니 중앙학교 고려대학 경성방직 동아일보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방 후에는 민주 대한 수립을 위하여 한민당을 조직하였으며 부통령으로서 전심전력으로 민국의 육성발전에 노력한 것이 현 민국 지도자에 류(類)를 볼 수 없는 것은 국민이 공경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평생을 애국애족 일념으로 사리사욕은 추호도 없으며 항상 겸손과 희생 봉사적 위대한 지도자였다. 더욱 해방 후의 혼란한 가운데 있어 선생은 자아를 버리고 국외에서 조국 독립의 지도자인 이승만 박사를 신국가의 영도자로서 진심 전력하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가 올바른 발전을 기하지 못하는 데에 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 선생은 부통령의 직에서 용감히 사퇴하였으니 범인으로서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바였다. 선생은 위인이 온후하며 인자하여 동포를 대할 때에 부형 자질과 같은 친절과 애호를 마지않았다. 선생은 우리 역사가 낳은 모든 지도자 가운데에서 투쟁과 동시에 건설을 겸하시어 독립투사며 위대한 지도자며 교육가 경제가 언론가 정치가를 겸전한 위인인 것이다. 영웅과 호걸은 한편으로 적과 파당을 가지며 야심과 허영에 사무쳐 있지만 선생은 전 민족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며 적이 없다는 것은 선생의 부음이 한번 전하여지자 전 민족 각계각층은 물론이요 그 정당의 적인 여당 자유당에까지 애통을 금치 못함을 보았으니 선생의 애국애족 정성과 위대한 건설적인 지도력과 동시에 인격의 초월함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국가는 미증유의 국난에서 전도 막연한 이때에 더욱 진정한 애국적 지도자와 사심 없는 민주 정치가를 갈망함이 지대하거늘 그게 유일한 인촌 김성수 선생마저 서거하였으니 민족의 통곡이 마지 못하는 바이다.李大통령이 인촌 선생을 잃고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통곡하였음이 전 민족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민족 사정이 여전히 혼란 위급함을 보신 채 명목하였으니 유감이 없지 못할 것이다. 선생을 잃은 민족은 모두 인연(忍然) 각오하여 애국애족 일념으로서 대동 일치하여 진정한 민주정치를 확립함으로서 조국통일과 재건부흥을 선생의 유지에 따라 어그러지지 않게 단연 성취할 것을 맹세하오니 선생의 영(靈)은 안심하시고 명목하시며 영원히 민족을 보호하여 주심을 비는 바이다.

143) 경제일보 1955년 2월 25일자 사설,

‘故 인촌 선생의 경영정신을 模範하자’

고인이 되신 인촌 김성수 선생의 국민장은 24일 서울운동장에서 영결식을 마지막으로 국민의 경건한 슬픔을 놓은 가운데 끝났다. 향년 65세…장성(長成)된 현대 의학에서 볼 때 장수하신 것도 아니며 바야흐로 인간으로서 단연(丹然)한 경지에 있었을 지도자 한분을 잃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애도는 그쳤으나 이미 운명의 손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한 지금 다만 ‘한사람의 죽음’에 있어 표백(表白)될 수 있는 슬픔의 ‘내용 절차’가 최대 급(級)으로 갖추어진 것으로써 고인도 못내 만족하실 줄 믿는다. 전 부통령이라는 관직 그것보다는 민족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가혹하였던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육성사업으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언론기관을 설립 운영하여 민족의 ‘소리’를 내외에 외쳤으며 민족 산업을 진흥시켰다는 공로에 대하여 민족의 흠모와 이제 또한 민족적 애도를 받게 된 것이리라. 우리는 고인의 업적을 찬양하는데 있어 그의 애인(愛人)과 시대가 어떻게 한사람의 민족지도자를 낳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생각 않을 수 없다. 일제의 국권 강침(強侵) 밑에 광복을 위하여 해내외로 직접 항쟁활동을 하신 애국지사에게 대하여는 잠깐 두기로 하고 국내에서 민족과 더불어 고난을 겪은 애국인사 역시 헤아릴 수없이 많았거늘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빛나는 존재가 되신 인촌 선생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여기 반성의 소재가 있을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인촌 선생은 비옥한 전복 농사의 과반을 장악하였던 토착 부호의 집에서 생을 타시었다. 공상을 모르는 소년시절을 지내시었으며 장성하여 도일(渡日) 유학하는 동안 물질생활에 있어 소족(小足)을 느끼신 것도 아닌 말하자면 순리(順理)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신 것이다. 그가 범인이었다라면 가위(家威) 덕분에 호사방탕하는 향락 속에서 청춘을 즐겼으며 장년이 될 무렵 하여서는 대부분의 토착 부류조와지의 후손들이 그러하듯 다시 가산을 늘리는데 총실하였을 것이며 그것은 소작농으로부터의 취탈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범인인 위에 조금 인자(仁慈)하였던들 향리에 학교나 설립 기부하는 정도로 그쳤을 런지도 모른다. 백이면 구십구까지가 걷는 정상 코스를 택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첫째 선생이 범상치 않음을 볼 수 있다. 유학 여창(旅窓)에 비치운 신흥 일본을 보았을 것이며 문명 전진하는 세계의 흐름을 맛보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낙후된 조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기개를 품은 자 오직 인촌 선생 혼자였겠는가만도 선생은 바로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경제적인 배경을 가졌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한쪽에서는 ‘사음(舍音)’으로 하여금 수탈을 독려하는 지주가 있을 때 선생은 농민에게 발생한 부를 민족을 위하여 환원 투자할 줄 알았던 것이다. 범상한 것 같으면서 이것을 능히 한데 선생의 현덕(賢德)을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돈’의 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 약탈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자본을 비호할 줄 알았으며 선생이 바로 일제의 가혹한 압박 밑에서도 ‘존재’ 하실 수 있었던 기반이 여기 있으며 그러고서도 일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데 선생의 지조를 느낄 수 있다. 수지채산과는 연(緣)이 먼 육성사업이나 언론기관 운영을 한쪽으로 하시면서 방적업을 민족자본에 의하여 투자건설 하였다는 것, 여기서 탁월한 ‘경영자’로서의 착안을 모범(模範)할 수 있다. 방치하여 둔다면 일제 자본에 병탄 침식될 것이 뻔하며 투자하면 이윤을 올릴 수 있다는 이중적인 의의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뜻이다. 한쪽에서는 돈을 벌고 한쪽으로는 민족의 복리에 합당하는 부문에 투자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큰 ‘기업가’로서의 수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선생은 이같이 시리(時利)와 지

리(地利)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줄 알았을 따름이다. 그것이 선생이 훌륭하시다는 점에 조금도 가치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농민이나 방적 여공(女工)으로부터 모은 부(富)가 민족을 위하여 뜻있게 쓰여 졌다는데 대하여서는 추호의 이론(異論)도 없으나 그것이 대부분의 농민이나 방적공 보다는 딴 계층의 ‘우리’가 몽리(蒙利)하였다는데 선생의 공로의 한계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선생이 남긴 업적이 어떤 경향(傾向)된 주관론자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생은 이미 가시였다. 그 어려운 일제하에서 지향(指向)을 가르켜 주시던 선생의 능력이 지금이라고 무질 리 없으며 민족 비원인 남북통일을 채 못 보시고 님을 잃은 슬픔은 비길 데 없다. 다만 ‘고인예찬(故人禮讚)’의 그것에만 그치고 순결하여야 할 묘비를 ‘팔아먹는 자(者)’ 없도록 스스로 일러 둘 따름이다.

144) 조선일보 1955년 2월 26일자, ‘인촌 선생을 추모’ (洪曉民)

선생이 가시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선생이 이 겨레와 이 나라를 뒤로하고 가시단 말이 참말입니까? 선생은 명현 김하서 선생의 방예(芳裔)로 선생이 재세(在世)할 때 선생을 존경하고 앙모하기 우리들 후배들은 모두 다 지도자로 받들어 뵈시었던 것이었고 일점의 사심이 없으셨습니다. 선생을 뵈옵기는 화동의 동아일보 시대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압 밑에도 오직 국내의 지주(支柱)는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선생의 화온자안(和穩慈顏)을 뵈올 때마다 우리들 후배는 언제나 느긋함을 느끼었던 것입니다. 선생의 사업은 계산(桂山)의 막바지에 중앙학교가 흘립(屹立)하고 황토현에 동아일보의 깃발이 휘날리고 안암동의 그윽한 자리에 고려대학의 교사가 용립(聳立)할 때에 이 겨레 이 나라의 만백성이 우러러 뵈옵는 것이 표면에 나타난 것이라면 삼천만 겨레의 심장을 통하여 흘러가는 경앙의 마음은 깊었던 것입니다. 선생을 위하여 팔십, 구십의 향수(享壽)는 누구나 빌었던 온화하심 그 관대하심은 기필(期必)치 않고 팔십, 구십의 장수는 누리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육십유오세(六十有五歲)에 장서(長逝)하실 줄이야. 누가 뜻하였겠습니까. 우리들 후배들은 또 한분의 우러러 뵈옵는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가졌습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이 슬픔은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은 가시지 않았습니까. 선생이 남겨놓은 그 많은 문화사업과 준총 같은 자녀와 훈도를 받은 수만의 학도가 선생의 뒤를 이을 결심을 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가시었으되 가시지 않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겨레 이 나라의 국민이 모두 다 선생의 일생을 경모 아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께서 이 겨레 이 나라의 경모를 이렇게 받으시니 이 진세(塵世)를 떠나시어도 그 보람이 계시웁니다. 이 나라의 삼천만이 모두 선생만 같을진대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에 관절(冠絶)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하치않은 물질과 하치않은 아집으로 인하여 선생의 뜻하신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과 사업에 사는 사람이 이 나라에는 아직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선생은 일생을 사상과 사업에 종시(終始)하신 위대한 사표이십니다. 누구나 선생의 앞에서 일하지 못함은 모두 다 한(恨)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앞에서 잠시라도 일하게 되었던 사람은 모두 다 다시금 추모의 념을 금할 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다 중앙학교나 동아일보나 고려대학을 지날 때마다 선생의 미덕을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돌아가시매 그 제자들이 더 추모함이 깊었고 석가가 돌아가시매 그 제자들이 더 추모함이 깊듯이 선생이 돌아가시매 한번이라도 더 그 성해(聲咳)를 더 접해 보지 못함을 누구나 한(恨)하게 되어 있

습니다. 선생은 결코 영웅은 아니십니다. 선생은 이 겨레 아 나라의 위대한 사표(師表)이십니다. 이 겨레 이 나라의 백성들은 영웅보다도 위대한 사표를 항상 되시고자 원합니다. 선생이 가시매 너무나 허전합니다. 이 허전함을 메꿀 길이 바이 없습니다. 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선생이 계실 때에는 이 겨레 이 나라의 사표가 한 모퉁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이 가시니 이 나라에는 다시금 이런 사표가 계신가하고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나시어 고생만 하시고 가시는 일 생각하면 필설로 이를 다 위로해 드릴 무엇이 없습니다. 다시금 선생을 받들고 추모하옵는 길은 선생의 사상과 사업을 이어 가는 길이 있을 따름입니다. 선생이 돌아가실 때에도 이 겨레 이 나라의 만년대계를 근심하시고 조국통일을 빌어서 마지않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도시(都是)가 애국이요 애족인 것을 다시금 감읍해 마지않습니다. 시인이 올리는 조가와 학도가 뿌리는 눈물은 오늘의 울음이 아니며 이 해의 울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시는 위대한 사표에게 드리는 조가이오며 눈물이옵니다. 선생을 위하여 선생이 영원히 가시는 날 이런 무사(蕪辭)의 글이나마 올리니 후배의 마음이 저욕히 풀리옵니다. 선생이시어! 이 겨레 이 나라의 인촌 선생을 추모하는 삼천만이 있을 때 선생은 지하에서 미소하실 것입니다. 선생의 명복은 이 겨레 이 나라에 영원히 빛나실 것입니다. 선생이 가시는 날 눈물을 머금고 감히 이 글을 올리어 선생이 재세(在世) 하실 때 귀염 받던 만분의 일이라도 표하나이다. 合掌拜禮.

145) 김창숙(金昌淑)

가시어야 알았던가, 가신 뒤에야 느꼈도다,
선생의 높으신 뜻 인제서야 안단 말이.

146) 이범석(李範奭)

언제다시 만나오리, 따뜻한 先生 얼굴, 애달파라,
머나먼 길 어이 홀로 가시나이까.

147) 지칭천(池青天)

누가 안가리만, 선생 가시는 길, 더욱 슬프다.

148) 곽상훈(郭尙勳)

嗚呼天奪我仁村，救國一辭寄永眠，
香滅靈前萬姓哭，心懷俱咽不成篇

149) 흥사단(興士團)

은 세상이 거짓으로 꾸였을 때 선생은 ‘참’을 지니셨으니
선생은 이 나라의 거울이시라.
은 우리가 빈말로 때울 적에 선생은 실천에 전념하셨으니
선생은 이 민족의 스승이시라.
서로가 저를 먼저 내세울 때에 선생은 뒤에서 힘이 되시니
선생은 우리들의 규범이시라.
서로가 제 일에만 바쁠 적에 선생은 먼저 거례를 생각하시니
선생은 만(萬)사람의 등불이시라.
누워서도 나라만을 근심하고 가실 제도 나라 일을 부탁하시니
선생은 따를 이의 채찍이시라.
오호라 없어 아니 될 바로 이때에 있어야 할 선생을 잃었으니
선생이여 맹서함을 받으소서.

150) 최남선, 哀 金仁村(性洙)

牛耳洞 지는 해와 井邑 鎭海 새는 밤에
四十年 하고 해도 끝을 보지 못하는 말
어데서 다시 이으리 그대 출적 가도다

나무에 물 올리는 단비거니 하였더니
내 설움 자아내는 근심 빌 줄 알았으리
님 가신 기별 듣는 날 구진비도 오거라

뜨거운 大精神을 내뿜으신 一篇論告
설념한 天下心胃 鎭靖안이 되었거늘
遽然히 遺言되기를 참는다고 하리요
(新生公論 1955년 6, 7월 함병호 44쪽)

151) 최현배, 인촌을 울음

아아, 슬프도다 인촌이 가시었다
두 쪽 난 나라 두고 인촌이 가시었다
그 길이 무상 길이기 임의 행차 바쁘가

역사의 한배나라 잃은 지 삼십육년

깊은 뜻 혼자 품고 이일 저일 차릴 적에
백설이 천지에 차되 추운 줄을 모르더라

말수는 극히 적고 실행은 많았도다
학교도 여럿이요 언론사업 다 차렸네
세상에 무언실행이란 우리임이 그 본일세

얼굴은 온화하고 가슴은 철석같다
모진 놈 총칼인들 꺾을 줄이 있으랴
옛말에 외유내강이란 그를 두고 이름 일다

나라를 사랑하여 온갖 것을 바치었고
사람을 한번 믿어 일생을 변함없다
참말로 지사 인인이 임이런가 하노라

덕이란 외롭잖아 이웃이 거기 있다
뜻이란 소리 없되 천하동지 모여 든다
임 계신 어진 마을에 꿈일 줄이 없어라

왜정의 모진 바람 낮밤으로 몰아치되
우리 임 계동 계셔 철의 기둥 버텼으며
삼천만 흰웃 겨레가 제길 찾아 가더라

광복된 한배나라 할 일이 하도한데
모든 것 다 버리고 인촌이 가시었다
눈감은 그 가슴 속이 오죽 답답하시리
천년을 기르기에 일생 심력 다 바치고
제 손으로 세운 학원 뒷동산에 유택 잡아
억만년 이 나라 일꾼 자라남을 보신다

152) 이희승(李熙昇)

어허 가시도다 인촌 선생 가시도다
이 땅에 태양이신 스승님이 가시도다
달 못 본 겨레와 함께 못내 설어합내다.

고하(古下)가 이러하고 설산(雪山)이 저러하고
백범(白凡)도 넘어지신 설레든 세상에서
考終命 누리신 것만 못내 기뻐합내다.

사람이 많다 하되 참사람이 그 누구요
욕심을 모르시고 명예도 마다시고
오랫한 애국심만이 뭉치신 줄 압내다.

도막난 이 강산이 이어짐을 못 보시고
쓸쓸히 가시는 맘 오작이나 애운하리
그애운 힘이 되어서 풀 날 올 줄 압내다.

진 해가 다시 돌아 갈수록 더욱 밝아
삼천만 마음속에 속속들이 비치실 제
나라에 새 빛 날 줄이 굳이 믿어집내다.

153) 조지훈(趙芝薰)

님의 뜻 한 평생을 겨레 위한 一片丹心
외사랑 긴긴 밤을 잠 못 이뤄 하시더니
감으려 못 감는 눈 오늘 어이 감으신가
가신 뒤사 깨달는 한 이 설움을 살피소서
어진 마음 따스 손길 길이 두고 못 잊어라
온 겨레 마음의 별 인촌 선생 그 이름이여

님의 뜻 남은 자취 일마다 泰山盤石
숨은 공 긴긴 세월 온 심혈 말리더니
감추려 못 감춘 德 갈수록 새로워라]
나라 근심 참된 정성 임을 모셔 배우리라
어진 마음 따스 손길 길이 두고 못 잊어라
온 겨레 마음의 별 인촌 선생 그 이름이여

154) 박두진(朴斗鎭)

그날
나랏일 얼크러져 어지럽던 날
당신의
그 높으신 뜻 크신 경륜
미처 다 못 펴신 채 훌훌하게 가시매
차마 모두
그대로는 못 떨치어 너무도 원통하여
산천도 흐느끼고 초목도 울었더니

당신도 울으시고 겨레들도 울었더니,
그날
겨레들 도탄 속에 갈 발 잃고 헤매던 날
당신의
그 어지신 맘 따신 사랑
미처 다 못 베푼 채 훌훌하게 떠나시매
차마 모두
그대로는 못 떨치어 너무도 원통하여
금수들도 흐느끼고 어오(魚鰲)들도 울었더니
당신도 울으시고 겨레들도 울었더니,

아 오늘,
어제런듯 벌써 흘러 그날부터 세 해 뚫
나랏일 오히려 갈수록 더 어지럽고
겨레들 도탄 속에 갈수록 더 참담하매,
당신의
그 못다 펴고 가신 큰 뜻 오늘따라 더 그립고
못 베푼고 가신 사랑 오늘따라 더 아쉬워
창천을 우러르며 우리 모두 흐느끼고
당신 앞에 머리 숙여 또 한번을 읊니다.
어지시고 부드럽긴 꽃 언덕의 봄바람
옳은 것을 드날리기 일월처럼 뚜렷하고
오직 한줄기 이 겨레가 바로 되고 행복하기
위해라면
청춘을 정열을 있는 것을 다 바쳐
넘어지며 일어서며 가시 길을 헤쳐 오신
아 당신의
오래 오래 기리워질 크신 생애 우러러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신 앞에 흐느낍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오늘의 우리보다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일생을 지켜봤을 당시 신문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역사를 왜곡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